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지리학박사학위논문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치유감 형성

-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의 상상 여행 실험을 사례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 향 기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치유감 형성

-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의 상상 여행 실험을 사례로 -

지도교수 이 정 만

이 논문을 지리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 향 기

박향기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신 혜 란 (인)

부위원장 김 용 창 (인)

위 원 손 정 렬 (인)

위 원 최 서 희 (인)

위 원 이 정 만 (인)

본 연구의 내용 일부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과 논문지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아래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Park, H., 2022, Can imaginary mobilities be conducive to mental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14, 115490.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자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인류의 이동이 극히 제한된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또는 신체적,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리학 부문은 건강지리학이다. 그동안 건강지리학은 물리적 모빌리티에 집중해왔기에 비물리적 상상의 영역에서 모빌리티와 치유 간 관계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앞에서 던진 핵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또한 기존 건강지리학에서의 공백을 메우고자, 상상 모빌리티를 새롭게 개념화하였다. 상상 모빌리티란, 적극적 상상으로 접근한 상상의 영역에서 지리적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상상 내 모빌리티,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이렇게 3가지 이동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상상 모빌리티의 한 유형으로서 상상 여행 실험을 설계하였고, 이를 치유가 필요하고 여행이 제한되어있는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 50명(실험군 n=25, 대조군 n=25)에게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상상 모빌리티가 치유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6가지 심리척도 자료를 사용해 양적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상상 모빌리티가 어떻게 치유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인터뷰, 글쓰기, 그림 자료를 통해 질적 분석하여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질적 분석은 상상 모빌리티에 수반되는 세 가지 모빌리티 유형인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상상 내 모빌리티,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가 각각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는 방식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상 모빌리티를 행하는 것은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상 모빌리티를 통해 치유를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상 모빌리티의 한 유형인 상상 여행 실험을 실험군과 대조군의 양적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상 여행을 실시한 실험군이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치유감 형성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단기적으로는(실험 직전-직후), 실험군의 주요 측정치 변화량(긍정, 부정,

기분상태)이 대조군의 주요 측정치 변화량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상상 여행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치유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실험 직전-2주 후-8주 후), 집단 내 비교에서 긍정 종속측정치에서만 효과를 보인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은 주요 종속측정치 변화량(긍정, 부정, 기분상태, 불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사전-2주 후 부정 종속측정치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드러내어, 상상 여행이 장기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즉, 장기적 측면에서는 상상 여행의 치유감 형성 효과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상상 모빌리티는 내면의 지리에 몰입, 탐험, 실천하게 도와줌으로써 치유감 형성 작용을 하였다. 여기에서, 내면의 지리란 사람의 마음속 형성된 지리를 의미하며, 개인의 갈망들이 표상화된 모빌리티적 요소들(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이 심겨있는 공간 형태를 띠고 있다.

상상 모빌리티 중 첫 번째 유형인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는 현실에서 내면의 지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아픔을 주던 제한된 현실을 일시적으로 단절시키고 제한이 없는 내면의 지리에 몰입할 수 있게 이끌어주어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는 현실의 걱정과 근심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작용이 있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인생의 여정을 그릴 수 있는 내면의 지리의 배경지를 셋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자유함과 안도감을 허락해주었다. 이는 이후 모빌리티 단계에서 치유적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상상 모빌리티 중 두 번째 유형인 상상 내 모빌리티는 내면의 지리 안에 모빌리티 궤적을 그리며 그 안에 심겨있었던 모빌리티적 요소(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를 발견 및 탐험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모빌리티적 요소는 각기 또는 상호 연결되어 그동안 몰랐던 개인의 갈망을 깨닫게 하여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였다. 내면의 지리라는 공간은 홀로는 치유감 형성에 작용할 순 없었으며, 상상 내 모빌리티가 내면의 지리 공간을 탐험해줌으로써 치유감 형성에 작용할 수 있었다.

상상 모빌리티 중 세 번째 유형인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는 제약이 없었던 내면의 지리에 그렸던 모빌리티 궤적을 제약된 현실의 지리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그려나가며 실천해나갈 때 치유적으로 작용하였다. 상상 여행 실험 종료 2주 후, 8주 후에도 치유감을 지속시킨 실험군 연구

참여자 8명은 상상 여행을 통해 기존 관점에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된 관점은 일상의 지리에서 상상 속 내면의 지리에서 경험했던 모빌리티적 요소(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를 실천할 때에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수정하도록 이끌었다. 이들은 제한된 현실 속에서도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를 재구성하여 실천해나감으로써 상상 여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유감을 얻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론이 물리적 모빌리티를 넘어 비물리적 모빌리티와 치유감 형성 관계를 이해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맡겨진 기초적인 상상력을 활용한 지리를 통해 이동이 극심히 제한된 상황 속에 처한 인류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치유의 끈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상상 모빌리티, 상상 여행, 치유감, 모빌리티, 적극적 상상,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

학 번: 2017-33085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 구성 ····· 5

제 2 장 문헌연구 및 연구틀 ····· 7
제 1 절 건강지리학에서 상상과 모빌리티의 소외화 ····· 7
1. 건강지리학에서 일상·관계·동적 전환 ····· 7
2. 건강지리학에서 모빌리티 연구: 상상의 소외화 ····· 15
3. 건강지리학에서 상상 연구: 모빌리티의 소외화 ····· 18
제 2 절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치유감 형성 연구틀 ····· 22
1. 치유감 ····· 22
2. 모빌리티 ····· 27
3. 적극적 상상 ····· 35
4. 상상 모빌리티 개념화: 상상으로의, 상상 내,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 40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방법 ····· 45
제 1 절 상상 모빌리티 중 상상 여행 실험 설계 ····· 45
1. 여행 모빌리티와 한 달간의 상상 여행 형식 선정 ····· 45
2. 적극적 상상에 기반한 상상 여행 방법 마련 ····· 46
3. 상상 여행(Imaginary Travels) 실험 프로그램 ····· 52
제 2 절 연구 대상: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 ····· 55
1.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 정의 ····· 55
2. 연구 대상 선정 배경 ····· 58
제 3 절 치유감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 66
1. 치유감의 조작적 정의 ····· 66
2. 치유감의 양적 측정 도구 ····· 69
3. 치유감의 질적 측정 도구 ····· 74
제 4 절 자료 수집 절차 ····· 75
1. 연구참여자 모집 ····· 75
2. 연구 조사의 절차 ····· 77

제 5 절 자료 분석 ····· **83**
1. 양적 분석 방법 ····· 83
2. 질적 분석 방법 및 분석틀 ····· 85

제 4 장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 **92**
제 1 절 실험군-대조군 사전동질성 ····· **93**
제 2 절 상상 여행 직전-직후 효과 ····· **94**
1. 집단 내 상상 여행 전후 차이 비교 ····· 94
2. 집단 간 상상 여행 전후 변화량 차이 비교 ····· 97
3. 상상 여행의 단기적 치유감 형성 효과 논의 ····· 101
제 3 절 상상 여행 직전-2주 후, 8주 후 효과 ····· **103**
1. 집단 내 직전-2주 후, 8주 후 차이 비교 ····· 103
2. 집단 간 직전-2주 후, 8주 후 변화량 차이 비교 ····· 108
3. 상상 여행의 장기적 치유감 형성 효과 논의 ····· 113

제 5 장 상상으로의 모빌리티(mobilities into imagination) 치유감 형성 작용 ····· **115**
제 1 절 상상 여행으로의 진입 ····· **115**
제 2 절 제한 없는 배경 셋팅과 자원의 활용 ····· **118**
1. 제한 없는 배경으로 셋팅 ····· 118
2. 상상 여행 배경을 구성하는 자원의 활용 ····· 120
제 3 절 치유감 형성 작용 논의: 현실 연결 끊기와 제한으로부터의 자유함 ····· **125**

제 6 장 상상 내 모빌리티(mobilities in imagination) 치유감 형성 작용 ····· **129**
제 1 절 상상 여행 중 모빌리티(수단) ····· **130**
1. 무형의 모빌리티 ····· 131
2. 육체적 모빌리티 ····· 132
3. 기계와 접합한 모빌리티 ····· 136
제 2 절 상상 여행 중 사회적 관계 ····· **145**
1. 비물리적 관계와의 여행 ····· 146
2. 혼자만의 여행 ····· 147
3. 길·여행 동무와의 일시적 만남 ····· 152
4.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 154
5. 친밀한 관계와의 여행 ····· 156

제 3 절 상상 여행 중 머무름 ····· 160
1. 치유적 명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머무름 ····· 161
2. 도시에서의 머무름 ····· 164
3. 여행의 필수적 장소에서의 머무름 ····· 168
제 4 절 치유감 형성 작용 논의: 모빌리티(수단)·사회적 관계·머무름의 상호연결과 깨달음 ··· 175

제 7 장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mobilities from imagination) 치유감 형성 작용 ···· 180
제 1 절 일상 속 상상 모빌리티 실천 ····· 180
1. 자발적 모빌리티의 실천 ····· 180
2. 상상 여행의 수동적 떠올림 ····· 191
제 2 절 일상 속 사회적 관계 변화 및 재구성 ····· 196
1. 나와의 관계 변화 ····· 196
2. 친구와의 관계 변화 ····· 197
3. 가족과의 관계 변화 ····· 198
4. 공동체·공공 네트워크 관계 변화 ····· 200
제 3 절 일상 속 머무름 행태 및 공간 수정 ····· 201
1. 자취방 공간의 변화 ····· 201
2. 소셜 미디어·온라인 머무름 공간의 변화 ····· 203
제 4 절 치유감 형성 작용 논의: 제약된 현실 속 실현 가능 방식으로 모빌리티 실천 ··· 204

제 8 장 토론 및 결론 ····· 207

참고문헌 ····· 217
부록 ····· 234
<부록 1> 연구윤리 승인 문서 ····· 234
<부록 2> 실험군 연구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 ····· 246
<부록 3> 실험군 사전인터뷰: 현실의 제한된 환경으로 인한 아픔(illness) ····· 247
Abstract ····· 261

표 목차

표 2-1. 선에 대한 이야기, mobility ····· 29
표 3-1. 상상 여행(Imaginary Travels) 프로그램 과정 ····· 53
표 3-2.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시험 준비 인구 추이 ····· 61
표 3-3. 6가지 심리척도 설문의 주요 단어들로 분류한 치유와 아픔 ····· 67
표 4-1. 사전측정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 간 차이 ····· 93
표 4-2. 실험군 사전-사후 변화 차이검증 ····· 94
표 4-3. 대조군 사전-사후 변화 차이검증 ····· 96
표 4-4. 집단 간 종속측정치의 상상 여행 전후 변화량 차이검증과 효과크기 ···· 98
표 4-5. 실험군 측정시기에 따른 종속측정치 비교 ····· 104
표 4-6. 실험군의 측정시기별 종속측정치 비교 ····· 105
표 4-7. 대조군 측정시기에 따른 종속측정치 비교 ····· 106
표 4-8. 대조군의 측정시기별 종속측정치 비교 ····· 107
표 6-1. 상상 여행 속 모빌리티 수단 ····· 130
표 6-2. 상상 여행 속 사회적 관계 유형 ····· 145
표 6-3. 상상 여행(혼자만의 여행)과 실제 과거여행(친구와의 여행)의 대비 ···· 150
표 6-4. 상상 여행 속 머무름의 장소 유형 ····· 160
표 7-1.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치유감 형성 작용 단계 ····· 204
표 8-1. 상상으로의, 상상 내,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의 특징과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 ····· 209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구성 ····· 6
그림 2-1. 모빌리티 수단·매개와 지리적 스케일 따른 이동 예시 ····· 34
그림 2-2. 3가지 모빌리티가 수반되는 상상 모빌리티 ····· 42
그림 3-1. 상상 여행 프로그램의 과정 ····· 53
그림 3-2. 연구참여자에게 제공된 상상 여행 가이드라인 ····· 54
그림 3-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시험 준비 인구 추이 ····· 61
그림 3-4.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본 연구참여자 공고 포스터 ····· 76
그림 3-5. 연구 조사의 절차 ····· 77
그림 3-6. 질적 분석틀 ····· 91
그림 4-1. 실험군의 주요 종촉측정치들의 사전-사후 변화 ····· 95
그림 4-2. 대조군의 주요 종촉측정치들의 사전-사후 변화 ····· 96
그림 4-3. 상상 여행 전후 긍정 변화 ····· 99
그림 4-4. 상상 여행 전후 부정 변화 ····· 99
그림 4-5. 상상 여행 전후 기분상태 변화 ····· 100
그림 4-6.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긍정 변화 ····· 109
그림 4-7.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부정 변화 ····· 110
그림 4-8.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기분상태 변화 ····· 110
그림 4-9.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우울 변화 ····· 111
그림 4-10.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웰빙 변화 ····· 111
그림 4-11.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불안 변화 ····· 112
그림 4-12.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행복 변화 ····· 112
그림 5-1. 상상으로의 진입 시간의 길어짐 ····· 116
그림 6-1. 구름·바람 모빌리티 ····· 131
그림 6-2. 스페인 순례길 걷기 ····· 134
그림 6-3. 바닷가에서의 액티비티 ····· 135
그림 6-4. 자전거 모빌리티 ····· 137
그림 6-5. 자동차 모빌리티 ····· 138
그림 6-6. 펠루카 모빌리티 ····· 141
그림 6-7. 비행기 모빌리티 속 1등석 ····· 143
그림 6-8. 상상 속 혼자만의 여행 ····· 149
그림 6-9. 혼자만의 상상 여행 ····· 151

그림 6-10. 일본 펜팔친구들과의 상상 여행 ····· 155
그림 6-11. 상상 여행 속 울고 있는 가족 ····· 158
그림 6-12. 상상 속 자연에서의 머무름 ····· 162
그림 6-13. 음악회에서 머무름 ····· 167
그림 6-14. 상상 내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 ····· 177
그림 7-1. 상상 여행 종료 이후 실천된 모빌리티 스펙트럼 ····· 181
그림 7-2. 상상 여행 속 자연 속 머무름이 연장된 라희 ····· 182
그림 7-3. 상상 여행 속 현지문화 체험이 실제로 확장된 소민 ····· 185
그림 7-4. 상상여행 속 선비치 책읽기 ····· 188
그림 7-5. 일상 속 비행기를 보며 상상 속 비행기 모빌리티를 떠올린 하음 ··· 192
그림 7-6. 상상 여행 속 안다이 쇼핑몰에서 머무름 ····· 196
그림 7-7. 일상 속 머무름 공간인 자취방의 변화 ····· 202
그림 7-8.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 ····· 206
그림 8-1.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 ····· 20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이동(여행)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느낄 수 있을까?”

인류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분쟁 지역에서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자연재해 등 인류는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위협 속에 살고 있다. 또한, 인류 역사상 신체적 제한(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 경제적 어려움(저소득층, 취업 준비 청년층), 시간적 제약(직장인, 학생)이 있어 물리적 움직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늘 존재해왔다. 이러한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어있는 상황 속 위와 같은 질문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비물리적 상상의 영역에서 지리적 이동을 시도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이동으로 치유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줄 수 있다.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리학 분야는 건강지리학이다. 건강지리학(health geography)이란, 의료지리학(medical geography)에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으로 파생되어, 인간의 건강, 웰빙, 치유와 지리 간 관계의 모든 측면들을 탐구하는 인문지리학의 하위 분야이다(Gesler and Kearns, 2002; Kearns and Collins, 2010; Crooks et al., 2018). 건강지리학자이자 문화지리학자인 Gesler는 1992년 건강과 장소 사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치유의 경관(therapeutic landscapes) 개념을 제안하였다. 건강지리학은 약 30여 년간 치유의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건강과 지리 사이의 연관성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초창기 건강지리학은 정적인 치유의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지난 10여 년 사이 사회과학 전반에 일어난 모빌리티 전환(mobility turn)으로 건강지리학에서도 기존 정적인 치유의 경관 개념을 동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났고, 동시에

역동적 모빌리티(mobilities) 자체가 치유적일 수 있다 주장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모빌리티란, 사람, 사물, 기계, 정보, 생각, 이미지 등의 지리적 이동과 그 이동에 얽혀있는 다양한 관계들의 의미와 실천을 함께 포함하는 의미이다(Urry, 2007; Cresswell, 2006; Adey, 2017). 특히, 건강지리학에서 모빌리티 논의는 Gatrell(2013)의 치유적 모빌리티(therapeutic mobilites) 개념을 중심으로 수렴되었다. 이후, 다양한 건강 관련 모빌리티 현상이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틀을 사용하여 분석되고 있다(Bochaton, 2019; Hartmann, 2019; Kaspar et al., 2019; Thompson, 2019; 2021; Walton-Roberts, 2019; Paddon, 2020; Pollard et al., 2020; Franchina et al., 2022; Troccoli et al., 2022).

그러나 이러한 치유적 모빌리티를 비롯한 건강과 모빌리티 사이의 연계에서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모빌리티에 관한 논의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건강지리 내 모빌리티 연구에서 주목했던 영역은 물리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비록, 비물리적 영역 중에서 가상 또는 통신 모빌리티 연구들은 건강지리 내 이루어진 바 있으나(Thompson, 2019; 2021; Loss et al., 2014), 이 역시, 건강, 웰빙, 치유가 일어나는 진정한 장소인 마음(Philo and Parr, 2003; Callard, 2003; Andrews, 2004 재인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치유가 일어나는 실질적 장소인 마음을 연계해 줄 수 있는 비물리적 상상의 영역(Andrews, 2004)에서의 모빌리티와 건강 사이의 관계는 아직 잘 탐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상이라는 지리적 영역은 인간의 치유와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다. 분석심리학자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적극적 상상[1]을 개발하여 상상이 치료의 기법으로 쓰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Jung and Chodorow, 1997). 정신분석학자 울라노프(Ann belford Ulanov) 역시 상상이 무의식에 연결

1) 본 연구에서 상상은 적극적 상상을 의미한다. 융이 제시한 적극적 상상(active imagination)이란, 내면의 이미지 흐름을 관찰 및 발견하기 위한 자기성찰(introspection)의 한 방법이다(Jung and Kerényi, 1949). 이는 체험자가 자기 마음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과 태도로 상상 체험을 하는 것으로, 체험자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은연중 체험하게 되는 수동적 상상(한성우, 2012)과는 차이가 있다. 적극적 상상에 관하여서는 제 2 장 제 2 절 3. 적극적 상상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해주기에 치유적(Ulanov and Ulanov, 1999: 15)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래 전부터 심리학, 정신분석학 연구에서는 치유적 특질이 있는 상상의 영역을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사실, 건강지리학에서 상상의 영역이 다루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건강지리학에서 이루어진 상상의 연구들은 정적이고 고정된 경관이나 장소 개념을 중심으로 탐구해왔으며 동적인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다. Gesler(2000)는 상상력의 산물인 소설책에서 나오는 장소와 건강과의 관계를 탐구하며 건강지리에서 상상의 연구를 처음 시도하였고, 이후, 기존 치유의 경관 개념이 지나치게 물리적 가정에 얽매어있으며 비물리적 상상된 영역에서의 치유적 경관이 탐구되어야 함이 논의되었다(Andrews, 2004). 마음의 치유의 경관 개념을 통해 개인화된 정신 전략과 이민자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연구하거나(Gastaldo et al., 2004), 경관과의 상상적 맞닥뜨림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Rose, 2012), 나아가 경관을 다시 상상하는 것이 노인의 웰빙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Rose and Lonsale, 2016). 한편, 간접적으로 녹음된 소리 경관이 상상력을 일으킴으로써 치유적 가치가 있음이 주장되기도 하였다(Bates et al., 2020). 그러나 이 같은 논의들에서도 동적인 모빌리티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고정된 경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관, 장소를 정적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동적인 모빌리티는 고정된 경관과 다르게 좁고 궤적의 탐구가 가능하기에 상상의 연구 시 내면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데 유용하며,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Cresswell, 2006; 이용균, 2015)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치유와 관계된 다양한 요소들과 그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그동안 건강지리학의 기존 문헌에서 모빌리티 연구에서 상상의 소외화, 상상 연구에서 모빌리티의 소외화를 해결하기 위해, 비물리적 상상의 영역 속 모빌리티 역시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상 모빌리티(imaginary mobilities)’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상상 모빌리티란, 적극적 상상으로 접근한 상상의 영역에서 지리적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상 모빌리티는 (1)상상으로의 모빌리티(mobilities into imagination), (2)상상 내 모빌리티(mobilities in imagination), (3)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mobilities from imagination) 이렇게 3가지 이동을 수반한다. 이러한 상상 모빌리티의 한 사례로 본 연구는 ‘상상 여행(Imaginary Travels)’ 실험을 설계하였다. 상상 여행이란, 시간과 돈과 관계없이 상상 속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뜻한다. 이 실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빌리티에 제한되어 있으며, 치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 50명(실험군 n=25, 대조군 n=25)에게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 검증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와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상상 여행 실험을 사례로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에 적용하여 규명하는 것이다. 자세하게는 첫째, 상상 모빌리티가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를 상상 여행 실험을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의 실험군과 대조군에 적용하여 얻어낸 6개의 심리척도 자료를 양적 분석하여 검증한다. 둘째, 만약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가 검증된다면, 어떻게 상상 모빌리티가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실험군 연구참여자들이 기록했던 상상 여행에 대한 글, 그림과 인터뷰자료를 질적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질적 분석할 때에는 상상 모빌리티에 수반되는 3가지 모빌리티 유형인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상상 내 모빌리티,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가 각각 치유감에 작용하는 방식을 모두 파악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 결론을 내림으로써 본 연구는 서두에 던졌던 핵심 질문인 “이동(여행)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 답을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구성

제 2 장 문헌 연구 및 연구틀에서는 건강지리학의 흐름을 살펴본 이후, 건강지리 기존 문헌에서 모빌리티 연구에서 상상이 소외화되었으며, 상상 연구에서 모빌리티가 소외화되었음을 논의한다. 이후, 연구의 틀을 잡고자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치유감, 모빌리티, 적극적 상상 의미를 검토한다. 또한, 선행 연구의 학술적 공백을 메우고자 상상 모빌리티를 개념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3가지 모빌리티 유형인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상상 내 모빌리티,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를 제시한다.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방법에서는 상상 모빌리티의 한 사례로써 상상 여행 실험 프로그램을 적극적 상상을 기반으로 설계한다. 또한, 이 실험 프로그램이 적용될 대상인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에 대한 정의와 연구 대상 선정 배경을 밝힌다. 이후, 자료 수집 방법을 서술하고, 자료의 분석 방법을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제 4 장은 상상 모빌리티가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를 양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동질성을 밝히고, 상상 여행 직전과 직후의 양적 자료를 집단내, 집단간 비교하여 단기적 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상상 여행 직전과 2주 후, 8주 후 자료를 집단내, 집단간 비교하여 장기적 효과를 검증한다.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은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질적 접근으로 규명한다. 제 5 장은 상상 모빌리티 첫 번째 유형인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특징이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는 방식을 질적 분석한다. 제 6 장은 상상 모빌리티 두 번째 유형인 상상 내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상상 여행 속 모빌리티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한다. 제 7 장은 상상 모빌리티 세 번째 유형인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상상 여행 이후에도 그 효과를 유지시킨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실생활 속 모빌리티 실천에 집중하여 질적 분석한다.

제 8 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제시하며 학술 및 사회적 기여점과 연구 결과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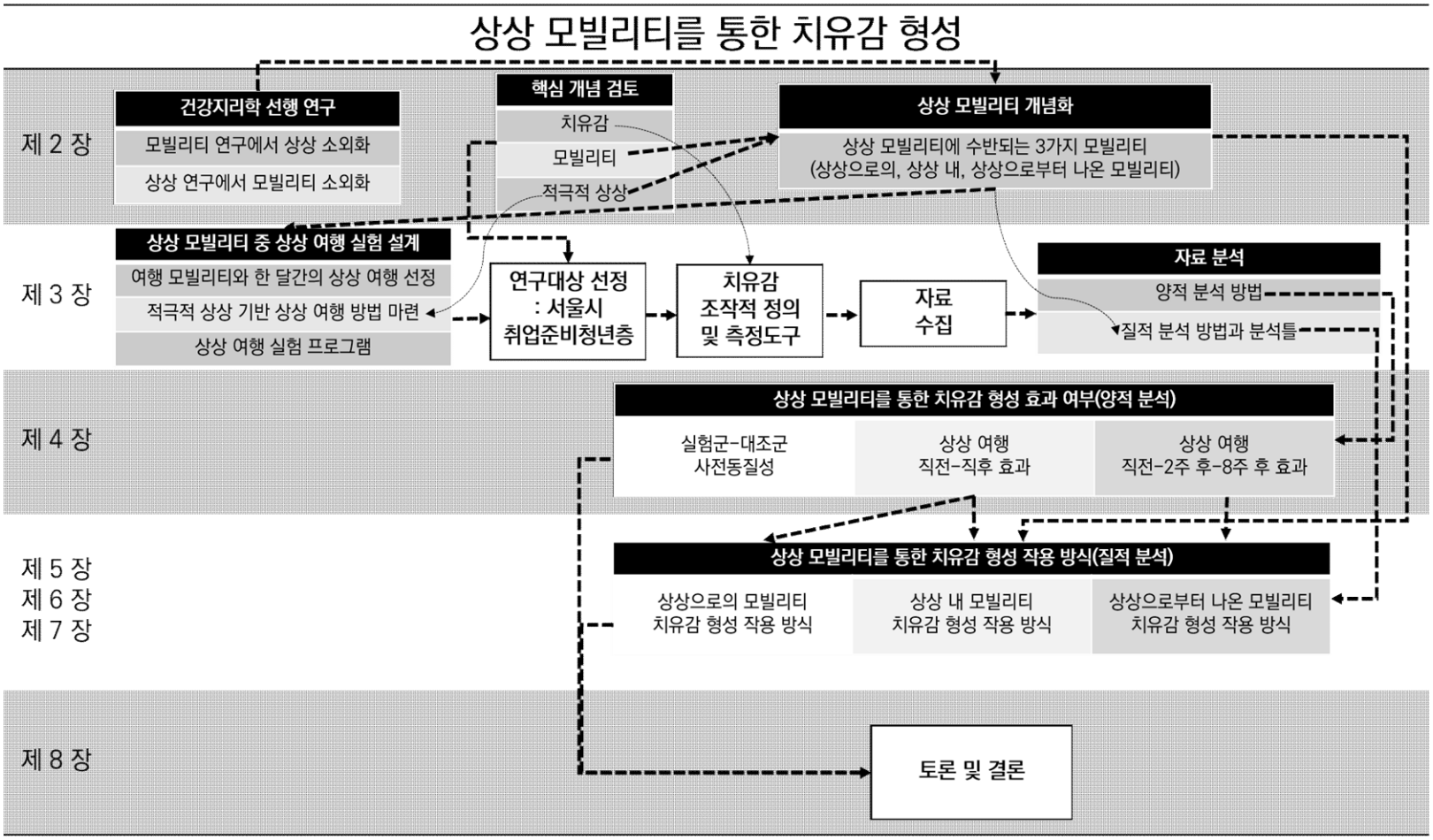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치유감 형성
제 2 장
건강지리학 선행 연구
모빌리티 연구에서 상상 소외화
상상 연구에서 모빌리티 소외화
핵심 개념 검토
치유감
모빌리티
적극적 상상
상상 모빌리티 개념화
상상 모빌리티에 수반되는 3가지 모빌리티
(상상으로의, 상상 내,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제 3 장
상상 모빌리티 중 상상 여행 실험 설계
여행 모빌리티와 한 달간의 상상 여행 선정
적극적 상상 기반 상상 여행 방법 마련
상상 여행 실험 프로그램
연구대상 선정
: 서울시
취업준비청년층
치유감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양적 분석 방법
질적 분석 방법과 분석틀
제 4 장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양적 분석)
실험군-대조군
사전동질성
상상 여행
직전-직후 효과
상상 여행
직전-2주 후-8주 후 효과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질적 분석)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
상상 내 모빌리티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
제 8 장
토론 및 결론

그림 1-1. 연구 구성

제 2 장 문헌연구 및 연구틀

제 1 절 건강지리학에서 상상과 모빌리티의 소외화

1. 건강지리학에서 일상·관계·동적 전환

건강지리학(health geography)이란, 인간의 건강(health), 웰빙(wellbeing), 치유(healing)와 지리 간 관계의 모든 측면을 탐구하는 인문지리학의 하위 분야로, 1990년대 초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으로 인해 의료지리학(medical geography)에서 파생되었다(Gesler and Kearns, 2002; Kearns and Collins, 2010; Crooks et al., 2018). 건강지리학은 Gesler(1992)의 치유의 경관(therapeutic landscapes) 개념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지리와 건강, 웰빙, 치유 간 관계를 분석해왔다.

건강지리학이 파생되어 나오게 된 분야인 의료지리학은 건강, 보건, 질병, 의학 등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지리학적 개념과 방법론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크게 3가지 접근이 존재한다(김창근 등, 2014), 첫째, 의료전달체계(healthcare delivery system), 건강계획, 치료와 관련된 패턴, 의료서비스의 공급문제 등을 다루는 영역, 둘째, 치유와 관련된 경관(healing landscapes)을 탐구하는 영역, 셋째, 지리적 역학(geographical epidemiology), 지리적 병리학(geographical pathology) 등으로 불리는 질병생태학(disease ecology)과 관련된 영역이 있다(Mayer, 1996; 이종찬, 2013; 김창근 등, 2014 재인용). 이러한 의료지리학 분야 중 건강지리학은 두 번째 영역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 건강지리학이 의료지리학에서 분리되어 나온 시기는 의료지리학계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 일어났던 1990년대 초반이다(Gesler and Kearns, 2002). 이 시기 일어났던 문화적 전환은 그동안 질병의 지리에만 관심을 가지던 의료지리학을 넘어 건강과 건강 돌봄 측면에서 장소의 의미와 본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화

되었고(Williams, 1998), 건강지리학자이자 문화지리학자인 Gesler가 신문화지리학의 의료적 이슈로서 1992년 치유의 경관(therapeutic landscapes)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건강지리학이 완전히 태동하게 되었다. 치유의 경관이란, 치유의 과정(healing process)이 진행되는 장소, 상황, 현장, 배경, 환경 그 자체이자, 어떻게 장소(또는 상황, 현장, 배경, 환경)가 치유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리적 메타포이다(Gesler, 1992; 2003). 이러한 치유의 경관 개념은 1970년대 인문지리학의 Tuan의 장소감(sense of place)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Gesler(2003)는 치유의 경관을 통해 치유의 과정이 일어날 때, 치유의 장소감(healing sense of place)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치유와 장소는 뗄 수 없는 관계며(Gesler, 2003), 어떻게 장소나 상황이 치유로 인식되는지 밝히기 위해선 치유의 경관[2] 개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Gesler, 1992: 735). 더불어, 치유의 경관 개념을 분석할 때에 치유의 환경은 자연적(natural), 시설적(built), 상징적(symbolic), 사회적(social)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Gesler, 2003).

이러한 Gesler의 치유의 경관 개념을 활용한 건강지리학의 초창기 연구들은 치유의 명성이 알려진 장소들을 중심으로 탐구되었다. 오래전부터 치유와 관련하여 역사적이고, 영적이고, 신성하다고 알려진 장소들(Lourdes, Bath, Epidauros),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온천,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치유의 특질이 있음을 주장해왔으며, 이러한 초기 연구들의 전통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건강지리학 내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캐나다 퀘벡 기독교 순례지인 생트안느드보프레(St. Anne de Beaupre)를 사례로 영적 치유의 경관에서 영적인 활동과 건강에 대한 갈망이 치유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거나(Williams, 2010), 스코틀랜드(Scotland) 퍼스샤이어(Perthshire)에서 공간, 문화, 믿음 간 관계를 분석하고(Perriam, 2015), 전통적인 기독교 순례지인 영국 맨섬의 초기 개신교

2) 이후, 건강지리학에서는 활력을 주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s), 활기를 주는 장소(enabling places), 회복의 장소(restorative places) 같은 유사 개념들도 전개되었으나(Duff, 2011), 건강지리학에서 가장 주된 개념은 치유의 경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지들의 흔적들을 치유의 경관으로 파악하여 그 치유의 경관에서의 영적 역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분석하는 연구(Maddrell, 2013)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8세기, 19세기경 유럽에서부터 치유의 명성이 알려진 온천(Urry, 2007)의 치유적 특성을 활용하여 일본의 온천(Onsen)이라는 치유의 경관의 사회적, 상징적 치유 요소들을 분석하는 연구(Serbulea and Payyappallimana, 2012)도 역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전 의료지리학의 전통으로 Gesler의 치유의 경관 기본 요소들을 활용하여 기존의 전인적인 의료적 관습을 파악하거나(Williams, 1998), 치유의 경관 개념의 물리적, 사회적, 상징적 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병원 디자인에서 적용하고(Curtis et al., 2007), 치유의 경관 틀을 사용하여 의료 공간 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분석(Wood et al., 2015)하는 등 치유의 경관을 병원 공간에 실용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3)]

그러나 이러한 기존 치유의 경관 논의는 건강지리학 내에서 크게 3가지 갈래에서 비판받았다.

첫째, 치유의 명성이 알려진 영적 장소나 의료시설은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상의 영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치유의 경관 연구들은 치유의 명성이 알려진 역사적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Milligan et al., 2004; Wakefield and Mcmullan, 2005). 그러나 이는 일상의 영역과는 다소 떨어져 있으며, 이러한 예외적이고 비범한 치유의 장소들은 삶에서 경험되는 빈도가 비교적 적다는 한계점이 있었다(Willis,

3) 초창기 건강지리학에서 치유의 명성이 알려진 장소들을 중심으로 한 치유의 경관(therapeutic landscapes) 연구들은 치유(healing)라는 용어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 전환, 관계적 전환, 동적 전환이 일어난 이후, 건강지리학의 초점은 일상화되고 미시적으로 변하였기에 치유(healing)를 건강(health), 웰빙(wellbeing)이라는 용어로 많이 대체해 표현하고 있다. 한편, 최신 건강지리학의 리뷰 논문인 Bell et al.(2018) 연구에서 건강과 웰빙을 증진 시키는 장소가 치유의 힘(healing power)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에 따르면, 이는 곧 최신의 건강지리학에서도 지리를 통한 건강과 웰빙 증진의 결과물이 곧 치유(healing)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층 더 일상적이고 복합적으로 정착된 한국에서의 치유(healing)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초창기 건강지리학에서 행해졌던 영적 치유 개념뿐 아니라 건강, 웰빙 등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문헌연구에서는 건강지리학에서의 치유만을 키워드로 탐구할 뿐 아니라, 건강, 웰빙, 치유 등 더욱 넓은 범위에서 행해진 건강지리 문헌을 탐구하였다.

2009). 결국, 사람들이 치유의 명성이 있었던 장소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치유는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며 지속적으로 실용적 활용을 할 수 없기에, 치유의 명성이 있는 역사적 장소들을 중심으로 한 치유의 경관 개념은 비판받기 시작하였다(Milligan et al., 2004). 이러한 일상적 전환으로 인하여, 건강지리학의 관심은 비범한 치유의 명성이 있는 장소에서 일상적 장소로 옮겨졌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상적 장소인 공동체 정원(community garden)에서 능동적으로 치유의 경관을 구성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여 치유의 경관을 일상적 영역으로 확장하거나(Milligan et al., 2004),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도시라는 평범한 장소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건강지리에서 일상적 장소와 평범한 치유과정을 이론화(Wakefield and Mcmullan, 2005)한 연구들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일상적 전환으로 인해 건강지리학 연구들은 일상생활 맥락에서 개인의 웰빙을 증진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치유의 경관 개념 틀을 활용해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일상 해안가로부터 치유적 경험을 통한 웰빙을 증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Bell et al., 2015), 이전의 성지, 병원, 온천과 같은 평범하지 않은 장소가 아닌, 삶 속에서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Brewster, 2014)이나 심리치유카페(박수경, 2014) 같은 일상적 장소들이 치유의 경관 프레임을 통해 분석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기존 치유의 경관의 고정성을 탈피하고, 치유의 경관 그 자체가 치유의 특질이 있다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경험을 통한 관계에서부터 치유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지리학계 관계적 흐름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전반에서 공간을 보는 관계론적 시각이 형성됨과 동시에, 건강, 웰빙, 치유라는 특성 자체가 관계성을 가지는 특징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었다. 인간은 그를 둘러싼 사람, 물체, 장소 등과 관계를 맺는 존재이며 이러한 관계 맺음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즉, 치유는 어떠한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Willis, 2009;

박수경, 2014; Bell et al., 2018), 결국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치유(Bell et al., 2018)이기에, 이러한 치유 자체의 관계적 특성 때문에 건강지리학에서 관계론적 전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현대사회가 되면서 치유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전 치유의 경관 개념틀로는 이러한 치유에 영향을 끼치는 복잡한 요소 간 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워졌으며 더욱 치유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지리적 인자와 관계들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으로써 관계적 전환이 전개되었다. 이 같은 관계적 논의들은 이전 치유의 경관 연구들이 치유적 효과가 나타나는 관계 역학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비판하여 치유의 경관 경험(therapeutic landscape experience)을 통한 사회-자연적 관계망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음(Conradson, 2005)을 논하거나, 기존 고정된 치유의 경관 개념이 치유와 관계를 맺는 다양한 특성들인 시간적, 문화적 요인(젠더, 계층, 민족), 특정한 능력, 역량을 잘 설명해주지 못하였음을 비판하고, 단순히 고정된 정체성, 구조, 본질이 있는 치유의 장소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치유의 장소에 얽혀있는 관계나 과정까지도 파악하여 이와 연관된 사건, 과정, 관계의 움직이고 만들어지는 경험주의(second empiricism)를 강조하였다(Duff, 2011). 이같이 경험을 강조하는 관계적 전환의 흐름은 기존 치유의 경관 개념을 넘어서 관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개념틀을 새롭게 등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사용하여 치유와 지리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개념 틀인 활력을 주는 장소(enabling places)(Duff, 2011), 치유를 증진 시키는 치유적 네트워크(therapeutic networks)(Smyth, 2005; Chakrabarti, 2010), 단일한 장소나 행위자에 고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장소와 사람, 자원의 동적인 연결과 조합들로 인해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유적 아상블라주(therapeutic assemblages)(Foley, 2011; 2014; Ireland et al., 2019; Trnka, 2021)와 같은 개념 틀은 건강지리학에서 치유, 건강, 회복 등이 경험을 통한 관계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대안적 흐름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기존에 정적으로 보았던 치유의 경관 개념을 비판하고, 치유의 경관을 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만들어지는 치유의 과정을 강조하거나, 장소나 경관뿐 아니라 모빌리티 역시 치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동적 전환의 흐름이 건강지리학 내 전개되었다.

먼저, 기존에 있었던 치유의 경관 개념을 동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들은 이전 치유의 경관이 특정 치유의 특질이 있는 장소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비판하고, 치유의 경관은 정적으로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며 동적인 것에서부터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기존 치유의 경관 개념 틀을 사용하지만, 주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협상을 통해 고유의 치유적 장소 만들기를 행함으로써 치유의 경관을 생성시키고 구성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Sampson and Gifford, 2010). 피난민들이 단지 피동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지에서 회복의 경관을 생성하기 위해 어떻게 장소를 이용하고 협상하는지 주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거나(Sampson and Gifford, 2010), 치유의 장소가 제자리에서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리듬과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치유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등장하였다(Pitt, 2014).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이전까지 치유의 경관이라 보지 않았던 역동적으로 그려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동적인 치유의 경관이라 보기도 하였으며, 치유의 경관이 생산적일 수 있음을 이론화하여 치유적 행위경관(therapeutic taskscapes)이라는 대안적 개념을 제시해 이를 치유적 캠핑 프로그램에 대입하거나(Dunkley, 2009), 걷기 공동체가 행하는 치유를 위한 모빌리티 활동을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움직이는 모바일 치유의 경관이라 해석하기도 하였다(Doughty, 2013).

또한, 이러한 동적 흐름의 또 다른 갈래에서는 그동안 동적인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정적인 장소나 경관뿐 아니라 모빌리티 역시 치유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는 흐름이 전개되었다. 이 같은 동적 흐름의 바탕은 사회과학 전반에서 진행되어 온 모빌리티 전환(mobilities turn)의 영향이 크다. 이러한 모빌리티 전환은 그동안 집중해온 장소 같은 정적인 개념을 동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가 치유적일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건강지리학에서의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Gatrell(2013)의 치유적 모빌리티(therpaeutic mobilities) 개념틀을 중심으로 수렴되었다. 치유적 모빌리티는 치유와 모빌리티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건강과 웰빙을 증진 시키는 이동(Gatrell, 2013: 100)을 말한다. Gatrell은 그동안 건강지리에서 치유의 경관 개념을 통하여 건강, 웰빙이 장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었으나, 건강, 웰빙이 이동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소외화된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Gatrell, 2013). 그리하여 Gatrell은 모빌리티가 치유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제시하였고, 걷기, 자전거,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가 건강,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atrell이 치유적 모빌리티 렌즈를 제안한 이후, 이 개념틀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유형과 건강, 웰빙, 치유 사이의 연결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의 핵심은 이동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치유적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그 이동에 연결되어있는 관계에 의해 그 효과가 성취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은 기존 장소의 긍정적인 특성을 발굴하는 데만 집중했던 치유의 경관 개념을 비판함과 동시에, 치유적 모빌리티 역시 그 이동 자체의 내재된 특성이 치유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넘어서, 그 이동에 연결되어있는 관계적 성취에 의해 치유적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Kaspar et al., 2019). 이 같은 치유적 모빌리티 렌즈는 간호사, 환자들의 의료이동에 함축된 수많은 관계적 함의들을 파악하는 의료지리학적 연구분석 틀로도 사용되었으나(Bochaton, 2019; Hartmann, 2019; Thompson, 2019; 2021; Walton-Roberts, 2019; Paddon, 2020; Pollard et al., 2020; Franchina et al., 2022; Troccoli et al., 2022), 더욱 건강지리적이고 일상적 상황을 바탕으로 웰빙,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적 모빌리티 연구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논의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노인들의 걷기 사례를 조사하여 치유적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모빌리티(detrimental mobility) 역시 주목한 연구(Paddon, 2020), 메타 민족지를 사용하여 단체의 걷기 경험에 대한 공동의 치유적 모빌리티(communal therapeutic mobility) 개념을 제안한 연구(Pollard et al.,

2020), 디지털 치유적 모빌리티(digital therapeutic mobility)(Thompson, 2019; 2021)와 같은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기반으로 그 범주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건강지리학을 비판하고 전개되었던 세 가지 전환 중에서도 특히, 이동(여행)을 상상하는 것이 치유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세 번째 동적 전환 내 모빌리티에 관한 논의에 더욱 집중하여 건강지리 내에서 모빌리티 연구의 한계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건강지리학에서 모빌리티 연구: 상상의 소외화

위에서 검토한 건강지리에서 동적 전환에서 등장한 치유적 모빌리티를 비롯한 건강과 모빌리티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그동안 물리적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건강지리 내 모빌리티 연구는 물리적 위치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탐구한다는 전제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졌으며, 특히,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은 치유적 효과를 얻기 위해선 당연히 물리적 모빌리티가 행해져야 함을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Gatrell은 치유적 모빌리티 중 걷기를 사례로 활동적 신체(active body), 사회적 신체(social body), 걷는 맥락(walking context)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건강과 웰빙을 증진 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활동적 신체는 걷기를 통한 신체적 건강증진, 물리적 영역에서의 걷기 장려 프로그램의 개입 중요성, 도보 통학 및 통근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들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러한 근거들은 모두 물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이 가정되고 있다. 또한, 치유적 모빌리티 논의에서 걷는 맥락의 요소에서 다룬 안전, 환경, 시간, 기상조건, 감각적인 부분들은 모두 물리적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사회적 신체 요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상호작용 부분이 다루어지곤 있으나, 이 역시 물리적 영역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상호작용을 논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결국,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의 기준은 궁극적으로 물리적 영역에 제한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지리 내 치유적 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연구가 물리적 영역에 제한되어있었음에 비판하고 비물리적 이동이 건강, 웰빙, 치유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함을 주장한 소수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는 최근 삶 속에서 건강과 관련한 지리 및 행동에 개입하는 것이 증가한 영역인 통신 또는 가상 모빌리티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주된 사조는 가상 공간에서의 모빌리티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적 이동뿐 아니라 비물리적 이동 역시 건강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디지털, 통신의 영역에서 건강 데이터, 지식의 이동을 모빌리티 틀에서 이해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일상활동의 많은 부분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물리적인 지리적 근접성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청소년들 사이 SNS 내에서 지식의 모빌리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Loss et al., 2014). 또한, 기존 치유적 모빌리티 렌즈가 물리적 이동뿐 아니라 비물리적 디지털 영역에서의 이동까지 확장 시켜 볼 수 있는 개념임을 주장하고 디지털 치유적 모빌리티(digital therapeutic mobilities)(Thompson, 2019; 2021) 개념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건강 데이터는 비물리적이며 실체가 없고 인간과 사물보다 이동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Thompson, 2019). 이러한 건강 데이터가 이동하는 영역인 디지털은 실제 일상생활의 건강지리를 재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지리학 연구에서 비물리적인 영역에서의 건강 지식 모빌리티는 필수적으로 탐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Thompson, 2021).

그러나, 치유적 모빌리티 또는 통신, 가상 영역에서의 모빌리티를 다룬 건강지리 연구들은 결국, 건강, 웰빙, 치유가 일어나는 마음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진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 Gatrell(2013)의 치유적 모빌리티와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들은 건강, 웰빙을 증진 시키는 모빌리티가 외부보다는 사람의 마음속인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는 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지리 내 통신과 가상 영역에서의 모빌리티 연구 역시 기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비물리적 영역을 다루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이는 온라인상 지식의 이동에 제한되어있으며 이러한 가상에서의 모빌리티를 넘어 치유가 일어나는 공간인 사람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비물리적 모빌리티가 건강, 웰빙, 치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소외되어있었다. 그러나 정신분석적 접근에 의하면, 치유와의 연결과 효과는 실질적인 물리적 위치 외 마음속으로부터 생성되는 장소나 공간에서 경험된다(Philo and Parr, 2003; Callard, 2003; Andrews, 2004 재인용). 이러한 정신분석적 접근은 지리학이 어떻게 사람들이 구조를 협상하고, 일상생활에서 행위 주체에 참여하며, 그것이 어떻게 얽혀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Andrews, 2004). 건강지리학자 Andrews(2004)는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지리로 건강지리학의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면, 치유의 효과가 물리적 위치가 아닌,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과 장소에서 경험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였다(Andrews, 2004). 비록 Andrews의 논의는 모빌리티가 아닌 장소 연구의 맥락에서 논의되었지만, 이는 건강지리학 연구에 치유적 모빌리티를 비롯한 건강 관련 모빌리티가 반드시 실제 시간이나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다준다.

결국, 건강, 웰빙, 치유의 증진은 사람의 외부가 아닌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이는 가상, 통신의 영역을 넘어 비물리적 상상의 모빌리티에서 관찰 가능하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치유를 살필 수 있는 상상의 영역은 특성은 분석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접근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분석심리학적 접근에서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기 위한 치료적 방법으로 상상을 활용하였다(Jung and Chodorow, 1997).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는 상상은 사람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무의식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치유적 힘을 가지고 있다(Ulanov and Ulanov, 1999: 15). 결국, 이러한 분석심리학, 정신분석학 접근에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치유를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비물리적인 상상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건강지리 내에서 물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상상의 영역에서 모빌리티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강지리의 모빌리티 연구에서 물리적 모빌리티를 넘어 비물리적인,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상의 영역에서 모빌리티를 하는 것이 치유감 형성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상상의 영역에서의 모빌리티를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동안 물리적 영역에 치중되어왔으며, 비물리적 영역에서도 가상 및 통신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던 건강지리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학술적 기여점이 있다.

3. 건강지리학에서 상상 연구: 모빌리티의 소외화

사실 건강지리학에서 상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위에서 논한 비물리적인 상상의 영역이 치유의 연관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상상과 건강, 웰빙, 치유와의 관계를 주의 깊게 다룬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지리 내 상상 연구들은 장소 기반의 경관적 해석 접근을 취한 경향이 있었다.

문화지리학자 Cosgrove(1978: 66)는 “인간의 아이디어는 경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장소에 대한 경험이 다시 인간의 아이디어를 형성한다”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인간의 마음과 공간, 장소, 경관, 환경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었는데, 건강지리학자 Williams(1998)는 이러한 Cosgrove의 논의를 통해 마음속 떠올리는 평화롭고 잠잠한 물결이 부딪히는 해안이나 자연, 과거 의미 있었던 좋아하는 집, 근린과 같은 장소의 경관 이미지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돌보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음의 치유의 경관이 존재함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건강지리학에서 최초로 상상과의 연계를 시도한 것은 치유의 경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Gesler에서부터이다. 그는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작품을 치유의 경관 개념으로 분석하여 상상된 지리(imagined geographies)를 강조하여 상상된 장소를 건강과 연계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를 하고 있다(Gesler, 2000).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후대 건강지리학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상상력을 건강지리학 내로 끌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준다(Gesler, 2000; Andrews, 2004)는 데에 큰 기여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시는 건강지리 내 상상 연구가 시작된 초기부터 상상이 연결해줄 수 있는 마음을 관찰할 때, 이를 이미 고정된 경관, 장소 기반 관점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건강지리 내 초창기 상상 연구의 장소, 경관 중심의 전통은 후대 건강지리학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갔다. 후대의 연구들 역시, 물리적 영역의 벽을 허물고 비물리적 영역인 상상의 영역에서 건강, 웰빙, 치유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학술적 기여점이 있으나, 상상된 경관뿐 아니라 상상된 모빌리티 역시 건강, 웰빙, 치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은 간과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치유의 경관 개념이 물리적 가정에 얽매어있음을 비판하고 비물리적 상상된 영역에서의 치유적 경관을 탐구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체의학 치료사들을 중심으로 상상된 장소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사하거나(Andrews, 2004), 마음의 치유의 경관(therapeutic landscapes of the mind) 개념을 통해 개인화된 정신 전략과 이민자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질적 분석하였다(Gastaldo, Andrews, and Khanlou, 2004). 이 외에도, 특정 환경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치유를 추구하는 넓은 상상의 세계에서의 신체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논의(Dawney, 2011; Doughty, 2013), 상상력과 기억력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형상이 초기 심리치료적 방법에서 종종 활용되는 애착과 친숙함 형성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논의(Conradson, 2005), 상상 속 경관과의 맞닥뜨림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Rose, 2012), 노인들의 웰빙을 향상하는 데 경관을 재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Rose and Lonsale, 2016)을 제시한 연구, 녹음된 소리 경관이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치유적 가치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된 연구(Bates et al., 2020) 등은 건강지리의 기존 문헌에서 건강, 웰빙, 치유를 말할 때 물리적 경계를 넘어 비물리적 상상이 중요함이 이미 논하여졌으며, 이들은 새로운 치유와 비물리적 영역의 중요성을 환기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연구들은 정적이고 고정된 경관과 장소를 기반으로 비물리적 상상의 영역을 바라보도록 하는 편견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장소의 경계를 넘어 모빌리티적 시각에서 치유 요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함에도 그를 배제하고 있다. 한 예로, Gesler(2000)의 연구에서 상상의 산물로서 문학작품을 분석할 때, 순례, 여행과 같은 동적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성 있는 순례나 여행의 모빌리티적 과정을 그리기보다는, 그 속에 등장하는 장소나 경관들을 단절적으로 분석하여 치유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Gesler(2000)의 연구에서 등장하는 문학작품의 순례, 여행 사례는 A에서 B까지 단순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맺으며 치유라는 변화에 이르는 모빌리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건강지리 내 상상의 연구들은 움직이는 경험이나 유목민적인 관점(Cresswell, 2006: 26; Gatrell, 2013)을 취하기보다는 정착적인 방향으로 관점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은 앞서서 언급한 Gesler(2000) 이후 진행된 건강지리 내 상상의 연구들의 사례에(Andrews, 2004; Gastaldo, Andrews, and Khanlou, 2004; Conradson, 2005; Dawney, 2011; Doughty, 2013; Rose, 2012; Rose and Lonsale, 2016; Bates et al., 2020) 모두 적용된다.

본 연구가 건강지리의 상상 연구에서 경관을 넘어 모빌리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좁은 궤적의 탐구가 가능하기에 알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를 보다 자세히 궤적으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건강지리 내 상상을 연구할 때 모빌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경관은 마음의 치유적 경관처럼 마치 사진을 찍듯이 넓은 평면적으로 분석을 하였던 반면, 모빌리티는 좁은 궤적으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한 점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내면의 상처들을 집어내어 치유감과 더욱 강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기에 건강연구에서 경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관점을 통해 상상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모빌리티는 다양한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 점은 사람의 내면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관찰할 수 있게 도와준다. 모빌리티는 이동에 내재 되어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actors)과의 관계(Cresswell, 2006; 이용균, 2015)를 볼 수 있는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행위요소들을 보게 하는 모빌리티 렌즈는 그동안 건강지리 내 상상 연구에서 단순한 요소들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경관 개념과는 달리,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내면에 끼치는 관계들이 함축되어있는 이동에 딸린 치유감 형성 작용 과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강지리 내 상상의 연구는 장소를 기반으로 경관 개념을 활용하여 치유와 장소 간 관계를 알아내는 데에 초점이 있었으며, 연구의 내용에서 모빌리티적 요소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관적으로 해석하여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해석을 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즉, 경관 연구는 평면적이고 넓은 면적으로 고정된 시각을 가지게 하나, 모빌리티 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는 상상 연구에서 더욱 이를 좁은 궤적으로 입체적인 탐구가 가능하게 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상상 내 건강, 웰빙, 치유와 모빌리티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가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본 연구는 경관을 넘어 모빌리티적 관점을 취하여 건강지리 내 상상 연구의 영역을 확장 시키고자 한다.

제 2 절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치유감 형성 연구틀

1. 치유감

본 연구에서 치유감(sense of healing)이란, 치유(healing)를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치유는 총체성과 아픔의 성격을 지니는 이론적 의미, 일상화된 치유의 의미, 그리고 치료적 의미에서 쓰인 치유를 모두 말하는데, 본 연구는 아래에서 이러한 치유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치유감이라고 통칭하기로 하였다.

1) 치유의 이론적 의미: 총체성과 아픔

치유(healing)의 이론적 의미는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육체적, 생물학적, 정신적, 영적, 감정적, 사회적 요소 등 총체적인 측면들에 아픔(illness)이 생긴 것이 온전해진(complete) 결과이다(WHO, 1948; 대한간호학회, 1996; Gesler, 2003; 진교훈 · 윤영돈, 2003; 박향기, 2017). 치유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치유는 크게 두 가지 특성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총체성, 둘째는 치유 이전에 아픔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 치유는 총체적 특징이 있다. Healing은 그 어원에서부터 인간을 둘러싼 전체적 요소들을 아우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Heal’은 고어 ‘Haelon’에서 왔으며, 이는 ‘Wholeness’를 뜻하여(Gesler, 2003) 총체적이고 온전함, 완전함(completeness)을 뜻한다. 유사하게, 치유는 그리스어 ‘holos’에서 유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holy(신성한, 영적인) whole(전체성)을 의미한다(양태근·양준호, 2018). 독일어 ‘heilen’ 역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을 동시에 치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진교훈 · 윤영돈, 2003). 같은 어원에서 온 ‘health’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정의는 신체적(physical), 정신적(mental),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이 온전한(complete) 상태를 의미한다(WHO, 1948). 건강지리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치유 역시 인간을 둘러싼 전체적인 측면들인 육체적, 생물학적, 정신적, 영적, 감정적, 사회적 요소 등을 모두 아우르는 특성이 있다(Gesler, 2003).

둘째, 치유는 반드시 그 이전에 아픔(illness)이 존재해야 한다. 치유의 한자어를 살펴보면, '治癒'는 '다스릴 치'에 '병 나을 유' 자를 써서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곧 치유임을 알 수 있다. 영어로 아픔은 'illness'로 표기할 수 있는데(옥스퍼드 영한사전, n.d.), 여기서 말하는 아픔은 의학적, 생물학적 사실로 판명된 스트레스, 우울증, 신체적 질병 같은 질환(disease)과 다르게, 그 질환에 대해서 개인의 성격, 사회적 조건, 문화적 배경에 따라 주관적이고 실존적으로 다르게 신체나 마음의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대한간호학회, 1996). 즉, 본 연구에서 아픔은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질환이 아닌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아픔(박향기, 2019)에 가까운 의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치유 역시 개인이 체험한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상처, 스트레스, 우울 등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픔을 낫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쓰였다.

이와 같은 문헌들을 바탕으로, 치유는 인간을 둘러싼 총체적 요소들에 아픔이 생긴 것이 온전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 일상적 영역까지 확장된 치유

기본적인 총체성과 사전에 아픔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치유는 최근 한국에서 일상적 영역으로 그 쓰임새가 확장되었다. 그동안 치유라는 용어는 영적이거나 의학적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예로부터 인류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으로부터 관계가 회복된 결과로 전인(whole man)적이고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는(백근수, 2012) 영적 치유(spiritual healing)의 영역이 있었다(박향기, 2017). 이러한 영적 치유는 앞서서 검토한 건강지리 초창기에 행해졌던 성소, 성지 순례와 같은 장소를 사례로 한 치유의 경관

연구에서 말하는 치유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다. 그러나 인류가 점차 기능합리주의, 이분법, 인과론적 사고로 인해 탈 신성화된 세계를 지향하게 되면서(진교훈·윤영돈, 2003), 의사가 질병이 있다고 판명한 환자가 의료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치유(medical healing)의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게 되었다(박향기, 2017). 그러나 국내에서 2010년대 들어서면서 힐링 푸드(강재희·강진희, 2014), 힐링 캠프(한지숙, 2013; 홍경수, 2013), 치유 패션(김설매, 2014) 등 지극히 일상적이고 다양한 영역 속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기분전환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한 감정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것까지 치유라는 범위 안에 포함하여 부르게 되었다(박향기, 2017). 이와 같은 치유 개념의 일상화는 기본적인 총체성과 아픔을 지닌 치유의 이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의사가 질병이 있다고 판단한 환자를 치료하여 얻은 결과만이 치유가 아닌 의학적으로는 질병이 없다고 판명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치유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확장된 것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치유의 일상화는 2011년부터 힐링 캠프, 힐링 뮤직, 힐링 리조트와 같은 특정 예술이나 문화 분야에서 시작하였고(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힐링(Healing)’이란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위로하는 나홀로 하는 손쉬운 힐링이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이러한 치유가 국내 일상화된 영역으로 확장된 사회적 배경은 불안한 사회와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이 심리적 불안 해소 욕구를 갖게 됨과 동시에(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한국(조문영, 2013; 이민영, 2016)을 포함한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에서(SACOM, 2010; Barrientos et al., 2011 재인용; Zhang, 2018) 단순히 의학적 현상을 넘어 빠른 경제성장과 과도한 경쟁이라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 나타난 허탈감, 소외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박향기, 2019).

그러나 이러한 국내에서 일상적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힐링은 앞서서 언급한 치유의 이론적 의미 역시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힐링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데, 치유의 이론적 의미

역시 인간 주변에 있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상화된 치유의 의미는 불안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며 허탈감을 느끼는 일반적인 도시민들이 아픔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치유가 사전에 아픔을 지니고 있다는 이론적 의미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상화된 치유는 다소 신체적인 측면보다는 마음과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증진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은 서로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효과가 있으므로(Ohrnberger et al., 2017), 치유의 의미가 일상화되어 정신건강 증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치유는 신체 건강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신건강 증진이 속성이 있음과 동시에, 이는 신체 건강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계를 맺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치료적 의미에서 쓰인 치유

본 연구에서 쓰이는 치유는 주로 'healing'을 뜻하지만, 단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therapy', 'therapeutic'을 치유라고 표현하였다.

첫째, 건강지리의 선행연구에서 중요 개념으로 다루어졌던 'therapeutic landscapes'는 '치유의 경관'으로, 'therapeutic mobilities'는 '치유적 모빌리티'로 각각 번역하여 'therapeutic'을 치유, 치유적이라고 표현하였다. 'therapy'는 약이나 수술의 사용 없이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지닌 사람을 치료하는 것(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2009)으로, 'healing'이라는 결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 또는 치유의 수단이다(박향기, 2017). 비록 치료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 치료는 의학적 방법을 동원한 'cure'나 'medical treatment'와 비슷한 뉘앙스로 쓰이는 경향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therapy, therapeutic의 단어를 치유, 치유적이라고 표현하였다.

둘째, 질적 분석에서 분석적 심리치료 원리에 의해 무의식이 의식으로 변화된 결과를 치유라고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융의 분석심리학 내 적극적 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분석적 심리치료(analytical psychotherapy) 원리는 무의식을 의식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에 있다(송진희, 2006; 이부영, 2011). 본 연구의 질적 분석에서는 무의식에서 몰랐던 갈망을 의식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깨닫게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상상에 기반한 치유적(therapeutic) 원리가 작용하였다 보고, 이것이 결국 치유(healing)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해석하였다.

셋째, 질적 분석에서 심리치료의 목적에 기반해 변화된 결과를 치유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심리치료 목적은 심리치료 이후 일상생활에서 행동이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있으며(권석만, 2012), 본 연구에서는 상상 여행 이후 참여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행동이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전 인터뷰 때의 아픔을 지닌 모습과 다르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를 치료의 결과로써 치유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2. 모빌리티

1) 모빌리티의 의미

본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모빌리티(mobility)[4]란, 사람, 사물, 기계, 정보, 생각, 이미지 등의 지리적 이동과 그 이동에 얽혀있는 다양한 관계들의 의미와 실천이 함께 포함된 뜻이다(Urry, 2007; Cresswell, 2006; Adey, 2017).

예를 들어, 출근 시간 교통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더욱 정확한 시간에 덜 복잡한 대중교통을 탈 수 있었다면, 출근이라는 지리적 이동에 대중교통이라는 이동 수단과 교통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기술이 결합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만약, 서울 한양도성 낙산구간을 친구와 함께 성곽길을 따라 걸어 힐링을 얻었다면, 걷기, 친구들, 성곽길, 아름다운 자연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동에 결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치유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박향기, 2016; 2017). 이렇게 이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와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며 이에 얽혀있는 의미, 실천을 함께 보는 관점을 모빌리티라고 한다.

사실 고대사회부터 모빌리티는 항상 존재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이 진보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인간과 사물의 이동량과 그 범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동의 증가에 따라 현 세계를 보기에 유용한 관점이자 온 세상을 이동적으로 보는 관점인 모빌리티 전환(mobility turn)이 생겨났다(Urry, 2007; Merriman and Pearce, 2017).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은 그동안 익숙했던 정주주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주주의와 유목주의의 변증법, 즉, 부동성과 이동성의 유동적 변증법(Urry,

4) 본 연구에서는 'mobility'를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말로 이동(移動)이란, 움직여 옮김, 움직여 자리를 바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n.d.). 그러나 이동이라는 용어의 쓰임새는 move, movement, travel, (다수의) migration(능률교육, 2006)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movement나 travel이 아닌(Cresswell, 2006), 다양한 상호 관계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모빌리티의 특유 속성을 온전히 반영하고자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7: 63; 이희상, 2016)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모빌리티 연구(mobilities studies)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사회학자 Urry는 모빌리티를 사람뿐 아니라 사물, 기계, 정보, 생각, 이미지 등이 이동하는 것 그리고 이동하는 성격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라고 말했다(Urry, 2007). 그리고 이러한 모빌리티의 지리적 측면을 강조했던 지리학자 Cresswell은 모빌리티를 "움직임, 의미, 실천"의 얽힘으로 표현했다. 경관, 공간, 장소와 더불어 모빌리티는 오래전부터 지리학의 주제였으며, 문화와 사회가 말, 이미지, 여타 재현을 통해 의미를 할당하고 자기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에 지리적 이동이 얽혀드는 것이다(Cresswell, 2006: 3). 나아가 모빌리티를 연구하는 지리학자 Adey에 따르면, 모빌리티는 공간을, 그리고 그 모빌리티의 감정, 체험을 형태 짓는 사회적·문화적 의미와 맥락을 가로지르는 어떤 것이 이동하는 것이다(Adey, 2017).

이러한 문헌들에서 모빌리티 정의를 정립해보면, 모빌리티는 사람, 사물, 기계, 정보, 생각, 이미지 등의 지리적 이동 그 자체와 그 이동에 얽힌 사회문화적 의미 및 실천과 함께 바라보는 관점(Urry, 2007; Cresswell, 2006; Adey, 2017)임을 알 수 있다.

2) 모빌리티 특성(관계와 변화)과 개념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쓰이고 있는 모빌리티의 두 가지 성격은 첫째, 관계성(relationship), 둘째, 변화(change)한다는 특징이다. 치유감에 관한 본 연구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모빌리티 개념이 필요함을 모빌리티 문헌들에서 공통으로 논의하고 있는 특성 중 이 두 가지 모빌리티 특성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빌리티는 '관계'라는 특성이 있다. Cresswell(2006)에 의하면, 모든 모빌리티는 A에서 B의 위치로 떨어져 나가는 이동(displacement)을 포함하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선에 대한 이야기, mobility(Cresswell, 2006)

A ----------> B

여기에서 A 와 B 지점의 위치는 마을이나 도시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몇 cm 떨어진 지점일 수도 있다. Cresswell은 기존 이주 연구에서 A 와 B 사이를 흡입, 배출요인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A 와 B 사이를 연결하는 선(line)에 대한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movement는 유형, 전략, 사회적 함의가 고려되기 이전에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며 내용이 없고 추상적인 두 개의 location 간 동적인 것인 반면, mobility는 의미, 역사, 이데올로기가 있는 두 개의 place 간의 동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히 두 위치 사이의 movement나 travel과 같은 이동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동에 내재 되어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함께 보기 위해서는 이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인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Cresswell, 2006).

이러한 모빌리티의 관계적 특성은 관련 사례 연구에서도 속속히 등장한다. Monroe(2016)는 내전이 일어난 베이루트 도시 사회의 불안정한 모빌리티 사례를 민족지 방법론으로 탐구하였다. 베이루트 도시민들에게 걷기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의 불평등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지리적 배경과 관계가 얽혀있는 모빌리티였다. Monroe의 연구 중 한 인터뷰에 따르면, “어두운 밤 저격수의 눈을 피하고자 가능한 어두운 빌딩과 가깝게 걷거나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걷는 것을 피했다”라는 내러티브를 볼 수 있다. 이는 베이루트 도시민의 걷기가 일반적 도시 환경에서 걷기 경험과 극심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Komarova(2014)의 연구에서도 도시의 폐허를 경험한 한 보행자의 인터뷰에서 “(저 나라에서) 신기했던 경험은 보행자로서 거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걸을 수 있었다는 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맨홀 같은 것에 빠져버리진 않을지, 어떤 도로포장에 바지에 진흙이 묻진 않을지, 주차된 자동차 사이를 아나콘다처럼 구불구불 다녀야 하는 건 아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라고 묘사하고 있다. Komarova는 이 내러티브에서 도시의 직조 서비스의 쇠락이 도시 속 보행자의 모빌리티를 파편

화시켰다고 해석하였으며(Komarova, 2014; Adey, 2017 재인용; 최일만(역), 2019), 이 같은 사례는 한 도시의 모빌리티는 단순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을 넘어, 내전, 폐허와 같은 상황에 얽혀있는 모빌리티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모빌리티는 관계적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빌리티와 치유감 형성에 관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동을 보는 관점인 모빌리티 틀은 매우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상상 모빌리티는 상상이라는 매개와 결합하고 다양한 요소들과 관계를 맺으며, 개인의 과거 경험, 현재 상태,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여행을 경험하게 되며, 또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데에 수많은 전략, 함의, 방식들이 관계되어 나타나 치유감을 얻기에, 관계성을 지닌 모빌리티 관점에서 상상 속의 이동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모빌리티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논의하고 있는 두 번째 모빌리티 속성은 '변화'라는 측면에 있다.

이러한 모빌리티의 속성은 고전적 논의인 시카고학파 Burgess(1925)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Burgess에 따르면, 도시의 성장에 있어서 모빌리티가 변화의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어떠한 movement는 고정되고 변화가 없는 운동의 질서일 수 있지만, 또 다른 movement는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변화를 일으켜 도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이동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movement는 mobility라고 부를 수 있다(Burgess, 1925). 이 같은 모빌리티의 변화성은 Massey(2005)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Massey는 모빌리티가 일어날 때 파문도 함께 생겨난다고 하였다. "런던에서 밀턴 케인스로 가는 기차 여정을 하는 모빌리티를 행하면서, 단순히 기차역이라는 공간을 관통하거나 가로지르는 이동을 했다기보다는, 이동이 기차역이라는 공간을 오히려 약간 변형시키고, 공간의 계속적 생산을 돕거나 일으켰다"(Massey, 2005; Adey, 2017 재인용; 최일만(역), 2019)라고 언급하면서 모빌리티가 주변의 것을 변화시키는 속성이 있음을 꼬집었다.

결국, 이러한 모빌리티의 변화적 속성을 본 연구에서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치유라는 특성 자체가 아픔이 있던 것에서 온전해지는 것(박향기, 2017)에 있으며, 또한 치료의 목적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행동이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권석만, 2012). 즉, 상상 속 지리적 이동을 경험하여 치유감을 얻게 되었다면, 이미 개인의 건강상태 변화와 더불어, 삶의 행동, 태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변화된 특성을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는 모빌리티 시각에서 치유의 이동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모빌리티 성격을 본 연구에 적용했을 때, 치유의 이동은 상처받은 한 객체가 이동하면서 그를 둘러싼 상상이라는 매개와 결합함과 동시에, 다양한 관계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치유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동하면서 상처받은 한 객체가 치유감이 형성되는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동은 모빌리티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치유와 관련한 이동을 말할 때 모빌리티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모빌리티 두 측면: 모빌리티 수단·매개와 지리적 스케일에 따른 이동

본 연구는 모빌리티가 가리키는 다양한 의미[5] 중에서도 첫째,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동 수단 또는 매개로서의 모빌리티, 둘째, 지리적 스케일에 따른 다양한 지리적 이동으로서의 모빌리티 측면에 주목하였다.

---

5) Urry에 의하면, 모빌리티 용어는 (1)이동할 능력이 있는 것, (2)군중(mob), (3)사회적 모빌리티(social mobility), (4)지리적 이동(geographical movement)을 가리킨다(Urry, 2007). 본 논문에서는 (1)이동할 능력이 있는 것, (4)지리적 이동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1)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양한 이동 수단 또는 매개에 집중하여 (4)이동은 스케일에 따른 다양한 지리적 이동의 측면을 더욱 자세하게 문헌 검토하였다.

먼저,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 또는 매개에 관한 측면을 살펴보자.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송해주는 사람의 발, 동물, 기계와 같은 수단 및 매개와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단 및 매개를 통한 이동은 육체적 이동, 물리적 이동, 나아가 기술의 발달에 따른 통신, 가상, 상상 이동 등으로 그 범주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육체적 모빌리티는 걷기가 있다. 걷기 외에도 서 있기, 편하게 앉거나 눕기, 등산하기, 춤추기와 같은 다양한 신체적 움직임(Urry, 2007) 역시 육체적 모빌리티에 포함된다. Andrews et al.(2012)에 의하면 육체적 모빌리티는 기존의 걷기 말고도 달리기, 놀이, 댄스, 수영, 양궁 등이 있으며 나아가 기술에 의해 확대된 자전거, 스케이트, 스키, 스케이트보드, 스쿠터, 휠체어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에 의해 더욱 확대된 버스,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 역시 기초적인 육체적 모빌리티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Urry, 2007).

이어서, 말, 낙타, 코끼리 같은 동물에 의한 모빌리티는 과거 인류 사회에서 인간의 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말을 타는 신체는 말과 하나로 융합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속도와 리듬의 단위로 모빌리티를 변화시켰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회에서 코끼리 모빌리티는 매우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으며, 유목민들은 자신이 소유한 동물의 이주 패턴에 따라 국가경계를 넘나들었다(Adey, 2017; 최일만(역), 2019).

더불어, 자전거, 기차, 자동차, 버스, 배, 비행기 같은 기계와 인간의 접합에 의한 물리적 모빌리티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인간과 기계를 접합시켜 “자동차 운전자(car-driver)”(Adey, 2017)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그 단단한 결합체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자동차 모빌리티는 여가, 통근, 휴가를 위한 지배적 모빌리티로 걷기, 자전거 타기, 기차 여행 등 다른 모빌리티 시스템들을 압도하는 수준(Urry, 2007)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모빌리티 수단 이외에도 전동휠,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모빌리티, 교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버스, 택시 모빌리티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스마트모빌리티 등 발전된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다양한 양상의 물리적 모빌리티가 존재하게 되었다.

나아가 테크놀로지 발달에 의해 확대된 가상 모빌리티, 이동통신 모빌리티가 있다(Urry, 2007; Adey, 2017). 그 중, 가상 모빌리티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혁명에서 파생된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원격근무, 일대일 전화 수업, 이메일, 온라인 토론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Urry, 2007). 이러한 가상 모빌리티는 거의 무 제한적 이동성을 포함하여 지리적 스케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Pooley, 2009). 한편, 이동통신 모빌리티는 모바일 통신 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간과 결합하게 된 이동이다(Urry, 2007). 이동통신 모빌리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동의 질을 형성하며, 이동전화는 이동하는 시간을 단순한 유휴시간이 아닌 생산적인 시간으로 변화시켰고 이동하면서도 사회적 관계가 끊임없이 소통 유지되도록 만들었다(Adey, 2017).

마지막으로 상상 모빌리티는 이전에 육체적 모빌리티, 동물에 의한 모빌리티, 기계에 의한 모빌리티, 테크놀로지 발달에 의한 이동통신 모빌리티, 가상 모빌리티 그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이동으로, 상상이라는 수단 및 매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문학작품, 여행기, 가이드북,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한 상상력이 풍부한 모빌리티(imaginative mobilities)(Urry, 2007: 169-170)이다. 이러한 상상력이 풍부한 모빌리티의 한 예로는 유럽인들의 동양 순례기에서 찾을 수 있다. 동양을 순례했던 유럽인들의 여행기는 독자가 상상을 통한 모빌리티를 하도록 자극하였으며, 오늘날 서양 사회에 오리엔탈리즘 관점을 지속시키도록 만들었다(Said, 1979). 둘째, 융의 적극적 상상처럼 외부 자극에 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상상의 영역에서 매체를 통하지 않은 상상 모빌리티(imaginary mobilities)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상상 여행은 역시 후자인 매체를 통하지 않은 상상 모빌리티에 속한다. 상상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다음 제 2 절 4. 상상 모빌리티 개념화 부분에서 더욱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한편, 모빌리티의 또 다른 측면인 스케일에 따른 지리적 이동을 살펴보면, 거리,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이동이 존재한다. Pooley(2009: 144)

의 모빌리티 연속체(mobility continuum)는 이러한 지리적 이동의 스펙트럼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①집 주변에서의 일상적 움직임, ②학교, 직장, 쇼핑, 가족, 사교활동, 여가, 취미를 위한 일상의 짧은 거리에서 이동, ③사업, 가족, 사교, 여가 등의 활동들을 위한 규칙적인 보다 더 긴 여행, ④매주, 매월, 매년 주기적인 두 집 사이의 이동(주 1회 장거리 통근, 집과 대학 사이를 통학하는 학생, 두 부모 사이에서 이동하는 어린이), ⑤집에서 멀리 떠난 휴가로서의 여행, ⑥동일한 지역 내에서 국지적인 거주지 이동, ⑦동일한 국가 내에서 장거리 이주, ⑧국제적인 이주, ⑨거의 무 제한적인 가상적인 이동성을 포함하는 연속체이다(Pooley, 2009; 김정아, 2015).

본 연구에서 쓰이고 있는 상상 속 지리적 이동으로서의 여행은 ⑤집에서 멀리 떠난 휴가로서의 여행의 의미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거리와 넓이에 따른 지리적 스케일의 모빌리티 연속체는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추세이다(Pooley, 2009). 더군다나, 본 연구에서는 상상을 수단으로 여행하기에, 물리적 세계에서 각 스케일 간 모빌리티 제한이 있다기보다는 경계가 더욱 흐려진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1. 모빌리티 수단·매개와 지리적 스케일 따른 이동 예시

3. 적극적 상상

1) 적극적 상상 도입 배경과 의미

본 연구에서 상상은 심리학자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이 개발한 적극적 상상(active imagination)을 기반으로 한다. 학계에서 이루어진 여러 상상의 연구 중에서도 본 연구가 분석심리학의 적극적 상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다른 상상 이론보다 상대적으로 치유감과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치료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지심리학자 Vygotsky(1930)의 상상 이론은 현실과의 연결과 제한이 없음을 주요 특징으로 보았으나(Vygotsky, 1930; 허승희 · 박동섭 · 강승희, 1999: 17-18 재인용), 이는 치유와 연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보단 아동의 발달과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팽영일, 2013). 한편, 사회문화심리학(sociocultural psychology)에서의 상상은 사회문화적 세계와 밀접한 연결성을 중시하고 있어, 상상의 몰입에 있어서 “능동”과 “수동”, 상상의 “외적”과 “내적”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피하나(Cangià and Zittoun, 2020; Zittoun and Gillespie, 2015), 상상에 있어서 수동적 측면과 외적인 측면은 치유적 효과와 연결되기는 다소 어렵다(Jung and Chodorow, 1997: 20: 135; Cassar, 2020: 17; Johnson, 1986: 100). 이 같은 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상상을 치유감 형성과 긴밀히 연결하고자 분석심리학의 적극적 상상을 기반으로 하게 되었다.

적극적 상상은 융이 만든 분석적 심리치료(analytical psychotherapy) 내에서 활용되는 기법 중 하나로, 분석적 심리치료의 주요 특징은 인간 전체를 살펴보고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이부영, 2011: 237). 일반적으로 융 학파에서 분석적 심리치료의 원리는 무의식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다양한 의식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형상화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송진희, 2006)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만남, 대결, 소화의 과정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치료한다 볼 수 있다(이부영, 2011). 이러한 무의식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의식적 차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법에는 꿈 분석, 그림 분석 등 다양한 분석상의 특수기법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이 있다.

적극적 상상이란, 내면 이미지의 흐름을 관찰하기 위한 자기 분석 또는 성찰(introspection)의 한 방법이다(Jung and Kerényi, 1949). 이때, 상상(imagination)은 무의식에서 거의 쉼 없이 흘러나오는 에너지와 이미지의 흐름이며, 상상력이란 마음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Johnson, 1986). 적극적 상상은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을 활용하여(Johnson, 1986)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비판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의식계에 떠오르게 하여 마치 자기 밖에 있는 객체처럼 무의식과 대화(이부영, 2011)하는 것이다. 적극적 상상의 핵심은 의식적으로 상상의 경험에 참여하는 것(Jung and Kerényi, 1949; Johnson, 1986)으로, 이렇게 몰입된 상상력은 더욱 깊은 무의식의 층으로 인도할 수 있다(Jung and Kerényi, 1949). 즉, 적극적 상상은 새로운 무의식적 주제들이 의식으로 떠오르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하는 것을 의미한다(권석만, 2012: 111).

이러한 적극적 상상 이론은 융이 1913-1916년 사이 무의식의 충동과 이미지 연구작업에 전념하게 되면서 발견되었다(한성우, 2012). 초월적 기능(transcendent function), 그림 접근법(picture method), 적극적 환상(active fantasy), 적극적으로 환상하기(active phantasying)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1935년 런던의 타비스톡(Tavistock) 강연에서 처음 적극적 상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Chodorow, 1995; 유경숙, 2019 재인용), 이 적극적 상상 기법은 「Essays on a Science of Mythology(1949)」에서 내면 이미지의 흐름을 관찰하기 위한 자기 분석 또는 성찰의 한 방법으로 소개되었다(Jung and Kerényi, 1949). 융은 「원형과 집단적 무의식(The Archetype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과 「연금술의 연구(Alchemical Studies)」에서 환자들이 그린 그림을 소개하면서 적극적 상상 기법이 무의식의 심상을 형상화함으로써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송진희, 2006).

융의 초기 연구에서는 적극적 상상이 보조적인 치료 도구로만 사용되었으나, 융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면서 비로소 내면 분석과

통합을 위한 하나의 구조화된 치료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송진희, 2006). 융의 제자이자 분석가였던 Marie-Louise von Franz는 적극적 상상을 발전시켜 그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1)자아의 연쇄적 사고로부터 정신을 비우기, (2)내적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3)자신이 관찰한 것을 글, 그림, 춤으로 외적 형식 부여하기, (4)윤리적 직면을 통해 자신이 받은 메시지 결과를 감당하기 단계로 구분하였다(주리애, 2015; 유경숙, 2019 재인용). 또한, Schmais(1974)는 융의 심리치료 작업이 예술의 사용을 신뢰하였고, 이러한 예술 경험이나 적극적 상상이 진단 및 치료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유경숙, 2019). 이와 같이 분석심리학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적극적 상상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창시자 융이 적극적 상상 치료법을 개발한 이후 그 방법론과 틀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선에서 사용되고 있기에 융의 적극적 상상의 방법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하여, 본 연구는 융이 개발했던 기본적인 적극적 상상 개념과 치료법의 선에서 그 방법을 가져오기로 하였다.

2) 적극적 상상의 치유성: 적극적 상상과 수동적 상상의 차이와 내부와 외부의 차이

본 연구는 상상과 치유감 형성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치유와 관련된 상상인 분석심리학의 접근방식을 택하였다. 분석심리학은 상상을 “적극적”과 “수동적”(Jung and Chodorow, 1997: 28), 그리고 “외부”와 “내부”의 측면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Jung and Chodorow, 1997: 85), 상상은 ‘능동적’이고 ‘내부’의 흐름을 볼 때 치유가 증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Jung and Chodorow, 1997: 20: 135; Cassar, 2020: 17; Johnson, 1986: 100).

첫째, 융은 적극적 상상과 수동적 상상을 구분하였다(Cassar, 2020: 3). 적극적 상상은 의도적이고(deliberately), 의식적으로(consciously)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나, 수동적 상상은 비자발적이고(involuntary), 무의식적인(unconscious) 상상을 의미한다(Cassar, 2020). 수동적 상상에서 상상은 촉발되지 않으며(not evoked), 알아채지 못하고(unnoticed) 표류하는 현상인 반면(Jung and Chodorow, 1997), 적극적 상상은 인격을 치유(healing), 성장(raising), 변형(transforming)시키는 방법이다(Jung, 1939; Cassar, 2020: 17).

둘째, 융의 적극적 상상 정의는 내면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Jung and Kerényi, 1949)으로, 이것을 통해 분석심리학에서 상상이 '내적'과 '외적'을 구분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적극적 상상의 방식은 외부수단을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내면의 작업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Johnson, 1986: 100).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상상을 치유감 형성과 연결하기 위하여 적극적 상상 개념과 기법을 가져오게 되었다.

3) 적극적 상상의 방법과 사례

적극적 상상을 위해서는 내면의 심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권석만, 2012). 적극적 상상은 상상 과정에서 무의식에 내재된 기억이나 자아 콤플렉스 내용을 구체적인 이미지나 경험을 통하여 그와 관련된 상(像)을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과정(한성우, 2012)이기에, 적극적 상상을 시작하게 되면 곧 내면에 있는 어떤 부분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확신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들은 확실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Johnson, 1986).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미지들이 바로 상징이며, 상징을 체험할 때는 자동적으로 상징으로 표현되는 콤플렉스, 원형, 내면의 심적 실체를 만나게 된다(Johnson, 1986). 이러한 실체는 외부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음성중 하나로 적극적 상상은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부분 중 하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상상은 물리적 삶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관되며, 초 개인적이고 초월

적인 힘의 세계와도 연결된다. 결국, 상상은 바깥의 진짜 세계와 연결해줄 뿐만 아니라 진짜보다 더한 진짜인 존재론적 차원과 연결해준다(Johnson, 1986).

이러한 적극적 상상을 직접적으로 내담자에게 적용하였을 때의 사례는, '내면의 예술가와 대화하여 보이지 않는 내용에 인격을 부여하고 이미지의 형태로 표면에 데려와서 서로 대화를 통해 상황을 다루어보기', '적극적 상상을 통해 신화 속 나오는 아더왕이 되거나 고대 그리스 신화적 여정 다니기', '되풀이되는 꿈을 연장하여 적극적 상상을 하는 방법', '상징적인 장소 방문하기' 등이 있을 수 있다(Johnson, 1986). 여기에서, '상징적인 장소 방문하기'는 상상 속 지리적 이동에 적극적 상상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상징적인 장소 방문하기는 상상 속에서 '어떤 장소로 가는 것'으로, 거기서 만날 사람을 보기 위해서 탐색을 시작하는 것이다. 상상력은 참여자가 갈 필요가 있는 내면의 장소로 데려가고, 만나길 원하는 내면의 사람들에게 참여자를 연결해준다. 내면의 장소는 정글 속 작은 숲, 해변, 목가적 초원, 수도원의 작은 방 중일지 모른다. 참여자는 이를 통해 에너지가 있는 자신의 내면의 장소를 발견할 수 있고, 되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발견하는가를 학습할 수 있다(Johnson, 1986). 적극적 상상의 이러한 예시는 본 연구에서 개념화하고자 하는 상상 모빌리티 역시 충분히 적극적 상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적극적 상상에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림 그리기, 춤추기, 조각하기, 빚기, 대화를 적거나 시각화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Humbert, 1993), 더욱 상세한 적극적 상상의 기록법에 대해서는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방법에서 다루고자 한다.

4. 상상 모빌리티 개념화: 상상으로의, 상상 내,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1) 상상 모빌리티의 정의

상상 모빌리티(imaginary mobilities)란, 적극적 상상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상상의 영역에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지리적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상 모빌리티가 될 수 있는 사례에는 걷기, 농구(Kanthack et al., 2014), 자전거, 버스, 자동차, 비행기, 여행, 이주하기(Cuzzocrea and Mandich, 2016)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모빌리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Kanthack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농구선수들이 자유투를 상상하는 훈련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자유투를 상상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여기에서 상상 속에서 자유투를 하는 움직임을 상상한 그룹은 의도적으로 상상 속 운동을 하였기에 상상 모빌리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uzzocrea and Mandich(2016)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90세가 되었을 때의 미래를 상상하도록 한 사회적 실험을 하였는데, 대부분 청년이 미래에는 지금 살고있는 곳과 다른 장소로 이주해 있는 상상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상상한 미래의 공간에서 지리적 이주를 한 행위 역시 상상 모빌리티의 한 예시가 될 수 있다.

상상 모빌리티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상상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는 상상이 수동이 아닌 적극적일 때, 치유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Jung and Chodorow, 1997: 20: 135; Cassar, 2020: 17; Johnson, 1986: 100). 앞서서도 언급한 적극적 상상은 사람들이 무의식의 깊은 층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는 곧 “치유(healing), 성장(raising), 성격의 변화(transforming personality)”(Jung, 1939; Cassar, 2020: 17)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치유감과 상상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치유감 형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써 우연한 수동적 상상이 아닌 의도적으로 상상의 영역에 접근하는 적극적 상

상을 기반으로 하였다.

더불어, 상상 모빌리티는 Urry(2007)가 제시한 상상력이 풍부한 모빌리티(imaginative mobilities)와는 다른 개념이다. 상상력이 풍부한 모빌리티는 텍스트, 여행기, 가이드북, 사진, 영화 등과 같이 외부 매체를 통해 자극된 모빌리티(Urry, 2007: 169)를 의미한다. 상상 모빌리티 역시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일부 구축될 수는 있으나, 매체를 통하지 않고도 한 개인이 경험한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어린 시절의 기억과 꿈에서의 장소들로 구축될 수 있다. 더불어, 상상력이 풍부한 모빌리티는 의도적으로 상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수동적으로 생겨난 상상이며, 이미 구축되고 만들어진 외부 자극에 의존한다. 그러나, 상상 모빌리티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몰입하여 생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능동적으로 형성된 상상 안에서 지리적 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상 모빌리티는 상상력이 풍부한 모빌리티와는 다르게 외부의 자극에 의하지 않고 형성된 상상에서의 이동이기에 이만의 이점이 있다. 상상 모빌리티는 외부 자극이나 주어진 환경에 덜 영향을 받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동할 공간과 장소를 개척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부분에서 내면에서 갈망하는 장소 또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예로, 과거 어린 시절의 집, 앞으로 방문하고 싶은 장소, 국가 등)에 가도록 하여, 내면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전자기기나 매체 없이 어떠한 상황(예로,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속에서도 인간에게 주어진 기초적인 상상력을 활용하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는 외부의 자극 없이 의도적으로 몰입한 상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지리적 움직임인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치유감 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상상 모빌리티에 수반되는 3가지 모빌리티

상상 모빌리티는 이와 관련한 3가지 모빌리티가 수반된다. 이는, (1)상상으로의 모빌리티(mobilities into imagination), (2)상상 내 모빌리티(mobilities in imagination), (3)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mobilities from imagination)가 있다(그림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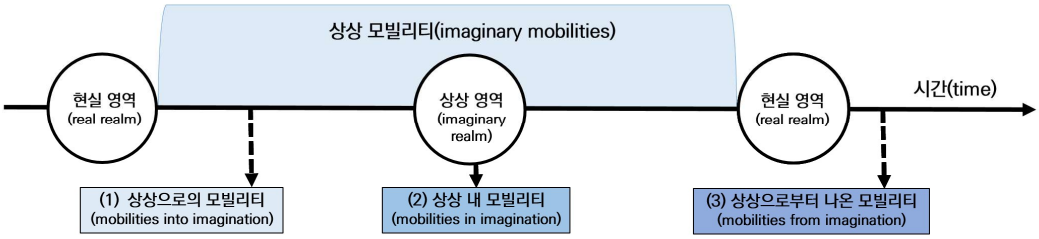

그림 2-2. 3가지 모빌리티가 수반되는 상상 모빌리티

첫째, (1)상상으로의 모빌리티는 현실의 공간에서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해가는 움직임을 뜻한다. 모든 모빌리티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떨어지는 이동(displacement)을 포함하고 있으며(Cresswell, 2006), 이는, 현실의 지점에서 상상의 지점으로 도달하는 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실에서 상상의 영역으로 이동하고자 몰입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현실과의 관계를 재빨리 단절하고 상상의 영역으로 쉽게 옮겨가지만, 어떤 이들은 상상으로 몰입하는 이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현실의 영역에서의 개인이 겪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들이 자신의 상상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Cangià, 2020: 700). 이러한 측면에서,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과정에서는 상상하는 한 개인이 인지하는 영역이 현실과 상상 모두가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실에서 상상으로 거의 이동하기 직전, 상상의 세계 배경지를 그들이 직접 경험한 과거의 일이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미디어의 자원을 받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재료로 엄마의 자궁, 하늘, 우주와 같은 꿈같은 장소들도 사용될 수 있다.

둘째, (2)상상 내 모빌리티는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과정에서 구축된 상상의 영역 속에서 자유롭게 지리적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 중의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상 내 모빌리티는 상상 속에서 걷기, 피켜 스케이팅, 비행기 타기 등 상상 내 지리적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사람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통해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 속 물체, 아이디어 등의 다양한 움직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Cresswell, 2010). 현실 세계에서의 이동처럼 이러한 상상 속 모빌리티에서는 다양한 모빌리티적 요소들이 등장할 수 있다. 앞서서 언급한 (1)상상으로의 모빌리티에서는 참여자들이 인지하는 공간의 범위가 현실과 상상의 영역이 혼재되어있는 반면, (2)상상 내 모빌리티에서는 참여자가 상상의 영역만을 인지한다.

셋째, (3)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는 상상이 끝난 이후에도 상상 내 모빌리티의 경험이 현실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 일상 속에서도 움직임, 이동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모빌리티가 가진 변화(change)라는 속성이 작용한다. 모빌리티의 변화적 속성을 바탕으로, 상상 속 모빌리티의 경험이 실생활 속 모빌리티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로서 현실 속 수정된 움직임,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상 내 모빌리티가 실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1단계, 2단계의 모빌리티를 거쳤어도 3단계 모빌리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회문화심리학 문헌에 따르면 상상은 사람을 움직이는 중추적인 기관이며 매우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Zittoun and Gillespie, 2015) 현실 세계에서 실제 지리적 이동성을 촉진 시킬 수도 있으며 느리게 하거나 방해할 수도 있다(Pedersen and Zittoun, 2022). 예를 들어, 농촌으로 귀농을 상상하여 실질적으로 귀농을 실천에 옮긴 사람들도 있지만(김반석, 2019), 마음속으로 귀농을 상상하였으나 실천에 옮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상상 내 모빌리티 이후 일상의 삶 속에서의 움직임을 일으킨다면, 또 다시 수정되고 실천된 모빌리티를 통해 행동, 태도, 마음가짐에 영향을 끼쳐 이 모빌리티는 지속된 심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앞서서 언급한

(2)상상 내 모빌리티는 상상 속 제약 없이 이동이 가능하지만, (3)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는 현실 세계 속 여전한 제약을 가지고 이동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목적인 어떻게 상상 모빌리티가 치유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러한 3가지 이동이 수반되는 상상 모빌리티의 렌즈를 활용하여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류하고자 한다. 다음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방법에서는 이러한 상상 모빌리티의 한 예시로 상상 여행 실험을 연구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이 상상 여행 실험을 적용할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이라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방법

제 1 절 상상 모빌리티 중 상상 여행 실험 설계

1. 여행 모빌리티와 한 달간의 상상 여행 형식 선정

본 연구는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와 작용 방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자 상상 모빌리티의 지리적 이동의 한 유형으로써 여행 모빌리티를 선택하게 되었다. 여행(旅行, travel)의 사전적 정의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표준국어대사전, n.d.)로, 한 장소에서 보통 다른 먼 거리의 장소로 여정을 만들어내는 일이다(Cambridge Dictionary, 2022; Merriam-Webster's Learner's Dictionary, 2022). 이러한 여행은 앞서서 서술한 문헌연구 및 연구틀에서 Pooley(2009: 144)의 모빌리티 연속체(mobility continuum)에서 ⑤집에서 멀리 떠난 휴가로서의 지리적 스케일에 해당한다.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 따른 모빌리티 연속체에서 여행이라는 모빌리티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여행 모빌리티의 지리적 스케일 내에서는 걷기, 운동, 자전거, 자동차, 버스, 비행기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단·매개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여행 모빌리티 사례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단 및 매개와 치유감 형성과의 관계 통찰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었다. 둘째, 여행 모빌리티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본 연구의 대상인 취업준비청년층에게 제한된 모빌리티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연구 대상이 이민자일 경우 이주 모빌리티를, 휠체어를 타는 경우 걷기 모빌리티를, 농구선수일 경우 운동 모빌리티를 선택하였을 수 있지만, 취업준비청년층은 걸어서 공원을 산책하거나 근린에서 자전거 모빌리티(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공용자전거를 대여할 경우)를 행하는 것에선 비교적 자유롭지만, 다른 고장이나 먼 거리로 여행을 가는 모빌리티는 지속적인 경제적 수입이 없기에 여행 모빌리티가 제한되어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상대

적으로 다른 모빌리티에 비해 여행에 제한되어있는 취업준비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행 모빌리티를 선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상 모빌리티의 한 유형으로서 여행 모빌리티를 선정함과 더불어, 구체적인 형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 달간의 상상 여행'(정태기, 2008)의 형식을 참고하였다. 한 달간의 상상 여행은 영성훈련 과정 중 하나로 눈을 감은 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상상 속에서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여행에서는 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으며 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마음껏 여행하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이때, 사람들의 여행 행로는 매우 다채롭다. 아프리카에 코끼리를 타고 여행하고 돌아오거나, 마음에 억눌림이 있어 여행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돌아오거나,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여행 시간을 마쳐 버리는 유형도 있다(정태기, 2008). 본 연구에서는 상상 모빌리티 중 여행 모빌리티의 형식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한 달간의 상상 여행에 영감을 받았다. 다음은 상상을 매개로 한 모빌리티로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실제로 치유감 형성의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만약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게 되었는지 그 방식을 더욱 학술적 자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분석적 심리치료 내 적극적 상상에 기반한 상상 여행의 기록법, 횟수, 시간, 공간마련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2. 적극적 상상에 기반한 상상 여행 방법 마련

1) 적극적 상상에 기반한 상상 여행 기록법: 글쓰기, 그림그리기, 이야기하기

본 연구에서는 상상 모빌리티 중 여행 모빌리티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실질적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적극적 상상의 기록법 중 모빌리티를 묘사하기에 유용한 글쓰기, 그림그리기, 이야기하기(인터뷰) 방법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적극적 상상의 기록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적극적 상상의 기록법에서 핵심적인 것은 첫째, 상상의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극적 상상을 통해 체험하게 될 내용을 어떻게 기록할지 연구자는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Johnson, 1986). 둘째, 이러한 기록법들은 적극적 상상을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대화를 기록할 손쉽고 간단한 방법이어야 한다(Johnson, 1986). 셋째, 적극적 상상의 기록법은 내면의 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상의 기록 및 묘사 방법들이 있는데, 이는 글쓰기, 춤추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조각, 큰 소리로 말하기, 신체 운동 등이 있으며(Johnson, 1986; Jung and Chodorow, 1997), 이 밖에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Johnson, 1986). 이러한 적극적 상상 기록법의 중요점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상상 속 일어나는 모빌리티를 묘사하기에 유리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이야기 하기를 선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상상 속 여행 모빌리티를 묘사하기 위하여 적극적 상상의 기록법 중 글쓰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글쓰기 방법은 첫째, 접근성이 용이하고 표현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적극적 상상 논의에서도 글쓰기는 적극적 상상을 묘사하는 데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손꼽힌다(Johnson, 1986). 글쓰기는 손노트 방법과 컴퓨터 타자로 글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손 노트 방법을 사용하였다. 손 노트 방법은 융이 직접 사용한 방식이기도 하며, 대부분 사람이 손으로 직접 써서 기록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한성우, 2012). 손 노트 방법은 자신만의 독특한 필체로 기록함으로써 적극적 상상에 어떤 의식이나 고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상상에 집중하고 의식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있는 방법이다(한성우, 2012). 둘째, 글쓰기는 상상 속 일어나는 모빌리티의 내용을 상세히 담아낼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도구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연구에서도 글쓰기 형식은 모빌리티를 풍부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도구(Adey, 2017)로써, 사진이나 그림은 모빌리티의 실시간적 움직임이나 특성을 담아내기 어렵고 한순간 포착된 장면만을 설명해줄 수 있는 반면, 글쓰기는 모빌리티의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리하여, 본 연구는 접근과 방법이 수월하고, 상상 속 일어나는 여행 모빌리티의 경로나 행동의 자세한 부분들을 추적해 줄 수 있는 글쓰기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상 속 일어나는 여행 모빌리티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림 그리기는 상상 속 여행을 가시화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다른 언어적 매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림 그리기 방법을 다른 모빌리티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는데, 이는 이민자가 정착지에서 어떻게 치유적 장소를 만들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에서도 인터뷰, 글의 자료 이외에 그림, 사진과 같은 시각적 표현을 자료로 활용하여 내러티브 자료를 보완해주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였다(Sampson and Gifford, 2010). 그리하여 본 연구는 그림 그리기가 비록 모빌리티의 모든 부분을 포착할 수는 없지만, 상상 속 여행 모빌리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나 경로를 그려달라고 요청하여 상상 여행의 한 장면이나 정지된 화면이라도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그림 그리기는 상상 여행에 담긴 상징적 뜻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그리기는 적극적 상상에서 비언어적 매체로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다(Jung and Chodorow, 1997). 적극적 상상에서 그림 작업은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이부영, 2011). 꿈, 상상, 강박관념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은 의식의 간섭이 없는 한 자율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무의식의 심상에 보내어 일련의 과정을 형상 속에 나타내게 된다(이부영, 2011). 덧붙여,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미술 재료의 선택 역시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다. 종이(A4용지, 스케치북, 신문지, 화장지)나 매체(연필, 잉크, 색연필, 핑커페인트, 볼펜, 수채물감, 유화) 등(Abt, 2005)을 준비하는 것은 적극적 상상의 묘사를 더욱 실감 나게 전해줄 수 있으며, 마음의 상태를 더욱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단, 적극적 상상에서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미적 표현에 신경 쓰게 되면 순수한 형태로 의식에 전달되지 못하며 성급하게 지적으로 무의식의 뜻을 밝히려 해서도 안된다(이부영, 2011).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상상의 효과적인 매개체이자, 상상 여행기를 글로 쓰거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언어적 매체를 보완해주며, 상상 여행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 기록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상 여행의 묘사 방법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사후 인터뷰 방식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기는 상상 속 경험했던 여행을 이야기함으로써 내면을 표출할 수 있는 도구이다. 적극적 상상에 대해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Johnson, 1986: 163). 더불어, 이야기하기는 상상 속 지리적 여행에서 경험했던 것 중 글쓰기, 그림 그리기에서는 차마 다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욱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모빌리티 측면에서, 이야기 내러티브는 모빌리티를 추적할 수 있는 핵심적 도구(Adey, 2017)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상상 여행 이후, 자신이 겪은 상상 여행을 연구자에게 사후 인터뷰를 통해 털어놓음으로써, 더욱 생생하고 자세한 상상 여행 내용을 담아내고 세밀히 모빌리티를 추적하여 이전 글과 그림으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 이같이, 본 연구에서는 상상 여행의 글쓰기, 그림 그리기 방법에서 놓쳤던 모빌리티를 추적할 수 있으며, 적극적 상상에서도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하기를 상상 여행의 사후 인터뷰 방식을 통해 활용하였다.

2) 적극적 상상에 기반한 상상 여행 공간마련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상 속 여행 모빌리티를 묘사하기 위하여, 적극적 상상의 기록법을 기반하였을 뿐 아니라, 적극적 상상의 공간마련 방법의 일부도 상상 여행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상상 여행 조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연구자와의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플랫폼 안 이었다.

먼저, 적극적 상상의 공간마련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 상상의 기록법을 정한 이후, 이와 같은 기록을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Johnson, 1986). 둘째, 적극적 상상을 위한 공간은 한동안 바깥세상과 차단하고 혼자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적극적 상상을 위해서는 철저히 혼자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어슬렁거리다 어깨너머로 쓰는 걸 넘겨다본다면 무의식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내용이 의식으로 흘러나오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Johnson, 1986). 셋째, 적극적 상상의 참여자가 자신의 상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방안을 왔다 갔다 하거나, 욕을 하거나, 내면의 인물에게 소리 내 말을 하거나, 울고 싶어지면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날 것의 감정과 정서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어야 한다(Johnson, 198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상상 공간마련 방법을 활용하여 바깥세상과 차단된 실질적 실험실의 장소에서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조사 당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면의 실험 방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실험으로 전환하게 되어, 이에 알맞은 상상 여행의 공간마련 방법을 구현하게 되었다. 먼저, 1차 조사를 진행하기 전 연구참여자들에게 최대한 적극적 상상의 공간마련 방법을 활용하여 ZOOM 플랫폼 설치 안내와, “가능한 조용하고 최대한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길 부탁”하였으며, 만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조용한 장소를 구하기 힘들다면, 이어폰 사용을 권장”한다고 안내하였다. 이러한 안내에 따라, 참여자들이 상상 여행을 할 때는 ZOOM 플랫폼에 연구자 없이 홀로 남아 실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ZOOM 플랫폼을 통한 연구 조사가 이루어진 연구참여자들의 실질적 장소는 그들의 일상적 장소인 “집”이었다, 또한, 집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어 진솔한 상상 여행 및 인터뷰의 참여가 힘들 시에는 이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서 ZOOM을 통한 연구 참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비록, 실질적 장소에서 “집”이나 “카페”가 바깥세상과 차단된 공간은 아닐지라도, 비범하고 예외적인 치유의 명성이 알려진 경관, 의료시설, 실험실이 아닌,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상적 공간에서 치유의 과정 실험이 이루어진 점은 최근 건강지리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상적 전환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참여자들의 상상 여행이 이루어진 공간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플랫폼이었으며, 이러한 상상 여행이 일어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은 그들의 일상적 장소인 “집”과 “카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평소 일상적 상호작용을 하는 요소들에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온라인상 ZOOM 플랫폼에 홀로 남아 상상 여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3) 적극적 상상에 기반한 상상 여행의 횟수와 시간 설정

본 연구에서 상상 여행의 횟수는 1회, 상상 여행 시간은 10분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상상 여행 횟수를 1회로 설정한 까닭은 첫째, 본 연구는 적극적 상상에 기반한 상상 여행을 활용한 초기 지리학 연구로, 상상 여행을 한번 시행하였을 때 얻은 치유감이 얼마나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심리치료에서도 단 1회만 진행하는 단일회기치료(single-session therapy)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치료로, 1회 면담만을 통해서 환자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촉진 시키는 방법이 최근 강구되고 있기 때문이다(Talmon, 1990; Dryden, 2018). 이러한 단일회기치료는 환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방식으로, 단 1회의 회기만으로 많은 세션을 압축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치료이다(Talmon, 1990). 본 연구는 의학적으로 판정된 질환이 있는 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 치유의 의미를 담은 연구이기에, 더욱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1회만을 진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맥락을 같이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상상 여행의 시간을 10분으로 설정한 이유는 상상 여행은 적극적 상상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적극적 상상에 관한 여러 논의에서 처음 적극적 상상을 시도할 때의 시간을 10분 정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 상상이 처음 시행될 때는 불과 10분 정도밖에 지

속되지 않으며 10분 후 곧 갈등에 봉착하여 적극적 상상을 하게 했던 무의식의 배열이 의식의 대극을 만들어낸다(Humbert. 1993). 이와 같은 논의는 적극적 상상을 바탕으로 즉흥적 움직임을 결합한 춤동작 치료 기법에서도 드러났는데, 동작자들이 내면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진정한 움직임은 초기에 12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는다(Chodorow, 1991: 41-42). 비록, 처음 적극적 상상을 시도할 때에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단지 경험에 몰입하면 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30분에서 2시간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Chodorow, 1991). 더불어, 적극적 상상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으며, 기법이 익숙해지더라도 하루에 10-15분 정도만 전념하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Jonasson and Ingason, 2018). 본 연구는 상상 여행을 활용한 초기 연구로, 단 1회의 상상 여행만을 실시하였기에 상상 여행의 시간을 10분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3. 상상 여행(Imaginary Travels) 실험 프로그램

본 연구는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와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규명하기 위해, 상상 모빌리티의 한 유형으로서 상상 여행(Imaginary Travels) 실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상 여행이란, 10분간 눈을 감고 돈이나 시간의 제한 없이 상상 속 어디든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상상 여행은 위에서 설명하였듯, 상상 모빌리티의 유형 중 여행을 선택하고, 한 달간의 상상 여행(정태기, 2008)의 형식을 빌려왔으며, 적극적 상상에 기반한 기록법, 공간마련방법, 횟수, 시간을 설정하여 본 연구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한 실험 프로그램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설계한 상상 여행은 표 3-1과 그림 3-1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상상 여행에 들어가기 직전, 상상 여행 가이드라인(그림 3-2)을 바탕으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표 3-1. 상상 여행(Imaginary Travels) 프로그램 과정

1. 연구참여자들은 앉거나 누운 편안한 자세에서 눈을 감는다.
2. **상상 여행 실시**: 연구참여자들은 ZOOM을 통해 흘러나오는 10여 분 정도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한 달 동안 돈 시간 제약 없이, 마음껏 이 세상 어디든지 상상 속 여행을 다녀온다. 이때, 연구자는 ZOOM 온라인 플랫폼 방에서 화면 끄기와 음소거를 통해 사라지며, 연구참여자는 ZOOM 방에 홀로 남아 10여 분 정도 흘러나오는 노래에 눈을 감고 상상 여행을 하도록 요청받는다.
3. **상상 여행 기록**: 10분간의 상상 여행이 끝나면,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상상 여행을 자신이 준비한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다.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상 여행 경로나 여행 중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자세히 묘사한다. 기록이 끝나면,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에게 메신저로 호출하여 다시 연구자가 ZOOM 방안으로 들어온다. 참여자는 직후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연구자에게 상상 여행 여정을 기록한 글과 그림을 전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경험한 상상 속 여행의 이야기들을 사후 인터뷰를 통해 설명한다. 어디에 갔는지의 경로나,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상상 여행을 통해 깨닫게 된 점, 상상 여행 전후로의 느낀 점 등을 이야기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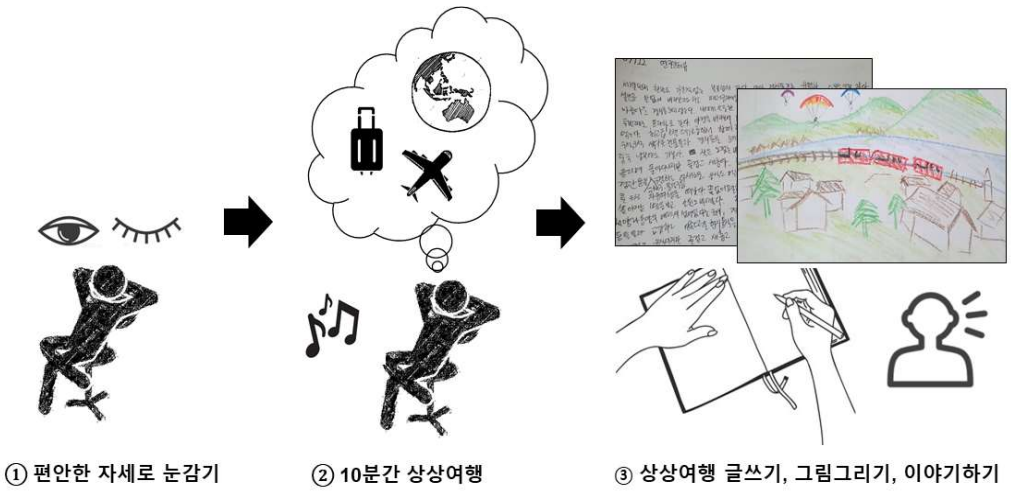

그림 3-1. 상상 여행 프로그램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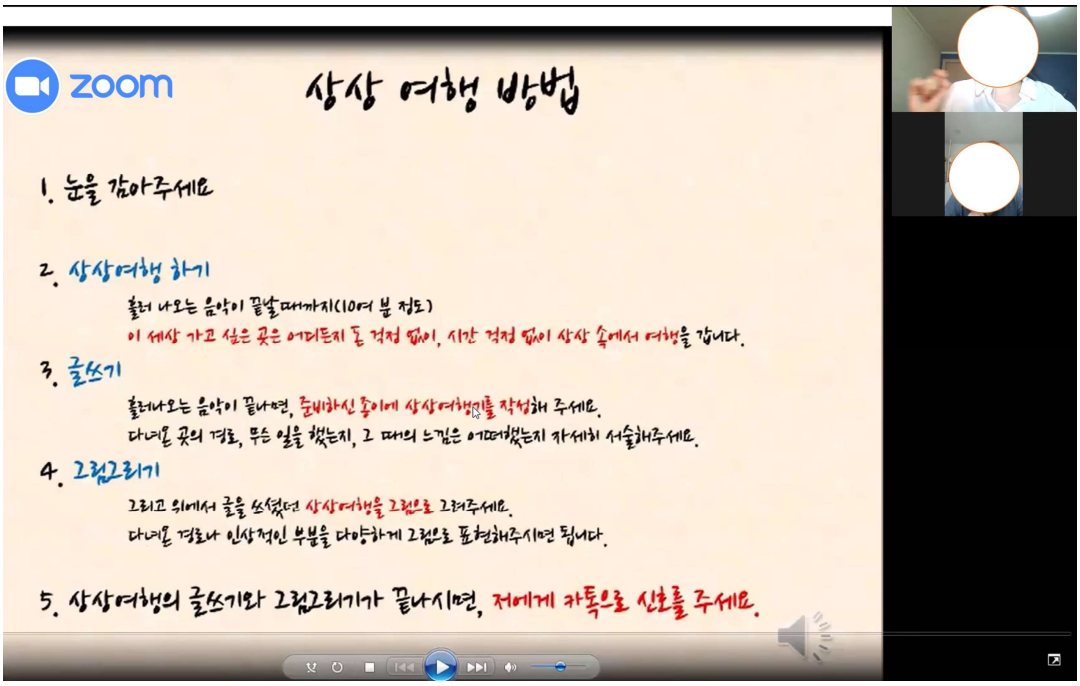

그림 3-2. 연구참여자에게 제공된 상상 여행 가이드라인

제 2 절 연구 대상: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상 모빌리티 중 상상 여행을 적용할 대상으로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을 선정하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밝힌다.

1.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 정의

본 연구에서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이란, 본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한 1차 조사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미취업상태이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층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의 정의 배경을 첫째, 서울시 거주의 범위, 둘째, 미취업과 취업 준비 상태, 셋째, 청년층 연령 범위의 범주로 나누어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1차 조사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말한다. 최근, 도시가 행정적 경계를 넘어 흐름의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이같이 행정구역상 경계로 지리적 범주를 제한한 이유는 현재 대부분 청년일자리센터의 운영 및 청년 취업 지원이 행정적 경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이 다를 시에는 다른 행정 지원과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 준비의 체감도 다를 것이라 판단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라는 행정적 경계를 따라 연구 대상을 제한하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미취업과 취업 준비 상태란, 1차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미취업상태에 있으며,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층을 말한다. 여기에서, 미취

업상태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정의를 살펴보면,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특정 기간 구직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취업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근로 연령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된다(ILO, 2016). 미취업의 범위에서 더욱 좁은 개념인 취업 준비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즉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는 경우와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윤윤규 등, 2018; 장인성, 2019)를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의 취업 준비 상태의 정의는 통계청 취업준비자의 정의에 근거한다. 통계청에서는 취업준비자를 비경제활동인구[6] 중 미통학 '취업준비자' 및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자'로 정의하고 통계를 실시하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일반고용동향). 비록 통계청의 정의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의 취업준비자만 포함하나,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상태를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3개월 이하 단기 취업자(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취업 준비 상태에 있는 청년까지 연구참여자로 포함하기 위해서이다.[7]

이러한 본 연구의 취업 준비 상태의 정의는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인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만 15세

6)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주간,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된다(통계청 홈페이지-통계용어 및 지표)

7) 통계청에서는 취업준비자가 구체적인 구직 활동 없이 공무원시험 공부만 하는 경우는 실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또 어떤 형태든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취업자로 우선 분류된다. 이 경우에도 만약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구직 활동을 한다면 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를 취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ILO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반드시 하나의 활동 상태에만 배타적으로 속하도록 우선성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자인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 중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는 규칙이다(심원보, 2017). 그렇기에 공무원준비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경제활동인구 내 취업자로 분류되기에 통계청의 비경제활동인구 내 취업준비자로는 계산이 안 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제활동인구 내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포함하고자 미취업의 상태를 위와 같이 정의하였다.

이상인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취업준비자로 그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에서 “청년층”의 연령 범위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먼저, 청년의 연령 하한을 만 19세로 두고자 하는 이유는 연구 동의 및 참여 과정에서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만 18세 이하를 제외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 세계적으로 OECD, ILO,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 및 일부 법률에서는 만 15세 이상을 청년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연령 역시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현 상황은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로 보고 있는데,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기록되어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본 연구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2020년 6월에 통과하였다. 당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만 18세 이하의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을 필수(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는 만 19세 이상의 연구참여자와는 연구 동의 및 참여 과정에서 성질이 다른 집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연령 하한을 만 19세로 정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만 34세로 정하게 되었다. ILO와 통계청에서 청년의 연령 상한을 만 29세로 계산하고 있기는 하나(ILO, 2022; 통계청, 2019), 현대에 들어 성인으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으며(변금선, 2018) 우리나라는 군 복무가 의무화되어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해서도 고용장려금을 만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또한, 복지적 측면에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에서 연령 상한을 만 34세로 두고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특히, 복지정책 측면의 청년수당 제도는 실질적 구직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반영하는 자료임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행 모빌리티에 제한된 본 연구의 대상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의 청년층 연령 상한을 만 34세로 정하게 되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청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2. 연구 대상 선정 배경

1) 치유감 형성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청년과 취업이라는 상태와 서울시라는 공간적 측면이 치유감 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치유감 형성 측면을 중심으로 청년-취업, 서울시라는 공간적 측면을 나누어 연구 대상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청년-취업: 청년기의 기본 과업인 취업의 불성취

본 연구에서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정하게 된 까닭은 청년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인 취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과 치유와의 연결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년기는 처음 성인기로 입문하는 시기로 이전 자신의 삶과는 일적, 가정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개인만의 삶과 방식을 확립하는 시기이다(김신혜, 2017).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청년기는 매우 불안정하고 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박분희 등, 2017)인데, 이는 청년기가 희로애락의

급격한 흥분을 심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정서의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강경림, 2009; 박원규, 2016 재인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청년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인데, 주어진 발달과업을 잘 완수하지 못했을 때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야기된다(박분희 등, 2017). 청년기는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서적 독립심을 가지고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며, 취업과 결혼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인관계의 어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윤남희, 2007; 박원규, 2016 재인용)을 가지게 된다. 또한, 교육, 직업의 선택, 사회적 독립 등의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서 사회적, 역사적 변화에 민감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강경림, 2009; 박원규, 2016 재인용).

실제로 다양한 관련 문헌에서 청년들의 미취업과 취업준비라는 상태적 특성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띠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다(이승연, 2006; 김민정·조긍호, 2009; Kakoudakis et al., 2017; 조영림·문승현, 2017; 박분희 등, 2017; Pultz and Hviid, 2018). 이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우울증 및 불안과 쉽게 상관관계를 갖게 되며(Pultz and Hviid, 2018), 반복되는 미취업상태와 구직활동이 낙담, 좌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들게 하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Kakoudakis et al., 2017).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층이 겪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좌절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심지은 등, 2011; 이훈구 등, 2000). 자세하게는 강박적 사고, 대민 예민성, 우울감, 사회적 적대감, 불안 경향성 등 취약한 심리건강상태를 보일 수도 있고, 인지적 반응으로 취업실패를 자기 귀인과 부정적 사고로 연관 지으며 도전하는 것에 대해 무디어지거나 포기하게 된다(박지혜, 2012; 박분희 등, 2017 재인용). 더욱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더욱 축적되어 정서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김명옥·박영숙, 2012; 심지은 등, 2011; 전병주,

2013). 특히, 장기 실업 청년들에게는 좌절감과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증가하며(정연순, 2014), 이로 인한 청년 실업자들의 사회적 배제 및 전반적인 복지감 저하(박수명, 2013; 전병주, 2013)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청년기에 맞는 취업에 대한 과업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할 경우, 치유가 필요한 상황과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청년기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인 취업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 11년 간(2010-2020) 청년실업률의 평균 비율이 전체 실업률의 2.8배로 OECD 38개 국가 중 5위였다(한국경제연구원, 2021). OECD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에 이는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긴 하다. 그러나 OECD 국가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 지표에서도 한국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 2021>에서, OECD 성인(만 25-64세) 고등교육 이수율 평균 40.3%인 것에 비해 한국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 25-34세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평균인 45.5%보다 24.3% 높은 수치를 보여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만 25-64세 성인인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6.8% 낮은 75.7%를 기록하고 있었다(교육통계서비스, 2021). 또한, 여전히 청년층 인구감소, 온라인화와 무인화가 확산되면서 인구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는 상황,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의 감소, 에코 세대가 청년층에 진입, 높은 대학진학률 등의 다양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층이 취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e-나라지표 홈페이지).

실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만 15-29세)의 2021년 고용률은 44.2%이며, 청년실업률은 7.8%로 전년도(고용률 42.2%, 청년실업률 9%)(e-나라지표 홈페이지)보다 나아진 추세로 보일 순 있다. 그러나, 이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ILO의 기준에 따른 우선성 원칙에 의해, 통계청에서는 이를 취업자로 분류하므로 정확한 체감실업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통계청 비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만 15-29세) 부가조사 지표에서 살펴보면, 지난 12년(2010-2021)간 비경제활동인구를 비교해보았을 때 541만 명에서 448만 명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졌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취업시험 준비 인구는 2010년 54만 명에서 2021년 85만 명 수준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즉,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준비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최근 2021년 19.1% 비중으로 지난 12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표 3-2>, (그림 3-3).

표 3-2.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시험 준비 인구 추이 (단위: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시험 준비 인구
2010	5,418	540(10.0)
2011	5,374	588(10.9)
2012	5,259	569(10.8)
2013	5,417	614(11.3)
2014	5,292	661(12.5)
2015	5,130	633(12.3)
2016	4,980	652(13.1)
2017	4,888	710(14.5)
2018	4,789	626(13.1)
2019	4,683	714(15.2)
2020	4,738	804(17.0)
2021	4,488	859(19.1)

자료: 통계청, 2010-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주: ( ) 안은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시험 준비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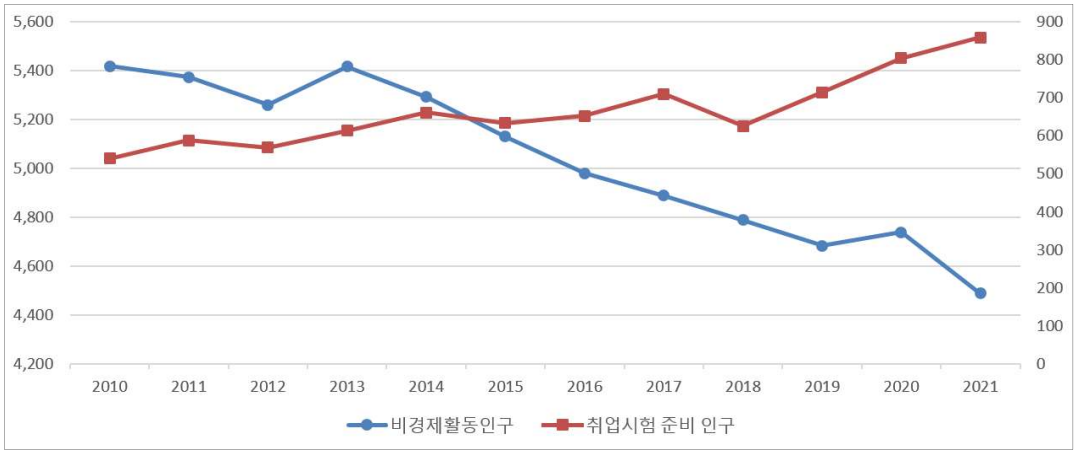

그림 3-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시험 준비 인구 추이(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2010-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결국, 이러한 지표들이 청년기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취업이라는 과업이 현재 세대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는 곧바로 우리 사회 청년들의 정신적 건강에 적신호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각종 인문학 문헌들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고 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난도, 2010)와 같이 현시대 청년과 아픔을 연관 지어 서술한 에세이, 소설 등이 2010년대 이후부터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에서 배제되어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현실(이민영, 2016)을 겪고 있으며, 무한경쟁에 내몰려 극심한 고립감과 불안을 경험(조문영, 2013)하고 있어 치유를 찾는 현상이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청년과 아픔의 연결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는 젊고 건강하다고 여겨졌던 청년들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조를 받으며 건강이 우려되는 계층이 되었다. 예로, 정부 차원에서 2019년 1월부터 20-30대 청년 720만 명에게 국가 건강 검진을 시작하였으며(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에 맞추어 서울시 및 다양한 지자체들은 복지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서울청년포털홈페이지). 한 NGO 단체는 최근 전국 대학생 중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겪고 있어 밥을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도시락을 후원해주고 있다((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홈페이지).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청년들을 건강하게 되돌리기 위한 많은 사회적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진교훈 · 윤영돈, 2003)으로서 모든 연령대에서 치유가 필요하지만, 특히 본 연구에서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한 이유는, 청년이라는 시기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취업이라는 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취업이라는 과업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더욱 청년이라는 연령층과 관련한 아픔과 치유의 담론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치유와의 연결성이 높은 시점에 있을 취업 준비 청년층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서울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심각한 도시

본 연구에서 취업이라는 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청년층의 지리적 범위로 서울시를 선정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세계도시이자 대도시 권역의 중심지로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상징된다.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경제활동의 집중도(서울연구원, 2018)가 높으며, 이러한 서울이라는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층은 더욱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둘러 쌓여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실제로 서울연구원(2017; 2018; 2019; 2020)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는 도시민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시민이 꼽은 경제 이슈 중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위로 뽑혔기 때문이다.[8] 이는 서울시 내 취업 준비 청년층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탓에 서울시 자체에서 정치, 경제, 도시, 사회 등 제 분야에서 청년층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들이 펼쳐지고 있다(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그리하여, 본 연구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 중에서도 취업 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2) 모빌리티 측면에서

취업 준비 청년층은 모빌리티 역량에 있어서도 제한적 측면이 있기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비록 취업 준비 청년층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자전거가 있거나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 자전거를 타는 이동을 하는 등의 신체적 모빌리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원이 없기에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돈의 제한 없이

8) 최근 2021년 서울시민이 꼽은 경제 이슈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1위가 '생활물가'(19.2%)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2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17.3%)가 차지하였다(서울연구원, 2021).

다녀오거나, 멀리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모빌리티에는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에 따르면, 청년들은 취업준비를 위해 15.7개월을 소비하며, 그 기간 77만 8천 원 금액을 매월 생활비와 취업준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제적 압박은 취업 준비 청년층에게 여행이라는 모빌리티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여행이라는 모빌리티에 경제적 제한을 지닌 집단인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김기헌 · 하형석 · 신인철, 2016).

이나경(2018)의 논의에서는 취업준비 과정이 경제적 제한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공간적, 이동적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 경제침체와 취업난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다수 취업 준비 청년층은 취업 준비를 하며 사회와 어느 정도 경제적, 공간적, 심리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이나경, 2018), 이 논의에서 주목해볼 점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간적으로 단절된다는 것이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시간적,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어져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며(이나경, 2018), 이러한 고립은 결국 취업준비 청년층에게 공간적으로 고립을 가져오게 하고, 모빌리티와 네트워크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지리적 모빌리티 중에서도 상상 속 여행을 하는 것이 치유감 형성에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중 취업 준비 청년층은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공간적으로도 제한되어있어 여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연구 대상으로 적합한 집단이라 파악하였다.

3) 상상의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 중 또 하나는 본 연구는 융의 적극적 상상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그 기록법이

가미된 상상 여행에 적용될 대상으로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적극적 상상은 심상의 움직임이 멈추면, 상상의 이야기를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권석만, 2012). 융에 의하면 적극적 상상은 무의식에 몰입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때, 무의식의 대결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으로 성숙한 개인에게 이 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Jung and Chodorow, 1997). 즉, 자아가 약한 경우에는 무의식에 휘말리기 쉬우므로(이부영, 2011), 적극적 상상은 무의식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자아 기능이 성숙하거나 강한 대상에 적용 가능한 것이다(권석만, 2012),

이러한 기법의 제한으로 인해 미성년과 노인의 연령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는 만 19세-65세 이하의 성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표준국어대사전, n.d.)에 있으며, 연구자 본인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연령층에 있는 청년층 중 치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제 3 절 치유감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1. 치유감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 분석과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제 2 장 문헌연구 및 연구틀에서 서술한 치유감의 의미를 바탕으로 치유감의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본 연구에서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양적 접근 측면에서 사용되는 치유감의 조작적 정의는 긍정(PANAS-Positive: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ositive Affection), 웰빙(K-MHC-SF: Korean Mental Health Continuum Sort Form), 행복(행복의 삼각형)의 척도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거나, 부정(PANAS-Negative), 기분상태(POMS-B: Profile of Mood States-Brief), 우울(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불안(BAI: Beck Anxiety Inventory) 척도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질적 접근 측면에서 치유감 형성의 조작적 정의는, 앞서서 다루었던 치유의 이론적 의미와 일상화된 치유 의미를 바탕으로, 치유 이전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픔(6가지 척도 설문에 언급된 단어<표 3-3> 중 부정단어 중심)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전에 있던 아픔이 온전해진 결과(6가지 척도 설문에 언급된 단어<표 3-3> 중 긍정단어 중심)를 뜻한다. 앞에서 다루었던 치유감의 이론적 의미는 총체적 특성이 있으며 국내에서 일상화되면서 복합적인 정신건강 측면을 강조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의미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분석에 필요한 치유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이론적 의미에 기반하면서도, 양적 접근에서는 치유감 형성 효과의 여부를 더욱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질적 접근에서는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의 세부적인 질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3-3. 6가지 심리척도 설문의 주요 단어들로 분류한 치유와 아픔

척도	분류	척도의 주요 단어들	긍정/부정	치유/아픔
긍정부정 (PANAS)	긍정	흥미진진한, 흥분된, 부끄러운, 원기왕성한, 강한, 단호한, 주의깊은, 열정적인, 활기찬, 자랑스러운	긍정	치유
	부정	과민한, 괴로운, 기민한(날쌔고 재빠른), 마음이 상한, 신경질적인, 죄책감드는, 겁에 질린, 적대적인, 조바심나는, 두려운	부정	아픔
기분상태 (POMS-B)	긴장	긴장하다, 불안정하다, 불편하다, 신경과민이다, 불안하다	부정	아픔
	분노	화가 나다, 시무룩하다, 성가시다, 분노하다, 기분이 언짢다	부정	아픔
	우울	슬프다, 하찮다, 낙담하다, 외롭다, 침울하다	부정	아픔
	피로	기진맥진하다, 피로하다, 탈진되다, 나태하다, 고달프다	부정	아픔
	혼돈	혼란스럽다, 머리가 멍하다, 당혹스럽다, 능률적이다, 쉽게 깜빡 잊는다	부정	아픔
	활력	생기있다, 의욕적이다, 생동감 있다, 원기왕성하다, 힘이 솟는다	긍정	치유
우울 (CES-D)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행복했다. 생활이 즐거웠다.	긍정	치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우울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려움을 느꼈다.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슬픔을 느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부정	아픔
웰빙 (K-MHC-SF)	정서적 웰빙	행복감을 느꼈다. 삶에 흥미를 느꼈다. 만족감을 느꼈다.	긍정	치유
	사회적 웰빙	나는 사회에 공헌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공동체(사회 집단이나 이웃 같은)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꼈다. 우리 사회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느꼈다.	긍정	치유
	심리적 웰빙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느꼈다.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꼈다.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을 주는 경험들을 했다고 느꼈다. 나만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생각하거나 표현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느꼈다. 내 삶이 방향감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긍정	치유

불안 (BAI)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침착하지 못한다.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신경이 과민 되어 있다.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자주 손이 떨린다. 안절부절 못해 한다.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가끔씩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불안한 상태에 있다.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땀을 많이 흘린다(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부정	아픔
행복 (행복의 삼각형)		나의 생활은 대체로 즐겁다. 요즘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이 잘 된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지니고 살아간다. 나의 삶은 전반적으로 편안하다. 내가 하는 활동에 의욕과 열정을 느끼고 있다. 나의 일상생활에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 나는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임하는 편이다. 요즘 내가 하는 일들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대체로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일에 몰두하여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 나는 요즘 대체로 기분이 좋은 편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좋은 성과를 얻는다. 나는 요즘 괴로운 일이 별로 없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좋은 성과를 얻는다. 나는 훗날 가족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	긍정	치유
		나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하는 일에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질 때가 종종 있다.	부정	아픔

2. 치유감의 양적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치유감을 측정하기 위해 양적 도구로 6가지 심리 척도들이 사용되었다. 이 6가지 척도들은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인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총체적이고 일상화된 영역에서 사용되는 복합적인 치유감의 의미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선정되었다. 이 척도들은 심리학에서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긴 하나, 다른 척도들에 비해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국내 문헌들에서 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치유 효과를 분석할 때 사용되었던 척도라는 차별점이 있다(각 척도의 설문 문항은 <부록 1> 참조). 이러한 측면은 본 연구에서 다소 일상화된 치유의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취업 준비 청년층이라는 환자가 아닌 다소 일반적인 대상을 다룬 본 연구의 맥락을 함께 할 수 있다. 각 6가지 척도에 대한 설명과 선정 배경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경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 et al.(1988)이 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희 등(2003)이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 감정 10문항(1, 5, 6, 8, 9, 12, 14, 17, 18, 19)과 부정 감정 10문항(2, 3, 4, 7, 10, 11, 13, 15, 16, 20)을 합하여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소에 각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긍정 감정의 점수 범위는 10-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기차고, 흥미진진하며, 주의 깊은 상태를 말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슬픔과 무기력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 감정의 점수 범위도 10-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질적인, 과민한, 죄책감 등 불쾌한 상태를 말하며, 낮을수록 차분함, 평온함 등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국립산림치유원, 2018). Watson et al.(1998)의 PANAS는 전 세계적으로 1만 회 이상 인용되어 사용될 정도로 신뢰성 및 타당도가 있는 정서 척도이다(박홍석·이정미, 2016). PANAS는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적 및 부적

정서와 신체적 증상 및 고통 간 관계를 알아보거나(Kvaal and Patodia, 2000), 임상 심리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PANAS는 부적 정서를 통해 사전에 아픔을 지니고 있으며 정적 정서를 통해 온전해지는 다양한 측면들을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국내 연구에서도 치유프로그램 효과검증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시로, 관광학에서 한국형 치유 관광 개념모델을 바탕으로 치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되거나(김진옥·이충기, 2017), 숲에서의 산림치유프로그램에서 환자가 아닌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치유 효과를 살펴볼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이정원 등, 2018). 더불어,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일반 교사들의 긍정, 부정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PANAS 척도를 활용하였다(박석희 등, 2017). 이러한 점은 전문적인 심리학을 넘어 국내에서 의미하는 일상적이고 복합적인 치유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일반적인 취업 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도 적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둘째, 기분상태척도(POMS-B; Profile of Mood States-Brief)는 환경, 인간관계에 의한 기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척도이다. POMS-B는 원래 65개 항목의 POMS을 McNair et al.(1981)이 30개의 문항으로 간결화한 축약 버전이며, 응답자가 지난주 동안 경험했을 수 있는 감정과 기분을 설명하는 형용사로 구성된다(McNair et al., 1992; Yeun and Shin-Park, 2006 재인용). 긴장, 분노, 우울, 피로, 혼돈, 활력의 하위요인이 각각 5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0-4점으로 구성된다(Yeun and Shin-Park, 2006). 기분상태 총점은 긴장(1, 6, 12, 16, 20문항), 분노(2, 9, 14, 25, 28문항), 우울(7, 11, 15, 17, 21문항), 피로(3, 13, 19, 22, 23문항), 혼돈(5, 18, 24, 26, 29문항) 5개 하위요인의 점수를 더한 값에서 활력(4, 8, 10, 27, 30문항) 요인의 점수를 뺀 값을 말하며, 기분상태 총점이 클수록 기분 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분상태 척도 역시 주로 임상 심리에서 사용되나, 국내 연구에서는 환자가 아닌 일반 대상의 치유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경학에서 일반 피험자에게 숲 치유와 원예치료의 치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되거나(박선아 등, 2015). 산림치유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국립산림치유원, 2018). 또한, 일반적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요가와 명상 중심의 치유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전후 효과 측정에 활용되기도 하였다(박창은 등, 2018).

셋째, 한국판 유병률 연구센터-우울척도(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는 일반인 대상 우울증 역학 연구를 위해 미국 정신보건원 Radloff(1977)가 연구용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한국어판 CES-D(전겸구 등, 2001)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CES-D는 Likert형 4점 척도(0=극히 드물게, 3=거의 대부분)로 평정된다(총점: 0-60점)(임선영, 2013). 응답자는 지난 일주일간 상태에 따라 해당 문항 항목을 경험한 정도를 1일 이하, 1-2일, 3-4일, 5일 이상으로 제시되는 4점 척도에 표시한다. 계산은 1일 이하는 0점이며, 5일 이상은 4점으로 코딩된다. 한편, 5번(‘비교적 잘 지냈다’), 10번(‘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15번(‘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문항은 역 코딩하여 계산한다(장수연, 2016). 최저점수는 0점, 최대점수는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한 것을 말한다(박준혁·김기웅, 2011; 장수연, 2016 재인용).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은 다양하나, 그중 CES-D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른 척도들은 대부분 임상 우울 환자들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개발된 반면, CES-D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Radloff, 1997; Welssman, 1976; 서혜인, 2004 재인용). 비록 CES-D는 임상적인 우울증 진단 도구는 아니지만, 지역사회 연구에서 우울 증상 정도를 잘 반영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우울감 위험인자를 찾아내는 데 유용하며, 국가/민족간, 연령군별, 남녀 간 우울증 유병률을 비교하는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서혜인·이승욱, 2004). 그러므로 본 연구는 비교적 일반적인 사람인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치유감의 형성 효과와 작용 방식을 측정하므로, 다른 척도들에 비해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CES-D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일상적 치유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CES-D를 활용한 연구 사례에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치유 학교 프로그램의 치료 효과성 분석 연구(양재원 등, 2014),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 효과 측정(심남섭·신창섭·신민자, 2021), 일반적인 소셜 미디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우울감을 측정한 연구들이 있다(장수연, 2016).

넷째, 정신적 웰빙 척도(K-MHC-SF: Korean vers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K-MHC-SF)는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행복한 삶의 조건을 제시한 Keyes(2002; 2003)의 행복 이론에 따라 정신적 웰빙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다. 본 연구에서는 Keyes 등(2008)에 의해 개발된 척도(Mental Health Continum Short Form: MHC-SF)를 임영진 등(2012)이 번역한 한국어판 정신적 웰빙 척도(K-MHC-SF)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6점 척도(0점: 전혀 없음-5점: 매일)로, 정서적 웰빙(문항 1-3번), 사회적 웰빙(문항 4-8번), 심리적 웰빙(문항 9-14번)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임영진 등, 2012). 총점은 0점에서 70점까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임영진 등, 2012). 본 연구에서 정신적 웰빙 척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웰빙의 측면을 사용해 다양한 방면의 췔빙을 측정하기에 용이하고, 앞에서 언급한 우울 척도와 반대되는 긍정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반적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상적 치유 효과를 분석할 때, K-MHC-SF를 사용하여 더욱 총체적이고 일상적인 치유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 이는 예를 들어, 산림 치유의 사회 심리적 편익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반적 참가자를 대상으로 K-MHC-SF를 타당화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박석희 등, 2020), 일반적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측정하기 위해서나(이경민 등, 2018),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빙을 측정하고자 K-MHC-SF를 사용한 사례(어용숙·김묘성, 2015)에서 알 수 있다.

다섯째, Beck 불안 척도(BAI: Beck Anxiety Inventory)는 불안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eck et al.(1988)이 개발한 총 21문항의 검사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각 문항 항목의 내용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 정도를 0점에서 3점까지 리커트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증세를 심하게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세하게 0-7점은 정상 범위, 8-15점은 경도 수준의 불안, 16-25점은 중등도 수준의 우울, 26-63점은 고도 수준의 불안 상태를 뜻한다. 본 연구는 한국심리주식회사(2014)에서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Beck 불안 척도는 일반적인 치유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는데, 조경학에서 일반 피험자에게 숲 치유와 원예치료의 치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박선아 등, 2015), 일반적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모래 놀이치료 효과 연구에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박혜영 등, 2020).

여섯째, 행복의 삼각형 척도는 Seligman(2002)이 제안한 행복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권석만·김지영(미발표)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임선영, 2013). Seligman(2002)은 행복이라는 다소 모호하고 불분명한 개념을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가능하고 다루기 쉬운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즐거운 삶(pleasant life), 열정적인 삶(또는 관여적인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이 포함되며, 각 요소는 7문항씩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임선영, 2013). 행복의 삼각형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된다(총점: 0-84점). 본 연구에서는 치유감 측정을 위해 행복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치유와 행복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림 치유와 행복 간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직장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거나(박창은 등, 2018), 관광객의 힐링 관광지 방문과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김용재·허용덕, 2022)한 사례들은 치유감과 행복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있음을 나타낸다. 행복은 다양한 측정 도구가 있으며, 행복의 의미를 삶의 질, 주관적 안녕, 삶의 만족 등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측정 도구가 달라지기도 한다(오민지, 2016). 그러나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개인적 행복을 측정하기에 유리하고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 측면과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

문인 긍정심리학의 제창자 Seligman(2002)(권석만, 2010)의 행복 개념을 바탕으로 권석만·김지영(미발표)이 개발한 행복의 삼각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사가 환자라고 판단하지 않은 다소 일반적인 대학생들을 상대로 역경을 경험한 후 성장이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사용되거나(임선영·권석만, 2012), 일반적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프로그램 개입 효과를 확인하고자 사용(허혜영, 2016)했기 때문에, 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취업 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상화된 치유의 의미를 품고 있는 본 연구에서 치유감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로 판단되었다.

3. 치유감의 질적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질적 접근에서는 양적 분석에서 사용한 6가지 심리척도 설문지에 언급된 부정단어들을 중심으로 사전에 아픔이 존재하며, 이러한 아픔이 6가지 심리척도 설문지에 언급된 긍정단어들과 이에 준하는 단어들을 개선 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결과로서 치유감을 정의하였다<표 3-3 참조>.

먼저, 아픔에 대한 질적 분석은 치유가 그 이전에 아픔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치유감의 이론적 의미에 따라, 사전 인터뷰 내러티브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어떠한 지닌 아픔이 지니고 있는지 6가지 심리척도 설문지에 언급된 부정단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부록 3). 아픔은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환과는 다르게 개인이 가진 문화적, 사회적 경험 차이로 인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이기에, 더욱 질적 분석과 질적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였다.

또한, 치유에 대한 질적 분석은 치유가 가진 총체성과 일상화되고 복합적인 치유감의 의미 측면에 따라, 사전에 존재했던 아픔이 개선되고 온전하게 하는 결과가 있는지를 6가지 심리척도 설문지에 언급된 긍정단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에 언급된 긍정단어들과 유사어나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 역시 아픔이 개선되는 결과이자 치유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제 4 절 자료 수집 절차

1. 연구참여자 모집

본 연구는 조사 실시 이전,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윤리기관인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SNU IRB No. 2006/002-014) <부록 1>. 연구참여자 모집 장소는 모집 기간 당시(2020.6.15.-2020.9.3.) 코로나 팬데믹[9]으로 인해 서울시 청년 지원 포털사이트인 서울청년포털을 포함한 청년 취업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 및 카페 9곳[10]에서 모집하였다(그림 3-4). 특히,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서울청년포털로 유입하여 연구 참여에 신청하였다. 서울청년포털은 서울시 청년 관련 기관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온라인 홈페이지로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프로그램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는 사이트임과 동시에,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의 유입이 잦은 온라인 장소이기에 본 연구 대상의 성격을 지닌 집단을 모집하기에 적절한 장소였다. 모집공고를 본 희망자들은 포스터에 게시된 구글 시트 주소를 통해 직접 신청하였으며, 총 56명[11]의 연구참여자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

9) 본 연구 조사는 원래 대면으로 조사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비대면 조사로 전환하였다. 기존 계획은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이 많이 유입할 것으로 예상한 서울시 내 위치한 청년 지원 센터 6개 기관(서울시 청년 일자리 센터, 노량진청년 일자리 센터,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청년교류공간,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4곳)에 온, 오프라인 장소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서울대학교의 실험실 또는 청년 지원 센터 일부 장소를 빌려 대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 6월 15일 위의 서울시 청년 지원 기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기관들이 모두 휴관 상태에 있어 그 안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며, 모집공고를 오프라인으로 게시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 대상의 모집 장소를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 및 카페 게시판에 공고하게 되었고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로 전면 전환하게 되었다.

10) 연구참여자 모집공고 포스터를 게시한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1.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politics/user/detail/483)
2.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http://youthzone.kr/external_programs/3072)
3. Linkareer(https://linkareer.com/)
4. 올콘(https://www.all-con.co.kr/)
5. DETIZEN(http://www.detizen.com/)
6. 아웃캠퍼스(https://cafe.naver.com/outcampus)
7. 독취사(http://cafe.naver.com/dokchi)
8. 취업의 달인(https://cafe.naver.com/jobtong)
9. 취업뽀개기(http://cafe.daum.net/breakjo)

그림 3-4.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본 연구참여자 공고 포스터

11) 본 연구계획 당시 연구참여자 수를 60명으로 산정하였고, 총 56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수를 이와 같이 산정한 근거는 연구자가 직접 치유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행하여 이에 대한 치유 효과를 검증하는 선행연구들에 기반한다(김영희, 2004; 이희자, 2006; 이정희, 2009; 조현 등, 2010; 임선영, 2013; 김선정, 2014; 윤상숙, 2016; 이새은, 2018; 조은유, 2018). 심리학, 음악, 춤, 패션 등 치료 유사학문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실험군과 대조군을 합하여 최소 5명에서 최대 44명 이하 범위에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을 연구자가 직접 만들고 홍보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연구참여자 수 모집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기존 연구들은 모든 치유프로그램 단계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참여자 수도 일부 있었으며, 분석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분석상 제외되는 수까지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통틀어 30명 내외로 모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치유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 중 소수는 100명 이상의 연구참여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문지영, 2010; 고동우, 2013), 이는 일부 기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치유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만 돌리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기에 많은 연구참여자 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자처럼 연구자가 직접 치유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에 관한 치유감 형성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에 가까우므로 적은 수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중도탈락하거나 분석상 제외의 수까지 고려하여 60명 이하 기준으로 연구참여자 수를 산정하였다.

2. 연구 조사의 절차

본 연구 조사는 약 6개월간(2020.6.19.-2020.12.8.) 56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조사는 일정한 연구참여자들이 모집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기간 수행된 조사는 <그림 3-5>와 같은 과정으로 거쳤으며, 아래에서는 연구 조사 절차 및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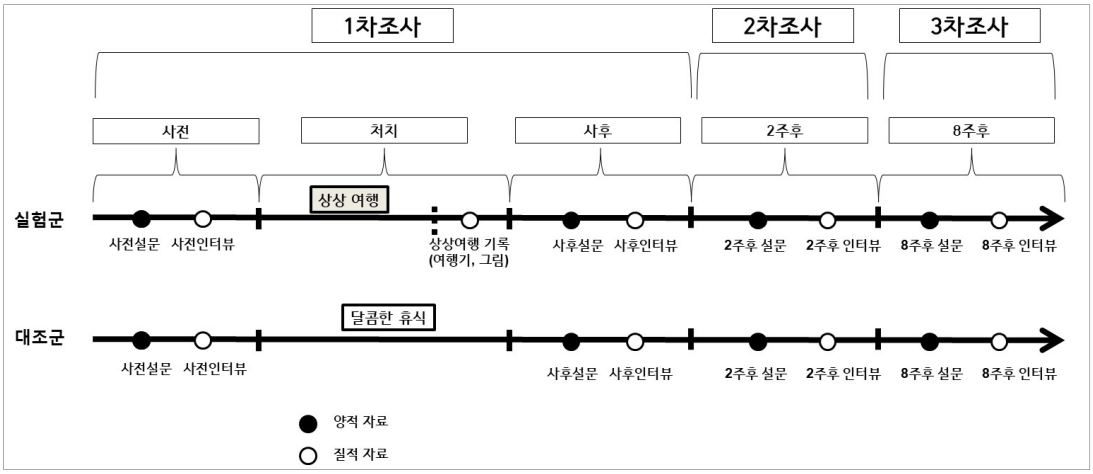

그림 3-5. 연구 조사의 절차

1) 조사 시간 간격 선택

자료조사는 4개의 시간 간격으로 시행되었다(①실험 직전-②실험 직후-③2주 후-④8주 후). 1차 조사 시 ①실험 직전과 ②실험 직후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상상 여행의 즉각적인 치유감 형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단 한 번의 상상 여행이었지만 장기적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종료 후 ③2주 후 2차 조사와 ④8주 후에3차 조사가 수행되었다.

이같이, 조사의 시간 간격을 네 부분으로 조정한 이유는, 기존 건강지리 연구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장소, 모빌리티, 네트워크로 치유를 경험한 이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유감 형성 효과가 어떻게 지속되거나 약해지는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Bell et al., 2018; Heaslip et al., 2020), 보통 연구들은 2개의 간격(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장기적 치유감 형성 효과에 대한 결과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Heaslip et al.,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상 여행 직전, 직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도 장기적으로 상상 여행을 통한 치유감 형성 효과가 지속되거나 약해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상상 여행 종료 후 2주 후와 8주 후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4개의 간격(Heaslip et al., 2020)으로 시간을 조정하게 되었다.

또한, 2주 후, 8주 후라는 구체적 시간 간격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2019년 예비조사를 근간으로 한다. 예비조사 참여자들이 상상 여행을 경험한 이후, 2주 후 정도에 여행 계획을 짰고, 이러한 여행 계획에 따라 보통 8주 후 정도에 실질적 여행을 실천했기 때문에 본 연구는 2주 후, 8주 후로 시간 간격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치유 관련 연구 프로그램의 특성과 설계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주로 사전-사후로 간격을 설정하며, 경우에 따라 사전-사후를 넘어 추후를 연구할 때에 2주 후로 설정하는 사례가 있었다(하승수·권석만, 2016). 특히, 유사 연구인 자연관광의 심리적 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여행전-직후-2주 후(고동우, 2013)로 연구한 사례가 있다. 또한, 임선영(2013)의 연구에서는 사후 검사를 8주 후로 택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2) 실험군·대조군 배치

본 연구 조사는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실험군은 상상 여행을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동일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설정 및 배치는 모집된 연구참여자 56명 중 절반인 28명은 실험군에, 나머지 28명은 대조군에, 연령과 성별만 부분적으로 고려한 채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총 56명 연구참여자는 중도 탈락 없이 1차, 2차, 3차 연구 조사에 모두 참여하였다.

3) 연구 조사 전, 연구참여자와의 컨택

연구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연구자는 모집된 참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1차 조사 일정을 정하고, 연구자의 ZOOM 회의실 주소 및 두 가지 준비 사항을 안내하였다. 첫째,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위해 종이와 필기구를 준비”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적극적 상상에 기반한 상상 여행 기록법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상상 여행을 기록할 필기구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가능한 조용하고 최대한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길 부탁”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조용한 장소를 구하기 힘들다면, 이어폰 사용을 권장”한다고 안내하였다. 앞서 서술한 상상 여행 공간마련 방법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상상 여행이 이루어질 실질적 장소를 스스로 마련하였다.

4) 연구 조사 시행

(1) 실험군·대조군 1차 조사 과정

실험군의 1차 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에게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서울대학교 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 설명문을 읽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는 실험 사전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는, 6가지 심리척도(긍정-부정, 기분상태, 우울, 웰빙, 불안, 행복) 설문지와 연구참여자 일상의 삶에 대한 추가 질문(성별, 출생연도 및 월, 주민등록상 거주지(서울시 ○○구까지), 결혼상태, 학력, 졸업 후 취업준비 기간,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취업 준비 비용, 생활비의 주요 근원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사전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실험 사전에 연구참여자를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의 주요 질문 내용은 최근 2주간 행동 및 모빌리티 패턴, 최근 2주간 기분이나 감정 상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경제적, 가정적 상태, 주변의 사회, 정치, 문화 등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었다<부록 1 참조>. 넷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상상 여행 방법을 안내하고 ZOOM에서 상상 여행 음악을 켜고 나가며, 연구참여자는 홀로 눈을 감고 10분가량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상상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후, 10분가량의 음악이 끝나면 연구참여자는 경형한 상상 여행을 자신이 준비한 필기도구(펜, 색연필, 메모장, A4용지, 스케치북 등)를 통해 글쓰기로 자세히 기록하고, 그림으로 상상 여행 여정, 경로,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린다. 다섯째, 상상 여행 기록을 한 후, 참여자는 연구자에게 메신저로 호출하고, 연구자가 ZOOM 방안으로 다시 들어오며, 연구참여자는 사후 설문지를 작성한다. 사후 설문지는 단기적 시간 동안 심리 측정이 가능한 긍정, 부정, 기분상태 척도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섯째, 사후 설문지 작성이 모두 끝나면, 연구참여자는 상상 여행을 어디에 다녀왔는지, 이후 감정 및 느낌은 어떠하였는지, 상상 여행을 통해 내가 몰랐던 감정을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실험군의 1차 조사는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한편, 대조군은 위의 실험군과 전반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쳤으나, 상상 여행이 진행되지 않고 같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다는 점이 달랐다. 대조군은 위에서 말한 실험군처럼 연구 설명문을 읽고 동의서 작성, 사전설문지 작성, 현재 연구참여자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나, 실험군이 상상 여행을 하는 10분가량 시간 동안 대조군은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달콤한 휴식이란,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실험군과 같은 잔잔한 음악을 들었으나 이 시간 동안 상상 여행은 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 없이 휴식만 취하는 것이다. 이후 음악이 끝나면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에게 호출하고, 연구참여자는 사후 설문지 작성을 하며, 인터뷰로 달콤한 휴식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휴식이 끝난 후 느낌과 감정을 인터뷰하였다. 대조군의 1차 조사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시간이 소요되었다.

(2) 실험군·대조군 2차(2주 후). 3차(8주 후) 조사 과정

1차 조사 종료 후, 상상 여행의 치유감 형성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는 미약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1차 조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차 조사를 2주 후에, 3차 조사를 8주 후에 ZOOM 또는 전화 인터뷰로 실시하였다. 2차 조사 및 3차 조사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일한 방식으로 6가지 심리척도 설문지 작성과 반구조화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2주 후, 8주 후 설문지는 사전설문지에서 사용한 동일한 척도(긍정-부정, 기분상태, 우울, 웰빙, 불안, 행복)를 사용하였다. 실험군의 인터뷰에서는 일상을 어떻게 지냈는지, 하루 패턴 및 모빌리티 패턴, 일상의 감정이나 기분, 상상 여행이 생각났는지, 상상 여행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속마음을 깨닫게 된 부분을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가짐으로 옮긴 적이 있는지, 그러한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정말로 상상 여행 때문인지, 상상 여행이 힐링에 주는 효과가 어떠한지 3점 척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대조군 역시 모든 과정이 실험군의 2, 3차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나, 인터뷰 내용은 상상 여행 대신 달콤한 휴식으로 변경하여 질문하였다. 시간은 설문지 작성 15분, 인터뷰 15분으로 총 30분가량 소요되었다.

5) 연구분석 시행 전 탈락

본 연구는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에 참여한 56명 중 6명을 탈락시켜 총 50명의 연구참여자 자료를 분석하였다(실험군: 28명 중 3명 탈락, 대조군: 28명 중 3명 탈락하여 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 총 50명 자료분석 진행). 실험군 28명 중 3명을 탈락시킨 연유는 1차 조사 당시, 실험군 중 1명은 대학원 준비 상태, 1명은 창업 준비 상태였으므로, 인터뷰 과정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그 성격이 달랐음이 확인되어 분석에 들어가기 전 탈락되었다. 또한, 나머지 1명은 아르바이트 형태가 아닌 이미 6개월간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어 본 연구참여자의 제외조건에 해당하여

탈락하였다. 대조군 역시, 총 28명 중 3명을 탈락시키게 되었다. 대조군의 탈락자 중 1명은 대학원 졸업 전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1차 조사 당시, 아직 대학원 재학 중인 상태였으므로 본 연구참여자의 제외조건에 해당하여 탈락하였다. 또한, 1명은 대학원 준비 청년층이었고, 또 다른 1명은 창업 준비 청년층이었기에, 이들은 취업 준비 청년층의 생활패턴과 아픔을 겪는 성격과는 달라 탈락하게 되었다.

제 5 절 자료 분석

1. 양적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총 50명 연구참여자의 양적 자료는 <Windows IBM SPSS Statistics 24.0>과 <Microsoft Excel 2016>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양적 자료의 처리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수집한 양적 자료는 2020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정리 및 입력하여 1차 분석을 하였으며, 2021년 5월 한 달간 2차 분석 확인 및 검증이 실시되었다.

양적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사전동질성 검증에서는 독립표본 t 검정으로 집단 간 종속변수의 사전동질성을 분석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은 독립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 가설 검정으로서 t 값과 그에 상응하는 유의확률 p가 유의미하면 두 집단 간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상 여행 직전-직후의 단기적 치유감 형성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검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실험군 집단 내, 직전-직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대응표본 t 검정은 동일한 집단으로부터 얻은 두 가지 측정치의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대응표본 t 검정에서 t 값과 유의확률 p 가 유의미하면 두 측정치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실험 직전-직후 간 평균값의 변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였다. 실험군과 비교를 위해 대조군의 자료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실험 직전-직후 변화량이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공변량분석(Repeated Measured Analysis of Covariance: RM ANCOV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반복측정 공변량분석은 사전-사후 측정설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검정방법으로서(조성기 등, 2008; Brace et al., 2016) 사전 측정값을 공변인(covariate)으로 투입하여 공변인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상상 여행 실행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후 측정값을 종속변수로 두어 분석하는 분산분석방법이다. 본 검정에서는 변량 분석의 검정

통계값인 F 값을 사용하는데, F 값은 '집단 간 변량/집단 내 변량'으로 계산된다. F 값이 1보다 크면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후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PSS를 사용해서 ANCOVA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F 값에 대한 정확한 유의확률 p 가 계산되어 산출된다. F 값이 클수록 p 값은 작아진다.

상상 여행 이후, 2주 후와 8주 후의 장기적 치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 가지 검정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험군의 3개 시간 간격(실험 전-2주 후-8주 후)에 걸쳐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세를 알 수 있는 반복측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d Analysis of Variance: RM ANOVA)을 적용하였다(Brace et al., 2016).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동일 집단 내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측정한 자료에 대해서 실시하는 분석이다. 분산분석은 실험군 내에서 상상 여행의 효과가 2주 후 8주 후에도 유의미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산분석에서 F 값이 사용되며 계산된 유의확률에 따라 그 효과가 검증된다. 실험군과 비교를 위해 대조군의 자료도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각 시기에 따른 개별적 효과도 확인하기 위해 사전-2주 후, 2주 후-8주 후, 사전-8주 후 평균 변화량을 구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대조군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의 분석이 실시되었다. 셋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긍정, 부정, 기분상태, 우울, 웰빙, 불안, 행복의 측정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2주 후, 2주 후-8주 후, 사전-8주 후의 변화량을 반복측정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주요 사전 측정치들(긍정, 부정, 기분상태, 우울, 웰빙, 불안, 행복)을 각 변화량 측정치별로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2. 질적 분석 방법 및 분석틀

1) 질적 분석 방법

위의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상상 모빌리티로서 상상 여행이 치유감 형성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면, 질적 분석에서는 상상 모빌리티로서 상상 여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는지 실험군의 질적 자료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12] 실험군 질적 자료 종류는 3가지이다. (1)ZOOM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녹음 또는 녹화된 사전, 사후, 2주 후, 8주 후 인터뷰자료, 실험군 참여자가 기록한 (2)상상 여행 글쓰기 자료와 (3)그림 그리기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터뷰, 글쓰기, 그림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론적 삼각측량(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Korstjens and Moser, 2018)을 높였다. 질적 자료 처리 기간은 7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2020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간은 사전, 직후, 2주 후, 8주 후 인터뷰 및 상상 여행 글쓰기 자료를 <한컴오피스 2018 한글 문서>에 전사하였다.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네 달간은 1차적으로 질적 자료 분석 및 해석이 이루어졌다.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은 2차적으로 질적 자료 분석 및 해석의 수정이 실시되었다. 질적 자료 분석 시에는 참여자 자료에 가명을 붙여 활용하였다(<부록2> 연구참여자의 인적 사항 참고).

---

1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혼합 연구방법 유형 중 순차적 설명 혼합형에 가깝다. 이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추가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양적 연구결과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거나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이정빈, 2018). 본 연구의 결과 부분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양적 분석에서 단기적으로 직전-직후 결과에서는 집단 내, 집단 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얻었으며, 장기적으로 직전-2주 후, 직전-8주 후 연구결과에서 집단 내 차이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많은 종속측정치의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집단 간 차이에서는 직전-2주 후 부정 측정치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으며, 이외 종속측정치들에서는 경미한 경향성만 확인되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완하고 양적 연구결과로는 설명되지 않거나 발견하지 못한 현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이정빈, 2018) 질적 자료를 분석하여 2주 후, 8주 후 양적 분석 결과의 내용을 보강하고자 한다.

질적 데이터 분석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먼저, 실험군의 사전 인터뷰자료는 참여자들이 현실의 제한된 환경으로 인한 아픔(illness)<부록 3>의 파트에 분류하였다. 이후, 실험군의 상상 여행 직후 인터뷰자료와 상상 여행 글쓰기, 그림 그리기 자료는 상상 모빌리티에 수반되는 3가지 모빌리티인 (1)상상으로의 모빌리티, (2)상상 내 모빌리티 부분에 분류하였다. 다음, 상상 여행 종료 2주 후, 8주 후 인터뷰자료는 (3)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과정 부분에 분류하였다.

둘째, 키워드 추출, 정리 및 분석 단계이다. 위의 과정을 통해 각 단계로 분류된 자료들인 인터뷰 및 글의 내러티브들은 여러 번 읽고 키워드가 추출되었고, 정리 및 분석하는 단계를 거쳤다.

먼저, 현실의 제한된 환경으로 인한 아픔(illness)<부록 3>에 분류된 실험군 25명의 사전 인터뷰자료는 치유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양적 분석에 사용된 6가지 심리척도 설문에 언급된 부정단어들을 중심으로 “아픔” 관련 키워드<표 3-3>를 추출하였다. 이후, 상상 여행 이전 연구대상자에게 어떠한 현실 속의 제한들이 아픔이라는 감정을 일으켰는지를 중점으로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1)상상으로의 모빌리티(제 5 장)와 (2)상상 내 모빌리티(제 6 장) 단계에 속한 상상 여행 직후 실험군 25명의 인터뷰자료와 상상 여행 직후 글쓰기 자료는 “치유감”, “모빌리티”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을 거쳤다. 먼저, “치유감” 관련 키워드는 사전에 아픔이 있었던 것이 상상 여행을 통해 어떻게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게 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치유감의 이론적 의미, 일상화된 치유에 따라 세워진 치유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6가지 심리척도 설문지에 언급된 긍정단어들<표 3-3>을 중심으로 “치유감”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또한, 문헌연구에서 치료적(therapeutic) 의미로 쓰인 치유인 분석심리학에 기반한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지 역시 “치유감” 관련 키워드 및 문

장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치유감” 키워드 주변 문장에서 문헌연구에 근거한 “모빌리티” 관련 키워드(모빌리티, 매개·수단, 변화, 관계 등)를 추출하여, 상상 모빌리티가 치유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초점을 맞추어 내러티브를 정리하였다. 특히, (2)상상 내 모빌리티에서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본 연구의 상상 여행의 내러티브들은 모빌리티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도 모빌리티 수단·매개, 사회적 관계, 머무름 요소로 정리되었다. 이 세 가지 모빌리티적 요소들로 정리된 내러티브들은 어떻게 상상으로의 모빌리티와 상상 내 모빌리티가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는지 그 방식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3)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제 7 장)에 해당하는 상상 여행 종료 2주 후와 8주 후 자료는 실험군 25명 중 상대적으로 장기간 치유감 형성 효과를 유지하였던 8명의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이는 양적 분석에서 상상 여행의 장기간 치유감 형성 효과가 부분적으로만 증명되었기 때문에, 실험군 내 2주 후, 8주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었던 부정, 기분 상태, 불안 종속측정치[13] 평균 변화량의 차이에서 1 표준편차(SD) 이상을 보고한 8명의 연구참여자(민영, 지혜, 민희, 라희, 하음, 소민, 도영, 엄지)의 2주 후와 8주 후 인터뷰 내러티브만을 활용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특히, 상상 여행 사전-2주 후, 또는 사전-8주 후 기간에 실험군 25명의 사례 중 부정, 기분상태, 불안의 평균 변화량이 평균보다 1 SD 이상을 보고한 9명이 1차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2주 차와 8주 차의 면담 내러티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정, 기분 상태, 불안의 평균 변화량 수치는 높았으나 면담을 할 시에 상상 여행으로 기인한 별다른 변화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고, 외부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언급하였던 1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8명을 본 연구의 내러티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즉, 실험군 25명 중에서 2주 후, 8주 후 부정, 기분상태, 불안의 평균보다 1 SD 높은 수치를 보였던 사례 수는 9명이었으나, 내러티브를 질적 분석하는 과정에서 1명은 상상 여행에

13) 여기에서, 상상 여행 때 얻은 치유감을 장기간 지속한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정, 기분상태, 불안 척도를 사용한 까닭은 [제 4 장 제 3 절 1. 집단 내 차이]에서, 실험군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긍정, 부정, 기분상태, 불안 중 대조군 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긍정을 제외하고, 부정, 기분상태, 불안의 종속측정치만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연유한 것이 아닌 다른 외부 요인으로부터 그 효과를 지속시켰던 것으로 해석되었기에, 그 1명을 제외하게 되었다. 이 같은 부분은 양적 분석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상상 모빌리티의 경험 이후 장기적인 시간 동안 외부 요인들의 교란이나 간섭의 영향을 질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제외시킬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상 여행 직후 실험군 8명의 인터뷰자료 역시, “치유감”, “모빌리티”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을 거쳤다. 먼저, “치유감” 관련 키워드는 6가지 심리척도 설문지에 언급된 긍정단어들<표 3-3>을 중심으로 “치유감”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더불어, 앞서서 문헌연구에서 치료적(therapeutic) 의미로 쓰인 치유감 중 심리치료 목적 의미에 기반하여, 상상 여행 이후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행동이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전 인터뷰 때의 아픔을 지닌 모습과 다르게 정상적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도 치유감의 키워드로 추출하였다. “모빌리티”키워드는 (2)상상 내 모빌리티에서 주요 모빌리티적 특성으로 뽑혔던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을 중심으로 추출하였으며, 이후, 추출된 치유감과 모빌리티의 내러티브를 정리하여,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가 치유감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그 방식을 분석하였다.

단, (1)상상으로의 모빌리티, (2)상상 내 모빌리티 과정에 대한 의미를 분석시에는 추출된 키워드 또는 문장의 치유감과 모빌리티 사이의 관계와 그 연유를 밝히기 위해 사전 인터뷰의 아픔의 내러티브들을 추가하여 분석하기도 하였으며, (3)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과정을 설명할 때에는 사전 인터뷰와 (2)상상 내 모빌리티의 내러티브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분석하는 등 교차적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활용하였다.

더불어, 상상 여행의 그림 자료는 (2)상상 내 모빌리티와 (3)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부분에서 인터뷰 및 상상 여행 글쓰기 자료의 내러티브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저장된 그림 파일을 확인하고 내러티브의 내용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고로, 전체적인 연구결과의 서술은 세부적으로 모빌리티가 치유감 형성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 관계를 서술한 이후, 논의점이 펼쳐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세히는, 제 4 장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의 양적 분석 결과 서술의 구성은 첫째, 상상 모빌리티 중 상상 여행의 치유감 형성 효과 통계를 기술하며, 둘째, 통계를 바탕으로 한 논의점을 펼치고 있다.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의 질적 분석 구성 역시, 첫째, 상상 모빌리티가 치유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둘째, 상상 모빌리티의 각 단계가 치유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질적 분석틀

상상 모빌리티가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질적 자료 분석틀은 그림 3-6과 같다. 상상 모빌리티에 수반되는 세 가지 모빌리티의 분류로 상상 여행 내용을 나누었고, 상상 여행의 모빌리티적 특징이 어떻게 핵심적으로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게 되었는지 방식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1)상상으로의 모빌리티에서는 상상 여행으로 진입하고 배경지를 셋팅하는 지리적 특징이 제한적이었던 현실 공간을 잠시 벗어난 느낌을 주며, 이와 동시에 현실 공간 속 고민들에게서도 잠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치유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2)상상 내 모빌리티에서는 상상 여행 진입과정을 거친 연구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상 여행을 하면서 그들의 내면의 지리 안에서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이라는 모빌리티적 요소들을 만나게 되고, 이 요소들은 각기 또는 상호 연결되어 참여자들의 기분을 변화시키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요소들은 진정으로 원하고 있던 내면을 알려주는 상징체로 등장하여 몰랐던 자아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치유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3)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에서는 치유감 형성 효과를 지속시킨 연구참여자들이 상상 여행의 경험을 어떻게 실제 현실 속 가시적으로 나타난 일상의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의 지리로 실천시켜 치유감을 유지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현실 제한은 그대로이나 이들이 어떻게 실현 가능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일상의 지리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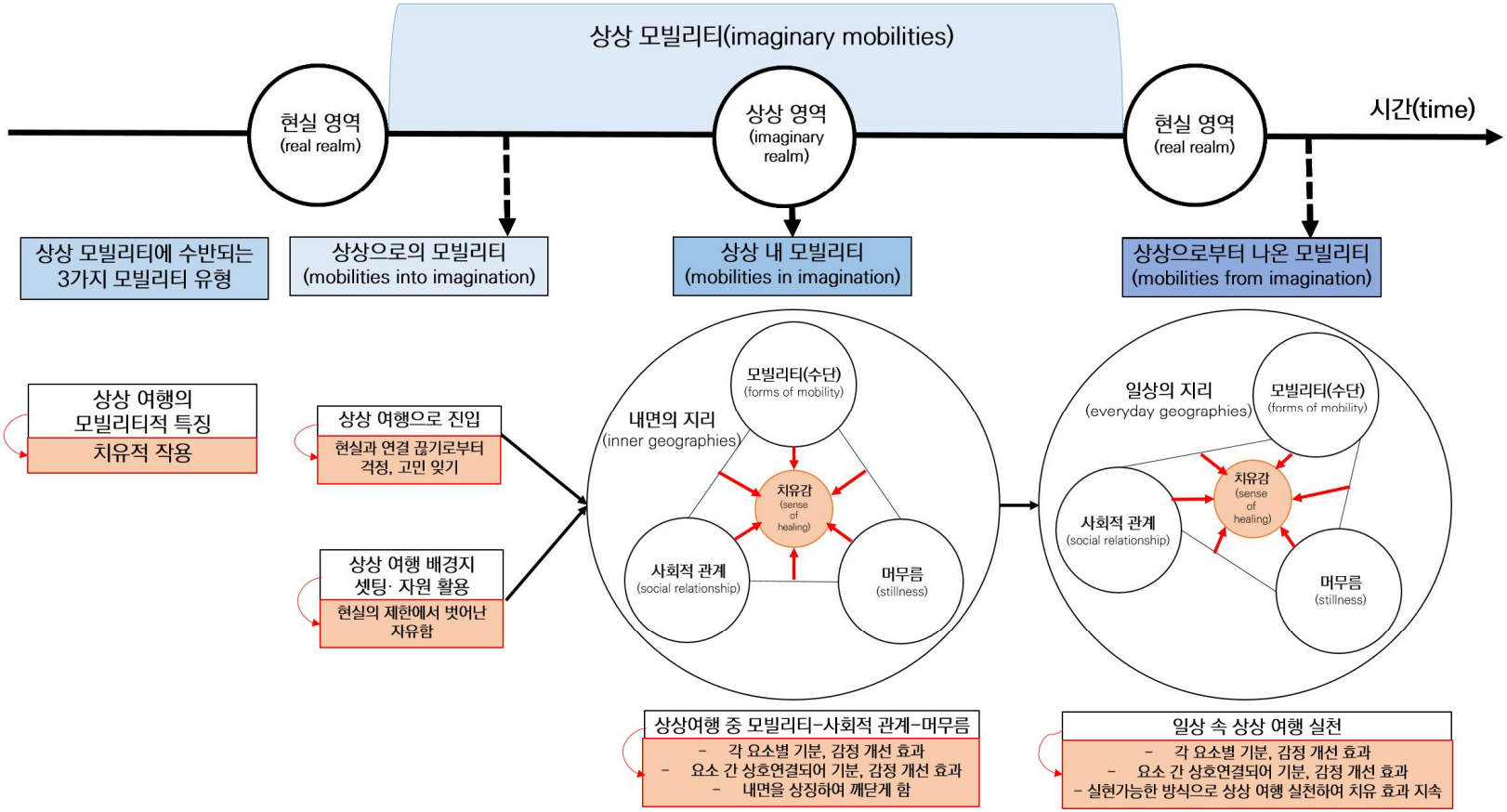
상상 모빌리티(imaginary mobilities)
현실 영역
(real realm)
상상 영역
(imaginary
realm)
현실 영역
(real realm)
시간(time)
상상 모빌리티에 수반되는
3가지 모빌리티 유형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mobilities into imagination)
상상 내 모빌리티
(mobilities in imagination)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mobilities from imagination)
상상 여행의
모빌리티적 특징
치유적 작용
상상 여행으로 진입
현실과 연결 끊기로부터
걱정, 고민 잊기
상상 여행 배경지
셋팅· 자원 활용
현실의 제한에서 벗어난
자유함
내면의 지리
(inner geographies)
모빌리티(수단)
(forms of mobility)
치유감
(sense
of
healing)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ship)
머무름
(stillness)
일상의 지리
(everyday geographies)
모빌리티(수단)
(forms of mobility)
치유감
(sense
of
healing)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ship)
머무름
(stillness)
상상여행 중 모빌리티-사회적 관계-머무름
- 각 요소별 기분, 감정 개선 효과
- 요소 간 상호연결되어 기분, 감정 개선 효과
- 내면을 상징하여 깨닫게 함
일상 속 상상 여행 실천
- 각 요소별 기분, 감정 개선 효과
- 요소 간 상호연결되어 기분, 감정 개선 효과
-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상상 여행 실천하여 치유 효과 지속

그림 3-6. 질적 분석틀

제 4 장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본 장에서는 상상 모빌리티가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에게 상상 여행 실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치유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앞서 제 3 장에서 서술한 연구 설계와 방법을 토대로 연구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측정치가 동질한지 검증하였다. 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실험 이전, 비교 가능한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둘째, 실험군에게 상상 여행 프로그램을, 대조군에게는 동일한 시간동안 휴식을 취하게 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측정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집단간 비교와 집단내 비교를 시행하였다. 사전-사후 측정치 자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첫째, 실험군은 상상 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한 직후, 긍정 수준이 증가하고 부정 수준과 기분상태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기분상태 총점이 감소한다는 것은 긴장, 분노, 우울, 피로, 혼돈의 기분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실험군의 긍정 수준의 증가량과 부정 및 기분상태 수준의 감소량이 대조군에 비해 클 것이다.

셋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2주 후, 8주 후 측정치의 자료를 집단내 및 집단간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전-2주 후, 8주 후 측정치 자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첫째, 실험군은 상상 여행 프로그램 종료 2주 후와 8주 후에 사전보다 긍정, 웰빙, 행복 수준이 증가하고, 부정, 기분상태, 우울, 불안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둘째, 실험군의 사전-2주 후와 사전-8주 후 사이의 긍정, 웰빙, 행복 수준의 평균 증가량과 부정, 기분상태, 우울, 불안 수준의 평균 감소량이 대조군의 변화량에 비해 클 것이다.

제 1 절 실험군-대조군 사전동질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동질성 분석을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성별에 있어, 두 집단 모두 여성 23명, 남성 2명으로 똑같이 구성되었다. 연령은 실험군의 평균 연령(29.52세)과 대조군의 평균 연령(29.08세)이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451, p=.654).

다음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사전측정을 통하여 수집된 긍정, 부정, 기분상태, 우울, 웰빙, 불안, 행복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4-1과 같다. 또한, 두 집단이 개입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동질적이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각 사전측정치의 집단 간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측정치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p>.05), 개입 이전, 두 집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동질적인 상태였음이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분석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별다른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

표 4-1. 사전측정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 간 차이

집단 / 측정치	실험군(N=25)		대조군(N=25)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긍정	27.64	5.20	29.08	5.07	-.991	.327
부정	31.68	5.56	30.92	7.58	.404	.688
기분상태	44.72	18.99	42.04	22.28	.458	.649
우울	25.88	10.90	25.40	12.66	.144	.886
웰빙	30.40	9.26	27.76	11.73	.883	.382
불안	18.32	9.92	18.80	12.96	-.147	.884
행복	35.52	10.08	36.68	15.16	-.319	.751

제 2 절 상상 여행 직전-직후 효과

1. 집단 내 상상 여행 전후 차이 비교

1) 실험군의 사전-사후 측정치 차이 비교

상상 여행의 단기적 치유감 형성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군에 참여한 25명을 대상으로 사전(상상 여행 시작 직전), 사후(상상 여행 종료 직후)에 수집한 긍정, 부정, 기분상태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2에 제시하였다. 사전, 사후 측정치를 이들 세 가지 변인만으로 측정한 이유는, 상상 여행이 10분간 진행되었으므로 단기간 내 감정과 기분상태 변화를 측정하기에 이 세 가지 변인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들 측정치가 사전-사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표 4-2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군은 상상 여행에 참여한 직후에 긍정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t=-3.04, p=.006), 부정과 기분상태 수치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t=14.06, p<.001, t=11.35, p<.001). 이와 같은 변화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다.

표 4-2. 실험군 사전-사후 변화 차이검증

측정치	사전		사후		t	d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긍정	27.64	5.20	31.76	5.40	-3.04**	.78
부정	31.68	5.56	15.56	5.16	14.06***	3.01
기분상태	44.72	18.99	-.8	14.71	11.35***	2.7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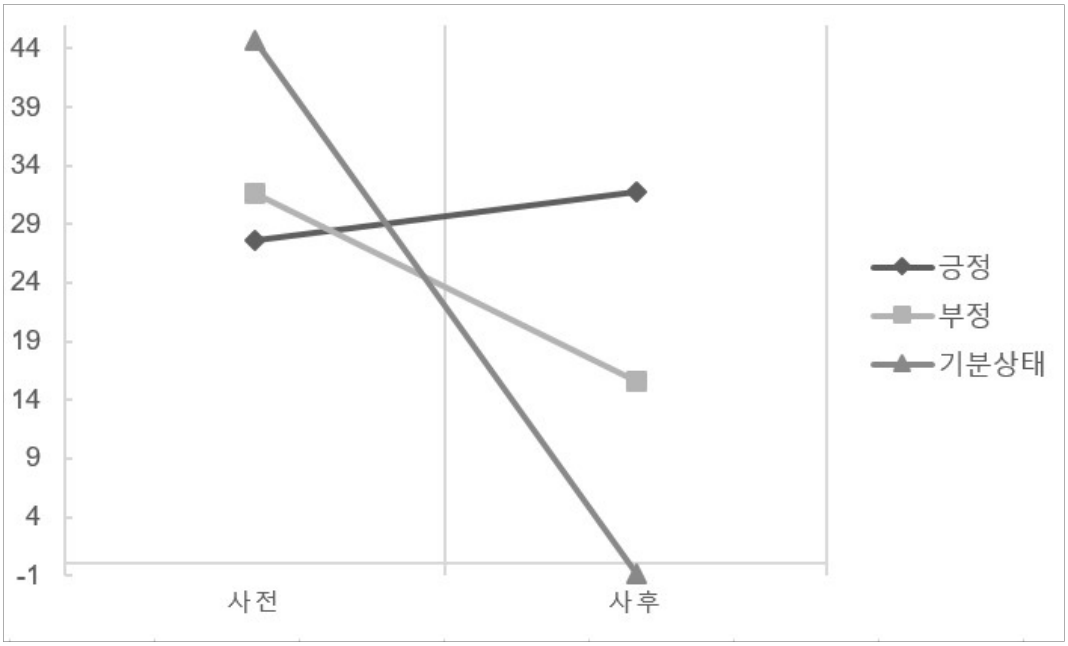

그림 4-1. 실험군의 주요 종속측정치들의 사전-사후 변화

이러한 통계적 유의도(statistical significance)와 더불어, 실험군에 가해진 상상 여행의 개입이 종속측정치 변화에 미친 영향의 실제적 유의도(practical significance)를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Cohen(1988)의 *d* 값을 산출하였다. Cohen의 *d* 라고 불리는 측정치는 사전과 사후 측정치 평균에서의 차이가 그 점수들의 표준편차와 비교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준다. Cohen의 *d* 는 (사전 측정치 평균-사후 측정치 평균)/(사전 측정치 표준편차/2+사후 측정치 표준편차/2)로 계산할 수 있다. Cohen(1988)의 *d* 를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효과크기(*d*)가 0.2(또는 그 이상)는 작은 효과크기, 0.5(이상)는 중간 효과크기, 0.8(또는 그 이상)은 큰 효과크기라 제시되어있다. 상상 여행 후 실험군의 부정(*d*=3.01)과 기분상태(*d*=2.70)의 효과는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d*=.78)은 효과의 크기가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상 여행이 주요 결과 변인에 미친 영향의 통계적 유의도와 실제적 유의도 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되었다.

2) 대조군의 사전-사후 측정치 차이 비교

대조군에 참여한 25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에 수집한 종속측정치들의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결과를 표 4-3에 제시하였다. 대조군에서는 두 시점에 반복 측정된 긍정 수치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과 기분상태 점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환경은 동일하고 상상 여행을 하지 않았을 때, 긍정적인 감정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단, 부정과 기분상태 증상에는 휴식 후 자연스러운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표 4-3. 대조군 사전-사후 변화 차이검증

측정치	사전		사후		*t*	*d*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긍정	29.08	5.07	26.76	8.21	1.42	.35
부정	30.92	7.58	19.84	7.36	7.28***	1.48
기분상태	42.04	22.28	14.4	4.07	5.73***	2.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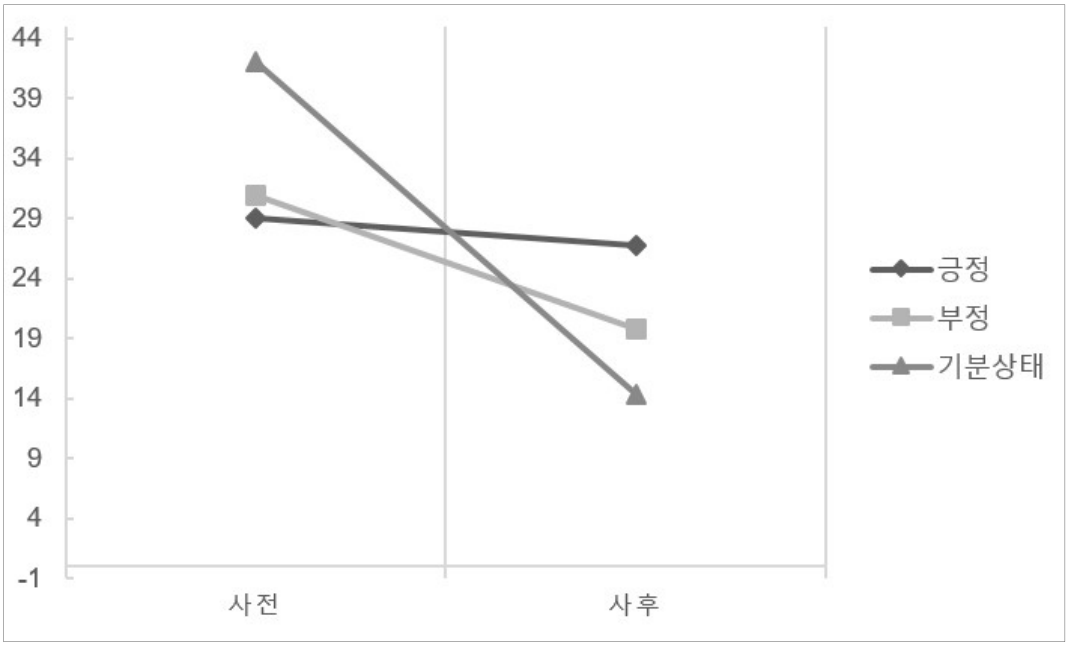

그림 4-2. 대조군의 주요 종속측정치들의 사전-사후 변화

2. 집단 간 상상 여행 전후 변화량 차이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요 종속측정치들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량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함으로써 상상 여행 개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의 사후 측정치의 평균에서 사전측정치의 평균을 뺀 평균 변화량의 차이를 비교하는 반복측정 공변량분석(RM ANCOVA)을 실시하였다. 비록, 앞서서 검증한 사전측정치 검증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내지 않는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두 집단 간 사전측정치들에서 미세한 차이는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분석을 실행하고자 주요 사전 측정치들(긍정, 부정, 기분상태)을 각 변화량 측정치별로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종속측정치들인 긍정, 부정, 기분상태의 평균 변화량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군에 적용한 상상 여행이라는 개입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두 집단의 사전-사후 측정치의 평균 변화량 및 차이검증을 표 4-4에 제시하였다. 결과는 긍정, 부정, 기분상태에서 모두 집단(실험군, 대조군)과 시기(사전, 사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F(1,47)=8.06, p=.007, F(1,47)=8.20, p=.006, F(1,47)=11.20, p=.002) 세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상 여행을 실시하였을 때,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긍정 측정치는 6.44점 더 상승하였고(실험군: -4.12, 대조군: 2.32), 부정 측정치는 5.04점 더 하락하였으며(실험군: 16.12, 대조군: 11.08), 기분상태는 17.88점 더 하락하였다(실험군: 45.52, 대조군: 27.64). 이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실험군의 치유감 형성 효과가 부정 측정치에서는 45%, 기분상태 측정치에서는 64%가 더 있었음을 보여준다. 긍정 측정치의 경우, 대조군이 점수가 오히려 하락하였기 때문에 상상 여행의 치유감 형성 효과 크기에 대해서 계산할 순 없었다.[14)]

14) 단, 치유감 형성 효과 크기를 논할 때, 심리척도 간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분상태 측정치가 64% 더 상승하고 부정 측정치는 45% 더 상승하였다고 해서, 상상 여행이 부정보다 기분상태에서 더 치유감 형성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각 척도의 측정 스케일이 상이하므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실험군에 가해진 상상 여행 개입 효과를 의미할 수 있는 총변화량의 비율을 뜻하는 부분에타제곱(partial η^2)을 SPSS를 통해 산출하였다. 부분에타제곱은 .01 수준일 때 처치 효과 작음, .06 수준일 때 처치 효과 중간, .14 이상일 경우 처치 효과 큼으로 판단한다(Kittler, Mernard, & Phillip, 2007; 유성진, 2010; 임선영, 2013 재인용). 실질적으로,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상상 여행을 실시한 실험군의 사전-사후 측정치는 긍정이 증가하였고, 부정과 기분상태가 감소하여 모두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부분η^2=.15, 부분η^2=.15, 부분η^2=.19). 이는 상상 여행을 시도하는 것이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긍정, 부정, 기분상태에 있어서 큰 치유감 형성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 집단 간 종속측정치의 상상 여행 전후 변화량 차이검증과 효과크기

측정치	실험군		대조군		F	부분 η^2
	평균차이	표준편차	평균차이	표준편차		
긍정	-4.12	6.78	2.32	8.15	8.06**	.15
부정	16.12	5.73	11.08	7.62	8.20**	.15
기분상태	45.52	20.05	27.64	24.10	11.20**	.1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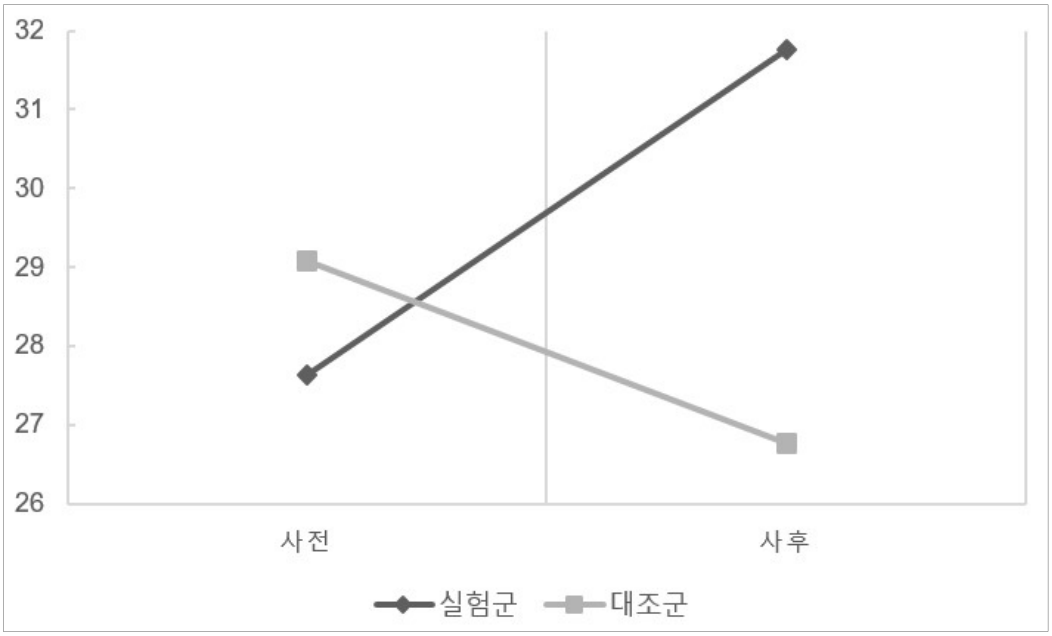

그림 4-3. 상상 여행 전후 긍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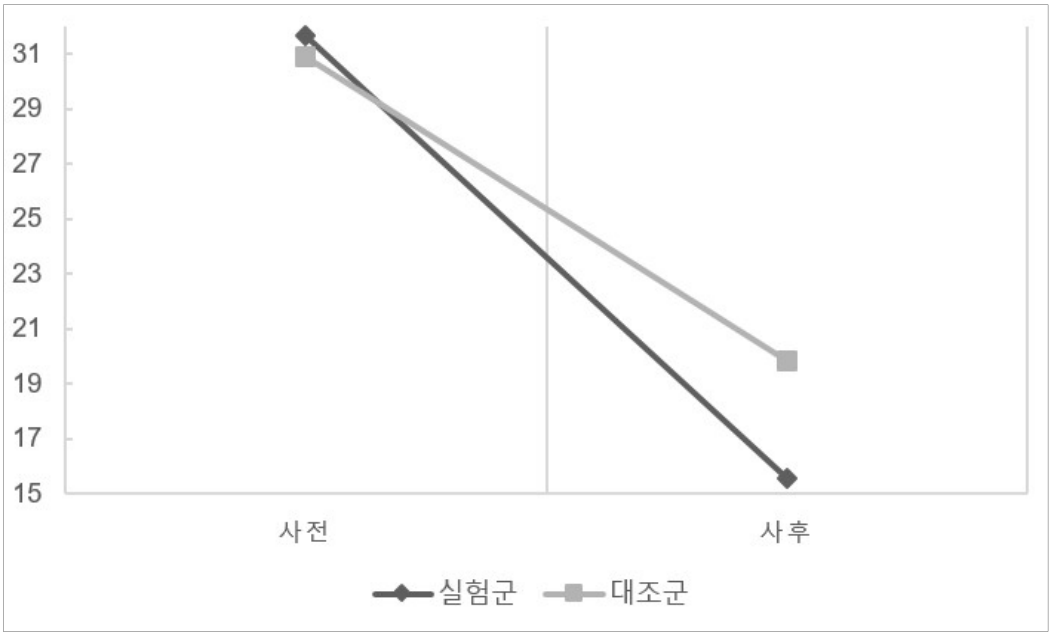

그림 4-4. 상상 여행 전후 부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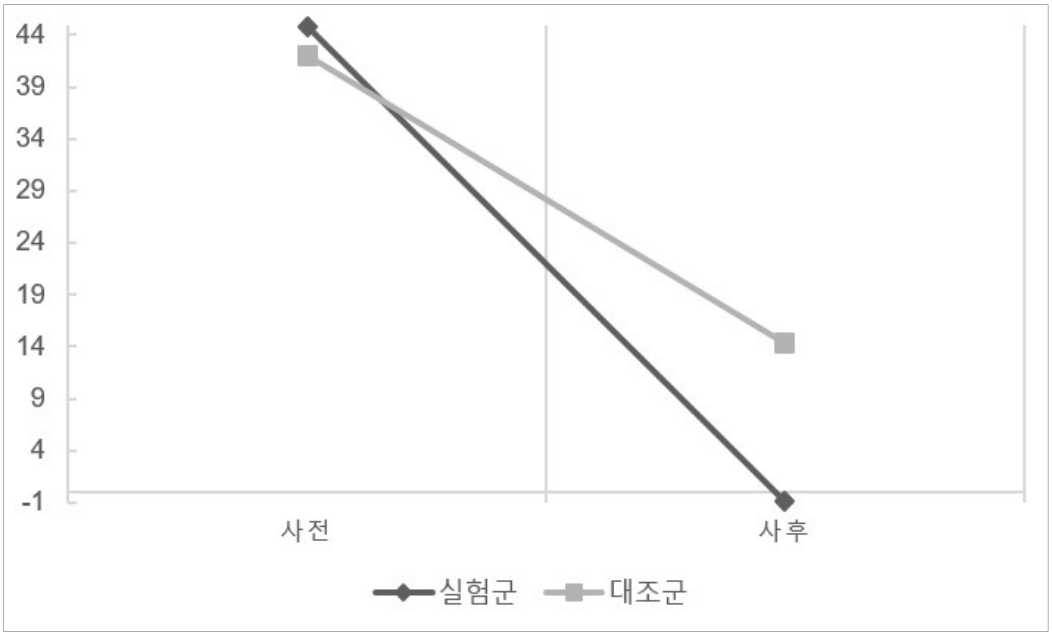

그림 4-5. 상상 여행 전후 기분상태 변화

3. 상상 여행의 단기적 치유감 형성 효과 논의

제 2 절은 상상 여행 전후로 이의 단기적 치유감 형성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모집된 서울시 취업 준비청년층 56명을 임의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성하였고, 각 집단에 상상 여행 전후로 단기 효과 측정에 유리한 긍정, 부정, 기분상태 측정치를 수집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의 자격에서 탈락한 6명을 제외한 총 50명(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앞에서 언급한 예상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상 결과로 언급한 첫째, 실험군은 상상 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한 직후 긍정 수준이 증가하고, 부정 수준과 기분상태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둘째, 실험군의 긍정 수준의 증가량과 부정 및 기분상태 수준의 감소량이 대조군에 비해 클 것이다 라는 가정은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집단간 비교에서 실험군의 긍정, 부정, 기분상태의 종속측정치 변화량과 대조군의 종속측정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 단기적인 측면에서 상상 여행이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집단내 비교에서도 실험군의 긍정, 부정, 기분상태의 사전-사후 측정치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반면 대조군의 부정, 기분상태의 사전-사후 측정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긍정의 사전-사후 측정치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상상 여행이 긍정적인 기분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났다.

단,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대조군 내에서도 부정, 기분상태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에는, 실험 시에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대조군에게 사전 인터뷰를 실시한 점과 음악을 들려주었던 점이 대조군에게 부정적 기분의 완화 효과를 주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험을 설계할 때에, 실험군과 동일한 조건을 주기 위하여 사전인터뷰를 대조군에게도 동일하게 실시하였고 더불어, 실험군에게 상상 여행에 집중하고, 시간적 표시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음악을 활용하였으며, 오로지 상상 여행의 시도 여부에 따라 연구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대조군에게도 음악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대조군에게는 이러한 인터뷰와 음악이 사색 또는 명상의 시간이 되어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사전인터뷰와 음악이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두 집단을 비교하는 더욱 정교화된 상상 여행 설계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다만, 상상 여행을 실시한 실험군이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치유감 형성 효과 크기가 부정과 기분상태 측정치에서 더욱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에서는 직전-직후 사이에 상상 여행을 실시한 실험군이 상상 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치유적 효과가 더 높은지를 측정 도구를 사용해 양적 분석을 하여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질적 분석 부분은 제 5 장과 제 6 장으로, 직전-직후 사이 여행을 상상하는 것이 어떻게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실험군의 인터뷰 내러티브와 상상 여행 그림 및 글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상상 여행을 통한 치유감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지리적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제 3 절 상상 여행 직전-2주 후, 8주 후 효과

1. 집단 내 직전-2주 후, 8주 후 차이 비교

1) 실험군의 직전-2주 후, 8주 후 측정치 차이 비교

상상 여행의 장기적 치유감 형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군 25명을 대상으로 상상 여행 시작 직전, 상상 여행 종료 2주 후, 8주 후에 수집한 긍정, 부정, 기분상태, 우울, 웰빙, 불안, 행복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5에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우울, 웰빙, 불안, 행복 측정치는 장기적인 상태의 감정을 측정하기에 용이하므로 이전 사전-사후 측정치와 다르게 추가한 부분이다.

장기적 치유감 형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가지 검정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험군의 사전, 2주 후, 8주 후에 따른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경향성이 유의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Brace et al, 2016) 종속측정치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시기에 따른 개별적 효과도 확인하기 위해 사전-2주 후, 2주 후-8주 후, 사전-8주 후 변화량을 구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전-2주 후-8주 후 시기의 측정치들을 비교한 결과, 상상 여행이 2주 후, 8주 후에도 부정, 기분상태, 불안을 감소시키고, 긍정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표 4-5>. 자세하게, 상상 여행이 2주 후와 8주 후에 부정, 기분상태, 불안 측정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F(2,48)=10.38$, $p<.001$, 부분$\eta^2=.30$, $F(2,23)=4.49$, $p=.023$, 부분$\eta^2=.28$, $F(2,48)=7.47$, $p=.001$, 부분$\eta^2=.24$), 이의 선형모형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추후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F(1,24)=9.24$, $p=.006$, 부분$\eta^2=.28$, $F(1,24)=7.849$, $p=.01$, 부분$\eta^2=.25$, $F(1,24)=5.960$, $p=.022$, 부분$\eta^2=.20$). 반면, 긍정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나($F(2,48)=3.48$, $p=.039$, 부분$\eta^2=.13$), 유의미한 선형적 관계가 나타나진 않았다($F=(1.24)=3.58$, $p=.071$ 부분$\eta^2=.13$).

더불어, 실험군에 가해진 상상 여행 개입 효과를 의미할 수 있는 총변화량의 비율을 뜻하는 부분에타제곱(partial η^2)을 산출하여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실험군에 실시한 상상 여행은 2주 후, 8주 후에는 부정, 기분상태,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부분η^2=.30, 부분η^2=.28, 부분η^2=.24), 긍정을 증가시키는 데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부분η^2=.13).

표 4-5. 실험군 측정시기에 따른 종속측정치 비교

측정치	사전		2주 후		8주 후		F	부분 η^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긍정	27.64	5.20	26.88	7.42	30.4	6.78	3.48*	.13
부정	31.68	5.56	25.72	7.39	27.04	8.32	10.38***	.30
기분상태	44.72	18.99	33.76	21.26	30.92	22.85	4.49*	.28
우울	25.88	10.90	22.6	9.03	19.92	10.17	2.05	.15
웰빙	30.4	9.26	31.32	12.43	37.08	12.55	2.75	.19
불안	18.32	9.92	13.8	9.63	14.68	11.69	7.47**	.24
행복	35.52	10.08	37.84	12.82	43.08	14.81	2.90	.20

*p<.05. **p<.01. ***p<.001.

또한, 실험군에게 실시한 상상 여행 종료 이후에 시기에 따른 개별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2주 후, 2주 후-8주 후, 사전-8주 후 시기별 변화량을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4-6>.

검증 결과, 위의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다고 나온 긍정, 부정, 기분상태, 불안 종속측정치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웰빙과 행복 측정치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상세히 살펴보면, 사전-2주 후 기간에는 부정, 기분상태, 불안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고(t=4.02, p=.001, t=2.92, p=.008, t=3.89, p=.001), 2주 후-8주 후 사이에는 긍정, 웰빙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t=-2.64, p=.014, t=-2.07, p=.049). 사전-8주 후 시기에는 부정, 기분상태, 불안에서 유의미한 감소(t=3.04, p=.006,

t=2.80, p=.01, t=2.44, p=.022)가 관찰되었으며, 웰빙과 행복에서 유의미한 증가(t=-2.39, p=.025, t=-2.44, p=.022)가 관찰되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부정, 기분상태,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측정치들은 상대적으로 단기적 기간인 사전-2주 후 사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 웰빙과 같은 긍정적인 측정치들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2주 후-8주 후 사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Cohen(1998)의 d 값을 통해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사전-2주 후 기간 부정은 d=.92로 큰 효과크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분상태는 d=.54로 중간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불안은 d=.46로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 후-8주 후 기간에는 긍정은 d=.50로 중간 효과크기, 웰빙에서는 d=-.46로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8주 후 시기에는 부정(d=.67), 기분상태(d=.66), 웰빙(d=-.61), 행복(d=-.61)에서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d=.34)에서 작은 효과 크기가 나타났다.

표 4-6. 실험군의 측정시기별 종속측정치 비교

측정치	사전-2주 후		2주 후-8주 후		사전-8주 후	
	t	*d*	*t*	*d*	*t*	*d*
긍정	.54	.12	-2.64*	-.50	-1.89	-.46
부정	4.02**	.92	-1.24	-.17	3.04**	.67
기분상태	2.92**	.54	.87	.13	2.80*	.66
우울	1.55	.33	1.38	.28	2.07	.57
웰빙	-.55	-.08	-2.07*	-.46	-2.39*	-.61
불안	3.89**	.46	-.87	-.08	2.44*	.34
행복	-1.32	-.20	-1.84	-.38	-2.44*	-.61

*p<.05. **p<.01. ***p<.001.

2) 대조군의 직전-2주 후, 8주 후 측정치 차이 비교

실험군의 상상 여행 장기적 치유감 형성 효과와 대비하기 위해, 대조군에 참여한 25명을 대상으로 상상 여행 사전과 상상 여행 종료 2주 후, 8주 후에 수집한 긍정, 부정, 기분상태, 우울, 웰빙, 불안, 행복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7에 제시하였다.

먼저, 대조군의 사전, 2주 후, 8주 후에 따른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종속측정치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상상 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2주 후, 8주 후는 긍정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았다. 즉, 대조군은 긍정에서만 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F(2,48)=3.40, p=.042, 부분η^2=.12), 이는 유의미한 선형적 관계가 나타나진 않았다(F=(1.24)=2.89, p=.102 부분η^2=.107). 효과크기인 부분에타제곱(partial η^2)을 살펴보아도 대조군은 2주 후와 8주 후에는 긍정을 증가시키는 데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부분η^2=.12).

표 4-7. 대조군 측정시기에 따른 종속측정치 비교

측정치	사전		2주 후		8주 후		F	부분 η^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긍정	29.08	5.07	28.16	6.90	31.2	6.17	3.40*	.12
부정	30.92	7.58	28.88	5.93	28.56	6.42	1.89	.14
기분상태	42.04	22.28	36.4	20.80	34.24	18.68	1.88	.14
우울	25.4	12.66	23.16	12.52	22.84	11.82	1.19	.09
웰빙	27.76	11.73	30.64	11.87	34.28	10.77	2.57	.18
불안	18.8	12.96	16.28	13.12	16.48	13.05	1.38	.11
행복	36.68	15.16	39.12	14.38	43.52	11.98	3.26	.22

*p<.05. **p<.01. ***p<.001.

또한, 대조군의 측정 시기별 종속측정치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4-8>. 대조군의 사전-2주 후 시기에는 종속측정치의 유의미한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시기에서도 부정, 기분상태, 우울, 불안 점수 차이 모두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단, 2주 후-8주 후 사이에 긍정과 행복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t=-2.57, p=.017, t=-2.24, p=.035), 사전-8주 후 기간을 보았을 때는 웰빙과 행복의 증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30, p=.031, t=-2.55, p=.017). 이들의 수치를 Cohen의 효과크기(d)를 통해 살펴보면, 2주 후-8주 후 기간 동안 긍정 d=-.47, 행복 d=-.33으로 작은 효과크기만 있었으며, 사전-8주 후 기간의 웰빙 d=-.58, 행복 d=-.50으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대조군의 측정시기별 종속측정치 비교

측정치	사전-2주 후		2주 후-8주 후		사전-8주 후	
	t	*d*	*t*	*d*	*t*	*d*
긍정	.80	.15	-2.57*	-.47	-1.70	-.38
부정	1.96	.30	.23	.05	1.20	.34
기분상태	1.94	.26	.46	.11	1.38	.38
우울	1.57	.18	.12	.03	.82	.21
웰빙	-1.43	-.24	-1.83	-.32	-2.30*	-.58
불안	1.69	.19	-.15	-.02	1.15	.18
행복	-1.34	-.17	-2.24*	-.33	-2.55*	-.50

*p<.05. **p<.01. ***p<.001.

2. 집단 간 직전-2주 후, 8주 후 변화량 차이 비교

상상 여행을 한 실험군과 상상 여행을 하지 않은 대조군이 사전-2주 후, 8주 후 기간에서 긍정, 부정, 기분상태, 우울, 웰빙, 불안, 행복의 측정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값들의 사전-2주 후 변화량, 2주 후-8주 후 변화량, 사전-8주 후 변화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반복측정 공변량분석(Repeated Measured 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이때, 주요 사전 측정치들(긍정, 부정, 기분상태, 우울, 웰빙, 불안, 행복)을 각 변화량 측정치별로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 종속측정치에서 사전-2주 후 시기 실험군의 감소량 수준이 대조군보다 커,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F(1,47)=4.90^{*}$, $p=.032$, 부분$\eta^2=.094$. 실험군의 경우 부정 측정치가 5.96점 하락한 반면, 대조군의 경우에는 2.04점 하락에 그쳤다. 이에 따르면 상상 여행의 치유감 형성 효과 크기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3.92점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대조군보다 192%나 더 크게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부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속 변인에서는 모두 집단 간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상상 여행을 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2주 후, 8주 후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상 결과 2는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었다.

그러나, 측정치들의 변화량의 집단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 계산한 Cohen(1988)의 효과크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전반적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는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다. 실험군은 사전-2주 후 기간 부정이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기분상태는 중간 효과크기가, 2주 후-8주 후 기간에는 긍정은 중간 효과크기, 사전-8주 후 시기에는 부정, 기분상태, 웰빙, 행복에서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조군은 사전-8주 후 기간동안 웰빙과 행복에서만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가 나타난 것에 그쳤다.

더불어, 두 집단의 그래프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차이 비교시 예상 결과 2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프에서는 앞에서 시행했던 집단

내 차이 검정에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상상 여행을 시행한 실험군에서만 나타났던 부정, 기분상태, 불안의 그래프가 대조군보다 급격하게 감소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상세하게는, 두 집단 모두 집단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긍정, 웰빙, 행복을 제외하고는, 실험군에서만 나타났던 사전-2주 후 기간에서 부정, 기분상태, 불안의 그래프 변화가 유의미하게 감소되며, 사전-8주 후 시기 전체적으로 부정, 기분상태, 불안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4-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 측정치의 경우 다른 척도들과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주 후에는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하락하고 8주 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이는 2주 후와 8주 후에 동일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다른 척도들과 대비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긍정 척도가 2주 후에서 하락한 것은 실험군(t=.54)과 대조군(t=.80)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하락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긍정 측정치도 다른 측정치와 동일하게 8주 후에 점수가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사전과 비교할 때 8주 후에 점수가 개선되는 이유는 참여자들이 가장 심적으로 어려울 때 상상 여행 1차 조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호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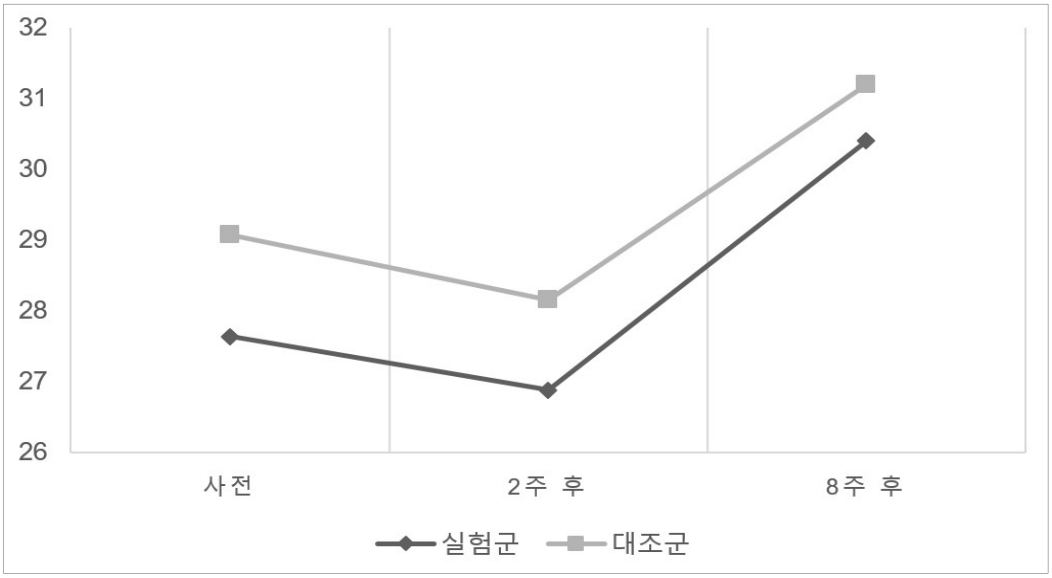

그림 4-6.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긍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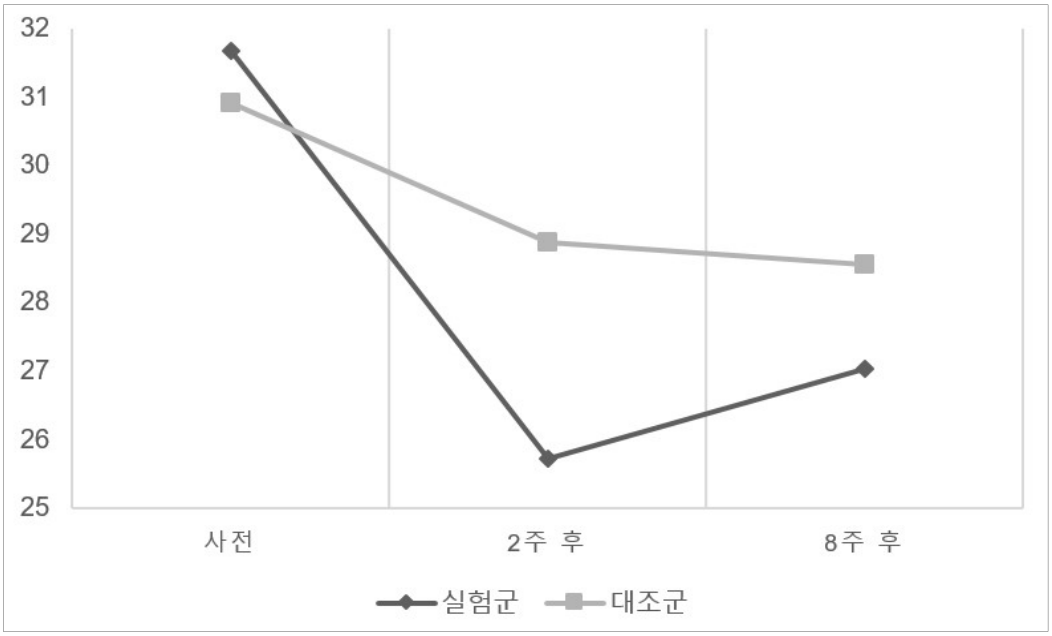

그림 4-7.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부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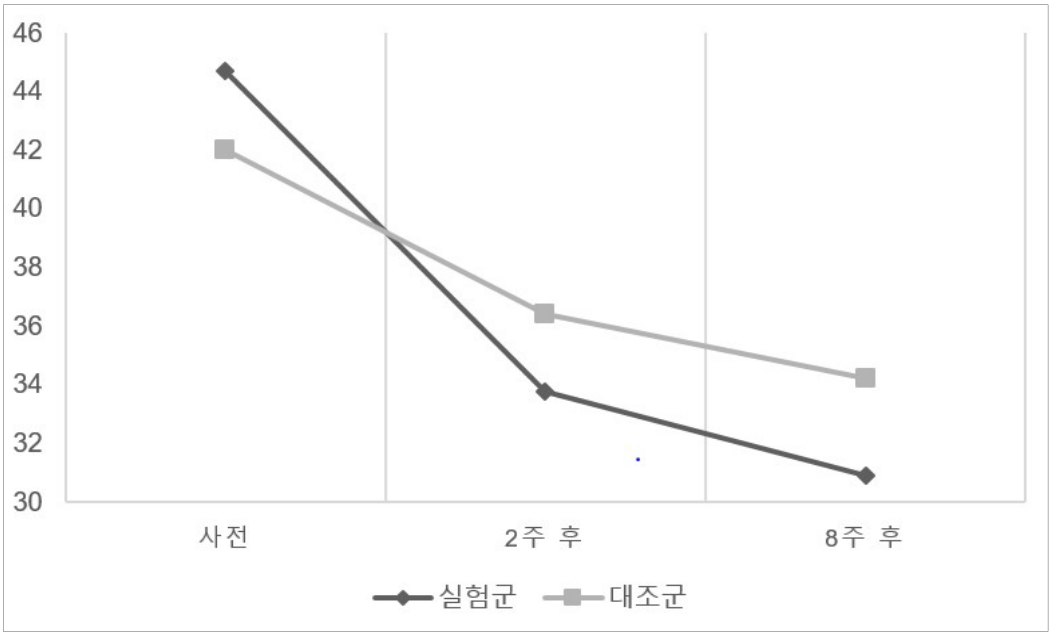

그림 4-8.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기분상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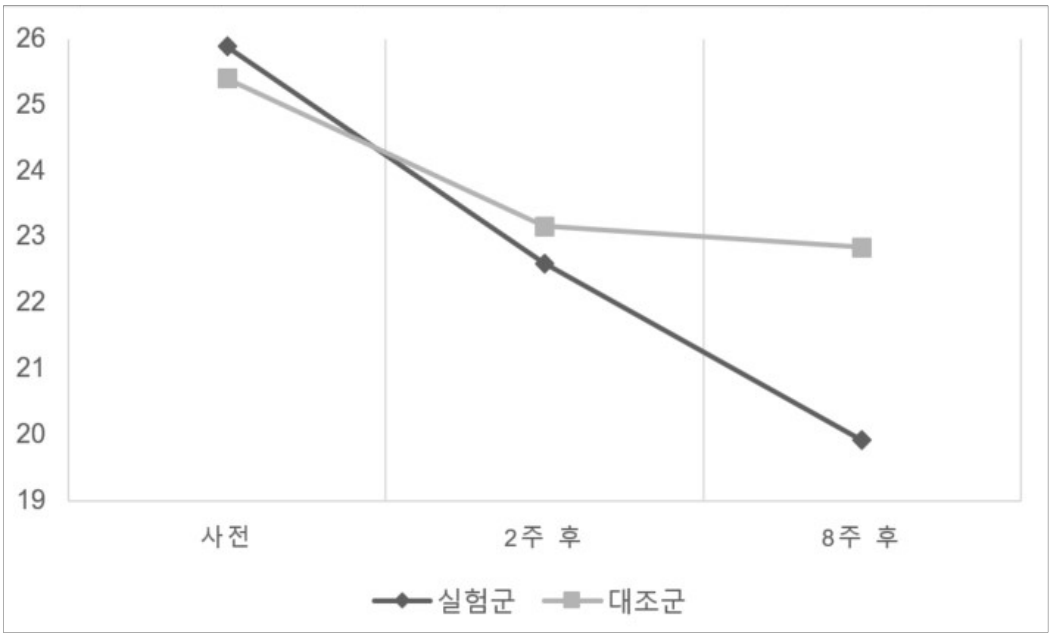

그림 4-9.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우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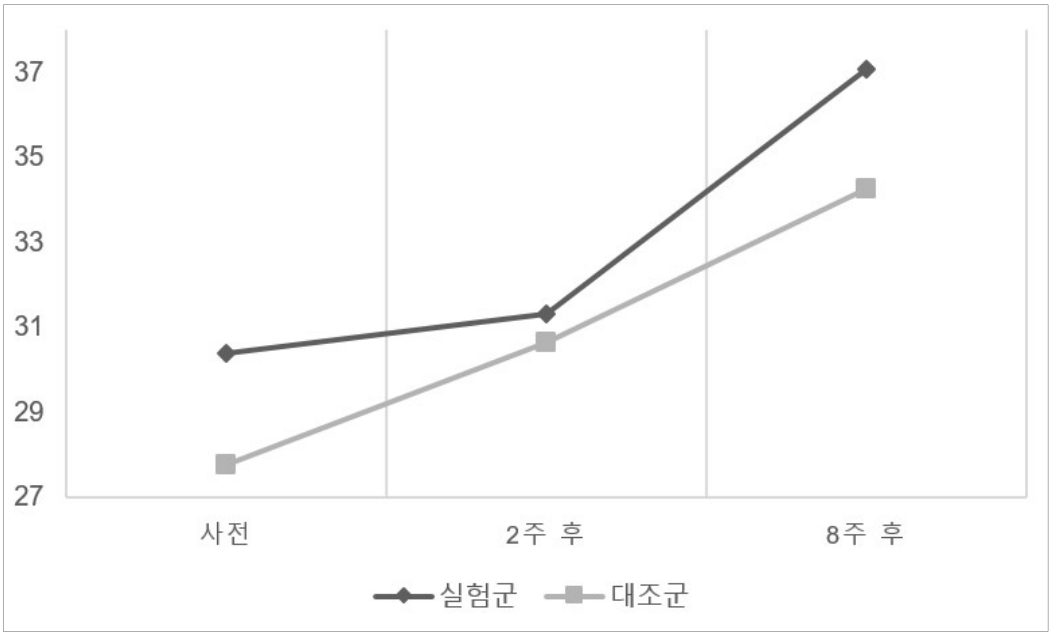

그림 4-10.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웰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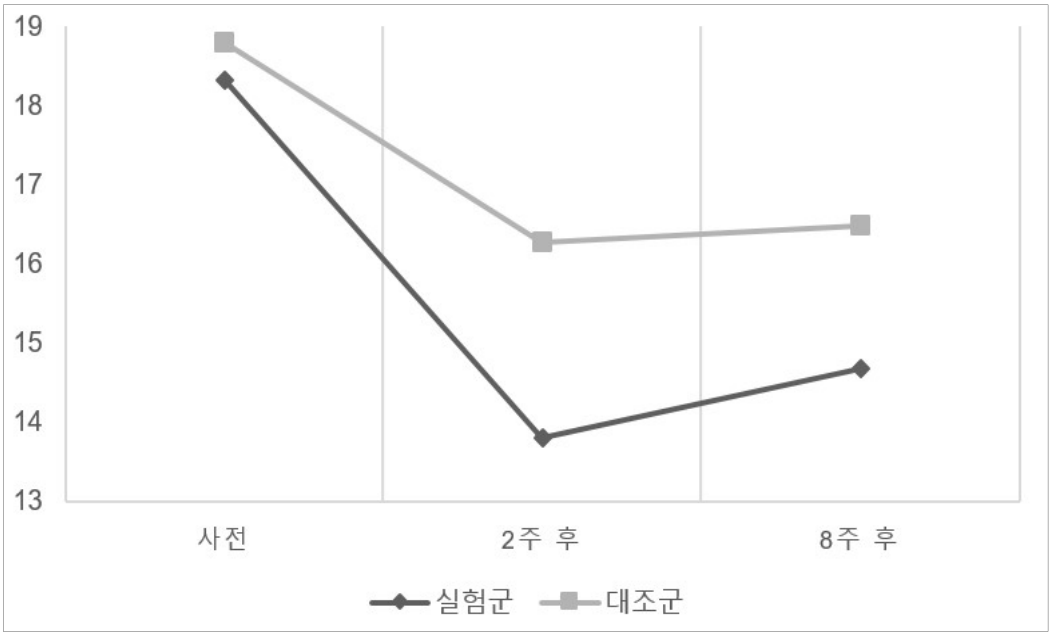

그림 4-11.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불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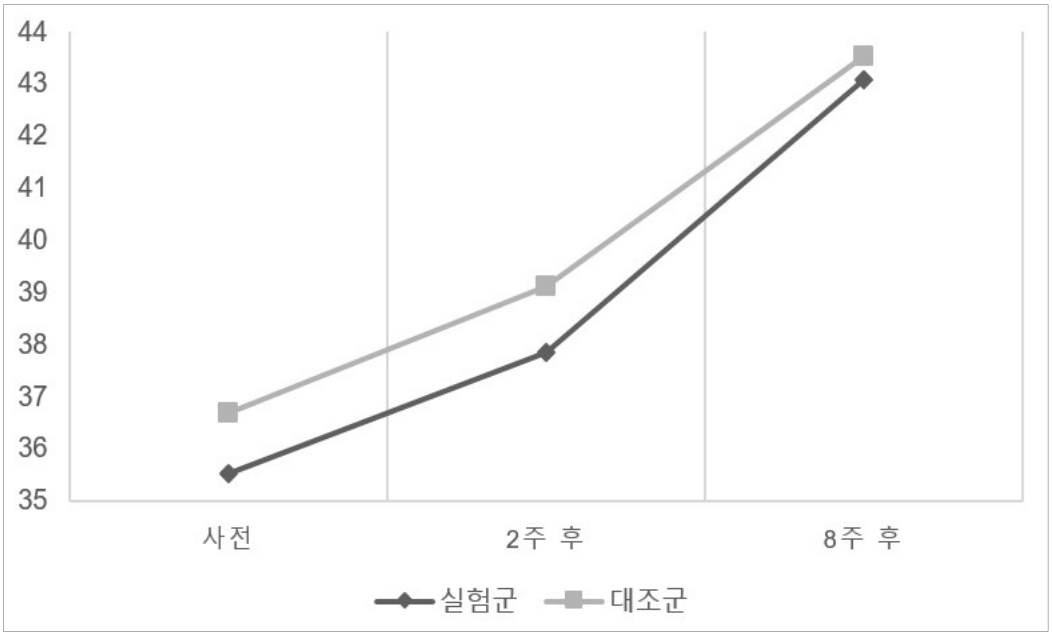

그림 4-12. 집단 간 실험 사전-2주 후-8주 후 행복 변화

3. 상상 여행의 장기적 치유감 형성 효과 논의

제 3 절의 목적은 한 번의 상상 여행 종료 이후, 2주 후와 8주 후에도 그 상상 여행의 치유감 형성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를 측정하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상상 여행 종료 이후 2주 후와 8주 후, 실험군의 긍정, 부정, 기분상태, 우울, 웰빙, 불안, 행복 측정치를 시기별로 수집하였으며, 상상 여행을 하지 않은 대조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시기별로 측정치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예상 결과였던 집단 내 비교에서 실험군은 상상 여행 프로그램 종료 2주 후와 8주 후에 사전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부정, 기분상태,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확인하여,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예상 결과를 지지하였다. 자세하게, 실험군의 사전-2주 후-8주 후 시기의 측정치들을 비교한 결과, 상상 여행이 부정, 기분상태, 불안을 감소시키고, 긍정 측정치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사전-2주 후, 2주 후-8주 후, 사전-8주 후 시기별 변화량에서도, 사전-2주 후 기간에는 부정, 기분상태, 불안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고, 2주 후-8주 후 사이에는 긍정, 웰빙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으며, 사전-8주 후 시기에는 부정, 기분상태, 불안에서 유의미한 감소와 웰빙과 행복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에 반해, 대조군의 사전-2주 후-8주 후 시기 측정치들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긍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측정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개별적인 시기별 검증에서 대조군에서도 2주 후-8주 후 사이에 긍정, 행복 점수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사전-8주 후 기간에서 웰빙, 행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는데, 이렇게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다소 2주 후-8주 후 사이에 긍정, 웰빙, 행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단 간 비교에서 실험군의 사전-2주 후와 사전-8주 후 사이의 긍정, 웰빙, 행복 수준의 평균 증가량과 부정, 기분상태, 우울, 불안 수준의 평균 감소량이 대조군의 변화량에 비해 클 것이라는 예상 결과는, 부정 종속측정치에서만 사전-2주 후 시기 실험군의 감소량 수준이 대조군보다 커,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기에, 이는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었다. 비록 Cohen(1988)의 효과크기 검토에서 전반적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두 집단의 차이 비교 그래프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의 변화량에 비해 클 것이라는 경향성이나 상상 여행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치유감 형성 이후의 지속성에 더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 결과는 사전-2주 후 부정 측정치에서만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었다. 즉, 제 3 절에서 행해진 상상 여행 사전-2주 후, 8주 후 집단 간 차이 비교에서는 앞의 제 2 절 상상 여행 사전-직후 긍정, 부정, 기분상태의 측정치의 집단 간 차이 비교에 비해, 부정 측정치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얻진 못하였고, 부분적으로나마 경미한 경향성만 보였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 여행 직후에 얻었던 치유감이 희미해진 연유에서 기인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만, 부정 측정치의 경우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2주 동안 더욱 치유감 형성 효과 크기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본 절에 해당하는 질적 분석 부분은 제 7 장으로, 상상 여행 종료 2주 후, 8주 후 집단 내 실험군 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부정, 기분상태, 불안 측정치에서 실험군의 평균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고한 사람들이 실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행동방식의 수정이 있어서 치유감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 2주 후, 8주 후에 심리 측정 이후 실시된 인터뷰 내러티브의 질적 분석을 통하여 그 연유를 살펴볼 것이다.

제 5 장 상상으로의 모빌리티(mobilities into imagination) 치유감 형성 작용[15)]

본 장에서는 상상 모빌리티의 첫 번째 단계인 상상으로의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을 살펴본다.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란, 현실에서 상상의 영역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이동을 말한다.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단계를 사례인 상상 여행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1. 상상 여행의 진입, 2. 상상 여행의 배경을 설정하는 두 가지 지리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층의 지리적 특성들은 현실과 단절하고 제약 없는 자유로운 느낌을 줌으로써 참여자들의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고 있었다.

제 1 절 상상 여행으로의 진입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과정에서는 현실의 영역에서 상상의 영역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이동이 먼저 드러났다. 본 연구의 상상 여행 사례에서 현실의 세계에서 상상 여행 목적지까지 진입하는 과정은 치유적으로 작용했다.

모든 실험군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에서 상상 여행의 목적지까지 몰입해 가는 가운데 이러한 모빌리티를 겪었으나, 그중 현실 세계에서 상상 여행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다른 참여자들보다 오래 걸리고 상상 속으로 쉽게 빠져들기 어려운 이들이 있었다(라희, 지혜, 채원, 혜련, 진주). 이들은 동화 속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진주)의 토끼 굴과는 다르게 쉽사리 상상 속 세계로 빨려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는 현실 세계에서 취업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당사자에게 크게 작용하여 상상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였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연구자가 상상 여행의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상상 속으로 빠져드는 모빌리티를 제한하고 있는

15)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의 질적 분석에서 작은 따음표는 상상 여행 글쓰기의 내용이며, 큰 따음표는 인터뷰 내러티브의 내용이다.

모습이 나타났다. 진주는 현실에서 상상으로 넘어갈 때 시간이 심지어 5분 정도가 걸렸는데(그림 5-1), 그 이유는 현실 속 느끼고 있었던 취업과 관련한 강박관념이 제한이 없는 상상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 상상 속으로 들어 가는 모빌리티의 실행 동력을 떨어드렸기 때문이었다. 진주는 실제 현실 속 여행을 다녀온 지도 1년 정도가 다 되어갔는데, 1년여간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이유는 “일이 바빴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못되게” 굴며 취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진 여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다. 이러한 평상시 생각이 상상의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쳐 돈과 시간에 구애 없이 가는 상상 여행조차도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불로소득, 공짜 선물 같은 것으로 여겼기에 진주는 자기 자신이 상상 여행을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현실에서 상상으로 떠나기가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진주에게 상상 여행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선물 같은 존재였으며 평상시 현실 속 취업의 실패와 취업 준비의 부담감이 상상의 영역까지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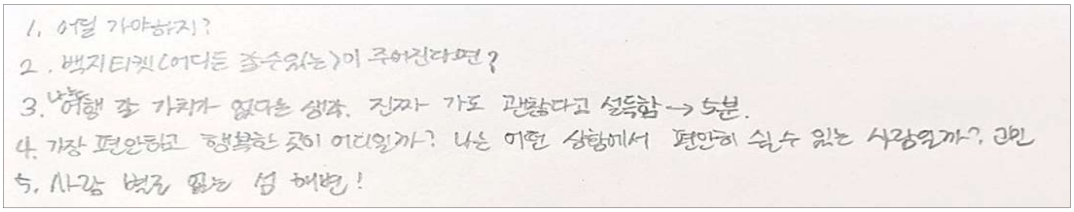

그림 5-1. 상상으로의 진입 시간의 길어짐(진주)

지혜 역시 구직과 월세 걱정으로 인한 현실의 “잡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쉽사리 현실에서 상상으로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심지어 지혜는 사전 인터뷰 도중 지원했던 단기 아르바이트에서도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혜는 2019년 12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2020년 초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취업준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월세 내기가 빠듯하여 대출까지 고민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의 압박으로 인해 상상 여행을 실시했을 때 상상에 몰입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혜는 상상 여행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 방법은 현실의 생각들을 잠시 억누르고 의식의 흐름대로 떠오르는 것들에 집중하였던 것이었다.

한편, 이렇게 현실에서 상상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자연스럽지 못했던 이 모빌리티 과정은 오히려 치유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는 비록, 상상 속 여행을 떠나기까지 힘들고 오래 걸렸지만, '네가 여행을 다녀올 만하다', '고생했다', '나한테 여행 갈만하다고 얘기해주는 시간이 저는 좀 좋았어요' 라고 표현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도록 노력했던 시간이 그녀에게 치유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평상시 주변 사람들이 돈, 시간 걱정 없이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고했을지라도 무시해왔던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으며, 취업과 자신의 인생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자신을 채찍질했었던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모습도 깨닫는 것 역시 치유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상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빌리티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은 치유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빌리티의 특징은 현실에서 상상으로 접어드는 동력이 상상 여행을 하는 당사자의 현실 속 강박관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을수록 약해지고, 모빌리티 시간은 길어졌다. 현실-상상 과도기적 모빌리티의 시간을 좁히기 위해선 현실의 생각들을 잠시 억누르고 의식의 흐름대로 떠오르는 것들에 집중하는 태도가 유용하였다. 또한, 잘 집중이 안 되더라도 이미 그 과도기적인 모빌리티를 겪는 자체가 제한된 현실의 상황을 제거하고 자신을 제한 없는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성찰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내면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치유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제 2 절 제한 없는 배경 셋팅과 자원의 활용

1. 제한 없는 배경으로 셋팅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과정의 두 번째 지리적 특징은 상상의 영역에 도착하기 직전, 그 배경을 셋팅한다는 점이었다. 상상 여행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참여자들은 상상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그 목적지의 배경지를 구축하였다. 새로운 환경을 구축할 때 특이점은 제한된 현실의 영역과 다르게 제한 없는 배경을 셋팅한다는 점이었다.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현실 세계 속 아픔(illness)을 느끼던 제한된 환경<부록 3 참고>을 제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상상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사회적 제약, 시간적 제약,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난 상상 여행의 배경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을 속박해오고 아픔을 주었던 사회적 제약들이 제거된 상태의 상상 여행 배경지를 셋팅했다. 상상의 영역에서 자신의 본성을 조여왔던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는 설정을 한 지혜는 평소 자신이 이상적인 사람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취업을 준비하려면 현실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충고에 따라 자신의 성격과 다른 현실적 성향으로 바뀌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매번 이러한 노력은 자신을 힘들게 했고, 상상 여행 속에서는 그동안 나를 규제해오고 답이 아니라고 말해왔던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난 배경지에서 여행 모빌리티 전체를 운행할 수 있다는 데 안도감과 “자유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보영, 하음은 현실사회 속 제한받던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난 배경을 설정하였다. 보영은 곧 결혼식을 하지만 팬데믹 때문에 신혼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현실과 다르게 상상 여행은 신혼여행, 휴가, 수영, 물놀이 같은 액티비티를 실현할 수 있는 배경지로 셋팅되었다. 하음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조심해왔던 외출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오키나와에서의 상상 여행을 실현시키는 설정을 취하고 있었다.

둘째, 상상 여행 속에서는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셋팅을 취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답답하고 아픔을 주는 지금 현시점에서 벗어나 아픔이 제거된 미래의 시점으로 상상 여행의 시간적 배경을 재조정하거나, 그리웠던 과거의 시점으로 시간을 재구성했다. 미래로 시점을 옮기는 일은 이미 현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미래의 공간으로 가는 것이었고, 이들에게 이러한 조치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지의 여행기에서는 '5년 뒤 이모 평생의 치부였던 이모부가 편안하게 돌아가신 뒤' 라고 미래 시점을 가정하였다. 평소 엄지는 늘 이모부의 병간호로 고생 중이신 이모가 신경 쓰였는데, 상상 여행 속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배경의 조정으로 이모가 이모부의 병간호로부터 편안해졌을 시기의 배경으로 재구성되었다. 은서 역시, "약간 미래의 시점"으로 시간을 설정하여 지금 자신에게 힘든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를 가정하였다. 효진은 "고3 수능 끝나고" 유럽 등지를 여행했던 화려했던 과거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즉, 엄지, 은서, 효진의 상상 여행의 배경지 설정은 지리적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작고 큰 폭의 시간적 모빌리티까지 행하여 아픔이 되는 현시점을 제거한 시간적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셋째,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난 상상 여행의 배경을 설정한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제약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 여행 경로, 유형, 이동의 형태를 변형시켰다. 희은은 돈의 제한이 없는 조건을 활용하여 상상 여행의 목적지와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셋팅을 보였다. 여행의 목적지도 여러 국가로 늘리고, 여행의 형태도 배낭여행에서 가족 여행 형태로 바꾸어 설정하였다. 소연 역시, 실제 과거 여행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 누리지 못했던 "스파"를 상상 여행에서는 실현시키는 배경지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상상 여행의 사례를 통해 분석된 상상으로의 모빌리티의 사회적, 시간적,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난 배경을 설정하는 지리적 특징은 치유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제약이 많던 현실 세계에서 한발 치 멀리 떨어져서 자신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었던 실체가 무엇인지 제약 없는 배경을 설정하여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는 외부 제약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치유적으로 작용하였다.

2. 상상 여행 배경을 구성하는 자원의 활용

현실에서 상상으로 가는 모빌리티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직접 겪었던 과거의 모빌리티 경험을 재구성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모빌리티 경험을 재료 및 자원으로 활용하여 상상 여행의 배경을 구성하였다.

먼저, 과거 모빌리티 경험을 재료로 활용하여 상상 여행의 배경지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던 과거 모빌리티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 여행을 재구성하거나 아예 새로운 여행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과거 아쉽거나 후회했던 모빌리티 경험을 바탕으로 정 반대되는 상상 여행 배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거 좋았던 모빌리티 기억을 바탕으로 상상 여행의 배경을 구축한 경우, 과거 청년들의 글로벌했던 모빌리티 경험을 토대로 상상 여행 속에서도 글로벌한 스케일로 배경이 꾸며졌다(효진, 하음, 준서, 은서, 민영, 민희). 이렇게 과거 글로벌한 모빌리티 경험이 다시 한번 상상 여행 속 자원으로 활용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과거 글로벌한 모빌리티 때의 자기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영은 과거 “NGO 활동을 했던 오사카”를 상상 여행 배경지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민영에게 과거 오사카는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명확하게 알려준 장소로서 의미 깊은 곳이자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했던 장소였다. 조사 당시(2020년 6월) 국가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악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 자체가 불가했던 장소였기에 민영에게 오사카는 더욱 “그립”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효진 역시, “고3 수능 끝나고” “유럽 여행을 처음 갔던” 시절을 자원으로 사용하여 상상 여행의 배경지를 꾸몄다. 상상 여행 속 고3 학생으로 등장했던 효진은

용감하고 긍정적이었던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 효진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조건을 걱정하는 상태로, 상상 속 과거의 효진과 현실 속 현재 효진이 극심한 대비를 이루었다.

한편, 과거 모빌리티 기억을 되살려 상상 여행이 배경으로 사용된 또 다른 이유로 과거 여행에 대한 기억 자체가 아름답고 좋은 추억인 것을 넘어, 다시 가고픈 욕구가 내면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음의 경우, 1, 2년 전 갔던 오키나와 여행경험을 되살려 상상 여행 배경지를 구축하였다. 그 당시 오키나와는 하음의 느린 템포와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았기 때문에 하음은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잠재해 있었고, 이는 상상 여행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과거 여행지인 오키나와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자원으로 활용되어 상상 여행의 배경지로 불려 일으켜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은서는 과거 여행에서 경험했었던 내몽골을 상상 여행 배경지로 다시 재구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내몽골의 하늘의 별을 다시 보고 싶어서였으며, 준서 역시, 과거 교환학생 시절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좋은 기억과 다시 가고픈 마음이 바탕이 되어 상상 여행의 배경지 자원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 좋았던 모빌리티 경험들이 재료가 되어 상상 여행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보단 아예 새로운 장소로 재구성되기도 하였다. 이는, 과거 경험을 다시 유사하게 체험하고 싶은 컨텐츠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보고 싶었던 목적지에 대한 갈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구축되었다. 가희는 과거 일본 여행에서 친구와 함께 별을 본 실제 기억이 자원으로 활용되어, 상상 여행 속에선 '그랜드 캐년이나 스위스의 융프라우 같은 곳'에서 별을 보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은서 역시, 과거 어린 시절 자랐었던 강원도 시골이 재료가 되어 상상 여행 속에서는 가본 적이 없었던 자연경치가 아름다운 북유럽의 배경지로 재탄생하였다.

반면, 과거의 경험과 반대되는 상황이 상상 여행의 배경지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소연, 소민, 엄지, 효진, 희은, 준서, 은서). 이들은 모두 과거의 여행경험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들을 상상 여행 모빌리티를 구성하는 자원으로 활용하여 만족스럽게 실현해나갔다. 소연은 과거 여행지

‘할슈타트와 베른’에서 재정 부족으로 수영을 하지 못했던 아쉬운 마음이, 상상 여행 속에서는 ‘반대급부로’ 실현되었다. 소민은 과거 중국 유학 시절, 출신 친구가 건네준 “내몽골식 우유차”를 맛이 없어 보여 먹지 않았던 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 후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과거 아쉬움의 기억이 재료로 활용되어 상상 여행 속에서는 내몽골의 배경지에서 우유차가 등장하였다. 엄지는 과거 초등학생 때 유럽 여행에서 음악회를 관람하면서도 체험학습 과제로 제출해야한다는 “일종의 책임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를 자원으로 다시 재구성된 상상 여행 속 유럽 여행 음악회에서는 “숙제 같은 기분은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효진, 희은, 준서, 은서 역시, 과거 드넓었던 모빌리티 기억을 바탕으로 상상 여행의 배경지를 꾸몄던 것은 맞지만, 상상 여행을 간 구체적 목적지는 실제 현실에서 갔던 곳의 근처 나라나 도시였다. 이는 그 당시 가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곳들이 상상 여행 목적지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과거 모빌리티 경험에서 아쉬웠던 기억을 재료로 활용하여 상상 여행 속에서 대신 실현시켜 해소하고 있었다.

반면, 직접 경험한 모빌리티 기억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사진 이미지와 같은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모빌리티 경험 역시 연구참여자들의 상상 여행 배경지를 구성하는 자원들로 활용되었다.

첫째,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영상매체를 통한 간접적 모빌리티 경험이 상상 여행 배경지 자원으로 활용되었다(준서, 효진, 은혜, 도영). 이 경우는, 보통 직접 다녀오지 않은 목적지이지만 과거 영상매체를 통해 상상력이 풍부한 여행(imaginative travels)(Urry, 2007)을 다녀온 경험에서부터 영감을 받아 배경지의 자원으로 활용된 사례였다. 효진은 대부분 직접 고3 때 유럽 여행 또는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북유럽 주변을 다녔던 여행경험을 바탕으로 상상 여행 배경지를 구성했지만, 직접 다녀오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던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통한 간접적 경험을 상상 여행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도영의 경우 실제 해외여행이라고는 “일본하고 중국 밖에 안 가 봤”지만, 상상 여행 속

에서는 ‘그리스-산토리니’, ‘이탈리아-나폴리’, ‘포르투칼-포르투’와 같이 자세한 지명을 묘사한 배경지를 구축하였다.[16] 이는 평상시 즐겨보던 <걸어서 세계속으로> 다큐멘터리와 ‘어느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카페’, ‘해리포터에 나오는 서점의 모티프가 된 서점을 방문’하는 등의 간접 모빌리티 경험이 배경지 구축 자원의 역할을 하였다. 은혜도 영화 <설국열차>가 재료가 되어 “네덜란드 기차”를 타는 상상 여행,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가 자원이 되어 “캐나다” 등지를 돌아다니는 구체적인 상상 여행을 시도하였다. 한편, 준서는 실제 여행경험과 영화 속 장면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상상 여행 배경지로 드러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실제 “이태리 북부의 친퀘테레(Cinque Terre)”를 방문한 경험이 배경을 구성하고, 최근 재개봉한 영화에서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상상 여행 액티비티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배경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더불어, 우연히 보게 되었던 사진 이미지가 과거 수동적 환상과 상상력이 풍부한 여행(imaginative travels)(Urry, 2007)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간접적인 모빌리티 경험이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상상 여행의 재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채원의 경우 최근 친구가 보여준 ‘피피섬 이미지’와 ‘친구가 치앙마이 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리는 사진’이 수동적 환상을 일으켰고, 이것이 자원으로 활용되어 피피섬, 치앙마이 상상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은서는 최근에 본 북유럽 경치

16) 단, 연구참여자 간 직접적 또는 간접적 모빌리티 경험 차이는 상상 여행의 배경지를 구축할 때에 세부적인 내용에 영향을 끼쳤을 순 있으나, 이것이 추후 치유감 지속과는 관련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효진은 고3 수능이 끝나고 직접 다녀온 유럽 여행을 기반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벨기에 겐트, 핀란드 이리비에스카, 노르웨이 오슬로, 아이슬란드 93번 도로, 미국 워싱턴 D.C., 캐나다 나이아가라폭포 등 생생한 상상 여행 배경지를 구축하였으나, 이러한 배경지를 바탕으로 상상 여행을 통한 치유감이 2주 후와 8주 후까지 지속되진 않았다. 한편, 연구참여자 도영은 해외여행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으며, 단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여행 다큐멘터리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스 산토리니, 이탈리아 나폴리, 포르투칼 포르투로 상상 여행의 배경지를 구축하였고, 2주 후, 8주 후에도 호캉스, 부산여행을 하며 일상생활 속 상상 여행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치유감을 지속시켰다. 이를 볼 때, 풍부한 모빌리티 경험의 차이가 상상 여행의 배경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순 있으나, 이것이 치유감으로 연결되느냐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풍부한 모빌리티 경험이 없을지라도 자신이 경험했던 최소한의 모빌리티 자원만을 가지고도 상상 여행을 통한 치유감 형성 효과을 더욱 증진시키고, 치유감의 지속력이 있을 수 있다.

사진이 하늘에서 점프하는 액티비티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게 되었고, 이것이 상상 여행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재료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거의 직접적 모빌리티 경험 또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모빌리티 경험이 상상 여행 배경을 구성하는 자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의 일상 속 수많은 모빌리티 경험들이 상상 속 치유적 과정을 생성하는 모빌리티를 만드는 자분 및 자원(resources)(Duff, 2011)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단계에서 현실 속 모빌리티 경험을 자분으로 활용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치유적 효과를 내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나, 이는 그다음 이어질 상상 모빌리티의 이동 단계에서 치유적 과정을 생성하는 모빌리티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및 재료이다. 이러한 현실의 다양한 모빌리티 경험 자원들이 활용되어 치유감을 형성하는 상상 모빌리티를 만들어내기에 본 과정은 반드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제 3 절 치유감 형성 작용 논의: 현실 연결 끊기와 제한으로부터의 자유함

제 5 장은 상상으로의 모빌리티가 어떻게 치유적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상상 모빌리티 중 하나인 상상 여행에 참여한 실험군 연구참여자 25명의 상상 여행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전 및 사후 인터뷰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게 된 답은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는 아픔을 주던 제한된 현실과 단절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했던 활동 및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내면의 지리[17]로 현실의 자신을 끌어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치유적으로 작용했다. 자세하게,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은 상상 여행 사례를 통해 두 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과정의 지리적 특징이 치유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지점 중 첫째는, 상상 여행이 현실의 공간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시켜주어 현실에서의 고민, 걱정을 차단시켜 상상의 영역에서의 움직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었다. 둘째, 현실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상상 여행 배경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자유함과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치유적 작용이 있었다.

첫째,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는 현실의 취업, 공부, 경제난 등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새로 옮겨간 지역에서의 여행의 배경지를 구축하고 상상 여행 속 소일거리들에 집중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현실에서의 고민에 대한 연결을 차단(disconnect)시켜 주는 치유적 작용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상상 여행 실험이 끝난 후,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준서, 지혜, 소리, 도영, 진주, 혜림, 은서)은 상상 여행 전후로 자신의 감정이 변화하였던 이유 중 하나로 현실의 공간에서 잠시 벗어나 고민을 잊을 수 있었던 점을 꼽았다. 이들이 현실의 고

17) 내면의 지리란, 사람의 마음속 형성된 지리를 의미한다. 현실 공간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땅, 산, 들, 강 또는 공간, 경관, 장소, 모빌리티, 네트워크 등의 지리적 현상들이 존재하는 물리적 세계가 있듯, 사람의 마음속에도 지리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내면의 지리에 대해서는 제 6 장 논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민을 잊을 수 있었던 까닭에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며 배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집중거리를 만들어주었던 영향이 컸다. 예를 들어, 진주의 경우 비록 상상 여행까지 몰입하는 시간은 오래 걸렸으나 결국 상상 여행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고 평소 생각이 너무 많아 멈추고 싶었는데 상상 여행을 통해 생각을 멈출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상상 여행 이전, 진주는 지속된 고민들로 밤잠을 설쳤지만 상상의 순간만큼은 상상 여행에 집중하게 되어 다른 생각이 사라져 “편안함”을 느꼈다. 또한, 평소 공기업 행정계열 준비를 하고 있었던 도영은 사전 인터뷰에서 취업 시험을 치루고 난 직후여서 요새는 “긴장감”이 있다고 심정을 토로하였는데, 상상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원서접수기한”, “지원”, “시험” 등의 생각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으며 상상 여행 속 내일의 여행 일정 배경을 구축하느라 현실 속 시험 생각은 일시적으로 접어둘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는, “힐링을 했던 느낌”, “편안해진 느낌”을 얻게 되었다. 더불어, 지혜는 상상 여행을 했던 순간만큼은 현실의 고민들을 하지 않았으며, 준서의 경우도 상상 여행에 몰입하여서는 “현실의 취업이나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혜림 역시 상상 여행이 “집”이나 “한국”으로 표상되는 고민,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어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으며, 새로운 공간에서의 집중거리를 찾게 함으로써 사전-사후 감정이 달라졌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현실의 영역에서 벗어나 상상의 영역으로 몰입하는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는 현실의 고민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상상 여행을 통하여 새로운 여행 배경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집중거리가 생김으로써 현실과 단절되는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치유감 형성 작용점은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명상을 통해서도 현실의 고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에 다른 활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상 여행은 현실 고민 차단과 다른 집중거리를 제공함을 넘어서,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과거 어린 시절의 장소나 자신의 무의식에서 알아채지 못했던 갈망의 장소를 일깨워 데려가 주거나 이를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취미활동 및 명상

과는 차별된 모빌리티적 치유감 형성 작용의 특이점이 있다. 더불어, 상상으로의 모빌리티가 일시적으로만 고민을 단절시켜 상상 모빌리티가 끝나고 나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여전하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이는 반대로 현실에서 상상으로의 모빌리티가 자신을 괴롭혔던 끝없는 생각을 일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에서 오히려 충분한 치유적 가치가 있다.

둘째,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는 현실 속 제한에서 벗어난 셋팅을 한다는 점에서 자유함과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치유감 형성 작용점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상상 여행의 배경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그들에게 아픔을 느끼게 했었던 제한된 현실 속 일상적 루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배경지를 구축하였다. 이들은 제한받던 현실의 공간에서 벗어나 평상시 루틴과는 다른 큰 변화를 주는 상상 여행 배경 셋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일상의 전환 효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현실의 제약에서 한발 멀리 떨어져서 상상의 영역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배경지를 새롭고 자유롭게 구축해 나가면서 자유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예를 들어, 지혜는 현실 속 인생의 여정은 뜻대로 되지 않는 모빌리티였으나, 상상 여행 특유의 사회적 시선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외부적 제약에 신경 쓰지 않고 모빌리티를 할 수 있는 배경지 설정은 “자유로움”과 “따뜻, 행복, 위로”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은서는 상상 여행에서 당연히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상상 여행 이후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했음을 알려주었다. 평소 은서는 특별히 집 밖을 나가는 일이 드물었으며 변화 없는 생활을 해왔으나 상상 여행을 통해 “엄청 큰 변화”, “새로운 거”를 누리게 되었고 그것들이 자신이 갈망했던 것이었기에 상상 여행 전후 감정이 달라져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하였다. 준서의 경우 상상 여행을 셋팅할 때 시간적, 경제적 제한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활동을 셋팅할 수 있는 특징이 “웃었거든요”, “미소 짓게” 되는 감정까지 이끌 수 있었음을 밝혔다. 소리는 평소 공부하기-운동하기-영화보기와 같은 생활 패턴을 반복해왔지만, 상상 여행 속에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시간들을 셋팅하였기에 이전의 불안했던 감정이 사

라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결국, 상상으로의 모빌리티에서는 고민이 있던 제한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배경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유적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를 행하는 것은 현실의 외부적 요소 없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치유적 의의가 있다. 또한, 현실에서 상상으로 가는 모빌리티의 층에서 현실 속에서 제한받지 않는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모빌리티적 특징은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했던 활동 및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내면의 지리로 자신을 끌어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유함과 안도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일상 루틴과는 다른 엄청난 변화를 겪게 하는 기반이 되어 치유적 작용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제 6 장 상상 내 모빌리티(mobilities in imagination) 치유감 형성 작용

상상 내 모빌리티는 이전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과정을 통해 접근한 상상의 영역 내에서 지리적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상 모빌리티 중 본 연구의 상상 여행 사례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은 이전 상상 여행의 진입과 배경 셋팅 과정을 거쳐 마침내 도달한 상상 여행의 목적지에서 탐험하고 이동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상상 여행 속에서 다양한 모빌리티적 경험을 하였으나 그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모빌리티적 속성을 드러내는 현상은 첫째, 모빌리티(수단)(forms of mobility), 둘째,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셋째, 머무름(stillness)이었다. 이 세 가지 모빌리티적 특성들은 상상 내 모빌리티가 단순히 상상 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넘어서,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과 결합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이동 중 어떠한 장소에 결합되어 머무르는 행위를 보이면서 치유감 형성이라는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동을 넘어 모빌리티라 부를 수 있다. 비록 상상 내 모빌리티적 특징이 이 세 가지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본 연구의 상상 여행 실험에서는 특히 이 세 가지 특징이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상상 여행 중 나타났던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과 같은 모빌리티적 특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치유적으로 작용하였는지 상세히 살펴보아 상상 내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 1 절 상상 여행 중 모빌리티(수단)

상상 여행 속에서는 다양한 수단으로 모빌리티를 행하는 모습들이 등장하였다. 모빌리티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수단의 스케일은 걷기, 자전거, 자동차, 기차, 보트, 비행기, 관광, 이주, 통신 및 가상 이동, 상상력이 풍부한 이동이 있다(Gatrell, 2011; Pooley, 2009; Urry, 2007). 이러한 모빌리티 수단들은 본 연구에서 실험한 비물리적 상상의 영역에서의 여행 속에서도 등장하였다. 상상 여행 속 등장한 모빌리티 수단 및 매개는 육체적 모빌리티(걷기, 걷기 외 육체적 모빌리티), 기계와 접합한 모빌리티(자전거/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기차, 배, 비행기 모빌리티)가 있었으며, 나아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구름, 바람, 숨을 통한 무형의 모빌리티가 존재하고 있었다<표 6-1>. 이러한 상상 여행 중 나타난 다양한 모빌리티 형태들은 연구참여자들이 각 모빌리티를 행하는 동안 감정 및 심리와 결부되는 현상을 보였고, 결국 기존 기분 상태 및 심리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편, 상상 여행 속 나타났던 모빌리티의 행함은 현실세계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내면속 숨겨져 있었던 갈망을 반영하는 상징체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표 6-1. 상상 여행 속 모빌리티 수단

무형 / 유형 구분	모빌리티 수단	
무형의 모빌리티 (intangible forms of mobility)	구름, 바람, 숨 모빌리티	
유형의 모빌리티 (tangible forms of mobility)	육체적 모빌리티	걷기, 춤추기, 수영, 조정, 스쿠버 다이빙, 스카이 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등
	기계와 접합한 모빌리티	자전거·오토바이 모빌리티, 자동차 모빌리티, 버스·트램 모빌리티, 기차 모빌리티, 배 모빌리티, 비행기 모빌리티

1. 무형의 모빌리티

상상 여행 속에서는 ‘바람’, ‘구름’, ‘숨’과 같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무형의 모빌리티 수단(intangible forms of mobility)을 통한 이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무형의 모빌리티 수단들은 현실 속 존재하는 모빌리티 수단들보다 이동 동선이 더 자유롭고, 심리적 마음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쉽고 빠르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치유를 느끼는 감정을 극대화 시키는 강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상상 여행 속 ‘숨’ 모빌리티는 답답함이 들게 하는 공간에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게 하는 공간으로 빠르게 전환 시켜주는 모빌리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유라는 숨 모빌리티를 타고 거닐던 제주도 바닷가에서 ‘사려니숲’까지 단숨에 도착하였다. ‘맑은 자연의 공기를 마시니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라고 말하며, 숨 모빌리티를 통해 자신이 가고 싶은 장소로 빠르게 전환함과 동시에 기분이 전환되었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바람’과 ‘구름’ 모빌리티를 탄 지혜는 산티아고 길의 정상에서 상상의 공간으로 순식간에 떠올라 날아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림 6-1처럼 지혜는 바람 모빌리티를 타고 흘러가면서 ‘나무’, ‘사람들’, ‘방구석에 홀로 있는 아이’를 만나 자유롭게 세상을 떠다녔다. 지혜에게 바람과 구름 모빌리티는 상상 여행 속 움직임을 더욱 자유롭고 빠르게 도와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세계로 쉽게 이동시켜주는 도구이자 다양한 객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림 6-1. 구름·바람 모빌리티(지혜)

한편, 지혜의 상상 여행기에서 바람과 구름이라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모빌리티 수단들은 지혜를 위로해주는 상징체이기도 하였다. 이 모빌리티 수단은 상상 속 등장하는 '방구석에 홀로 있는 아이' 또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안아주는 역할, 편안히 누워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위로가 되는 세계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였다. 지혜는 자신의 상상 여행 속 구름 모빌리티 수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구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저한테 온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울었어요. 안고 울었어요. 너무 따뜻해서 울었어요. 위로가 되어서 울었고..." (지혜)

이같이 지혜는 구름 모빌리티가 자신을 안아주며 위로해주었다고 묘사했다. 상상 여행을 통해 지혜는 현실 속 6개월간 취업난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했었다는 것과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동시에 치유의 눈물을 흘리며 극대화된 감정을 얻었다. 상상 여행 이후, 지혜는 감정이 맑아진 느낌과 행복한 감정을 느꼈다.

2. 육체적 모빌리티

1) 걷기 모빌리티

상상 여행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모빌리티 유형은 걷기 모빌리티였다. 걷기는 현실 세계 속 가장 기초가 되는 모빌리티로, 상상 속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며 기초적인 모빌리티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상 속 걷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첫째,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걷기, 둘째, 도심 속을 걸어 다니는 산책자로서 걷기, 셋째, 다소 고생스럽고 힘든 고난의 길 걷기의 유형이 있었다. 이러한 상상 속 걷기 모빌리티의 경험은 각기 참여자들의 감정과 느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첫째,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며 걷는 유형(유라, 혜련, 라희, 은서, 가희, 하음)은 상상 여행 속 온몸의 오감으로 자연을 체험하면서 걷는 특징이 있었다. 이들은 '바닷가', '숲길', '산속'을 걸으며 '흙', '모래'를 오감으로 체험하였다. '맨발'로 걸으며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거나(유라, 혜련, 라희), '산책'을 하며 "귀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 같은 청각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음). 이러한 상상 속 자연과 오감으로 소통하며 걷는 체험은 '만끽'(유라), '편안하게 쉬는'(하음), '자유롭게, 편안, 아늑'(혜련), '느낌이 좋았다'(라희)와 같은 자유롭고, 만족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자아냈다.

반면, 자연과 다른 도심 속을 가로지르는 산책자 유형이 있었다(혜림, 가희, 준서, 민희, 도영, 소연, 희은). 이들이 걸어 다니는 도시는 한국의 '가로수길'(소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유럽, 스페인, 파리, 아테네, 산토리니' 등 유럽 등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은 뚜렷한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며 도시를 구경하며 걸어 다니는 산책자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이 상상 속 자연뿐만이 아니라 도심을 걸었던 이유는 자연이 주는 단조로움, 심심함을 없애주고, 도시가 주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감정을 맛보기 위해서였다(희은, 가희, 준서, 소연). 이처럼 상상 속 한가롭고 여유로운 도심 산책은 그들의 긍정적 기분에도 영향을 미쳐 "기분 좋음"(혜림), "재미"(준서), "행복"(가희)의 감정과 곧바로 연결되었다.

한편,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걷기의 모빌리티 유형이 있었다(준서, 은서, 소리, 지혜). 이들은 상상 속 다소 고생스러운 모빌리티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힘든 모빌리티를 자초하고 있었고, 이러한 고난의 모빌리티 길을 오르내리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긍정적인 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소리는 상상 속 스페인 순례길에 오르며 충분한 시간과 체력이 요구되는 길인 줄 알지만, 순례길을 오르는 과정에서 자연 및 사람들과 마주치고 '발에 물집이 잡히고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끝끝내 산티아고 성당에 다다라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그림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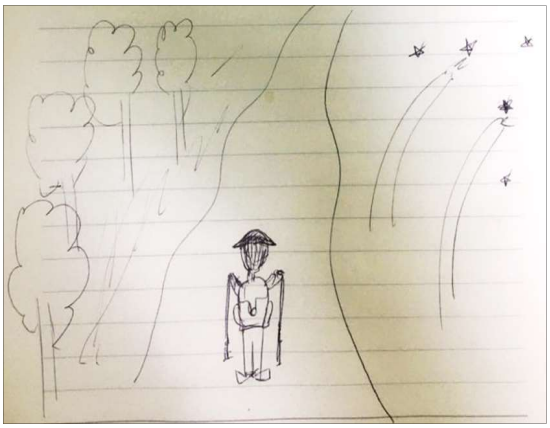

그림 6-2. 스페인 순례길 걷기(소리)

이러한 정상까지 오르는 길의 과정은 소리의 인생길과 동일시되는 과정으로 묘사되었으며, 끝끝내 '"힘들어도 조금씩,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돼"' 라는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던져주게 된다. 비록 상상 속 길이었지만, 소리는 사후 인터뷰에서 실제 길에 오른 후의 느낌처럼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빨리 이 상황(취업 준비)을 극복하고 나아가야겠다. 그 순간들을 많이 누리고 싶다."라며 힘든 취업 준비에 상상 여행이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했음을 나타냈다. 상상 여행을 하기 이전, 소리는 2년 정도 일을 쉰 상태로 "압박이 드는 상태", "계속 불안", "지금 가장 큰 걱정은 그냥 저 자체"라고 표현할 만큼 취업의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였다. 그러나 상상 속 스페인 산티아고 성지 순례길에 오르고 끝내 산티아고 '성당'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다짐으로 심적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많이 걷고 움직이지만 즐겁고 새롭고 행복'하다는 은서의 말처럼, 걷기의 수고로움이 오히려 '즐거움', '행복함', '재미', '후련함', '최고의 순간들'로 다가오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2) 걷기 외 육체적 모빌리티

상상 여행에는 걷기 외에도 다양한 육체적 모빌리티 유형들이 나타났다. 특히, 상상 여행 속 다양한 육체적 모빌리티는 주로 물 또는 하늘의 공간에서 일어났다. 물에서 움직이는 육체적 액티비티에는 '수영, 조정, 물놀이,

스노쿨링, 패들보딩, 서핑, 낚시, 스쿠버 다이빙, 물고기도 구경, 요트, 스킨스쿠버, 춤추기. 모래 놀이. 바다 속을 탐사'(희은, 하음, 혜리, 소연, 준서, 보영, 은혜, 가희, 명수) 등 바닷가, 해변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드러났다. 또한, 하늘에서 행할 수 있는 육체적 모빌리티는 '스카이 다이빙'(준서), '패러글라이딩'(은서)의 유형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상 여행 속 등장한 걷기 외 육체적 모빌리티는 기존 걷기를 넘어서 달리기, 자전거 타기, 스케이트, 스키, 댄스, 수영, 양궁, 스케이트보드, 스쿠터, 놀이, 휠체어 등 다양한 모빌리티 활동들이 관련된 장소, 경험, 행위자, 문화들과 맺는 관계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하여야 한다는 Andrews et al.(2012)의 논의가 물리적 영역뿐 아니라 상상의 영역에서도 적용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물과 하늘에서 행할 수 있는 모빌리티들은 걷기보다 흔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들은 더욱 평상시 생각해왔던 그들의 지향점과는 반대되는 성향을 원하고 있었음을, 또는, 평상시의 억눌려 있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을 원하고 있었음을 더욱 극대화시켜 나타내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혜리의 경우, 평소 "빽빽하게 뭘 하러 가자, 뭘 보러 가자"와 같이 지식을 쌓는 유익한 여행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으며, 여유롭고 느긋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왜 돈 많이 주고 그런 여행을 하지?"라며 비판까지 해왔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상상 여행 속에서는 바닷가에서 '스킨스쿠버, 낚시, 바닷가 근처 모래에 누워서 선탠, 수영, 요가, 별보기, 춤추기. 모래놀이. 게 관찰하기, 맛있는 걸 구워 먹기'와 같이 정말 '물고기처럼' 마음을 마음껏 놓고 구경하는 여행을 시도했다(그림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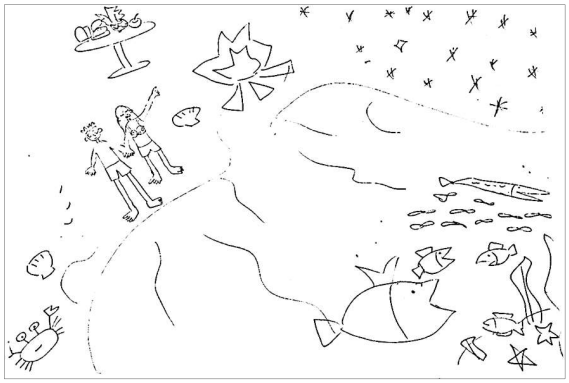

그림 6-3. 바닷가에서의 액티비티(혜리)

혜리는 그림 6-3과 같은 상상 여행 속 육체적 모빌리티를 통해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뭔가 배우고 이런 쪽에만 제가 관심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곳에서 정말 저를 푹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자신의 속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육체적 활동들은 다른 외부 상황으로 억눌려 있었던 진정으로 내면에서 갈망하던 여유와 쉼이 있는 여행을 하고 싶었던 혜리의 속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보영은 현실 속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그간 활력있는 액티비티를 시도하지 못하였으며 곧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으나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는 이동이 극심히 제한된 상황 가운데에서, 이와는 정반대로 상상 속에서는 허니문 중 즐겁게 수영과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즉, 물 또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육체적 액티비티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걷기와는 달리 현실의 상황 또는 그들이 평소 좋아한다고 믿었던 것들과는 정반대로 나타나 자신의 속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정반대의 육체적 모빌리티는 개인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정반대의 육체적 모빌리티는 곧 그들에게 “행복”(혜리),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소연),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꺄르르 꺄르르 거리는”(보영) 감정들로 변화시켰다.

3. 기계와 접합한 모빌리티

1) 자전거 모빌리티

자전거 모빌리티는 상상 여행 속에서 다소 개인적이고, 일상적이며, 느긋한 자전거 타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도영, 하음). 상상의 영역에서 나타난 자전거 타기는 그동안 건강지리의 기존 문헌에서 공동체적이고 전문적이며 속도감 있었던 하나의 스포츠로써 싸이클링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나(Olvera et al., 2012;, Barratt, 2017), 건강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활동을 다룬 연구(Mertens et al., 2017; 2019)들과는 차

별점을 보였다. 이러한 느린 속도감의 자전거 모빌리티는 걷기와 마찬가지로 마을이나 자연 주변 환경에 맞닿을 수 있는 모빌리티로서 치유되는 감정을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하음은 일본 오키나와 바다 근처에서 '자전거도 빌려서 숲속을 달리고 마음껏 자연의 향기를' 맡는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그렸다(그림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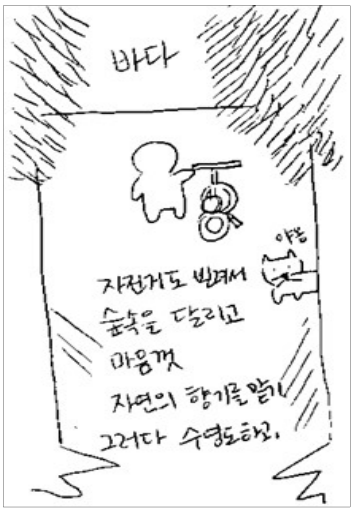

그림 6-4. 자전거 모빌리티(하음)

그림 6-4처럼 이러한 "바다", "큰 나무들"의 자연과 맞닿을 수 있는 자전거 모빌리티는 하음에게 상상 여행 중 가장 감격스럽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들을 선사하였다. 또한, 도영은 '포르투'라는 도시에서 '느긋하게 살아보기'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 연구 사례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느리고 여유로운 자전거 모빌리티를 행하는 모습이었으며 이러한 자전거 모빌리티를 통해 도영은 '마음껏 힐링'하는 느낌을 얻고 있었다.

2) 자동차 모빌리티

자동차 모빌리티는 연구참여자인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다소 현실 속 불가능한 모빌리티였지만, 상상 속에서는 실현 가능한 모빌리티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동차 모빌리티는 앞에 나온 모빌리티 유형들에 비해

운전 기술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모빌리티 역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 준비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모빌리티였으나, 상상 여행 속에서는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비용적 역량을 갖추어진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상상 속에서 이러한 자동차 모빌리티가 충족되었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시간과 동선에 구애받지 않아 자유로운 감정을 느꼈으며, 비용적 역량이 충족되었을 때 안정감이나 편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먼저, 상상 여행 속 자동차 모빌리티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의 역량이 채워진 상태로 행해졌으며, 이는 곧 시간적 자유로움을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음, 유라는 모두 현실의 여행 당시에는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는데, 상상 속 여행에서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러한 측면은 밤 시간대의 모빌리티를 통해서 드러났다. 하음은 실제 과거의 오키나와 여행을 할 때는 운전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얻은 상태였으며, 다시 상상 속에서 방문한 오키나와에서는 직접 차를 몰아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키나와에서 '차를 빌려서 내가 원하는 곳. 시간과 일정의 구애 없이'다녔고(그림 6-5), 심지어 "밤에 어디에 가고 싶으면 간다든지" 하면서 자동차 모빌리티를 통해 이국땅에서 밤 시간대 모빌리티를 행하며 자유로움을 누렸다.

그림 6-5. 자동차 모빌리티(하음)

유라는 아직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상 속에서는 과거 여행한 제주도를 다시 방문해 혼자 드라이브를 자유로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유라 역시, 상상 속 밤 시간대 드라이브를 하며 '밤바다 옆의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며 평소에 즐겨듣는 노래를 크게 틀어 놓는' 모습을 보이며 모빌리티를 즐겼다. 즉, 하음, 유라는 상상 속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모빌리티의 역량을 얻어 밤 시간대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상상 여행 속 등장하는 캠핑카나 택시의 경우, 비용적 역량과 연계되어 나타났으며, 이는 동선의 자유로움과 안정감, 평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명수, 은서, 희은, 유라, 하음). 희은의 상상 여행에서는 평소 갈망하고 있었던 모빌리티였으나 돈의 제약으로 실현하지 못했었던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카" 모빌리티를 실현하였다. 상상 여행 속 희은의 가족들은 '캠핑카를 타고 돌아다니며' '뉴질랜드'에서 동선의 자유로움 느끼고 있었다. 은서의 상상 여행 속에서는 '몽골'에서 심지어 가이드를 고용해 차를 타고 자유여행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명수의 상상 속 카이로 여행에서는 '택시'는 '돈은 달라는 대로 주면' 되며, 상상 속 알렉산드리아 여행에서는 '택시 한 대를 전세 내며 하루 종일 알렉산드리아 곳곳을 구경' 하는 모습을 보이며 돈의 제약에서 벗어난 이동성을 얻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상 속에서 자동차 모빌리티의 비용적 역량을 가지는 일은 안정감이나, 평안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명수는 상상 여행 속 '2일차' '도착한 카이로'에서 '흥정하려는 택시기사, 모래와 매연' 등 이국적으로 다가오는 모빌리티 배경들이 상상 속에서 '혼잡'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수는 '이 혼잡스러움 속에서도 흥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은 달라는 대로 주면' 되는 상상 속 비용적 모빌리티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희은은 평상시 비용이 높기에 행하지 못했었던 뉴질랜드 캠핑카 모빌리티를 상상 속에서 실행했을 때, "가족들이랑 더 많이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상상 여행 속 가족과 함께 안정감과 평안한 감정을 누리고 있었다.

3) 기차 모빌리티

상상 여행 속 기차 모빌리티를 행한 참여자들은 여행 속 슬로우하며, 시골스러운 느낌의 '동네 같다'(효영), "가정적인 목가적인 분위기"(준서), '아늑하고 편안하고 따스'(해연)한 정겨운 감정들과 연계되었다. 또한, 이러한 상상 속 기차 모빌리티의 또 다른 특이점은 비용이 높게 들거나, 신체적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장거리 여행을 상상 속에서는 매우 쉽게 가능하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점은 상상 속 장거리 기차 모빌리티에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상상 속 기차 모빌리티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중국으로 가는 기차" '횡단 열차를 타고 중국 서부 쪽으로'(소민), '러시아에서 기차를 타고 7박 8일'(은혜), '룩소르→카이로'(명수)처럼 매우 긴 장거리 경로로 현실 속 여행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모빌리티를 실현해주었다. 명수의 경우 '7일: 룩소르로 가는 기차. 1등석으로 아주 편하게 갔다'라는 상상 여행기를 기록하여 재정적 부족의 시달리고 있는 현실과는 다르게 상상 속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그에게 편리를 제공했다. 더불어, 현실에서 멀미가 심한 소민은 평상시 기차를 통해 먼 곳으로 이동하지 못했었는데, 상상 속 여행에서는 장거리 기차 여행에도 멀미도 하지 않는 모습을 포착되었다.

4) 배 모빌리티

상상 여행 속 배 모빌리티는 미학적 측면과 결부되어 치유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배 모빌리티의 미학적 측면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다소 고생스럽지만 낭만적 미학이 담겨있던 로컬의 배 모빌리티, 둘째, 밤 속 불빛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켜주는 야경 속 배 모빌리티, 셋째, 맑고 광활하며 아름다운 자연 속 배 모빌리티였다. 이러한 배 모빌리티는 각기 연구참여자들의 긍정적 기분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첫째, 로컬 배 모빌리티는 현지에만 있는 교통수단으로 그 지역의 아름

답고 낭만적인 느낌을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소 고생스럽지만 즐거움과 향수의 느낌을 전달해주는 특성이 있었다. ‘이집트’를 배경으로 상상여행을 떠났던 명수는 이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교통수단인 ‘펠루카[18]’(그림 6-6)를 타고 ‘강변의 여러 신전들을 구경’하며 이집트의 감탄할만한 여행지를 더욱 잘 볼 수 있었다.

그림 6-6. 펠루카 모빌리티(명수)

이러한 ‘펠루카’ 모빌리티에서의 숙박은 아늑하지는 않았으나 ‘군 생활’의 노스텔지어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은서 역시, ‘중국 남부’로 여행을 떠나 로컬의 ‘작은 노 젓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넜는데, 여기서 배 모빌리티는 ‘아름다운(세계유산) 경관들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비록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다니지만’ ‘즐겁고 새롭다’는 기분을 주는 매개체이기도 하였다.

둘째, 야경 속 배 모빌리티는 밤 속 비추어지는 불빛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이는 행복한 감정을 극대화 시키는 매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통 야경 속 배 모빌리티는 유럽 등지를 여행한 참여자들의 상상 여행 속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은서는 ‘프라하’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배를 타고 구경’하며 미학적 야경 속 모빌리티를 즐기고 있었으며, 라희는 ‘유럽의 밤거리’를 구경하다가 ‘아름다운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을 따라서 작은 배’를 타고 지나갔다. 특히, 라희는 이를 ‘양쪽의 불빛이 물에 비쳐 로맨틱’하다고 표현하며 끝끝내 야경 속 배를 타고 도달한 ‘예쁜 야경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야외의 식당’에서 ‘행복’해 하는 감정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

18) 펠루카(felucca): 이집트에만 있는 작은 돛단배, 고대 지중해 돛이나 노를 사용해 움직였던 배가 오늘날까지 나일강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전통 모빌리티 수단이다(브리태니커비주얼사전; 시공사).

셋째, 배 모빌리티는 상상 여행 속 광활한 자연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연이 주는 웅대함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희은은 '뉴질랜드 남섬(South Island)'의 광활한 자연을 '크루즈'를 통해 가로지르고 있었으며, 은서 역시, 중국 여행에서 '신비한 산들과 자연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세계유산) 경관'인 '구채구, 풍경구' 같은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작은 노 젓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며' 가로지르는 탐험을 보이고 있었다. 혜리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깊은 섬까지' 가로질러 '맑고 푸른 투명한 섬'으로 들어가게 된다. 혜리는 평상시 빽빽하게 배울 곳을 찾아 여행을 떠났지만, 상상 여행 속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깨끗하고 맑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자연의 섬으로 들어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평안', '온몸을 감싸는 온기에 마음이 말랑'해진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배 모빌리티가 광활한 자연과 만나게 해주어 그동안 강경했던 마음이 녹여지는 매체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5) 비행기 모빌리티

비행기 모빌리티는 걷기 다음으로 상상 여행 속 가장 흔하게 나타난 모빌리티였다(은혜, 진주, 명수, 유라, 혜리, 도영, 하음, 희은, 민영, 효영). 출발하는 비행기 모빌리티와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비행기 모빌리티는 서로 다른 심적 마음이 드러났다.

첫째, 출발하는 비행기 모빌리티 안에서는 여행 첫 시작의 기대와 설렘, 그리고 경제적 제한이 해소되는 안도감을 느끼는 심적 마음이 결부되었다. 먼저, 비행기는 여행을 가기 전의 설렘, 기대감을 주는 모빌리티로 등장하였다. '비행하는 동안 도착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하음), '비행기 안에서부터 신이 났다.'(효진) 등 비행기 모빌리티는 여행의 첫 시작을 알리는 기대, 설렘, 신나는 감정과 결부되어 있었다. 출발하는 비행기 모빌리티는 여행지로 가는 기대감을 생기게 하여 여행 전체 과정에서 여행의 목적지를 다닐 때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진주는 "확실한 건

여행을 가서 도착했을 때보다 여행을 준비하고,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가 훨씬, 훨씬 더 좋았어요. 이게 뭔가 설레이고” 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를 상상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최선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으며, 그렇기에 출발하는 비행기 모빌리티 순간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보다 설레고 “기대감”이 들게 하는 역할을 하여 더 우호적인 마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음 역시, 출발하는 비행기 모빌리티가 “엄청 설레고“, ”설렘이나 기대 같은 것들이 진짜 지금 느껴졌”는데, 그 이유는 여행을 시작하게 하는 비행기 모빌리티가 앞으로 여행지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될까 기대감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상상 속 비행기 모빌리티가 암울했던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상상 속 여행지의 세계로 전환되는 모빌리티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더욱 두 세계가 극심하게 대비되어 설렘과 기대의 감정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상상 속 출발하는 비행기 모빌리티는 현실 속 경제적 제한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소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평상시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여유가 있더라도 절약하기 위하여 이코노미석을 자주 이용해왔으나, 상상 여행에서는 ‘퍼스트클래스’(명수), ‘일등석 or 비즈니스 비행기’(희은), ‘1등석’(진주, 명수)을 이용하여 현실 속 경제적 제약을 상상 속에서는 마음껏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림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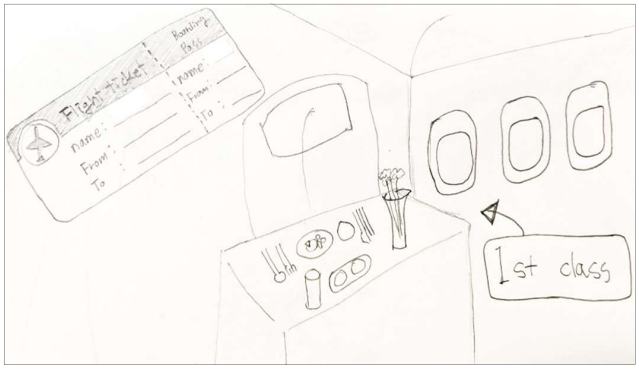

그림 6-7. 비행기 모빌리티 속 1등석(진주)

그림 6-7은 진주가 출발하는 비행기 모빌리티를 행하면서 1등석의 공간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진주에게는 “좋은 그리고 1등석”이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주어 “진짜 나만의 공간 안에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명수는 ‘대한항공 여객기,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라는 호사를

누리게 되다니'라며, '하루종일 비행하면서, 1등석의 안락함과 감동'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희은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일등석 or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이는 평소에 장거리 비행을 힘들어 했던 엄마에게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결국, 이러한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이용은 이들에게 그동안 현실 속 불가능했던 점들을 가능케 하여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기능을 하였다. 한편, 은혜는 돈에 제약 없이 헬기, 비행기를 타고 각국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현실에선 재정상 이용하기 쉽지 않은 헬기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각국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여행을 한 것이다.

한편,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모빌리티는 그동안 여행지에서 품었던 생각들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국 서울로 돌아가려는 다짐과 결부되는 기능을 하였다. 특히, 명수의 상상여행기는 돌아가는 비행기 모빌리티의 기능을 잘 살펴볼 수 있다. '그간의 행적과 감정을 정리했다. 매일 밤 잠들면서 쓴 자세한 일기를 보며, 혹시나 빠뜨린 감정이나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한데 모은다' 라며 그간 있었던 여행의 일정을 정리하는 행동을 보였다. 동시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즉 상상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변화된 마음가짐을 나타내었다. '귀국하면 또 치열하게 경쟁하겠지. 좁아터진 나라에서 좁디 좋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라며 복잡하고 괴롭게 했던 녹록지 않은 상태였던 현실로 돌아오도록 비행기 모빌리티가 수송해주고 있었으나 상상 속 30일간 이집트 여행을 통해 그의 심적 상태는 매우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탐사. 동경을 손에 잡기 위해, 나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한 번 그것을 경험한 내게 있어서 "여행"은 막연한 꿈이 아닌, 앞으로의 기대, 목표가 되었으니까.' 라고 상상 여행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또 다른 세계로 여행하기 위해 열심히 살 다짐을 하는 장소로서 돌아오는 비행기 모빌리티가 등장하고 있었다.

제 2 절 상상 여행 중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역시, 본 연구의 상상 내 모빌리티 과정에서 두드러진 모빌리티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적 측면은 이동성의 연구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Adey, 2006: 83), 치유적 모빌리티의 주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도 사회적 신체와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이다(Gatrell, 2013). 본 연구에서 상상 모빌리티의 한 유형 사례인 상상 여행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상상 여행을 하는 도중 사회적 관계를 맺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첫째, 실존하지 않는 비물리적 실체와 소통하며 여행을 하는 경우, 둘째, 다른 사람과 만남은 되도록 피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자 하는 혼자만의 여행, 셋째, 여행 중 알게 된 길동무와의 일시적 만남을 가지며 여행을 하는 경우, 넷째, 여행 중 현지에 있는 친구나 지인과 만남을 가지는 경우, 다섯째,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와 함께하는 여행이 있었다.

상상 여행 속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맺음은 치유감 형성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첫째, 상상 속 맺어지는 다양한 관계 또는 네트워크는 현실 속 관계와는 다르게 새롭게 재구성되는 특징이 있었으며, 이는 곧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유로운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둘째, 상상 여행 속 만나는 인물들 자체가 상징체의 역할을 하거나, 그 인물들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대화를 통하여 곧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자신의 속마음을 알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은 상상 여행 속 드러난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각 유형의 곳곳에서 밝히고자 한다.

표 6-2. 상상 여행 속 사회적 관계 유형

물리적/비물리적 구분	상상 여행 속 사회적 관계 유형
비물리적 관계	아이, 반가운 사람
물리적 관계	혼자
	길 동무, 여행 동무
	현지 사람(현지 주민, 펜팔 친구)
	친밀한 관계(가족, 친구, 남자친구, 동생)

1. 비물리적 관계와의 여행

상상 여행 중에는 현실 속 실존하지 않는 비물리적 실체와 관계 맺음을 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라희, 지혜). 상상 여행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비물리적 관계도 만나는 것이 가능한 모빌리티였으며, 이 비물리적 인물은 자기 자신의 자아이거나 자신의 내면에서 갈급해하는 실체일 수 있었다. 상상 여행 속 이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행해지는 '안아주기', '손잡기', '함께 걷기' 등의 비언어적 대화들은 결국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갈망을 직접적으로 가시화시켜주는 언어로 해석될 수 있었으며, 결국, 이러한 상상 속 비물리적 인물과의 결합은 치유감 형성을 극대화시키고 눈물을 터트리게 하는 자극제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희의 상상 여행에서는 다소 비물리적 인물인 '반가운 사람'이 등장한다. 라희는 이 반가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인지, 가족 중 누군가일수 있다고 짐작했다.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은 모호한 상상 속 인물이었던 '반가운 사람'과 함께 라희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풀이 양옆으로 우거진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 낮은 산길, 넓게 펼쳐진 논들 사이의 길, 노을'의 자연 속의 길을 걷는 사회적 모빌리티를 행하였다. 여기서, 라희 역시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게 눈물이 날 거 같았어요...(중략)...아름다워서 예뻐서 눈물이 날 거 같았어요. 실제로 살짝 눈물이 난 거 같아요." 라고 직후인터뷰의 설명을 통해, 결국, 상상 속 인물인 반가운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속 광경을 걷는 사회적 모빌리티를 행하며 치유의 과정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 속 걷기와 반가운 사람과의 사회적 모빌리티가 모두 결합(assemblage)(김숙진, 2016)되어 치유감 형성에 더 큰 시너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혜의 상상 여행 역시 '구름' 모빌리티와 '방구석에 홀로 있는 아이'가 결합되어 치유감 형성의 시너지를 주고 있었다. 상상 여행 속 구름 모빌리티를 타고 '활짝 웃으며 하늘 위로 흘러 다닌' '아이'는 곧 지혜 자기 자신이기도 하였다. 그 아이는 자유롭게 바람처럼 세상을 떠다니다가 지혜 자기

자신인 그 아이를 구름이 안아주었을 때, 지혜는 실제로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 구름이 '아이'를 비언어적으로 안아줌으로써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했음을 깨달았으며, 이러한 상상 여행 속 안아줌과 위로를 통하여 치유의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관찰된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많이 미워하다 보니까 이런 게(위로가) 필요했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었으며, 이 과정이 끝나고 지혜는 "감정이 맑아진 느낌?"이라고 설명하였다. 지혜가 현실 속에 겪고 있었던 취업난, 경제난 속 스스로를 탓하고 미워했던 감정이 상상 속 아이로 표상화되어 구름으로부터 따스한 위로를 얻고 치유받는 감정으로 변화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혼자만의 여행

혼자만의 상상 여행을 시도했던 연구참여자들은 현실 속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상상 속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맺음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상상 여행을 시도하였다. 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첫째, 현실 속 많은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길 시도하는 경우, 둘째, 과거 사회적 여행의 반동으로써 혼자만의 여행을 선택하는 경우, 셋째, 현실 속 근심, 걱정의 요소들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현실 속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갖는 환경 속에서 잠시 벗어나 상상 여행을 혼자만의 여행으로 재구성하는 경우였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환경을 잠시 벗어나 상상 속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쌓인 스트레스에서의 해방, 해소의 시간을 주었다. 채원은 상상 속 '태국 치앙마이. 피피섬'을 "항상 혼자서만" 여행하였다. 이는 평상시 채원의 독립에 열망과 스트레스를 반영하고 있었다. 현실 세계 속 채원은 아직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생활 패턴이 매우 다른 친언니와 같은 방을 쓰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채원은 "독립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스스로 독립할 장소를 구축해나갈 경제적 역량이

없었기에 “거기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잠재해 있었고, 이러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독립된 공간에 대한 열망이 혼자만의 상상 여행으로 반영된 것이다. 소연 역시, 상상 여행기에서 ‘사람이 없고, 사람 적당히 있는 곳, 사람이 별로 없이(중요)’를 세 번이나 강조했다. 소연은 현실 세계 속 평상시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집 안에서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거의 없었다. 실제 공간 측면에서도, 소연은 ZOOM을 통한 1차 조사를 할 때도 집이 아닌 카페에서 상상 여행을 실시하고 인터뷰에 응하였는데, 소연에게 카페는 집보다 오히려 독립적인 공간이었으며, 집은 두 명의 동생들과 함께 살는 공간이기에 속 시원하게 마음을 얘기할 수 없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나봐요”, “혼자서 여유를 느끼는 이런 생각이 든 걸 보니까 내가 지금 그런 게 하고 싶었구나” 라고 사후인터뷰에서 재차 언급하며, 상상에서 홀로 여행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동안 자신이 혼자 있기를 희망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혜련 역시 상상 여행에서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향했던 상상 여행 속 공간은 “사람 소리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람 소리, 바람에 풀이 흔들리는 소리” 만 들리는 곳에서 오로지 ‘나무, 풀, 꽃, 밝은 태양, (해, 흙, 맨발로 걷기 중)’ 등의 자연과 소통만 하고 있었다. 혜련은 실제 사전인터뷰 당시 구청 청년 의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양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으며 쉴새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더불어, 혜련의 과거 직업도 외국어 강사였으며 평소 생활 역시 “평소에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든 자꾸 (뭐든) 하려고 하고 일이 없어도 책이라도 읽든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라며 의도적으로 바쁜 패턴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혜련의 상상 여행기에서는 ‘아무래도 평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있다 보니 없는 곳을 가보고 싶었는지도?’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일상 속 사람들과의 마주침에서 벗어나고 싶어했고, 상상 여행을 통해 혼자 있었던 자신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즉, 상상 여행은 혜련에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 쌓여있어 사람들 없이 혼자서 휴식하고 싶었던 속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유라의 경우, 상상 여행 속 ‘뉴욕’과 ‘제주도’를 다니는 내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상상 속 뉴욕에서)

친구한테 연락해서 친구를 만날까 하고 잠깐 고민” 했었지만, 결국, 상상 여행이 끝날 때까지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실제로 유라는 현실 속 단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없었으며 상상 여행 속에서는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했었던 홀로 여행을 통해 “혼자 하는 시간이 필요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유라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부모님의 퇴직과 친동생의 취업 상황과 맞물려 맏딸로서 부담감과 불편한 마음이 있었으며, 이는 현실과 전혀 반대되는, 현실에서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상상 여행을 통해 가짐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 과거 사회적 여행의 아쉬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반동으로 상상 여행 속에서는 오로지 혼자 여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거 사회적 여행의 반동으로 나온 상상 속 혼자만의 여행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더욱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배려해야 했다는 것을, 자신이 원했던 것이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 더욱 과거의 여행에 대비되어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였다. 민영은 실제 1차 조사 당시, 진지하게 교제했던 이성 친구와의 이별을 경험하고 난 직후였고, 헤어진 슬픔의 반동으로 상상 여행 속에선 예전 함께 갔었던 제주도 여행을 오롯이 홀로 여행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전 함께 갔었던 제주도 여행에선 남자친구에게 맞추어 정적인 모빌리티 행태를 취했으나 상상 여행 속 홀로 간 제주도 여행에선 ‘사실 세계를 호기심을 가지고 탐방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역동적인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깊이 고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그림 6-8).

그림 6-8. 상상 속 혼자만의 여행(민영)

당시 민영은 남자친구가 탐방이나 돌아다닌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여행 성향과 달리 행했던 과거의 정적인 여행 태도, 행위에 대해 상상 여행 동안 큰 반성과 깨달음을 얻었다. 민영은 상상 속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되었고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눈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민희의 상상 여행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었다. 과거 유럽 여행에서 친구와 함께여서 마음껏 충족하지 못했던 여행에 대한 아쉬움이 상상 속에서나마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채워지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때 여행을 친구랑 같이 간 건데, 상상 여행은 혼자 가서 하고 싶은 거를 (그때) 못하고 그런 것들을 했던 거 같아요"라고 말하며, 과거 여행경험을 기반으로 다시 간 상상 여행에서는 같은 장소지만 오롯이 혼자 여행을 했으며, 여행지에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루어갔다. 표 6-3은 민희의 실제 과거 여행과 상상 여행의 대비이다.

표 6-3. 상상 여행(혼자만의 여행)과 실제 과거 여행(친구와의 여행)의 대비

민희의 혼자만의 상상 여행기	실제 과거 친구와의 여행
'영국런던에 가서 뮤지컬을 봤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고 바로 근처에 있는 <라이언킹> 극장에 가서 뮤지컬을 또 봤다. 일찍 보고 나와서 공원 쪽으로 슬슬 걸어가 호숫가도 좀 걸어보고 그대로 좀 더 걸어서 트라팔가 광장까지 갔다. 갤러리도 들릴까 하다 방향을 틀어서 피커댈리 쪽으로 걸어갔다.'	"혼자 갔으면 생각 없이 걷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랑 같이 가서 그 친구랑 하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만약 혼자 갔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었을거야... 그러면 좋겠다."
'프라하로 가서는 에어비앤비로 묵었던 반지하 방으로 갔다...(중략)...1층 카페에서 음료와 케익을 시켰다. 오픈형이라 바람이 솔솔 불고 그 옆에는 바이올린 선율도 분다. 바이올린 옆에는 머리가 하얀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친다'	"프라하도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근데, 친구랑 가다 보니까 좀 그랬죠.", "케익도 혼자 못 먹었죠. 저는 혼자 케익도 먹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1층에 있는 카페에 가고 싶었었거든요. 카페에 진득하게 못 있을 거 같아서 다른 데를 갔었는데. 그때 좀 아쉬웠죠. 그때 카페에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스트가 하고 있었는데, 가보고 싶었는데 다른 데 간 거죠..."
'프라하를 찍고 피렌체로 왔다. 피렌체의 가죽공방이 많은 어느 골목을 걷다가 버스를 탔다....(중략)...'	"친구가 그때도 가방 필요하다고 해서 가방 사러 갔다가, 저는 그때 좀 더 돌아보고 싶었었는데...."
'버스를 타고 내려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둑어둑한 거리를 조금 더 걸었다. '라자냐 사먹어야지' 생각하면서.'	"라쟈냐.. 그때 못 먹은 거죠... 그때 바로 숙소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근처에 슈퍼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또 라자냐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들어가자고 해서 다른 걸 먹었을 거예요."

표 6-3의 민희의 상상여행기에선 거의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과거 여행 경험에선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자신의 소망대로 변형시켜 실현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민희는 상상 속 혼자만의 여행으로 이전 친구와의 여행에선

이루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을 채우고 최대한의 만족감을 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현실 속 제한된 환경 요소를 완전히 차단되기 위한 방책으로서 혼자만의 여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진주의 경우, 상상 여행에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길 원했다. 그리하여 선택한 목적지는 '사람 별로 없는 섬 해변'이었다. 진주는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 아닌 "진짜 고립된 곳"을 다녀오려고 노력했으며, 비록 상상 여행기의 그림 속 세 명의 서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지만 "다른 나라 사람인데, 말은 전혀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그림 6-9).

그림 6-9. 혼자만의 상상 여행(진주)

이는 진주가 철저하게 사람들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원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다. 더불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모빌리티 유형의 속성에서도 진주는 비행기 모빌리티를 행하며 1등석을 강조하며 혼자만의 시간, 공간을 보내길 원하는 마음이 드러냈다(그림 6-7). 진주는 비행기 모빌리티에서 1등석을 통해서도, 여행의 목적지에서도 혼자만의 상상 여행을 통해서 나만의 공간 만들기에 집중하였다. 연구자는 이토록 사람들이 없는 여행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질문했고, 진주는 사람들과 무관하게 "혼자 멍 때리는" 여행을 하고 싶었으며, "세상이랑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걸 느끼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다. 이는 현실에서 복잡하고 자신을 고단하게 했던 문제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났다. 진주에게 현실은 자기 자신에게 "약간 못되게" 구는 공간이었으며, "뭔가 취업을 준비한다해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결과물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머리로 할 수 있는 거랑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상태랑 많이 달랐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상상 속 영역은 진주가 오롯이 혼자만의 여행을

구성했기에 복잡한 현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진주에게 혼자만의 상상 여행은 걱정과 근심 많은 현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이다.

3. 길·여행 동무와의 일시적 만남

상상 여행 도중 길·여행 동무 같은 일시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전체 여행 일정 모두를 동무들과 동행한 것은 아니나 여행 중 일시적으로 만나 사회적 모빌리티를 행하며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여행 중 수고로움을 덜었다. 또한, 이러한 상상 여행 중 동행자들과의 일시적 만남은 또 다른 콘텐츠로서 다채로움을 더해주며 새로움, 재미, 즐거움을 더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아가 또 다른 모빌리티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작용을 하였다.

먼저, 상상 여행 도중 길·여행 동무와 일시적 만남은 여행 중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모빌리티는 보통 고난의 길을 걷는 모빌리티를 하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드러났다. 상상 속 스페인 순례길을 걷던 소리는 각자의 사연을 담고 온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어떤 기회로 여행을 했고, 또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떻게 시간을 내서 왔는지, 저는 얼마나 더 걸려야 되는지” 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를 통해 상상 속 길동무들과 함께 모빌리티를 행하는 과정은 충분한 시간과 체력이 요구되는 스페인 순례길 걷기를 의미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여행 콘텐츠이자, ‘발에 물집이 잡히고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힘든 모빌리티 순간을 견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상상 속 산티아고 길을 걸었던 지혜 역시 길동무의 역할은 중요했다. 산티아고 길을 홀로 걸어가던 지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잠깐 길 가다 마주친 길동무이며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슬픈 얘기, 즐거운 얘기” 등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지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각자 갈 길을 간다’로 상상여행기에서 표현하여 길동무는 일시적 만남이지만 더욱 잘

모르는 사람이기에 편히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모빌리티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한편, 상상 여행 중 여행 동무와의 일시적 만남은 새로운 콘텐츠의 역할을 하여 여행의 다채로움을 더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도영은 상상 여행 속 그리스에서 새로운 여행 동무와 사회적 모빌리티를 시행했다. 도영은 단 10분의 상상 여행이었지만 새로운 여행 동무에 대하여 꽤 자세하게 “저와 비슷한 또래”, “상상 속에서 같이 맛집 가고 대화도 나누고, 혼자 오신 분들끼리 카페 같은 데서 만나고 같이 만나서 친구”로 묘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하면서도 새로운 여행 동무를 만나게 된 동기에는 혼자 있으면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반영하였으며, 이 경우, 여행의 모든 일정을 새로운 여행 동무와 공유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여행 동무와 “파스타”도 먹고, “광장에서 젤라또를 먹으며”, “시내 구경”을 하는 일정을 하루 정도로 끌어오는 모습을 보여 여행 일정의 다채로움을 더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로서 일시적 여행 동무와의 만남은 여행 중 새롭고 재미있는 감정과 활기찬 기분을 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여행 콘텐츠로서 일시적 여행 동무와의 만남은 도영에게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다음을 위한 기약을 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여행을 확장시키려는 마음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스페인 순례길을 걸었던 소리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소리는 단순한 고생스러운 걷기가 아닌 스페인 순례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여행 동무와의 만남이 하나의 여행 콘텐츠로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소리 역시 앞으로 “인스타”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앞으로 순례길 모빌리티를 한 번 더 하자는 기약하는 메시지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상 여행 속 일시적 여행 동무와 행한 사회적 모빌리티는 새로운 여행을 기약하게 하는 모습에서 잠정적으로 또 다른 모빌리티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4.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상상 여행 중에는 현지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었다. 첫째, 낯선 현지 사람들과의 일시적 만남을 가지는 경우로 전혀 모르는 현지인들과 만나 친근하게 소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현지 주민들이 이국적인 경관을 완성 시키는 행위자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감정을 변화시키거나 직접적으로 치유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둘째, 원래 알고 있었던 현지에 있는 친구·지인들과의 만남이었다. 상상 여행 중 현지 지인들과의 사회적 만남은 상상 속 그 나라를 방문한 목적 자체였으며, 이는 현지 친구들과의 친밀을 더욱 돋우고 친구들이 곧 상상 여행 속 방문한 여행지와 동일시 되어 나타나 더욱 그 장소와의 애착 감정을 끈끈하게 형성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모빌리티의 경우는 기분 감정의 변화에 도움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치유적 역할을 하였다.

먼저, 상상 여행 속 현지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는 현지 주민들이 마치 그 나라를 상징하는 살아 움직이는 경관처럼 작용하고 있어 연구참여자들의 이국적 경관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소민은 상상 여행에서 횡단 열차를 타고 중국 서부 쪽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에 열차 안에서 러시아사람과 간단한 언어교환을 하였다. 언어교환의 내용은 “열차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면서, 서로 외국인이니까, 너네 나라 말로는 뭐야? 이러면서 서로가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러시아어도 저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문화적 소통이었으며, 이는 현지 사람들 자체가 하나의 횡단 열차의 경관처럼 꾸며졌다. 도영의 상상 여행기에선, 그리스 산토리니의 하얀 건물들과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걸어 다니고 구경하면서 친절한 그리스 사람들과 이야기도 주고받는 내용이 묘사되었다. 여기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산토리니의 아름다운 풍경이자 하나의 움직이는 경관처럼 해석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상상 여행 속에서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일시적 관계 맺음을 행하는 것은 여행 모빌리티에서 그 나라를 느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으며, 현지 주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경관으로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감정의 변화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치유감 형성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상상 여행 중 원래 알고 있었던 현지 친구·지인과의 만남은 기분, 감정의 변화에 기여하거나 깨달음을 주어 치유감 형성과 연결되었다. 이 경우, 현지에 있는 친구가 상상 속 방문한 그 나라 자체와 동일시 되어 참여자에게 그 장소를 여행하는 것에 대한 애착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는 효영의 내러티브에서 잘 드러나는데,

> "(상상 여행을 통해) 깨달은 거는 곳곳에 다 친구가 있었잖아요. 저는 일본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소중했었던 거 같아요. 관계가 중요하구나 나에게는..."(효영)

위와 같은 효영의 내러티브는 상상 여행 자체가 그녀에게는 관계적 모빌리티였음을 엿볼 수 있다. 효영의 상상 여행 전체는 현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한 여행으로 꾸며졌다. 평소 인터넷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펜팔친구들이 있는 일본으로 향하면서, 효영은 아래의 지도(그림 6-10)처럼 '토쿄'에서 '코지로 상'을, '나고야'에서 '유스케'를, '후쿠오카'에서 '크리스찬, 리사짱'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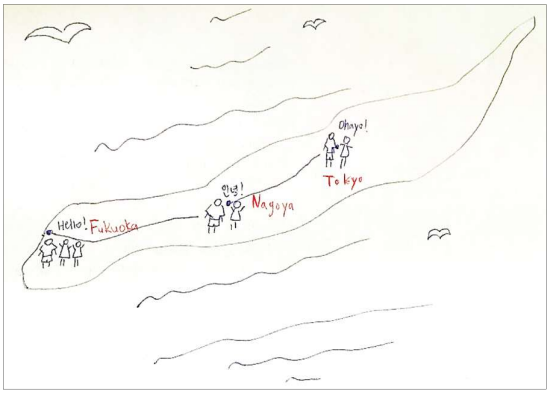

그림 6-10. 일본 펜팔친구들과의 상상 여행(효영)

그림 6-10에서 살펴볼 수 있듯, 효영에게 일본의 각 도시는 친구들과 동일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효영에게 일본 여행은 일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얽혀있는 관계가 소중했음이 드러났다. 그 친구들이 곧 그 장소였으며 그 친구들에 대한 애착이 상상 속에서 그 영토로 끌어들이는 힘이 된 것이다. 더불어, 효영은 현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

믹으로 인해 일본에 있던 펜팔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상상 여행 속에서는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이는 실제 직접 만나는 기분이 들도록 만들었다. 효영이 상상여행기에서 '저녁을 먹으며 인생 이야기, 유스케의 연애 이야기를 들으며 조언을 해주었다.', '크리스찬을 만나서 또 그간의 썰을 풀었다. 오랜만에 보니 얼굴이 좋아 보이네, 생각을 했다.', '밥을 먹으며 그간 있던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 보는 친구지만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좋다.'라고 묘사한 것처럼, 이는 현실과는 다르게 상상 여행 속에서 제한 없이 인물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유함이 허락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운 관계적 모빌리티는 상상 여행 직후 효영에게 "힐링"했다는 기분을 들도록 하였다. 더불어, 효진의 여행에서도 펜팔친구와의 만남이 등장한다. 효진은 상상 여행 속 펜팔친구가 살고있는 마을인 핀란드 일리버에스카로 향한다. 효진과 펜팔친구는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 편지를 주고받은 사이로 과거에도 펜팔친구 집에서 며칠을 머문 경험이 있었다. 효진은 상상 여행 속에서도 펜팔 '친구의 쌍둥이 동생들과 눈싸움', '집 옆의 오두막에 들어가 모닥불을 쬐며 소시지를 구워 먹'는 등의 활동을 하여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준서 역시, 상상 여행 속 체코 프라하에 가 체코인 친구를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서의 상상 여행 역시, 체코 프라하라는 도시와 체코인 친구가 동일시되어 따뜻한 감정을 전하고 있다.

5. 친밀한 관계와의 여행

상상 여행 속에서는 친한 친구 또는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와 함께 하는 사회적 모빌리티가 행해졌다. 친밀한 관계와 함께하는 상상 여행에서는 상상 속 등장하는 인물과의 대화 또는 비언어적 소통이 곧, 지금 자기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언어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친밀한 관계와의 여행은 함께이기에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감정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친밀한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의 경우, 상상 여행 속

드러난 친밀한 인물과의 행동이나 대화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말이나 행동이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은서, 혜리, 가희, 은혜, 효진, 엄지). 은서의 경우, 혼자가 아닌 '소중한 친구나 동생'과 함께 스위스, 프라하, 중국, 몽골, 터키, 이탈리아 여행을 시도했다. 은서의 상상 여행은 현실의 취업 준비 상황이 아닌 취업을 한 이후의 미래의 시점이었으며, 상상 여행 속 동생, 친구들과 "고생 많이 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오는구나"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은서의 여행 속 이러한 친밀한 관계와 함께 나눈 대화는 취업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재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서, 어려운 시기를 넘어 미래에는 꿈같은 시절이 오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혜리의 경우, "엑스 보이프랜드" 와 함께하는 상상 여행에서 "낚시, 수영, 요가, 달리기, 별 보고, 같이 춤추고, 모래놀이, 게 관찰" 등의 액티비티를 같이 행하며 느슨하고 즐겁게 보내는 사회적 모빌리티를 행하였다. 특히, 혜리는 상상 속 "엑스 보이프랜드"와 함께 "'너가 맨날 이런 데 오고 싶다고 했는데, 드디어 우리 여기에 오게 됐다', '우리 어딜 가든 참 좋을 텐데', '너가 스킨스쿠버 하는 거 나한테 멋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 같이하니까 너무 좋다고'" 라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러한 친밀한 관계로부터 들은 이 대화들은 결국, 혜리가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로 해석된다. 혜리는 사전인터뷰에서 평일에는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주말에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뛸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그동안의 해외여행 목적지도 일정이 빡빡하고 배움을 얻기위한 장소로 선정하였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느슨하게 푹 쉬는 여행을 꿈꿔왔음을 상상 여행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상상 여행 속 친밀한 관계로부터 들은 대화처럼 편안하고 느슨한 곳에 와 놀고, 쉬고 싶었음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엄지의 경우, 가족들과 함께한 상상 여행 속에서 말과 서로 간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엄마.이모.나.사촌 동생'과 함께 초등학생 때 갔던 콜로세움 & 아레나 등 여러 곳을 방문하는 상상 여행을 다녀왔다. 그림 6-11에 적힌 엄지의 상상 여행기에선 '여행 속 여행이었던 #1음악회 관람이 끝나고 모두에게 개방된 예배당에 들려, 침묵이 한참 흐르다 이모가 오열한다. 그러자 곧 따라 우는 우리들. 끝은 다 모여

이모를 감싸고 눈물로 위로한다.'라며 가족들과의 비언어적인 소통이 치유감을 형성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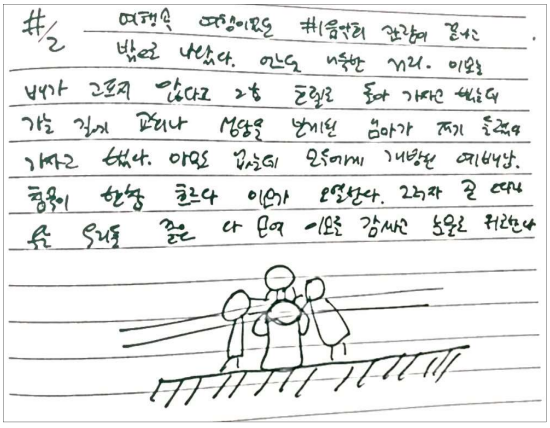

그림 6-11. 상상 여행 속 울고 있는 가족(엄지)

이러한 상상여행기가 드러났던 배경은, 1차 조사 당시 엄지의 이모는 오랫동안 아픈 이모부의 병간호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상상 여행 속에서는 힘든 시간들이 다 지나간 미래의 상황에서 "울면서 굳이 많은 말이 아니라...(중략)...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인사도 하고, 지금 힘들고 외롭고 쓰라린 마음도 좀 공감을 해 주고" 하는 모습들이 이어진 것이다. 사후인터뷰에서 평상시 엄지는 자신의 거듭된 취업실패와 집안에 힘든 분들이 여러 명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미 복잡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모의 힘든 상황과 마음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상상 여행 속에서는 반대로 이모를 감싸고 눈물로 위로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를 외면하는 것도 내 본심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상상 여행 속 가족들과 오열하며 치유를 느끼는 감정이 극에 달하는 순간, 엄지는 이모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원래 자기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한다.

한편, 친밀한 관계와의 여행을 시도한 연구참여자들은 함께이기에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감정이 극대화되는 모습이 보였다. 풍요롭고 행복한 감정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상의 영역이 코로나 제한과 경제적 제한이 없었던 영역이었던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소리의 경우, 상상 여행 속 하와이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해변가에서 엄마 아빠의 35번째 결혼기념일을 기념하여 리마인드 웨딩'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그렸고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오빠도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고, 온 가족이 이렇게 다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하며 '행복', '감사'의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소리는 이전에도 가족과 함께 한 해외여행에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다고 느꼈으나 계속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해외여행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현실과 다르게, 상상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하와이에 가서 부모님께 리마인드 웨딩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며 이는 더욱 소리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감정을 끌어올리게 만들어준 것이다. 희은의 경우, '뉴질랜드&호주&피지&사모아'를 '가족(엄마, 언니, 형부), 남자친구'와 함께 사회적 모빌리티를 행하였다. 희은의 상상 여행기에선 '편안', '단란한 가족 시간', '평화로운'과 같은 감정 상태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는데, 이처럼 희은이 상상 속 가족 여행에서 이러한 편안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경제적 제한이 없었던 상상의 영역의 특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희은은 상상 여행의 경제적 제약이 없었던 점들을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현실에서는 한 나라뿐만 갈 수 있으나, 상상 여행 속에서는 세 나라, 네 나라를 가보기도 하며, 상상 속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최고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주어졌기에 상상 속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가족 여행은 그녀의 마음 상태를 "기분 자체가 좋아지는 것" 같도록 만들었다.

제 3 절 상상 여행 중 머무름

상상 여행 중에는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이동 중 잠시 가던 발길을 멈추고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머무름(stillness)이란 이동 중 머무르는 행위를 나타낸다(Bissell and Fuller, 2011; Cresswell, 2012). 이러한 머무름은 이전 정주적 개념과 다르며, 움직이는 동안의 머무름을 뜻하기에 이동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은 한다(Cresswell, 2012). 본 연구에서는 상상 여행 중 장소가 아닌 그 장소에서 머무르는 행위가 치유감 형성과 연결되었기에 장소가 아닌 머무름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상상 여행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장소와 결합되어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치유적 명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머무름(성스러운 장소, 자연·휴양지), 도시에서의 머무름(대도시·관광도시, 문화·예술 시설), 여행의 필수적 장소에서의 머무름(공항, 숙소, 음식점·카페, 쇼핑·기념품점)이 상상 여행 속에서 등장하였다.

표 6-4. 상상 여행 속 머무름의 장소 유형

머무름의 구분	상상 여행 속 머무름
치유적 명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머무름	성스러운 장소(성지순례길, 교회·성당)
	자연·휴양지
	도시
도시에서의 머무름	대도시·관광도시
	문화·예술 시설
여행의 필수적 장소에서의 머무름	공항
	숙소
	음식점·카페
	쇼핑·기념품점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상 여행 속 머무는 장소들이 어떻게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게 되는지를 각 항목별로 서술한다. 주요한 초점은 첫째, 머무름은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요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실험군 연구참여자들의 상상 여행 중 심리적 상태, 감정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했다. 둘째, 여행 중 어떠한 일정 장소에서의 머무름 행위는 연구참여자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내면 속의 요구들이 응집되어 나타나 그들의 내면을 강하게 비추어주는 상징체로 드러났다.

1. 치유적 명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머무름

1) 성스러운 장소에서의 머무름

교회·성당·성지 순례길과 같은 원천적으로 치유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성스러운 장소에서 상상 여행 중 머무름이 나타나곤 했다(소리, 지혜, 엄지, 소연, 소민, 민정). 특히, 엄지의 상상 여행에서는 이러한 성소에서의 머무름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엄지, 엄지의 이모, 엄마, 사촌 동생과 우연히 함께 들린 “교회나 성당”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머무름 공간을 제공했다. “아무도 없는데 모두에게 개방된 예배당” 은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속 응어리가 표출되는 장소였다. 아래의 엄지의 상상 여행기를 살펴보면, 엄지의 가족들은 누구도 시키지 않았으며 어떤 요소도 그들에게 개입되지 않았지만 단지 성소에 들어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마음껏 오열할 수 있었다.

> ‘침묵이 한참 흐르다 이모가 오열한다. 그러자 곧 따라 우는 우리들. 끝은 다 모여 이모를 감싸고 눈물로 위로한다.’(엄지의 상상 여행기)

엄지의 사후인터뷰에 따르면, 상상 속 이러한 교회·성소가 나타났던 이유로 엄지는 조용하고 밀폐된 장소를 원했고 이런 장소에서 가족들과 엄지는 그동안 이모의 노고가 워낙 컸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마음을 공감해 주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였다. 교회·성당에서의 머무름은 늘 현실에서 힘든 이모에 대한 감정과 이모의 힘든 상태에 대한 응어리를 해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2) 자연·휴양지에서의 머무름

치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소에서의 머무름은 자연·휴양지에서의 머무름이다. 자연·휴양지에서 머무름은 상상 속에서도 자연 그

자체만으로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선사하였고, 답답하거나 지친 마음을 깨닫게 하여 그동안 여유와 휴식이 필요했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였다(라희, 민영, 가희, 은혜, 준서, 소연, 혜리, 은서, 하음, 혜련, 유라).

먼저, 상상 속 여행 중 자연과 맞닥뜨림은 가던 발길을 잠시 멈추고 답답한 마음이 풀리게 하거나, 경이로움 그 자체만으로 감격스러움에 젖게 만드는 치유감 형성 기능이 있었다(혜련, 하음, 은서, 라희, 유라). 라희는 '풀이 양옆으로 우거진, 넓게 펼쳐진 논들, 노을, 탁 트인 바다' 같이 "탁 트인 전경, 공간"을 맞닥뜨렸으며, 이러한 탁 트인 자연에서의 머무름은 "답답함. 답답했나보구나....(중략)...내가 좀 답답함이 있었구나" 라고 되뇌며 자신의 답답했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탁트인 자연에서의 머무름은 라희에게 "하기 전에 약간 감정이 없는 거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는 감정의 물결이 생긴 느낌이 들어요." 같이 상상 여행 전후로 기분이 달라지게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자연에서의 머무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연 풍경이) 아름다워서 예뻐서 눈물이 날 거 같았어요.", "실제로 살짝 눈물이 난 거 같아요." 라며 치유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결국, 상상 속 탁 트인 자연에서의 머무름은 답답했던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으며, 기분을 달라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치유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작용을 하였다. 은서 역시 상상 여행 속 몽골로 자유여행을 하던 중 맞닥뜨린 '끝없이 펼쳐진 사막', '땡볕',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 과 같은 웅장한 자연에서의 머무름을 통해 '가슴이 벅차고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그림 6-12).

그림 6-12. 상상 속 자연에서의 머무름(은서)

유라의 상상 여행기 속에서도 ‘제주도 바닷가’, ‘사려니 숲’에서 ‘하얀 모래사장’, ‘파도’, ‘하늘은 파랗고 뭉게구름이 떠 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다.’, ‘맑은 자연의 공기’, ‘숲길’, ‘나뭇잎 사이로 비추어지는 햇살’ 등의 자연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자연 속에서의 머무름은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도록 작용하였다.

둘째, 상상 여행 속 자연이나 여름 휴양지와 같은 장소에서 머무름은 자신에게 휴식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알게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민영은 상상 여행기에서 ‘세부(휴양지)’에서의 머무름을 통해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선, 그동안 마음의 짐, 걱정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다짐하게 된다. 특히, 세부 선비치 앞 석양과 바닷가라는 자연 앞에서 여유 있게 책을 읽으며 정적인 머무름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민영에게 더더욱 자신에게 쉼과 휴식이 필요했음을 알려주는 상징체로 등장하였다. 가희 역시, ‘그랜드 캐년이나 스위스의 융프라우 같은 곳, 하와이, 아프리카 가서 사파리’와 같이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의 여행지에서 머무름은 “생각보다 자연이랑 이런 걸 상상하는 걸 보니 내가 심신이 지쳤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라는 지친 속마음을 알려주는 상징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상상 속 드러나는 자연과 휴양지라는 장소는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마음의 상징체이자, 무의식의 갈망이 원했던 결정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상상 속 자연 또는 휴양지에서의 머무름은 원래 현실 세계 속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목적지와 대비시켜주어 속마음을 극대화하여 표출해 주는 기능을 하였다. 소연은 평상시 기회가 된다면 ‘헝가리’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으나, 상상 여행 속에서는 자연 위주의 여행지에 머물렀다. “저는 당연히 만약에 상상으로 어딘가 여행을 한다고 하면 헝가리를 다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드는 거에요. 일부러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원래부터 가고 싶었던 헝가리가 아닌 자연 위주의 상상 여행을 한 소연은 이를 통해 그간 바쁘게 지냈던 자기 자신에게 여유가 필요했었음을 깨달았다. 혜리의 경우도 평상시

가고 싶었던 '캐나다'가 아닌 "하와이나 괌의 날씨" 같은 이름 모를 섬에서 쉬며 머무는 상상 여행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상 여행하기 전에는 사실 캐나다를 가고 싶어서 그걸 상상할 줄 알았는데..." 상상 여행 속 캐나다가 아닌 자연의 휴양지에서의 머무름은 그동안 일상생활 속 많은 돈을 주고도 여유를 즐기는 타입의 여행을 비판했었던 자신이 사실은 여유롭고 스스로를 풀어주는 여행을 내심 부러워했고 갈망했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었다. 즉, 소연과 혜리가 상상 여행을 통해 이들이 평상시 생각하였던 "헝가리"나 "캐나다"가 아닌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연, 휴양지에서 머물렀던 이유는 현실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행동을 다소 기회비용에 의해 결정하였지만, 상상 속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제한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아가 원하고 있었던 것에 더욱 집중하여 선택할 수 있었기에 그동안 자신이 원하고 있는지 몰랐었던 휴식의 결정체인 휴양지에서의 머무름이 상상 속에서 상징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도시에서의 머무름

1) 대도시·관광도시에서의 머무름

상상 여행 속 연구참여자들은 대도시 또는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들에서 머무름을 취하였다. 뉴욕(가희, 유라), 영국 런던(민희), 파리(가희), 시드니(희은), 일본 오사카(민영), 도쿄(효영), 산토리니(준서, 도영), 이탈리아 나폴리(도영), 소렌토(도영), 피렌체(민희), 프라하(민희, 은서), 포르투칼의 포르투(도영), 스페인 바르셀로나(혜림), 카이로(명수), 알렉산드리아(명수) 등 상상 여행 속 다양한 도시에서 머무름이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에서의 머무름은 첫째, 과거 방문했었던 도시 자체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남아있어 과거 기억을 떠오르게 하며 치유감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으며, 둘째, 심심한 자연환경과 반대되는 도시에 방문하여 문명의 혜택과 즐거움, 재미를 누리는 효과가 있었다.

첫째, 과거 여행 속 도시를 상상 여행에서 다시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다(민영, 유라, 준서, 희은, 효진). 이들이 상상 여행을 통해 다시 방문한 도시는 과거 자신이 영광스럽게 느꼈던 장소로서 비록 그들의 인생에 비해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 그곳에 체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 속에서 그 도시에 다시 머물면서 그 도시 자체를 고향처럼 그리워하거나 다시금 노스텔지어를 느끼게 하였다. 민영의 경우, 상상 여행 속 일본 오사카에 머물었다. 비록 일본 오사카는 과거 4개월만 체류했었음에도 “NGO 단체 활동”을 하며 “앞으로 나아갈 비전 같은 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된 의미 있는 곳이었으며, 상상 여행 속 다시 오사카에서 머무름은 ‘그리운 곳,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예전에 살던 집과 동네도 방문했는데 그리웠어서 눈물이 났다. 사무실도 방문하였는데 감사하였다.’ 라는 다시금 향수를 떠올리게 하고 그리움의 눈물이 나게 하며 감사하는 감정을 갖도록 하고 있었다. 유라의 경우, 대도시 뉴욕에 들렀다. 과거 유라는 대학교 생활을 뉴욕에서 지냈으며, 올해 초(1차 조사 당시인 2020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는 힘들었던 미국에, 뉴욕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기에, 상상 여행 속에서 다시 뉴욕에 가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유럽이 아니라, 제일 먼저 떠올랐던 장소가 뉴욕이었던 이유는, 유라의 내면 속 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상 여행 속 뉴욕에서의 머무름은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라는 뉴욕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둘째, 문명의 혜택을 즐기기 위해 도시에 머물렀던 참여자들(도영, 민희, 준서, 희은, 은서, 가희) 중에는 ‘영국런던-프라하-피렌체’(민희), ‘그리스 산토리니-이탈리아-나폴리-근교의 소렌토-포르투칼의 포르투’(도영)의 경로처럼 오로지 대도시 또는 관광도시 위주로 상상 여행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자연의 곳을 머물다가도 잠시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도시로 향한 경우도 있었다(준서, 희은, 은서, 가희, 소연). 이들의 여행은 대부분 자연 위주의 일정으로 가득 찼지만 마지막 코스는 도시에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상상 속에서 자연에서의 여행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하니까”(가희), “언니랑 형부는 이제 자연만 있으면 심심할

테니까 큰 도시로 도시 여행도 하라고 하고” 희은 처럼 자연에만 있으면 지루해질 수 있기에 마지막이라도 여행 일정에 도시에서 머물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도시 일정은 이들에게 재미와 흥밋거리를 유발하였다.

2) 문화·예술 시설에서의 머무름

여행을 통해 배움과 교양을 쌓고자 도시에서 머물렀던 이들은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와 같은 문화·예술 시설 같은 장소들에서 머무름을 행했다(명수, 혜림, 준서, 도영, 민희, 은혜, 소연, 엄지). 지식을 쌓기 위한 박물관, 유적지, 건축물, 도서관 같은 장소에서 머무름은 취업준비 현실과는 다르게 배움의 열망을 실천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도록 허락해주었다. 또한, 미술관, 전시회와 같은 문화예술 시설에서의 머무름은 조용하고 차분한 감정과 연결되고 있었으며, 오페라, 뮤지컬 같은 음악회에서의 머무름은 자유로운 감정과 연결되었다.

먼저, 지식을 쌓기 위해 박물관, 유적지, 건축물, 도서관에 머물렀던 참여자들은(명수, 혜림, 준서, 도영) 그들의 취업준비 현실 상황과는 다르게 배움의 열망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꼈고, 재미와 흥미로움을 느꼈다. 상상 여행 속 오래된 문명의 도시 카이로,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명수는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일기처럼 상상 여행의 기록을 1일부터 30일까지 구체적으로 가득 채워 적었으며, 실제로 탐험가가 된 것처럼 4대 문명의 근간인 초고대의 유적들, 홍해의 바다속을 탐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의 마지막 ‘28-29일’ 째 일기에서는 대도시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현대식으로 복원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서 책을 구경하면서 그는 대학 1학년 때 처음으로 도서관에 갔던 날을 떠올렸다. 이러한 상상 여행 속 유적지 탐사와 도서관에서의 머무름은 지식을 탐구하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마음을 허락해주었다. 더불어, 미술을 전공한 혜림은 전공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줬던 건물들을 직접 보기 위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상상 여행을 떠났다. 그녀가 이러한 학구적인 여행을

선택한 까닭은 “마냥 쉬는 여행도 좋지만, 좀 더 새로운 걸 구경하고, 제일 가고 싶었던 것이 사실 약간 미술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열망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도시에 머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준서의 사후인터뷰 내러티브에서도, 이러한 역사 유적지나 박물관에서의 머무름 현상은 여행에서의 “재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술관 또는 전시회에서 머물렀던 연구참여자들은(준서, 도영, 민희, 혜림, 은혜, 소연) 차분해지고 조용해지는 감정과 연결되곤 했다. 소연의 상상 여행기에서는 ‘조용히 미술관에서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루브르에 사람이 별로 없이(중요) 찬찬히 그림 보면서 돌아보는 상상을 했다. 사실 딱 루브르는 아니었고 그냥 유럽 어느 미술관, 커다란 성당 안이나...’ 라고 표현하며 사람이 별로 없고 조용하며 찬찬히 그림을 살피며 차분하고 조용해지는 감정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은혜는 상상 여행에서 동유럽의 유명한 미술관에 들어가 “풍요롭게 뭔가 좀 차분하고 되게 복지도 잘 돼 있고 이런 느낌”을 얻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오페라, 뮤지컬과 같은 음악회에서 머무르는 상상 여행자들은(준서, 민희, 엄지) 엄숙한 문화 코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태도로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다. 엄지의 상상 여행기에선 ‘아무 생각 없이 큰 집중 없이 음악 연주를 들었다. 이 음악 들으면 듣는 대로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좋다는 듯이’ 라고 서술하고 있다(그림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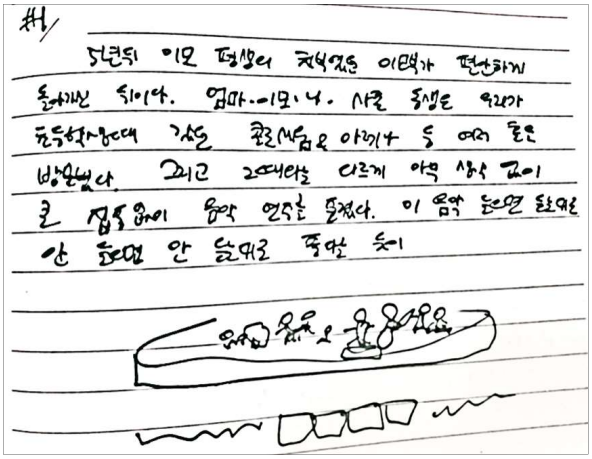

그림 6-13. 음악회에서 머무름(엄지)

그림 6-13에서 보듯, 엄지는 현실에서 정성스럽게 감상하고 반응해야 하는 한국 음악회 분위기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음악회를 관람하면서 남의 눈치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관람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상 여행 속 방문했던 아테네에서의 음악회에서 과제로 인해 의무감으로 관람했던 이전 과거 경험이나 한국 음악회에서 감상 태도와는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3. 여행의 필수적 장소에서의 머무름

1) 공항에서의 머무름

실험군의 상상 여행에서는 여행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장소인 공항에서의 머무름이 빈번하게 드러났다(유라, 명수, 효영, 민영, 효진, 하음, 진주, 혜리, 도영). 비록, 공항은 여행 중 거쳐 가는 일시적인 수송의 역할을 담당하며, 고유한 정체성 및 역사성이 부재하거나 드나드는 사람들의 관계가 부재한 비장소(non-place)(Augé, 1995; Schaberg, 2012: 45)의 성격을 지니고 있긴 하나, 상상 여행 속 비장소로서 공항에서의 머무름은 일시적일지라도 효과적으로 특정 감정들과 연계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상 여행 속에선 출발지와 도착지에서의 공항이 모두 등장하고 있으나 특히, 출발지 공항에서의 머무름은 비행기를 기다리는 설렘과 여행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과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착지 공항에서의 머무름은 사뭇 긴장감과 혼잡한 감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발지 공항에서의 머무름은 상상 여행자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는 대기 시간을 벌어주었으며, 이렇게 앞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여행 전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의 감정을 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음은 상상 여행을 시작하였을 때 가장 먼저 공항에 가는 것을 먼저 떠올렸으며 출발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머무름 과정이 “설렘이나 기대”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근에는 여행 생각을 더욱 할 일이 없었기에 하음은 여행을 시작하는 공항에서의 머무름만으로도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진주의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정말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을지 의문이 들었으나, 오히려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의 머무름은 목적지에 가기까지 기대감이 들게 하고 출발하기까지 마음의 변화를 주는 시간을 허락하였기에 공항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오히려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어딜 가야하지?', '백지티켓(어디든 갈 수 있는)이 주어진다면?'(진주의 상상여행기) 라는 지속된 고민들을 던질 수 있게 하는 출발지 공항에서의 머무름은 진주에게 대기 시간 동안 상상 여행 목적지로 어디를 선택해야할 지 충분히 기대감과 여지를 남겨주었다. 한편, 출발지 공항에서의 머무름이 주는 설렘과 기대감은 경제적 제한이 없는 상상의 영역 특징도 한 몫을 담당하였다. 명수의 상상 여행기에선 1일 차 공항 라운지에서의 머무름부터 경제적 제한에서 벗어나 경제적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러한 상상 여행의 경제적 제한이 없는 특징은 명수에게 '안락함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에 반해, 도착지 공항에서의 머무름은 낯선 긴장감이 들도록 하였다. 도착지 공항에서의 머무름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들어가기 전 잠시 거쳐 가게 되는 수송의 비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하거나(도영, 혜리), 이국적인 경관을 느끼게 해주는 모빌리티 장소의 역할을 하였으나(민영, 유라), 도착지 공항에서의 머무름은 낯선 이국땅으로 이동한 것에 대한 삼엄하고 긴장된 감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카이로 공항에 도착한 명수는 '딱 내 상상 속만큼 혼잡했다'고 표현하며, '흥정하려는 택시기사, 모래와 매연' 들이 새로운 여행지로 이동했음을 알리는 혼잡스러운 요소라고 설명했다. 일본에 간 효영은 '먼저 도쿄에 내렸다. 심각한 분위기의 공항을 지나'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상상 여행에서 무비자로 일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도쿄 공항 검색대에서부터 일본 특유의 꼼꼼하고 삼엄한 경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음을 드러냈다.

2) 숙소에서의 머무름

상상 속에서는 여행에서 필수적 머무름의 장소인 숙소에서의 머무름이 등장하였다(민영, 준서, 민희, 유라, 효진, 가희, 소연, 도영, 하음, 은서, 희은, 명수). 상상 여행 속 숙소에서의 머무름은 두 가지 상반된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첫째, 여행지 로컬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며 일상 현지 사람처럼 살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오랫동안 현지 숙소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현지 숙소에서의 오랜 머무름은 편안, 여유, 느긋한 감정과 연계되어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하여 호화로운 숙소에서 머무는 유형이 있었으며, 이 경우는 로컬과의 연계가 중요하지 않았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감정과 연계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로컬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한 숙소에서의 머무름 현상이 있었다(민영, 준서, 유라, 민희, 효진, 하음, 소연, 도영). 이는 보통 과거 여행을 다녀왔었던 경험이 확장되어 진행되었으며, 현지 그 나라 주민처럼 머무르며 일상생활을 하고자 하는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한 달 살기”(하음, 소연)와 같이 오랫동안 숙소에서 머무름이 나타났다. 하음은 과거 오키나와 여행의 경험을 확장시켜, 상상 여행 속에서 아예 오카나와 사람처럼 장도 보고 ‘조리도구가 잘 갖춰진 집을 빌려 한 달간 그 나라 사람처럼 요리해 먹고, 수영하고, 산책 다니며’ 일상생활처럼 살아가는 머무름을 보였다. 이러한 현지 숙소에서 오랜 기간 머무름은 하음에게 ‘편안하게 쉬는’ 감정을 허락해주었다. 소연 역시 과거 프랑스 파리에서 묵었던 숙소를 확장시켜 상상 여행 속에서 ‘뽀송한 호텔 이불에서 뒹굴거리다가, 일어나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약간 긴 여행에서 (한 달 살기라든지) 일상인 것처럼 생활하는 상상을 했다’. 도영은 긴 여행에서 ‘남은 시간을 포르투에 머물며 느긋하게 살아보기로 했다.’라는 문구를 통해 느린 템포에서 외국에서 오래 머물며 일상처럼 행동하며 현지를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상상 여행지에서 현지 주민처럼 한 달 정도 여유 있는 시간을 그곳에서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과거 잠시의 여행에서 느꼈던 그곳에서 좀 더 오래 머물고 직접 살아보고 싶었던 열망이

몇 년 후의 상상 여행 속에서 상징체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며 현지 주민인 것처럼, 일상처럼 행동하며 현지 숙소에서 오랜 기간 머무름은 편안하고 느긋하고 여유 있는 감정들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 위와 같은 로컬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기 위한 숙소가 아닌, 현지 지역과 어떠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숙소에서 오로지 경제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호화로운 숙소에서의 머무름 현상도 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은서), '크고 편안한 에어비앤비'(희은), '고급 호텔'(명수) 등 호화로운 숙소에서 머무름이 나타났으며, 심지어, 호텔의 지역은 모두 달랐음에도 불구하고(은서-프라하, 희은-뉴질랜드, 호주, 명수-카이로, 샤름 엘 세이크, 소연-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스위스 베른, 동남아 리조트), 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호텔에서나 누릴 수 있는 유사한 서비스와 행동이 나타났다. 현지 지역이나 국가와는 관계없이 비슷한 행위들이 보였던 까닭은 경제적 제한이 없는 상상의 영역에서 호화롭고 고급진 숙소에 머물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만족감을 풍성히 채우기 위해서였으며, 이때 숙소가 로컬의 분위기를 띠느냐 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이들의 상상 여행에 등장했던 '프라이빗한 에어비앤비'(희은), '힐튼 호텔급의 숙소'(명수)와 '한국에서는 아파트'(희은), '호스텔'(명수) 과 같이 현재 머무는 장소 또는 과거의 만족스럽지 않았던 숙소가 극명한 대비를 이룸으로써 더욱 경제적 만족감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이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호화로운 숙소에서의 머무름은 경제적 만족감만 채워줄 뿐만 아니라 '편안'(희은), '단란'(희은), '안전'(명수)과 같은 긍정적 기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3) 음식점·카페에서의 머무름

상상 여행자 중 일부는 음식점, 카페에서 음식, 음료를 먹으며 머무름 현상을 보였다. 상상 여행에서 식도락을 즐기며 머무르는 행위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음식을 섭취하는 기본적 의식주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체험자의 기분 상태,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상상 여행자들은 현지에 대한 체험으로서 음식점, 카페에 머물고 있었다. 이는 현지를 더욱 체험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냈으며, 여행에서의 재미와 신나는 감정을 더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음식점, 카페에서의 머무름은 미학적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어 즐거움을 주고 있었다.

먼저, 현지에 대한 체험으로 레스토랑, 카페에서 머무는 현상이 드러났다(소민, 효영, 효진, 은서, 도영, 가희, 준서). 이들은 되도록 현지와 깊은 관련성이 있거나, 그 지방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맛보며 현지와 강한 연결을 원했다. 소민의 여행기에서는 로컬 음식을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중국에 도착해서는 내몽골식 우유차를 먹을 것이다. (예전 내몽골 출신 친구가 권했는데 먹지 못한 것이 아쉬움) 잘 모르는 내몽골식 음식과 양고기와 우유차를 먹고 운남으로 간다.' 라고 밝히면서, 과거 소민이 시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었던 내몽골식 음식과 양고기와 우유차를 상상 여행 속에서는 실현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더불어, 소민은 러시아 음식이 맛있으며 식육점이 매우 재미있고 러시아 킬문자나 러시아 샤워 크림과 같은 현지문화들을 언급하면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를 넘어 "재미"를 위한 현지에서의 체험의 일환으로서 현지 음식점, 식육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였다.

한편, 음식점, 카페에서 머무는 현상은 미학적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며 즐거움, 여유로움, 행복한 감정을 더해주는 모습이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머무름은 낮의 풍경이나 밤의 야경이 둘러싸인 음식점, 카페에서 일어났다. 채원의 상상 여행에서는 태국 '치앙마이. 거리의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쉬고 있다. 그 온도와 거리를 느끼고 있다.'고 표현하여 치앙마이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의 머무름이 채원에게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행 중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한 머무름은 아름다운 야경이 어울러진 고급 레스토랑이나 숙박시설에서 일어났다. 예를 들어, 희은의 경우 '뉴질랜드' 여행에서 "저녁에는 아주 좋은 경치에서" '에어비엔비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미학적 야경과 함께 '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라희는 '예쁜 야경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야외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다'고 표현하여, 미학적 야경에서 저녁을 먹기 위한 머무름이 곧 행복한 감정과 연결됨을 나타내었다.

4) 쇼핑·기념품점에서의 머무름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상상 여행 속 쇼핑 및 기념품을 사기 위해 시장, 마트, 거리에서 머무르는 현상을 보였다(민영, 효영, 소민, 혜림, 은서, 가희, 유라, 명수). 대부분 상상 여행 속 등장하는 쇼핑 및 기념품점에서의 머무름은 현지와 깊은 연결성을 느끼기 위한 쇼핑을 하는 경우였으며, 이러한 장소에서 머무르며 행해지는 쇼핑은 재미와 행복한 감정들로 연결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쇼핑을 위한 머무름에서 다른 사람 선물만을 고르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은 자아를 발견하여 깨달음을 얻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현지에서 기념품을 사는 과정에서 자신을 위한 선물이 아닌 다른 사람 선물들만 골랐던 민영은 상상 여행 속 선물을 고르는 과정에서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 "안다이라는 곳에서 쇼핑을 했는데, 선물을 고르고 구경을 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누구를 주고 싶었는데, 이건 같이 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리움과 어떤 슬픔과 동시에, 제가 진짜 크게 깨달은 점이 내가 나를 소중하게...(눈물)...제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더라고요...(눈물)...그래서 그게 감사했어서 눈물이 났고..."(민영)

위의 사후인터뷰에서 언급된 것처럼, 민영은 상상 여행 속 일본 오사카 안다이에 머무르며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의 선물만을 고르던 자신을 발견했다. 이러한 행동은 민영에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하였다. 사후인터뷰에서 민영은 자신의 상상 여행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설명할 때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고, 앞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상상 여행 중 쇼핑 또는 기념품을 구매하기 위해 들린 장소의 영역들은 현지와 깊은 연결성을 느끼게 해주었고, 이러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구매 활동은 재미와 행복한 감정들로 이어졌다(효영, 소민, 혜림, 은서, 가희, 유라, 명수). 효영의 경우, 일본 도쿄 시내로 가서 쇼핑을 하고 요요기 공원 벼룩시장에 들러 센과 치히로를 비롯한 지브리 회사에서 만든 영화 피규어를 구매하여 일본 현지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현지와 깊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신을 위해 선물을 구매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아기자기한 소소한 것에 행복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은서는 터키(현재 튀르키예)와 이탈리아로 떠난 상상 여행에서 현지를 더욱 느끼기 위한 쇼핑으로 특색있는 옷, 물건들을 쇼핑하였다. 평상시 여행에서도 현지에서 기념품 사는 걸 좋아한다고 밝힌 은서는 상상 여행 속 쇼핑을 행하면서 ‘많이 걷고 움직이지만 즐겁고 새롭고 행복하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소민의 경우, ‘운남에서는 꼭 차 가게에 들러서 차를 사갈 것이다. 개완도 살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운남의 현지문화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었다. 소민은 상상 여행 속 기념품을 많이 사서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나눠주겠다고 밝히며, 자신이 좋아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들을 고르고 나누어주는 행위를 통해 더욱 여행의 재미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집트 여행을 시도했던 명수의 경우, 현지 기념품을 시장 및 시내에 머물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줄 ‘상형 문자로 새긴’ 이집트스러운 기념품을 사면서 ‘여러 기념품을 사는 것은 언제나 재미있다’고 기술하여 쇼핑이라는 행위를 통해 재미있는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라는 뉴욕 ‘Soho에 가서 한 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쇼핑’을 하며 ‘돈 걱정 없이 사고 싶은 옷들, 가방들을 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경제적 제한이 없는 상상의 영역 속에서 마음껏 쇼핑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 4 절 치유감 형성 작용 논의: 모빌리티(수단)·사회적 관계·머무름의 상호연결과 깨달음

제 6 장은 상상 내 모빌리티가 어떻게 치유적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상 모빌리티 사례 중 하나인 상상 여행 실험에 참여한 실험군 연구참여자 25명의 상상 여행 글쓰기, 그림 그리기 및 사전, 사후 인터뷰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게 된 답은 상상 내 모빌리티는 내면의 지리를 탐험하며, 그 내면의 지리에 심겨있던 갈망들이 표상화된 모빌리티적 요소(모빌리티 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 등)들이 각기, 상호 연결되어 깨달음을 줌으로써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상상 여행 실험을 통해 알아본 상상 내 모빌리티는 다양한 모빌리티적 현상 중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상 여행 속 등장한 모빌리티적 현상들은 상상 여행 전후 사이로 크게 세 가지 방식들로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고 있었다.

첫째, 상상 내 모빌리티 속 등장한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의 모빌리티적 요소들은 각기 연구참여자들의 기분이나 감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치유감 형성에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하음의 상상 여행 속 비행기 모빌리티는 직접적으로 설렘이나 기대감을 들도록 하는 작용을 하였다. 도영의 그리스 상상 여행 중 새로운 여행 동무(사회적 관계)와의 만남이 새롭고 활기찬 기분을 더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하음은 상상 여행 속 오키나와에서 한 달 살기(머무름)는 매우 편안한 감정과 연결되는 작용이 있었다. 이처럼, 상상 내 모빌리티에서 나타났던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의 요소들은 각기 연구참여자들의 기분, 감정, 느낌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상상 내 모빌리티에서 등장한 모빌리티 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의 요소들은 각기 따로 치유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세 가지 모빌리티적 요소들이 상호연결(interconnection)되어 함께 치유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지혜는 바람과 구름(모빌리티 수단)을

타면서 자유롭게 이동하였으며, 구름 모빌리티가 자기 자신으로 표상화된 아이(사회적 관계)를 꼭 안아주면서 치유의 눈물을 흘렸다. 엄지의 경우, 교회나 성당같은 조용한 예배당(머무름)에서 이모, 엄마, 사촌 동생(사회적 관계)과 함께 치유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였다. 라희는 반가운 사람(사회적 관계)과 함께 넓게 펼쳐진 논들, 노을, 탁 트인 바다(머무름)를 맨발로 걸으며(모빌리티 수단) 치유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의 요소들은 각기 연구참여자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연결되어 치유감 형성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의 모빌리티적 요소들은 연구참여자들의 내면을 상징하여 자신이 원하고 있었던 방향을 나침반처럼 가리키어 깨달음을 줌으로써 치유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혜리는 평소 가고 싶었던 캐나다가 아닌 물이 있는 휴양지(머무름)에서 상상여행을 보내며 물속에서 마치 물고기같이 노는 액티비티(모빌리티 수단)를 시도하였다. 예전에는 빽빽하게 배우고 경험하는 여행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푹 쉬게 하고픈 속마음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었다. 유라는 과거 자신의 소중한 장소였던 뉴욕(머무름)에 머물며 자신도 모르게 뉴욕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으며, 상상여행이 끝날 때까지 혼자 여행(사회적 관계)을 하는 모습을 보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민영 역시, 일본 오사카 안다이의 한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머무름) 다른 사람의 선물(사회적 관계)만 고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상상 내 모빌리티의 층에서 등장한 각기, 또는 상호연결된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의 현상들은 참여자들의 내면 속 진정으로 원하고 있었던 갈망(desires)을 나침반처럼 가리키는 상징 역할을 하여 치유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상 여행 중 나타난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의 모빌리티적 현상들은 내면의 지리(inner geography) 속 진정으로 갈망들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암시하고 있는 상징들을 연구참여자가 알아채는 순간, 몰랐던

갈망들을 깨닫게 되어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상상 내 모빌리티 치유감 형성 작용 원리는 상상 내 모빌리티 속 등장하는 모빌리티 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의 각 모빌리티적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자들의 기분, 감정과 연결되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며, 이들이 상호연결되어 함께 치유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며, 내면의 지리에 심어져 자신이 진정으로 갈구하고 있었던 갈망을 상상 내 모빌리티가 지나갈 때 나침반처럼 알려주는 상징체로서 등장하여 몰랐던 자아에 대한 이해를 상승시켜 치유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그림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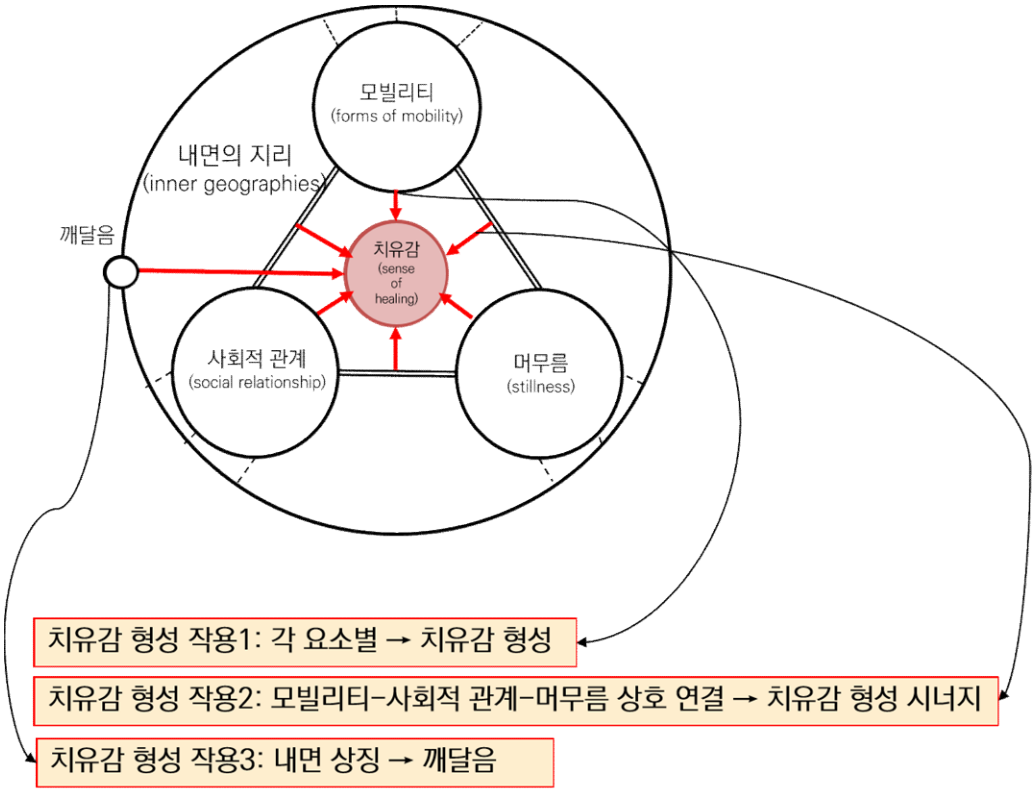

그림 6-14. 상상 내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

상상 내 모빌리티의 단계에서, 본 연구는 '갈망(desires)'과 '내면의 지리(inner geographies)'가 있었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서 갈망(desires)은 외부로부터 내면화된 관념이라기보다 무의식적 갈망에 가까운 의미이다. 갈망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순 있으나, 타고난 무의식적 기질에 의해 형성된 갈망을 상상 내 모빌리티를 통해 발견하게 될 때 더욱 큰 치유적 작용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지혜는 원래부터 이상적 기질이 타고난 사람이었으나, 취업준비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외부 조언을 듣고 현실적이지 않았던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했으며, 이상적이었던 자신을 미워하고 탓했다. 그러나 상상 여행에서의 각 모빌리티 유형, 사회적 관계, 머무름 현상들은 자기 자신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무의식적 갈망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망을 상징하는 모빌리티적 현상들을 상상 내 모빌리티를 통해 탐험하면서 발견하게 되고선, 결국 치유감이 형성되는 작용을 겪은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외부적 상황의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 내 모빌리티를 통해 내면의 지리를 탐색하고 결국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내면의 갈망을 찾아 깨닫게 되어 치유적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결국, 상상 모빌리티 과정 중 상상 내 모빌리티는 내면의 갈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치유적 작용을 하였다.

나아가, 모빌리티 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 같은 모빌리티적 현상들로 표상된 갈망들이 심겨있는 공간은 내면의 지리(inner geographies)[19]이다. 내면의 지리란, 사람의 마음속에 형성된 지리를 뜻한다. 현실 공간에서 땅, 산, 들, 강 또는 공간, 경관, 장소, 모빌리티, 네트워크 등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지리와 그 지리적 현상들이 존재하는 물리적 세계가 있듯, 사람의 마음속에도 지리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내면의 지리 형성은 외적인 경험과 내적인 기질 모두가 영향을 미친다. 상상 모빌리티 중 특히 상상 내 모빌리티는 이러한 내면의 지리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상상 내 모빌리티가 내면의 지리에 군데군데 심겨있는 개인의 무의식 속 내재된 갈망으로 표상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탐험하며 돕기 때문이다.

이전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를 통해 개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내면의 지리로 가져오고 내면의 흐름에 집중한 이후, 상상 내 모빌리티를 통해 내면의 지리를 탐험하는 동안 개인들은 내면의 지리에 잠재되어

19)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상상 여행을 그림으로 그리는 과정에서 마음속 "내면의 지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내면의 지리(inner geographies)라는 용어는 융의 적극적 상상을 다룬 심리학 문헌 중 하나인 <내면 작업(inner works)>(Johnson, 1986)이라는 용어를 참고하여 마음속 지리를 표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직접 명명한 것이다.

있었던 그동안 알지 못했었던 무의식적 갈망들로 표상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내면의 지리에 심겨있던 표상화된 요소들은 각기 또는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기도 하며, 이를 발견하며 깨달음을 얻는 순간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기도 한다. 상상 모빌리티의 전체 과정 중 특히 상상 내 모빌리티를 통한 탐험은 상상 모빌리티가 치유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였던 핵심과정이었다.

제 7 장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mobilities from imagination) 치유감 형성 작용

제 7 장은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가 어떻게 치유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란, 상상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돌아와 상상 내 모빌리티를 통해 탐험했던 내면의 지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본 장에서는 상상 여행 종료 2주 후와 8주 후 일상으로 돌아온 실험군 연구참여자 중에서도 부정, 기분상태, 불안 종속측정치에서 높은 평균 변화량을 보고한 8명(민영, 지혜, 민희, 라희, 하음, 소민, 도영, 엄지)의 인터뷰 내러티브만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다른 실험군 참여자들보다 상상 여행 속 겪었던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을 일상 속에서 재구성하여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또 한 번의 치유를 얻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상상의 영역에서의 모빌리티 관계망 및 스케일의 구성은 현실의 일상 영역과는 차이점이 있었으며, 현실 세계의 외부 제한 요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내면의 지리를 실천해나갔다.

제 1 절 일상 속 상상 모빌리티 실천

1. 자발적 모빌리티 실천

상상 여행 종료 2주 후와 8주 후, 부정, 기분상태, 불안에서 효과적인 감소를 보였던 연구참여자 8명은 상상 속 경험했던 모빌리티를 자발적으로 실제 현실로 갖고 와 다양한 모빌리티 유형으로 실천해나갔다. 이들은 비물리적으로 상상 여행을 다시 시도해보기도 하였으며, 상상 여행을 실제 물리적 모빌리티로 옮겨 다양한 스케일에서 실천해나갔다. 물리적 모빌리티로 실천해 나간 예는, 집 근처 근린 범위에서부터 서울 내, 서울 근교,

국내 장거리까지 다채로운 스펙트럼이 있었다. 이들의 실천된 모빌리티 사례들은 대부분 그들이 경험했던 상상 여행에서 확장되어 나타났다. 이들은 단 한 번의 상상 여행을 경험했지만, 이것이 또 다른 모빌리티를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승시켰으며, 이들은 곧 현실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비물리적 또는 물리적 모빌리티를 실천하였다. 결국, 이렇게 실천된 모빌리티는 또다시 이들의 감정과 기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치유감 형성 효과를 지속시켰다.

아래 그림 7-1은 8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상상 여행을 한 이후, 이에 대한 연장 선상에서 현실 속 모빌리티들을 실천해 나간 사례를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아래 서술에서는 상상 여행의 경험이 어떻게 현실 속 모빌리티로 실천되어 치유감 형성에 작용할 수 있었는지,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 사례들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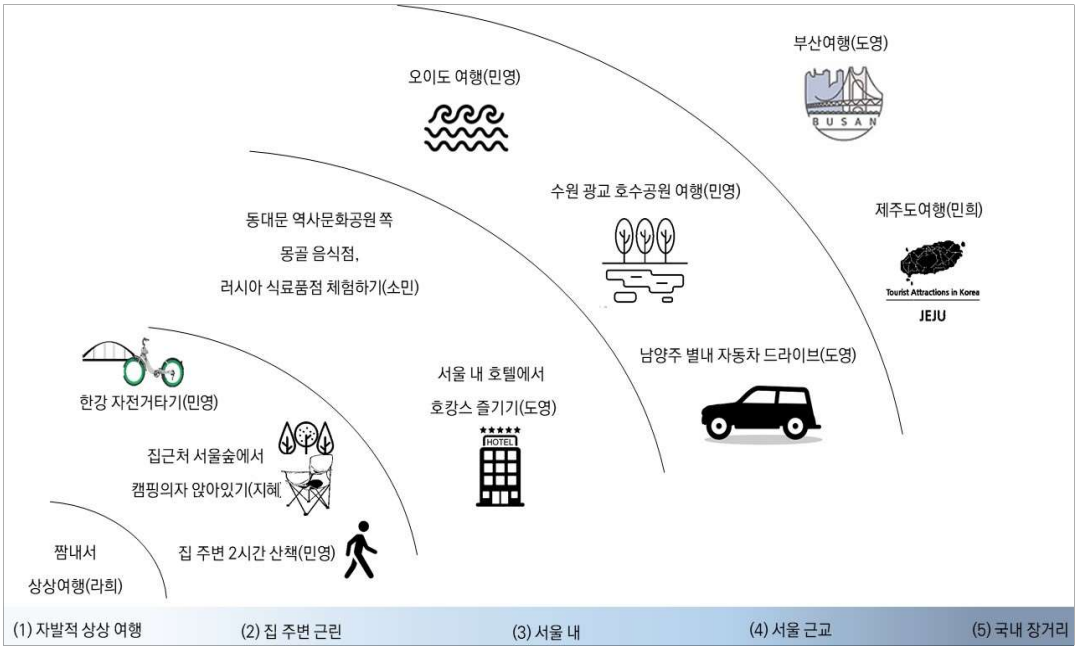

그림 7-1. 상상 여행 종료 이후 실천된 모빌리티 스펙트럼

1) 자발적 상상 여행

상상 여행 종료 후, 라희는 자발적으로 또 다른 상상 여행을 시도했다. 연구자는 실험군 참여자들에게 더 이상의 상상 여행을 시도하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오로지 참여자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졌다. 라희는 상상 여행 종료 후, 2회 정도 일상 속에서 자발적 상상 여행을 시도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상상 여행을 시도했던 이유는 “저번에 해봤을 때 약간 기분이 업 되는 느낌이 있어서 몸이나 기분이 처질 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해봤던 거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틈틈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상 여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자발적으로 실천한 상상 여행에서는 연구 참여 시 실시했던 상상 여행이 연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1차 조사 시, 라희는 ‘드넓은 들판, 탁 트인 바다’ 같은 자연 속 머무름을 생각했다(그림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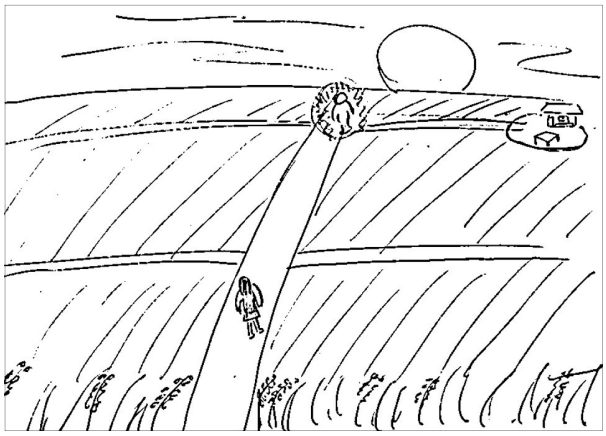

그림 7-2. 상상 여행 속 자연 속 머무름이 연장된 라희

이후, 스스로 시도해보았던 상상 여행에서는 “밭, 원두막 같은 그런 곳에서 여유롭게 쉬는” 또는 “공원 같은...(중략)...집 근처나 서울에 있는 공원 같은 비슷한 데를 상상”하여 지속적으로 1차 조사 시 상상했던 자연과 유사한 장소로 가는 비물리적 모빌리티를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라희가 이러한 자발적 상상 여행을 시도했던 시간과 장소는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면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였다. 그러나 현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상상 여행에 집중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는데, 라희는 버스, 지하철에서 상상 여행을 몰입하고자 하면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와서 상상에서 깨었다가 다시 몰입해야 하는 순간들을 반복하였다. 현실의 공간에서는 많은 제한 요소들이 개입되는 가운데 비물리적 상상 모빌리티를 시도하였는데, 라희는 이러한 상상 여행에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여 순간순간 기분을 상승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 집 주변 근린 범위에서 실천된 일상적 모빌리티

1차 조사 시 비물리적 상상 여행은 2주 후와 8주 후 실제 현실 세계 속 물리적 모빌리티로 실천되었다. 실질적으로 실천된 모빌리티 중에는 집 주변 근린 스케일에서 이루어진 모빌리티가 있었다. 이러한 집 주변 근린 스케일에서 행해졌던 모빌리티는 비록 상상 여행에서는 넓은 범위에서의 모빌리티였으나, 이를 참여자들이 일상 속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모빌리티로 변형시키기 위해 더욱 좁은 범위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실천하는 모빌리티로 수정하였고, 이는 상상 여행 이후에도 치유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민영은 집 근처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집 주변 한강 근처를 2시간씩 산책하기 등 근린 범위에서 일상 속 모빌리티를 활발하게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민영의 움직임은 1차 조사 당시 상상 여행 속 제주도에서의 깨달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그림 6-8). 원래 민영은 '호기심을 가지고 탐방하고 돌아다니는' 동적인 모빌리티를 좋아했으나 1차 조사 상상 여행 때 과거 제주도 여행에서 자신의 성향과는 다르게 남자친구에게 맞춰주기 위해 정적인 행태를 취했던 후회감과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상상 여행에서 다른 사람만큼 나 자신도 돌보고 사랑해주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상 여행 속 깨달음은 2주 후와 8주 후 원래 민영의 성향에 맞게 동적인 모빌리티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민영은 자전거를 2년 전부터 타오긴 했으나 상상 여행 이후부터 2주 동안 자전거를 타는 횟수가 더욱 증가했음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집

주변 한강을 따라 자전거 타기는 “정말 힐링이 되는 거 같아요” “특히, 한강에서 보이는 야경이, 저녁에 타면 보이는 야경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같아요” 라며 실제 자전거 모빌리티의 실천이 민영에게 또다시 2차적 치유를 느끼게 해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서 8주 후 인터뷰에서, 민영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취직을 한 상태였으며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짬을 내어 금요일 또는 체력이 괜찮은 날에 집주변을 2시간씩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말에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더욱 치유를 느끼기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일주일 안에 힐링이라는 요소를 일정에 넣어 패턴적으로 생각하게 된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상상 여행 자체가 그냥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힐링을 해야겠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평소에 일주일을 살면서도 주말이라고 하는 시간에 힐링된 요소를 분명히 두고 뭔가를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같아요.”(민영)

즉, 민영의 상상 여행은 정적인 행태에서 동적인 모빌리티로 실천하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비록 상상 여행에서는 스케일이 넓은 범위에서 모빌리티가 행해졌지만 실제 현실 공간에서는 평상시 집 주변 근린 범위의 모빌리티로 변형되면서 짬짬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치유감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돕고 있었다.

또한, 1차 조사 상상 여행 당시에 구름 모빌리티를 행했던 지혜는 2주 후, “캠핑 의자”를 직접 사서, 8주 후, 집 근처 서울숲에 가 캠핑 의자에 앉아 “상상 여행처럼 제가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기를 4회 정도 반복했다. 지혜는 비록 상상 여행 시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구름 모빌리티를 행했으나, 이를 일상 속에서는 들고 다니기 쉬운 접이식 캠핑 의자를 통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 숲에서 실현 가능한 모빌리티로 변형시켰다. 지혜에게 이러한 간편한 캠핑 모빌리티는 “그때는 이렇게 안 하면은 약간 안될 거 같은?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었다. 지혜에게 캠핑 의자에 앉아 상상 여행에서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으며, “명상”하며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취함은 그녀의 마음을 “비워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서울 내 대안적 모빌리티

상상 여행은 근린의 범위를 넘어 서울 내 스케일에서도 실제적 모빌리티가 행해지도록 도왔다. 상상 여행을 서울 내 스케일에서 옮긴 경우는 주로 상상 여행의 내용을 현실 속 제한으로 인해 최대한 대안적인 방식으로 옮기고자 노력한 모빌리티 형태를 띠고 있었다. 대안적 방식으로 실천된 서울 내 모빌리티는 상상 속 여행을 실제로 다녀온 것 같은 체험의 느낌을 허락하였다. 이 같은 점은 상상 여행 속 경험한 모빌리티가 확장되어 실제 모빌리티 재현을 통해 또다시 치유를 느끼게 도와주었다.

소민은 상상 여행 속 내몽골, 러시아, 운남 등 지역 문화에서 경험했던 모빌리티를 실제 서울 내 위치한 몽골 음식점과 러시아 식료품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안적인 방법으로 상상 여행 속 경험을 몸소 체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그림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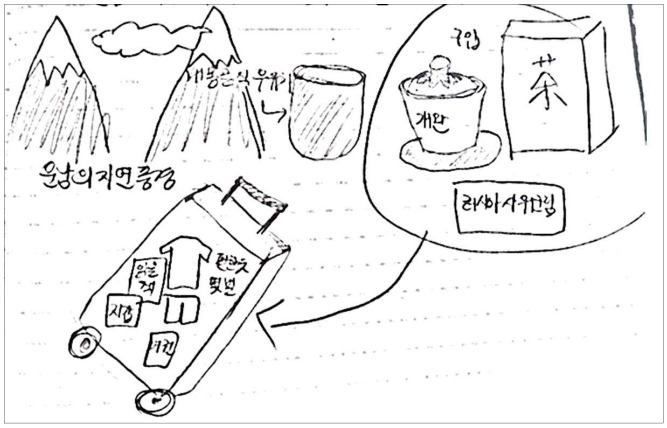

그림 7-3. 상상 여행 속 현지문화 체험이 실제로 확장된 소민

그림 7-3에서 살펴보면, 과거 내몽골에서 우유차를 먹지 못해서 아쉬움을 드러냈었던 소민은 상상 여행에서 횡단 열차를 타고 내몽골에 방문하여 우유차를 먹어보았는데, 실제로 2주 후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서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위치한 몽골 레스토랑에 직접 방문하여 우유차를 먹어보며 몽골 문화를 체험하였다. 이어서, 소민은 상상 여행 속 러시아를 방문했던 경험을 되살려 실제 몽골식당 근처에 있는 러시아 식료품점까지 들리게 되었다. 상상 여행 속 현지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 등장했던

러시아 사워크림을 실제 러시아 식료품점에 들려 러시아 사워크림을 사고, 러시아 차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민은 내몽골과 러시아를 직접 가지 않았음에도, 서울 내 스케일에서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음식점, 식료품점을 대안적으로 찾아다니며 문화 체험을 시도하였다. 연구자는 “몽골식당 가신 것이 정말 상상 여행에서 우유차를 먹는 것을 상상해서 가신 것인가요?”라고 재차 질문했고, 소민은 “네, 약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계속 그때부터 우유차, 우유차 그랬는데 진짜 가서 먹고 좀 뿌듯했어요. 긍정적인 기분이었어요”라며 직접적으로 몽골 여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상상 여행 이후, 상상 여행 속 나온 지역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노력을 행하고, 실제 대안적인 몽골 레스토랑과 러시아 식료품점에 찾아가는 모빌리티를 행하였으며, 음식, 음료, 식료품을 사고 체험하는 실천으로 연결됨으로써 “힐링”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소민은 친구와 함께 이곳들을 방문하였는데, 친구 역시 ‘여행을 한 것 같다. 너무 힐링이다’라는 기분을 표현했기에 지역 문화를 직접 가지 않고도 여행한 기분을 친구와 함께 공유할 수 있었기에 더욱 치유감이 형성되었다. 나아가, 8주 후 소민은 또다시 그때의 몽골 음식점, 러시아 식료품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번 더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다시 특색있는 몽골 우유차를 마시고, 러시아 식료품점을 방문하며 상상 여행에서의 경험을 계속하여 확장하고 지속시키는 모습을 드러냈다. 결국, 상상 여행은 소민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하며, 내몽골, 러시아에 직접 가진 못하지만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서울 동대문 일대 몽골 레스토랑과 러시아 식료품점까지 가게 하는 모빌리티에 영향을 준 것과 더불어, 이러한 현실 속 체험을 친구와 함께 공유하는 모빌리티를 2주 후, 8주 후에도 확장시켜 치유감을 지속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더불어, 도영은 상상 여행 속 그리스 산토리니, 이탈리아 나폴리, 소렌토, 포르투칼의 포르투를 다니며 비슷한 또래의 여행 동무, 로컬 사람들과 활발한 사회적 모빌리티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상상 여행은 2주 후 실제 도영의 삶 속에서 서울 내 호캉스를 친구들과 함께 가는 대안적 모빌리티로 실현되었다. 연구자는 정말로 호캉스를 간 것이 상상 여행 때문이었냐고

되물었는데, 이에, 도영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대답하며 실제로 호캉스를 간 것이 상상 여행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였다. 연구자는 “다른 이유에서 호캉스를 다녀온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재차 “아니요, 아니요. 진짜 똑같이 상반기에 그때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안 갔거든요. (상상 여행 이후) 여유가 생겼어요. 저도 좋았어요. 멀리 가지는 않더라도 일단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호텔에서” 라며 멀리 가지 않더라도 서울 내 호캉스를 통해 대안적으로 모빌리티를 실천하며 충족할 수 있었다. 즉, 상상 여행이 굳이 멀리 가진 않더라도 집과는 다른 환경의 변화를 주어 여행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호캉스를 다녀오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호캉스에서 “되게 좋았어요. 창도 되게 크고, 바깥에 한강 보이고, 동생이랑 열심히 살아야겠다. 한 번씩 이런 곳 와야지” 하며 도영은 상상 여행 이후 느꼈던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이 실제로 실천된 호캉스 여행에서 다시 한번 상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도영은 시내 호캉스를 넘어,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스케일이 더 넓어진 부산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4) 대중 교통을 통한 서울 근교 모빌리티

상상 여행 이후, 서울 범위를 벗어나 교외로 모빌리티가 실천되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 근교 모빌리티 역시 상상 여행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목할 만한 특징은 연구참여자인 취업 준비 청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 속 제한 속에서 최대한 상상 여행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 위해,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빌리티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실질적 모빌리티는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고 있었다.

상상 속 “발리 선비치”에 누워 편안히 책을 읽는 여행을 했던 민영은 지속적으로 발리 선비치 같은 “물가”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대안적 장소들을 찾아 실제 여행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영은 상상 여행 속

발리 선비치 대신 2주 후 “오이도”, 8주 후 “수원 광교호수공원”으로 모빌리티를 실천하였는데, 이는 모두 물가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민영은 상상 여행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치유를 느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저는 바다나 호수 같은 물을 보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더라구요”라며 상상 속 발리 선비치 주변을 머물렀던 모습을 통해 자신만의 힐링 플레이스가 물가 주변이었음을 깨닫고 실제로 의도적으로 물가 주변을 탐색하였다. 민영은 상상 여행에서 발리 선비치를 배경에 두고 책을 읽었듯, 실제 여행에서 오이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카페에 잠시 머무르며 인생 노트를 작성하였다(그림 7-4).

그림 7-4. 상상여행 속 선비치 책읽기(민영)
주: 상상 여행 속 발리 선비치에서 책읽기가 실제 오이도 여행에서 인생노트 작성하기로 확장된 민영

민영의 인생 노트 내용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목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이 무엇인지”, “이전에 그 경험들의 장점과 단점”, “내가 어딜 가야 하나” 등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내려가는 것이었다. 민영은 오이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4시간가량 머물며 인생 노트를 정리했고, 이러한 의미 있는 머무름은 민영에게 “힐링이 좀 많이 된 시간”을 선사하였다.

특히, 민영은 “오이도”나 “수원 광교호수공원”과 같은 물가가 있는 장소에 가기 위해 비교적 서울에서 가까운 근교 여행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주로 지하철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주변 도시까지 패키지 여행처럼 관광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민영의 모빌리티 행위는 상상 여행을 실제 현실 공간으로 옮길 때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법에서 모빌리티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2주 후 인터뷰에서 민영은 상상 여행 이전, 그동안 다소 풍요롭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기에 여행은 매우 사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상상 여행 이후, 낯선 곳에 가기만 해도 리프레시되고 힐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리하여, 민영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상 속 발리와 같은 “바다”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그 대안으로 민영의 주거지인 서울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스케일에 위치해 있으며 당일치기가 가능한 “오이도”와 “수원 광교호수공원”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물가”을 찾아 치유를 얻게 된 것이었다.

5) 부모님 시선과 연계된 국내 장거리 스케일 모빌리티 실천

마지막으로 “부산”, “제주도” 같은 국내 장거리 스케일에서 모빌리티가 실천된 사례가 있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국내 장거리 스케일에서 행해진 모빌리티는 오랜 시간 동안 모빌리티가 이루어진 만큼 단거리 스케일의 여행보다 치유감 형성 효과가 높았으나, 이는 취업 준비 상황 속 부모님 시선과 연계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도영은 상상 여행 2주 후 다녀온 서울 내 호캉스 여행에 이어서, 8주 후 더 넓은 스케일에서 이루어진 부산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도영은 상상 여행이 실제 여행을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였으며, 비록 팬데믹 상황으로 상상 여행 속 다녀온 이탈리아, 포르투칼과 같은 해외여행은 아니지만 기회가 있을 때 여행을 가보자는 마음으로 서울 내 호캉스 여행에 이어 부산여행을 가게 하는데 상상 여행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 민희는 상상 여행 2주 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된 까닭에는 제주도 비행 티켓이 “왕복 3만 원”이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며, 원래부터 여행을 좋아하였기에 여행 관련 메일링 서비스를 해 놓고 있었던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여행을 실천에 옮기게 된 까닭은 상상 여행의 영향이 컸다.

특가나 메일링 서비스를 해놔서 제주도 여행을 간 것이지 상상 여행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민희는 “특가도 특가인데, 이전에도 사실 특가는 많이 왔었”지만, “전에는 약간 시험도 있고 좀 그렇지..” 라며 여행을 포기해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상상 여행을 하고 난 이후, “이거(상상 여행) 하고 나서 여행 가고 싶다 했는데, 그런 게 드렁드렁 올라왔는데,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것 같아요”라고 언급하며, 이전에는 여행을 시도하기를 망설였었으나 상상 여행이 실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상상 여행이 실제 제주도 여행으로 옮겨지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결국 민희의 “힐링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주었다.

또한, 상상 여행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장거리 스케일 모빌리티 실천은 단거리 스케일의 여행보다 더욱 치유적이라고 느끼게 하였다. 도영의 부산여행은 서울 내 호캉스 여행보다 더욱 재밌고 자유로운 느낌을 선사하였다. “아무래도 부산 간 게 더 재밌었어요. 호캉스보다 좀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또한, 민희는 상상 여행 속에서는 과거 유럽여행에서 친구와 함께여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2주 후 제주도에서는 비록 친구들과 함께 했을지라도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실현하는 여행을 행했으며, 아쉬움이 없는 실제 여행에 만족스러운 마음을 비추었다.

단, 도영과 민희의 사례를 볼 때, 장거리 여행은 단거리 여행과는 다르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에서 부모님의 시선과 연계되거나, 마음 한편에 부담감으로 자리 잡는 제약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현실의 영역이 제약을 받지 않았던 상상의 영역과 현저히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도영은 원래 고향이 부산이며 지금 부모님께서 사시는 본가 역시 부산이다. 그러나 친구들과 부산여행을 왔다고 말씀드리기엔 취업 준비 중에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며, 또한 부모님께서는 고향에 들리면 더 오래 머물기 바라시기 때문에 부모님께 여행을 간다고 말씀드리거나 찾아뵙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민희의 제주도 여행 역시, 부모님과

연계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민희는 시험과 취업 준비를 하는 가운데 부모님 눈치 때문에 쉽사리 여행을 시도하지 못했었으나, 상상 여행을 한 이후 민희는 “엄마 아빠는 여행 가는데 왜 나는 못 가!” 라며 용기를 품고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 민희는 취업 준비 중 부모님의 시선을 이겨내고 장거리 제주도 여행을 시도한 것이었다. 도영과 민희의 사례는 취업 준비 청년층에게 장거리 여행이 부모님의 시선과 연계되어 약간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2. 상상 여행의 수동적 떠올림

상상 모빌리티의 경험이 수동적으로 떠올라 치유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었다. 상상 여행 2주 후, 8주 후 치유감을 지속시킨 참여자들 중에는 상상 여행에 다녀온 기억이 일상생활 속 수동적으로 떠올라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물론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상상 여행을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제 비물리적 또는 물리적 모빌리티로 실천한 유형도 있었으나, 이러한 실질적 모빌리티를 생성하지 않았더라도 우연히 상상 여행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수동적 모빌리티를 행하며 순간순간 기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다. 비록 융의 적극적 상상에 따르면, 상상은 수동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떠올려야 치유에 도움이 되지만, 적극적 상상에 기반하여 의도적으로 몰입했었던 상상 여행의 경험이 수동적으로 떠올려지는 것은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상 여행의 수동적 떠올림이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였던 지점은 상상 여행에서 경험했던 모빌리티를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거나, 일상 속 미디어 매체가 상상 여행 기억을 자극시키거나, 또는 심적으로 부정적 기분에 휩싸일 때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절로 상상 여행의 긍정적 기억들이 불러일으켜 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지난 능동적 상상 여행의 잔상이 수동적으로 떠오를 때마다 큰 변화는 아니나 부정, 불안, 기분 상태를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첫째, 일상 속 마주치는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 매체들이 상상 여행의 기억을 되살리고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단추로서 작용하였다. 상상 여행 속 구름 모빌리티를 행했던 지혜는 “구름 같은 거 평소에 보더라도 그때가 막 떠오르고, 그때 상상했던 게 떠오르고” 라며, 구름이라는 요소가 상상 여행 속 구름 모빌리티를 행했던 기억을 자극하는 매체가 되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러한 구름의 단추에 의해 상상 여행의 잔상들이 떠오를 때마다 지혜는 “편안함, 안락함, 따뜻함”의 감정을 느끼곤 했다. 더불어, “이번 연도에 좋은 날을 뽑아봐, 나한테 기억에 남는 날을 뽑아봐 하면은 그 상상 여행을 말할 거 같아요. 그중에 하나였어요. 저한테 그게 꼭 필요한 순간이기도 했고...(중략)...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라고 언급하여 실제 여행에 다녀온 것 같이 상상 여행을 했던 날이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으며 그 순간을 떠올리면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음을 고백했다. 하음의 경우는 일상 속 마주쳤던 비행기가 상상 여행의 기억을 자극하는 단추가 되었다. 하음은 상상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꼽았다(그림 7-5).

그림 7-5. 일상 속 비행기를 보며 상상 속 비행기 모빌리티를 떠올린 하음

이는 상상 여행 이후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창밖의 구름 보면서”, “비행기”를 보게 되었고, 이러한 비행기 모빌리티는 하음에게 떠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상상 여행 속 비행기 이륙 순간 설레고 기대감이 들었던 마음을 또다시 되살아나게 하였다.

둘째, 일상 속 미디어 매체가 상상 여행을 수동적으로 떠오르게 했다. 상상 여행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매체는 영상, 소셜미디어, 또는 상상 여행 때 기록했었던 글과 그림이었다. 상상 속 나폴리 여행을 갔었던 도영은 일상 속 잠들기 전, 우연히 나폴리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게 되었다. 이는 도영의 꿈속에서도 나폴리가 다시 등장하여 기억을 상기시켰는데, “다큐에서 바다 같은 거 나오면서 그때 말했던 나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다가 잤는데, 자기 전에 보거든요. 30분짜리였는데, 근데 진짜 나폴리 꿈을 꿔가지고...” 라고 말하며, 나폴리를 다녀온 상상 여행의 기억과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한 자극이 더해져 꿈까지 꾸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저는 (상상 여행이) 힐링에 도움을 주는 거 같아요. 아직도 그때 말씀드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막 다큐 봤을 때도 생각나서 꿈도 꾸고... 그 때부터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바쁘지만 조금씩 힐링을 찾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적극적 상상을 통해 접근한 상상 여행이 수동적으로 떠올려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도영의 치유감 형성을 돕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소민은 일상 속 상상 여행 시 기록했던 메모, 그림을 발견하고는 다시 상상 여행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제가 (상상 여행) 그림 그려놓은 거를 어쩌다 봤는데 그것 때문에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상상 여행의 치유감 형성 효과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상상 여행 글쓰기, 그림 그리기 자료를 주변에 놓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하음의 경우, 소셜미디어 매체에서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과거와 상상 여행 속 다녀온 오키나와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하음은 이미 다른 해외 지역 여행도 많이 다녀왔지만, 굳이 오키나와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던 이유는 최근 상상 여행을 통해 오키나와에 다시 다녀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도영, 소민, 하음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소셜미디어 매체 등 상상 여행경험과 관련된 자료를 참여자 주변에 노출 시키는 것이 상상 여행을 수동적으로 떠올리게 하여 상상 여행을 통한 치유감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켜 나가는 데 효과적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셋째, 심적으로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상상 여행의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5년 뒤 미래의 시점에서 상상 여행을 했던 엄지는 2주 후 인터뷰에서 입사 지원서를 넣었던 곳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엄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이도 있었고(조사 당시 30대 중반), 이제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우울하지만 '또 떨어졌어요'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주변 친구들 역시 아기엄마이거나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마음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취업에 실패하여 우울하고 힘든 감정에 휩싸일 때, "사람이 우울하니까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그때 가끔 (상상 여행) 생각이 났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부정적인 상황에 처할 때 상상 여행에서의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렇게 떠올려진 상상 여행의 긍정적 기억들은 지금은 비록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지라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여행 갔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되게 힐링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상상 여행의 기억이 순간순간 힘든 현실을 견디게 하는 희망을 가지게 했고 "힐링" 되는 느낌을 주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라희의 경우도 마음이 불안할 때 상상 여행의 기억을 떠올렸다. 라희의 8주 후 인터뷰에 의하면, 상상 여행의 기억이 "어느 정도 뇌의 일부에 남아있는 느낌이라서 그걸(상상 여행을) 생각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단 한 번의 상상 여행일지라도 그에 대한 기억들이 뇌에 인지되고, 그것이 마음이 불안할 때 다시 떠올려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효능이 있음을 나타냈다. 하음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상상 여행의 기억이 떠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엄지, 라희, 하음가 일상 생활 속 처해진 상황으로 생긴 부정적 감정들은 상상 여행에서 좋았던 기억들을 순간순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로 작용하였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떠올려진 상상 여행의 모빌리티 기억들은 부정적 기분을 긍정적인 기분으로 전환 시켜주는 작용을 하였다.

결국, 실험군 중 2주 후, 8주 후 효과적으로 부정, 기분 상태, 불안의 감정이 감소되었던 참여자들은 1차 조사 때 시도했던 상상 여행의 기억이 일상적 모빌리티 수단의 마주침, 미디어 매체, 현재의 부정적 감정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떠올려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득 떠올려진 상상 여행의 기억들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현실 상황에 겪고 있는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몰입했던 상상 여행은 실제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여운을 남기고 있었으며, 그 상상 여행의 순간이 수동적으로 떠올려지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기분을 낮춰주고 긍정적 기분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였다.

제 2 절 일상 속 사회적 관계 변화 및 재구성

상상 여행 종료 2주 후, 8주 후 부정, 기분 상태, 불안의 감정이 효과적으로 감소된 사람들은 모빌리티 실천과 더불어, 일상 속 사회적 관계를 상상 여행 이전과는 다르게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나와의 관계가 변화되거나, 주변의 친구들, 가족, 그리고 공동체·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관계에 재구성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적 관계는 또다시 연구참여자들의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1. 나와의 관계 변화

상상 여행 당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참여자들은 일상 속 나와의 관계 변화가 일어났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가시적 행위들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민영은 상상 여행 이후 자신과의 관계 변화를 겪었다. 민영은 상상 여행 속 일본 안다이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 선물만 고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지 않았음을 깨달아 많은 눈물을 흘렸다(그림 7-6).

그림 7-6. 상상 여행 속 안다이 쇼핑몰에서 머무름

주: 상상 여행 속 쇼핑몰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 선물만 사던 민영은 상상 여행 이후, 자신을 위한 선물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상 여행 속 깨달음은 상상 여행 2주 후 계속해서 민영에게 자아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도록 만들었다. 나아가 “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스스로에게 선물을 했을 때 행복할까?” 고민하다 실제로 자신을 위한 선물목록을 핸드폰 메모장에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민영은 메모장에 차곡차곡 선물목록을 작성해나갔고, 실제로 강남역에서 “귀걸이”, “옷 한 벌”을 자신을 위한 선물로 사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목록 작성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였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가시적 행위로 이어져 나갔다.

지혜의 상상 여행에서는 구름 모빌리티가 자기 자신으로 표상화 되었던 한 아이를 안아주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취업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많이 미워했었고 스스로에게 위로가 필요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상상 여행을 통한 나와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은 2주 후, 8주 후에 자신과의 관계 변화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지혜는 2주 후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다그치지 않았고 관대해졌으며 스스로에게 작은 일에도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상상 여행을 통해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깨닫게 되어 예전처럼 취업 준비를 위해 현실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상적인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에 더욱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스스로와의 관계 변화는 지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다주었다.

한편, 민영과 지혜의 나와의 관계 변화는 자신이 머무르는 공간까지 변화시키는 특징이 나타났는데, 이는 제 3 절에서 상세히 서술하였다.

2. 친구와의 관계 변화

상상 여행은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었다. 취업 준비를 하고있는 청년들에게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 변화는 주로 주말이라는 시간 때를 활용해 나타났으며, 이 같은 틈새 시간의 활용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 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영은 평상시 취업 준비를 위해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홀로” 공부해 왔으나, 상상 여행 이후에는 주말이라도 친구들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도영은 올해 상반기 취업을 준비할 시에는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의 기회를 최대한 자제하고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상상 여행 이후에는 비록 취업 준비로 바쁠지라도 짬을 내어 휴식을 취하기 위하길 원했고, 친구들, 아는 언니들과 함께 호캉스, 부산 여행을 다녀오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차를 새로 산 친구와 함께 남양주 별내 카페거리로 자동차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다가올 가을에는 차가 있는 친구와 함께 또 한 번의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만남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대학교 동기 모임이 취소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에 그룹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친구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도 하였다. 상반기에는 취업 준비로 인해 좋아하던 러닝 운동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상상 여행 8주 후, 도영은 이 모임에 참여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모임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사람들과 브런치 모임을 약속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이 같은 도영의 일상 속 사회적 관계 변화는 상상 여행 속 그리스에서 새롭게 만난 친구를 사귀는 경험을 좋아했었던 도영의 기질적 모습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민영은 상상 여행 이전에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주로 도서관-카페-집의 공간에서 “홀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보냈으나, 상상 여행 이후 평일은 평소처럼 취업 준비를 하고 주말에는 친구, 사람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패턴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주말 시간대를 이용한 사회적 관계 변화는 민영에게 평일에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3. 가족과의 관계 변화

상상 여행 이후 가족 간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가족과의 관계 변화는 자기 자신과 지역사회 스케일에서 사회적 관계까지

개선 시킬 수 있다는 인식변화를 동반하였다.

엄지는 상상 여행 이전에도 아픈 이모부를 병간호하고 있는 이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상상 여행 속에서는 아픈 이모부를 둘러싼 문제가 이모부가 편안히 하늘나라에 가신 상황을 가정한, 현재로부터 5년이 지난 미래의 시점을 사용하여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가족 관계를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상상 여행이 끝난 이후에 엄지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관계 재구성이 일어나진 않았으나, 엄지가 이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생겼음을 2주 후, 8주 후 인터뷰를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엄지에게 늘 가끔씩 걸려오던 이모의 어김없는 “안부 전화”에, 상상 여행 이전에는 하소연만 하는 이모에게 “이혼 서류 정리해!” 등의 자기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상상 여행 이후에는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이모의 힘든 심정을 “힘들겠다” 우호적으로 들어드리고 공감해주는 태도로 크게 변화하였다. 물론 이모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 배경은 최근 엄지가 취업실패로 인해 자신의 인생도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았기에 이모의 인생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이모와의 상상 여행경험 역시, “상상 여행했을 때 이모한테 잘 해 줘야지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내 이모에게 현실을 계산하는 거 보다, 이모에게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행복을 찾는 방향이 잘 들어 주는 거 같아서” 라는 깨달음을 줌으로써 엄지의 실제적 가족 관계 실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 변화는 엄지의 심경에 자기 자신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 엄지는 상상 여행을 통해 이모부가 겪고 있는 장애 문제에 대해 자신이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었지. 그걸 위해서 노력을 실제로도 많이 했고 기여한 바도 크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자신이 알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 스스로 좀 당당할 수 있겠다” 라며, 그러한 이모부를 간호하고 있는 이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작은 선한 실천이 결국 장애에 대한 지역사

회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 같은 가족과의 관계 변화는 결국, 자신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데 치유적 영향을 미쳤다.

4. 공동체·공공네트워크 관계 변화

상상 여행 이후, 공동체·공공네트워크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성격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라희는 상상 여행에서 주로 넓고 탁 트인 바다, 논들을 상상하여 자신의 답답했던 마음을 깨닫게 되었었는데, 2주 후 인터뷰에서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더욱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을 자주 만들어 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 참여하고 있던 청년프로그램에 더하여, 서울시 주관 “청년 인생 설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더 많은 공공네트워크와의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라희는 실제로 “상상 여행을 하고 나서 그거(청년인생설계학교)를 신청하게 되는 데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상상 여행 때 깨닫게 되었던 자신의 답답함이 너무 집 안에만 갇혀 지냈던 시간이 많아서였다고 판단하여, 사람들을 더욱 빈번하게 만나고 공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 밖에 자주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8주 후 인터뷰에서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잦은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는 라희의 성격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공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결은 상상 여행 이전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사전인터뷰와는 다르게 라희의 마음속 답답함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했고, 공공네트워크 속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 “명랑”하고 “활기”찬 성격을 되찾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3 절 일상 속 머무름 행태 및 공간 수정

상상 여행 때 얻은 치유감을 2주 후, 8주 후에도 유지 시킨 사람들은 머무름 행태를 수정하거나 자신이 머무르는 공간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드러냈다. 이는 자신만의 머무르는 공간인 자취방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머무는 온라인 공간을 변화시키는 가시적 행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신이 주로 머무는 공간의 변화로 인해 또다시 참여자들의 치유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1. 자취방 공간의 변화

상상 여행 이후, 자취방을 변화시킨 이들은 모두 위에서 말한 사회적 관계 중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한 사람들이었던 지혜와 민영에게서 나타났다. 이들은 상상 여행 이전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거나 미워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상 여행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 변화된 마음이 자신만의 머무름 공간인 자취방을 변화시키는 미시적 움직임으로 드러났다.

지혜는 이전에 자신을 미워했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8주 후 인터뷰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고 싶은 걸 더 해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 같은 태도는 결국, 자신만의 머무름 공간인 자취방까지 변화시키는 가시적 행위로 나타나도록 이끌었다. 이는 지혜의 8주 후 인터뷰 내러티브와 그림 7-7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상상 여행) 이후로... 원래 흰 색깔 천이었는데, 제가 좀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평소에도. 그래서 이게 나름 꽃잎 하나가 없어요. 뭔가 부족한 나도 사랑해주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중략)...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원래 이런 사진 안 걸어놓는데 제 어릴 때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머리맡에 붙여 놓고 자주 다듬고 있어요.”(지혜)

그림 7-7. 일상 속 머무름 공간인 자취방의 변화(지혜)

지혜의 내러티브와 그림 7-7처럼 지혜는 원래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던 흰 색깔 천에 love myself 표어를 직접 적어놓았으며 나아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벽에 꾸며놓고 자신의 내면을 다듬어 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상상 여행이 직접적으로 지혜에게 어린 시절의 사진과 love myself 표어를 붙이는 데에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선, “상상 여행 바로 직후는 아닌데 그 상상 여행이 시발점이 되는 거 같아요.” 라고 밝혔다. 지혜는 상상 여행이 자신의 니즈를 더 많이 깨닫게 하였고 나답게 살도록 내면을 돌아보도록 시작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자신만의 머무름 공간인 자취방을 변화시키도록 이끌었음을 나타냈다.

민영 역시, 8주 후 자신의 머무름 공간인 자취방에 변화를 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민영은 상상 여행을 통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음을 깨닫고는, 상상 여행 이후 계속해서 나를 위한 선물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이 목록에 적혀있던 리스트를 자신에게 직접 선물해줌으로써 곧바로 자신의 머무름 공간인 자취방을 변화시키도록 이끌었다. 상상 여행 이전, 민영의 자취방은 너무 좁고 필요한 것 빼고는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혀 꾸미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상상 여행 이후, 자신을 위한 선물목록을 작성하던 중 예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절에는 자신의 방에 인형을 두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형을 사기로 기록해두었다. 그리고선, 실제로 자취방에 인형을 두어 일상적 머

무름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실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만의 머무름 공간에 인형을 놔두는 실천은 민영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허락하였다.

2. 소셜미디어·온라인 머무름 공간의 변화

상상 여행 이후, 머무름 공간 변화는 오프라인 영역뿐 아니라 온라인 영역에서도 일어났다. 앞서서 다루었던 민영은 자취방뿐 아니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공간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민영은 자신을 위한 선물목록을 작성하던 중, 소질이 있었던 그림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컴퓨터에 연결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인 “타블렛”을 선물목록에 작성하고 직접 사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공간인 “인스타그램”에 계속해서 포스팅하는 실천을 행하였다. 이는 민영에게 단순히 일시적 실천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자 “도전의 하나”였다. 더불어, 소민은 온라인 쇼핑 머무름 공간에 변화가 일어났다. 소민은 상상 여행 속 나왔던 중국 운남에 대한 기억을 8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으며, 관련 상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 공간에 오래 머무는 양상을 드러냈다. 소민은 상상 여행 속 중국 운남에서 차를 샀던 것과 같이, 현실 속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직접 운남에 갈 수는 없지만 대신 온라인 중고판매 쇼핑 공간인 “당근 마켓”에 “운남 보이차”를 판매하는 탭에 “좋아요”를 눌러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민영이 타블렛을 사서 성실히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온라인 머무름 공간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모습과 소민이 상상 여행 관련 상품을 파는 온라인 중고판매 쇼핑 공간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현상은 평상시 빈번하게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머무름 행태를 변형시켜 상상 여행을 통해 얻은 치유감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켜 나가도록 작용하고 있었다.

제 4 절 치유감 형성 작용 논의: 제약된 현실 속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모빌리티 실천

제 7 장은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가 어떻게 치유적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상 여행이 끝난 2주 후, 8주 후에도 치유감을 지속시킨 실험군 연구참여자 8명의 인터뷰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게 된 답은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는 내면의 지리에서 그렸던 모빌리티 궤적을 제약된 현실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그려나가는 실천을 해나갈 때 지속적으로 치유감 형성에 작용할 수 있었다.

먼저, 상상 여행 때 얻은 치유감을 비교적 장기간 유지시켜 나갔던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의 치유감 형성 작용 단계를 거쳤다. 첫째, 상상 여행 중 나타났던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은 참여자들의 기존 관점에서 변화를 일으켰다. 둘째, 이러한 변화된 관점은 실생활 속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을 실천해 나갈 때 기존 방식과 다르게 행동을 수정하도록 이끌었다. 셋째, 이들은 상상 여행을 현실 세계 속 그대로 실천하기보다는 현실의 제한 속에서도 최대한 실현 가능한 (feasible) 방식으로 실천해나갔다. 결국, 상상 여행을 일상 속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을 재구성시킴은 상상 여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유감을 주는데 영향을 끼쳤다〈표 7-1〉.

표 7-1.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치유감 형성 작용 단계: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상상 여행 실천

상상 여행 속 모빌리티・사회적 관계・머무름	→	(1) 변화된 태도	→	(2) 현실 속 모빌리티・사회적관계・머무름 수정하기	→	(3)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실천하기

예를 들어, 민영은 상상 여행 이후 “저 특별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관한 갈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언급하며 (1) 상상 여행 속 경험했던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을 통해 안정을 구하는 태도 변화가 생겼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2) 상상 여행 속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을 일상으로 가져와 상상 여행 이전 삶을 살아가던 방식을 수정하기를 힘썼다. (3) 비록, 현실 속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동의 제한이 있었으며 재정적 열악함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대안적으로 상상 여행을 실천에 옮겼다. 모빌리티 측면에서 집 근처 산책하기, 자전거 타기, 오이도, 수원 광교 호수 공원으로 여행하기,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목록 작성하기, 주말에 친구들 만나기, 머무름의 측면에서 자신의 자취방과 소셜미디어 공간을 다르게 변형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된 일상 속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의 실천은 민영에게 2차적 치유감 형성 효과를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도영 또한, 상상 여행을 통해 (1) 이전과는 달리 취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려는 마음가짐으로 변화하였으며, (2) 이는 바쁜 일정 속에서 휴식을 가지려는 행동으로 수정되었다. (3) 비록 상상 여행 속에서의 나폴리나 포르투갈 같은 해외여행은 아니지만, 대안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울 호캉스와 부산여행을 떠났다. 상상 여행 전후로 모빌리티 및 사회적 관계의 확연한 변화는 상상 여행 때 얻은 치유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거쳐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는 치유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상상 여행을 통해 내면의 지리를 탐구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 속 갈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였고, 이는 참여자들이 외부적 제약에 영향을 덜 받으려는 관점으로 전환 시켜 자신에게 놓여진 삶의 행동을 개척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쳤다. 비록 취업실패, 재정적 부족, 코로나 팬데믹 등의 외부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상상 여행 이후 현실 속 최대한 실현 가능한 전략을 사용하였고, 결국 실제 삶과 심적 상태가 변화하였다. 이들의 일상 속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실천된 상호 연결된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은 그들에게 지속된 치유감을 유지하도록 도왔다(그림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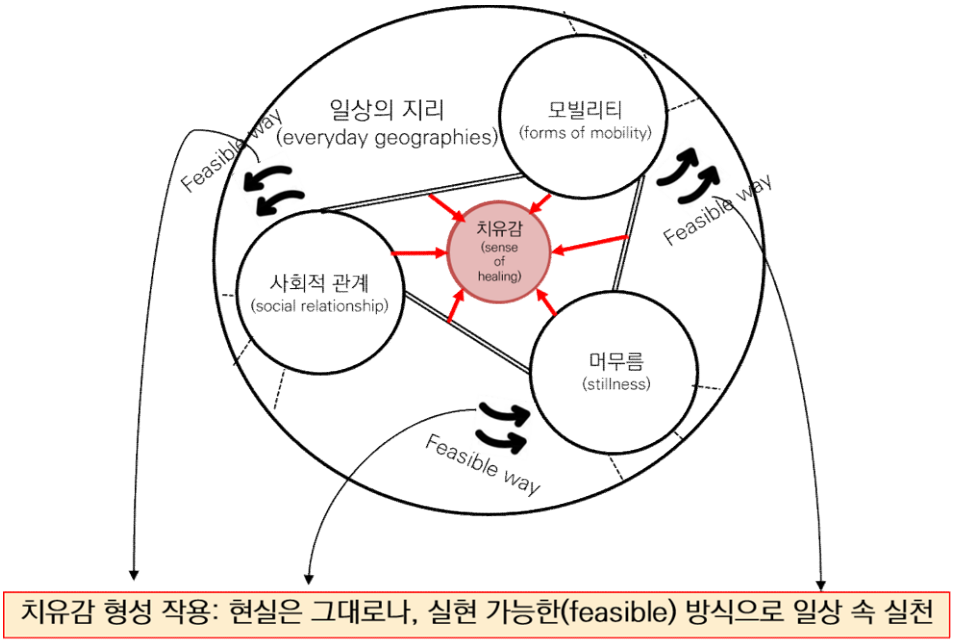

그림 7-8.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

결국,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가 어떻게 치유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제약이 없었던 내면의 지리에 그려나갔던 모빌리티의 궤적을 제약이 있는 실제 일상 속 지리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를 그려나갈 때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는 치유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가 상상으로의 모빌리티와 상상 내 모빌리티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모빌리티를 행할 때 상상의 영역과는 다르게 현실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상상 여행이 끝난 2주 후와 8주 후에도 치유감을 지속시킨 사람들은 이러한 제약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최대한 실현 가능한 전략을 세워 상상 속 모빌리티를 실제 지구상에 그려나갔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제한된 상황은 같았을지라도, 상상 여행을 통해 변형된 마음은 실제 현실 속 행동을 수정해 나가게 했으며, 그들은 제한이 없었던 내면의 지리에 그려나갔던 모빌리티 궤적을 무수한 제한들이 존재하는 지구상에 그려나가면서 내면의 지리에서 갈망했던 바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자 힘써 노력했다. 결국, 제한이 있던 내면의 지리 속 모빌리티를 제한된 현실 속에 그려나간 흔적이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가 지속적으로 치유감 형성에 작용할 수 있었던 지점이었던 것이다.

제 8 장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와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상 모빌리티의 한 사례로서 설계한 상상 여행 실험을, 치유가 필요하고 경제적 제한으로 모빌리티가 제한되어있는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에게 적용하여 입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를 살펴보고자 상상 여행 개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에는 상상 여행을 실시하고 대조군에는 상상 여행을 실시하지 않아 양적 비교 분석을 하였다. 이후, 상상 모빌리티가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는 방식을 밝히고자 상상 모빌리티가 수반하는 세 가지 모빌리티 유형인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상상 내 모빌리티,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의 각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을 상상 여행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인터뷰 내러티브 자료를 활용해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상 모빌리티를 행하는 것은 치유감 형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상상 모빌리티의 한 유형인 상상 여행을 양적 분석한 결과, 상상 여행을 실시한 실험군이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치유감 형성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자세하게는, 단기적으로(실험 직전-직후), 실험군의 종속측정치 변화량(긍정, 부정, 기분상태)이 대조군의 종속측정치 변화량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드러나, 상상 여행의 단기적 긍정 효과가 입증되었다. 장기적으로(실험 직전-2주 후-8주 후), 집단내 비교에서 긍정 종속측정치에서만 효과를 보인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은 주요 종속측정치 변화량(긍정, 부정, 기분상태, 불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간 비교에서는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사전-2주 후 시기 부정 종속측정치에서만 유의미한 감소를 드러내어, 상상 여행이 장기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상상 모빌리티는 개인의 갈망이 함축되어있는 내면의 지리에 몰입, 탐험, 실천하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고 있었다(그림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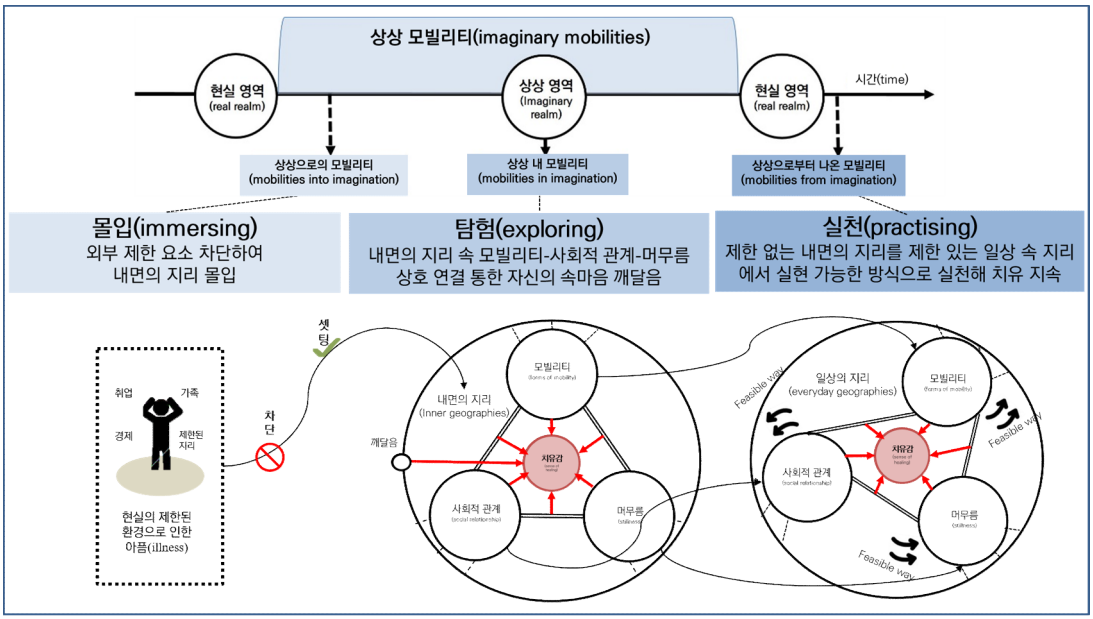

그림 8-1.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

여기에서 내면의 지리는 개인의 갈망들이 표상화된 모빌리티적 요소들(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이 심겨있는 공간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상상 모빌리티 중 첫 번째 유형인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는 현실에서 이러한 공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내면의 지리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어서, 상상 내 모빌리티는 내면의 지리 안에 모빌리티 궤적을 그리며 그 안에 심겨있는 모빌리티 요소들을 발견 및 탐험하고, 개인의 몰랐던 갈망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그 후,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는 제약이 없었던 내면의 지리에서 그렸던 모빌리티 궤적을 제약된 현실의 지리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그려나가며 실천해나갈 때 치유적으로 작용하였다.

자세하게, 상상 여행 사례를 통해 밝혀낸 각 모빌리티 유형별 특징과 그 치유적 작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표 8-1〉.

표 8-1. 상상으로의, 상상 내,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의 특징과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

구분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상상 내 모빌리티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이동	· 현실에서 상상으로	· 상상 내에서 이동	· 현실에서 이동
인식 공간 범위	· 현실과 상상의 영역 혼재	· 상상의 영역	· 현실의 영역
하는 일	· 상상 목적지로 진입 · 상상 배경지 셋팅	· 이미 선택한 배경지 내 이동(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 경험)	· 현실의 영역에서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 실천
치유감 형성 작용 방식	· 현실에서의 고민,걱정차단 · 제한 있는 현실의 영역 벗어나 제한 없는 상상 속 배경지 설정하여 자유, 안도감	· 내면의 지리 속 갈망이 표상화된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이 각기 또는 상호연결돼 기분, 감정 변화시켜 깨달음 줌	·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제약 없는 내면의 지리에서 그린 모빌리티를 제약 있는 현실 속 모빌리티 궤적으로 옮김
내면의 지리	· 내면의 지리에 접근, 몰입	· 내면의 지리를 탐험	· 내면의 지리를 실천

먼저,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는 아픔을 주던 제한된 현실과의 연결을 일시적으로 단절하고 제한 없는 내면의 지리에 몰입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치유적 작용점이 있었다.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는 현실에서 상상으로 가는 모빌리티로, 인식하는 공간의 범위는 현실과 상상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상상의 목적지로 진입하며 배경지를 셋팅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내면의 지리로 가져와 내면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생기는 모빌리티이다. 본 연구의 상상 여행 예시에서 살펴보면, 상상으로의 모빌리티는 연구참여자들이 취업준비의 암울한 현실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 옮겨간 상상의 여행 배경지를 구축하고 상상 여행 속 소일거리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현실에서의 고민에 대한 연결을 차단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또한, 외부적 제약 요소 없이 자신이 갈망하던 모빌리티를 행할 수 있는 배경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데에서 치유적 작용점이 있었다. 이러한 상상으로의 모빌리티의 치유적 작용 방식은 자신을 현실로부터 진정으로 갈망하는 인생의 여정을 그릴 수 있는 내면의 지리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함과 안도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후 모빌리티 단계에서도 치유적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둘째, 상상 내 모빌리티는 내면의 지리 속 갈망이 표상화된 모빌리티적 요소들이 각기 또는 상호 연결되어 깨달음을 줌으로써 치유적으로 작용하였다. 상상 내 모빌리티는 상상 내에서 이동하며, 인식의 공간 범위는 상상의 영역에만 있었고, 이전 상상으로의 모빌리티 단계에서 이미 선택된 배경지 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적 요소들을 탐험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의 상상 여행 실험에서 두드러졌던 모빌리티적 요소는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으로 나타났다. 이 요소들은 각기 연구참여자들의 기분이나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거나, 서로 상호 연결되어 치유감 형성에 시너지 작용을 하였다. 나아가, 모빌리티(수단), 사회적 관계, 머무름의 모빌리티적 요소들은 연구참여자들의 갈망들을 상징하여 깨달음을 줌으로써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고 있었다. 내면의 지리적 공간은 개인의 무의식적 갈망들로 표상된 요소들이 심겨있기는 하나, 이는 내면의 지리이라는 공간이 홀로 치유감 형성에 작용할 순 없으며, 상상 내 모빌리티가 내면의 지리 공간을 탐험해줌으로써 치유감 형성에 작용할 수 있었다. 상상 내 모빌리티가 내면의 지리에 그리는 궤적을 통해 참여자들은 내면의 지리에 잠재되어 있었던 무의식적 갈망들로 표상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요소들은 각기 또는 상호연결되어 깨달음을 줌으로써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는 제약이 없었던 내면의 지리 속 모빌리티를 제약된 현실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식의 모빌리티로 실천하고자 할 때 치유적으로 작용하였다.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는 상상으로의 모빌리티와 상상 내 모빌리티 이후, 이에 영향을 받아 현실의 일상 영역에서 재현된 모빌리티이다. 인식하는 공간의 범위는 현실의 영역이며, 현실 속에서도 상상 속 겪었던 모빌리티를 실천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상상 여행이 끝난 2주 후와 8주 후에도 치유감을 지속시킨 실험군 연구참여자 8명의 경우, 상상 여행 중 경험했던 내면의 지리 속 모빌리티적 요소들인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이 기존 관점에 변화를 일으켰고, 실생활 속 모빌리티, 사회적 관계, 머무름을 실천할 때에 이러한 변화된 관점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행동을 수정하도록 이끌었다. 이들은 내면의

지리에 그렸던 모빌리티를 일상의 지리에 그리게 될 때 그대로 실천하기보다는 현실의 제한에도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상상 여행 이후에도 치유감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현실의 제약은 여전하나, 이러한 제약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최대한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상상 속 내면의 모빌리티를 실제 지구상에 변형하여 궤적을 그려나갈 때, 상상의 영역 속 얻었던 치유를 현실의 영역에 돌아와서도 지속시킬 수 있었다.

특히, 상상 모빌리티를 통해 내면의 지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밝힌 본 연구 결과는 상상 모빌리티가 일시적 치유를 넘어 지속적 치유감 형성 효과를 줄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땅 위에 일어나는 실질적 지리, 지형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내면의 지리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는 상상 모빌리티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마음속 내면의 지리를 탐험하며 긍정적 감정을 끌어올리고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서, 잠잠했던 내면의 지리에 심겨져 있던 갈망들을 상징하는 모빌리티적 요소들을 동적인 모빌리티를 통해 발견하여 깨달음을 준다는 데에서 더욱 깊은 치유감 형성과 모빌리티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작용의 함의는 일시적 감정 변화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치유감 형성과 모빌리티 및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리학이 치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념화했던 상상 모빌리티는 학술 및 사회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지리적 시사점을 준다.

첫째, 건강지리학 측면에서, 상상 모빌리티가 치유적일 수 있음을 밝힌 본 연구결과는 그동안 물리적 영역에 집중되어 오던 건강지리학의 모빌리티 연구 영역을 확장시켰다. 본 연구는 물리적 영역을 넘어 비물리적 상상의 영역에서 모빌리티와 치유와의 관련성을 밝혔다. 이전 건강지리학에서 연구되어오던 걷기, 자전거, 자동차, 배, 비행기, 가상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매개로 한 모빌리티 역시 치유를 증진시키는 모빌리티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치유를 느끼는 마음의

장소와 연결해줄 수 있는 상상의 영역과 모빌리티를 연계했다는 데에서 학술적 기여점이 있다. 더불어, 상상 모빌리티는 건강지리학에서 기존 정적인 상상 경관, 장소 개념을 넘어 상상의 영역에서 역동적인 모빌리티 역시 치유적 특성과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는 그동안 고정된 경관, 장소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상상의 치유적 특성을 입체적인 모빌리티로 밝힐 수 있었는다는 데에서 가치가 있다. 더불어,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혼합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상상 모빌리티의 한 유형으로서 상상 여행의 치유감 형성 효과 및 작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상상 모빌리티는 지리가 치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상상으로부터 나온 모빌리티 단계에서 내면의 지리에 그린 모빌리티가 현실의 지리의 모빌리티로 실현된다는 연구결과는 실제 모빌리티를 만들어 내 지속적인 치유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용적으로 물리적 치유 관광, 힐링 여행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상상 내 모빌리티 단계에서 모빌리티적 요소들이 서로 상호연결되어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상상 모빌리티가 실제 여행이나 관광 설계 및 계획으로 적용될 때, 지리적 현상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여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지리적 현상의 상호연결됨을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상상 모빌리티의 한 유형으로서 상상 여행 실험을 처음으로 설계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쳤던 시행착오와 실제 참여자들의 제안사항을 참고하여 더욱 보완된 상상 여행 프로그램을 제언하고자 한다.

상상 여행을 실행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더욱 정교화된 연구참여자 샘플링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 수, 성별, 나이, 건강·사회적 지위·경제적 상태, 이상적·현실적 성향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자세하게, 본 연구는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자 수가 높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었으며, 현재 표본 집단인 청년의 연령층 범위가 만 19-34세로 연령의 양극단 간

극의 차이가 넓었다는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성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더 세밀한 연령대별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상의 시작점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기질적 역량을 지닌 표본과 그렇지 않은 표본과의 차이가 치유감 형성 효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상상 역량에 따라 연구 결과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선 상상 여행의 실행 전 연구참여자 모집 단계에서 더욱 정교한 샘플링이 중요하다. 이 같은 정교한 샘플링은 현실적 성향보다는 이상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상상에 몰입하기 수월한지,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들보다는 건강상태가 악화된 사람에게 상상을 통한 치유감 형성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적 우울 기간이 길었던 사람보다는 우울 기간이 짧았던 사람에게 상상이 적당한 치유적 방법인지 살펴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상상 여행 중의 과정에서는 상상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 세밀하게 디자인할 필요성이 있다. 실험군에게 상상 여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행의 경험이 비교적 적은 사람들에게는 상상 여행이 엄마의 자궁, 동네 마을, 하늘, 우주와 같이 꼭 지구상 해외여행에 제한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험군이 실시한 상상 여행에 글쓰기, 그림그리기, 이야기하기 과정이 포함되어 치유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상을 기록하기 위해 활용된 글쓰기, 그림그리기, 이야기 활동이 제거된 상태에서의 실험결과 역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조군에서도 인터뷰 실시 및 달콤한 휴식 동안 음악을 들려주었던 점이 일시적으로 부정적 기분을 완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에, 음악과 인터뷰 영향이 없는 상상 여행 실험연구 또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상상 여행 횟수를 1회가 아닌 여러 번으로 늘릴 시에, 점차 상상 여행의 기존 10분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이나 연구참여자가 상상 여행을 끝내고 싶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시간을 제공했을 때의 연구결과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안 좋았던 기억 요소가 상상 여행을 몰입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지도 탐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상상 여행 종료 2주 후, 8주 후에는 장기간 치유감 형성 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단 한 번만의 상상 여행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자들의 외부 환경 및 제한이 너무 악화되었을 시 그 치유감 형성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에, 상상 여행의 치유감 형성 효과가 오랜 기간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상상 여행의 횟수와 간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하였을 때에 치유감 형성 효과가 높을지, 상상 여행을 통한 치유감 형성이 어느 정도로 지속되며 어느 시기에 미약해지는지에 대한 장기간의 세밀한 추적검사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2주 후, 8주 후에 자발적으로 상상 여행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상 여행을 계속해서 상기시킬 방법으로 상상 여행의 글, 그림 기록을 자신의 책상 근처에 가까이 두거나, 일정한 시간에 상상 여행을 하도록 알람 설정 방법을 도입하여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치유감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상 여행 이후 치유감 형성의 효과가 있었던 참여자 외에 상상과 다른 혹독한 현실에 괴리감과 좌절감을 느끼던 소수의 참가자도 있었기에, 상상 여행 이후 지리적 실천과 행동을 실현 가능한 방법 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팁을 담은 상상 여행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법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조사의 전체적 측면에서는, 실험에 대한 통제를 더욱 엄격히 가했을 경우의 연구 결과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건강지리의 일상적 치유 전환의 한 흐름으로써 참여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ZOOM 플랫폼을 통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완전히 외부적 상황이 차단된 실험실 속에서 진행되지 않았기에, 온전한 상상 여행 영향력 평가에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비록 실험 8주 후 결과에서 집단내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얻긴 했으나, 8주 동안 상상 여행 이외에 수많은 요인들의 개입과 교란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 측면에서 외부 상황의 교란과 간섭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가해졌을 경우의 연구결과도 검토할 과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본 연구 조사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동의 제한 조치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에 진행되었다. 그렇기에, 상상 여행 이후 일어나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일상 속 지리적 이동의 현상이 비교적 작은 범위에서, 적은 빈도수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동의 제한이 현재보다 완화된 환경 가운데에서 상상 여행의 연구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상상 속 지리적 모빌리티가 일상 속 실제 물리적 모빌리티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와 작용을 규명하기 위해 상상 여행이라는 단 한 가지 예시만을 활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비록 여행이라는 모빌리티가 매우 다양한 모빌리티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의 연구 주제에서는 더욱 다채로운 모빌리티 유형들(걷기, 운동, 이주하기 등)을 상상할 때 치유적 효과와 작용이 있을지 규명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감 형성 효과 여부를 양적 분석하는 것을 넘어 치유감 형성 효과의 크기, 강도, 분해를 하는 분석을 위해 다른 유형의 비교 대상과 실험하는 것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물리적 상상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물리적 모빌리티가 제한되어있는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에게 상상 모빌리티로 치유감 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 사례만을 분석하였지만, 이는 나아가 신체적 제한(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경제적 제한(저소득층), 시간적 제한(학생, 직장인) 등으로 인해 쉽사리 물리적 모빌리티를 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게 적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전쟁, 대형 자연재해 등 물리적 이동이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비물리적 모빌리티로 치유감 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초연구의 시작을 열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비록, 영상이나 미디어를 통해 비물리적 가상 모빌리티를 실현할 수는 있으나 상상 모빌리티가 의미 있는 까닭은, 어떠한 매체나 전자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이 부여받은 기초 능력인 상상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지리적 이동을 할 수 있기에, 극심

하게 이동이 제한된 지리환경 가운데서도 실현할 수 있는 인류의 기초적인 치유 이동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리학의 중요 개념 중 하나인 모빌리티와 치유와의 연관성을 탐구하여 다양한 응용학문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치유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상상 모빌리티의 발굴은 의학, 건축, 관광, IT 공학 등 실용적 및 정책적으로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한다. 예로, 도시 정부의 건강 정책 일환에서 바쁜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힐링 프로젝트로 상상 여행을 활용하거나, 관광산업에서 관광객의 상상 여행에 기반하여 더욱 체험자의 니즈에 맞는 가시적 힐링 투어 상품을 기획하고, 병원 건축 분야에서 누워 있는 환자들의 상상 여행 내용을 모아 치유를 돕는 병원 환경을 조성, 각 학교 교육현장에서 진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상 여행을 활용, IT 및 게임 산업에 있어서 상상 여행 속 등장하는 치유적 요소 콘텐츠를 VR이나 메타버스 등의 가상세계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 모빌리티의 치유적 특성을 발견하는 것은, 곧 가시적 치유의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구현해주는 밑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

미래의 인류사회는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시대와 맞물려, 끊임없는 건강문제, 자연재해, 정치적 전쟁의 위협 속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치유의 특성을 지닌 장소와 경관과 더불어 치유의 특성을 담은 이동이 점차 사라져가는 인류의 미래 환경 속, 인간에게 맡겨진 기초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또 다른 지리적 차원에서의 치유 이동을 발굴한 본 연구는,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학문적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생명력을 연장 시켜줄 수 있는 중추적 치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밑거름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재희·강진희. 2014. “전주 향토음식의 힐링 푸드 이미지가 인지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연구, 29(3), 181-203.

고동우. 2013. “자연관광의 심리적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14(3), 445-470.

국립산림치유원, 2018, 2018 산림치유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보고서.

권석만. 2010.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철학사상, 36, 121-152.

권석만, 2012, 현대 심리 치료와 상담 이론: 마음의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길, 학지사.

김기헌 · 하형석 · 신인철, 2016, “청년 사회·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92.

김난도, 2010, 아프니까 청춘이다, 쌤앤파커스.

김명옥 · 박영숙,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김민정 · 조긍호, 2009,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47-62.

김반석, 2019, 모빌리티의 상상과 새로운 삶의 실험: 농촌 이주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정, 2014, 춤을 통한 신체표현의 치유효과 연구: 군산 여성쉼터의 ‘춤추는 숲’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설매, 2014, 패션제품 소비를 통한 힐링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진, 2016,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51(3), 311-326.

김신혜, 2017, 한국청년의 불안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 2004, 음악치료가 초등학생의 우울증상 감소에 미치는 효과,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재 · 허용덕. 2022. “COVID-19 질병 위험지각이 관광객의 힐링 관광지 방문 동기, 만족도 및 행복감과의 관계 분석.” 관광레저연구, 34(9), 101-119.

김정아, 2015, "어린이의 일상적 여정의 지리교육적 의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구 지리환경교육), 23(3), 23-38.

김진옥·이충기, 2017. “한국형 치유관광의 개념모델 정립 및 치유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자연기반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1(5), 5-21.

김창근 · 류제헌 · 김영훈 · 박수경 · 장영훈 · 한정훈, 2014, “8체질의학과 질병생태학의 공통성에 관한 연구: 의료지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9(6), 897-916.

능률교육, 2006, ET-house 능률한영사전.

대한간호학회, 1996,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문지영, 2010,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입원 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재활복지, 14, 199-221.

박분희 · 윤미선 · 전향신 · 이미라 · 박세정, 2017, “Adler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장기미취업 청년을 위한 회복탄력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연구, 36(3), 125-147.

박석희 · 연평식 · 홍창원 · 여은희 · 한상미 · 이혜영 · 이효정 · 강재우 · 조현솔 · 김윤희, 2017, “산림치유프로그램이 교사의 스트레스와 긍정· 부정감정에 미치는 효과.”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1(6), 606-614.

박석희 · 신원섭 · 최종환 · 신창섭 · 연평식 · 이주영, 2020, “산림치유의 사회심리적 편익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4(3), 43-56.

박선아 · 정문선 · 이명우, 2015, “숲치유와 원예치료의 치유효과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3(3), 43-51.

박수경, 2014, “일상적 삶에서의 치유의 공간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심리상담카페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9(4), 546-562.

박수명, 2013,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고용, 실업,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13(3), 113-131.

박원규, 2016, “치유정원 조성을 위한 성격 유형별 (Enneagram) 식물 선호도에 관한 연구-청년층을 대상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환경복원기술), 19(6), 31-40.

박창은 · 김동준 · 박광수 · 신창섭 · 김윤희, 2018, “요가와 명상 중심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성인의 기분상태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2(6), 658-666.
박향기, 2016, “치유적 모빌리티로서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 대한지리학회지, 51(1), 109-125.
박향기, 2017, 서울 한양도성길의 치유적 모빌리티 내러티브 분석: 낙산구간 걷기에 관한 블로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향기, 2019, “사회문화적 아픔이 유발한 이동-치유를 목적으로 서울 한양도성을 걷고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역사지리, 31(1), 116-132.
박혜영·강귀임·김미향, 2020. “대인관계 증진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중학생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학교상담 및 모래놀이, 2(2), 71-84.
박홍석·이정미, 2016.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PAN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617-641.
백근수, 2012, 치유 목회가 전인 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목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연구원, 2017,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8년 주요 경제 이슈
서울연구원, 2018,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9년 주요 경제 이슈
서울연구원, 2019,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0년 주요 경제 이슈
서울연구원, 2020,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1년 주요 경제 이슈
서울연구원, 2021,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2년 주요 경제 이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통계로 본 서울 청년의 삶 연구보고서.
서혜인, 2004,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혜인 · 이승욱. 2004.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정보통계학회지, 29(1), 3-14.
송진희, 2006, 문학치료와 적극적 상상,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남섭 · 신창섭 · 신민자. 2021.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회복 탄력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5(4), 424-434.
심원보, 2017, “취업준비생은 실업자인가?-‘체감 실업’ 지표의 이해”, 나라경제 2017년 01월호, 66-67.

심지은 · 안하얀 · 김지혜, 201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이해, 32(1), 103-118.
양재원·김승천·배주미, 2014. “인터넷치유학교 프로그램의 치료 효과성 및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22(1), 125-149.
양태근 · 양준호, 2018, “병원에 전시된 조각예술의 치유적 역할과 특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9(1), 341-356.
어용숙 · 김묘성, 2015. “SNS 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수산해양교육연구, 27(6), 1532-1545.
오민지, 2016,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경숙, 2019. “안전한 공간을 위한 상담자의 자기 성찰적 바라보기에 대한 의미 고찰: Jung의 진정한 움직임을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8(1), 239-255.
윤상숙, 2017,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인지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윤규 · 장인성 · 최세림 · 조성훈, 2018,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경민 · 안은선 · 전원희, 2018,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정신적 웰빙.” 가정간호학회지, 25(3), 164-172.
이나경, 2018,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영, 2016, “‘헬(hell) 조선’ 탈출로서의 장기여행,” 비교문화연구 22(2), 291-328.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이새은, 2018, 패션 테라피 기제 연구를 통한 프로토콜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승연, 2006, 청년 구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3개 도서관에서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빈, 2018, 질적 연구방법과 상담심리학, 학지사.
이정원 · 연평식 · 박석희 · 강재우, 2018, “산림치유프로그램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감정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2(3), 15-22.
이정희, 2009, 영화를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의 주부 우울감에 대한 효과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균, 2015, “모빌리티의 구성과 실천에 대한 지리학적 탐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147-159.

이현희 · 김은정 ·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935-946.

이훈구 · 김인경 · 박윤창, 2000,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2), 87-101.

이희상, 2016, 존 어리, 모빌리티. CommunicationBooks.

이희자, 2006,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치유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선영, 2013,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 관계상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선영 · 권석만, 2012, “대학생의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관한 연구: 인지적 유연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방략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261-281.

임영진 · 고영건 · 신희천 ·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장수연, 2016, 우울감 및 신경증성향에 따른 페이스북상의 커뮤니케이션 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인성, 2019, “청년 취업준비생 증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리뷰, 7-19.

전겸구 · 최상진 ·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전병주, 2013, “청년 실업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4), 197-224.

정연순, 2014,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본 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 한국고용정보원 격월 간 고용이슈, 3, 6-32.

정태기, 2008,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담과치유.

조문영, 2013, “공공이라는 이름의 치유: 한 대기업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본 한국 사회,” 한국문화인류학 46(2), 45-91.

조성기 · 강창완 · 김규곤, 2008, “대조군 전-후 반복측정설계에서의 반복측정 공분산분석 고찰,”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6), 3179-3189.

조영림 · 문승현, 2017, “장기취업준비생의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청소년학연구, 24(9), 145-175.

조은유, 2018,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의 행복감, 사회성,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현 · 허은승 · 이지환, 2010,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요가 및 음악 치료의 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1(6), 2144-2151.
진교훈 · 윤영돈, 2003, “융 심리학의 인간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사대논총, 66, 73-104.
통계청, 2010-2021,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팽영일, 2013, “비고츠키의 아동 창의성 이론의 현대적 의의,” 사고개발, 9(3), 141-161.
하승수 · 권석만, 2016, “외현화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격강점 활용 일기쓰기의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1), 139-16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012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2013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심리주식회사, 2014. 한국판 Beck 불안척도. 대구: 한국심리주식회사
한성우, 2012, 적극적 상상과 치유의 글쓰기, 오늘의 문학사.
한지숙, 2013, “힐링 여행의 건강 기여 요소 탐색-강릉 커피 힐링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37(6), 137-158.
허승희 · 박동섭 · 강승희, 1999, 아동의 상상력 발달, 학지사
허혜영, 2016, 성격강점의 인식과 활용이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심리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홍경수, 2013, “<힐링캠프>, 사운드적 서사의 등장과 그 함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81-87.

2. 국외문헌

Abt, T., 2005, *Introduction to pictur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CG Jung*, Living Human Heritage Publications. (이유경(역), 2008, 융 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 역서 시리즈, 분석심리학연구소.)

Adey, P., 2006, If mobility is everything then it is nothing: Towards a relational politics of (im) mobilities. *Mobilities* 1(1), 75-94.

Adey, P., 2017, *Mobility*. Routledge. (최일만(역), 2019, 모빌리티 이론, 앨피.)

Andrews, G. J., 2004, (Re) thinking the dynamics between healthcare and place: Therapeutic geographies in treatment and care practices. *Area* 36(3), 307-318.

Andrews, G. J., Hall, E., Evans, B., Colls, R., 2012, Moving beyond walkability: On the potential of health geograph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75(11), 1925-1932.

Augé, M., 1995,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trans. by J. Howe, London & New York: Verso.

Barratt, P., 2017, Healthy competition: A qualitative study investigating persuasive technologies and the gamification of cycling. *Health and Place* 46, 328-336.

Barrientos, S., Gereffi, G., Rossi, A., 2011, Economic and social upgrading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ewparadigm for a changingworld.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50(3-4), 319-340

Bates, V., Hickman, C., Manchester, H., Prior, J., Singer, S., 2020. Beyond landscape's visible realm: Recorded sound, nature, and wellbeing. *Health and Place* 61, 102271.

Bell, S. L., Phoenix, C., Lovell, R., Wheeler, B. W., 2015, Seeking everyday wellbeing: The coast as a therapeutic landscap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42, 56-67.

Bell, S. L., Foley, R., Houghton, F., Maddrell, A., Williams, A. M., 2018, From therapeutic landscapes to healthy spaces, places and practices: A scoping review.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6, 123-130.

Bissell, D., Fuller, G., (Eds.) 2011. *Stillness in a mobile world*. Routledge, London.

Bochaton, A., 2019, Intertwined therapeutic mobilities: Knowledge, plants, healers on the move between Laos and the US. *Mobilities* 14(1), 54-70.

Brace, N., Snelgar, R., Kemp, R., 2016. *SPSS for psychologists: And everybody else*. Macmilla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이주일 · 문혜진 · 정현선 · 조영일 · 최윤영 · 한태영(역), 2018, SPSS를 활용한 심리연구 분석, 시그마프레스.)

Brewster, L., 2014, The public library as therapeutic landscape: A qualitative case study. *Health and Place* 26, 94-99.

Burgess, E. W., 1925, The Growth of the City: An Introduction to a research project, *The city* (Park, R. E., Burgess, E. W., McKenzie, R. D., chapter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7-62.

Cangià, F., 2020. (Im)Mobile imagination. On trailing, feeling stuck and imagining work on-the-move. *Culture and Psychology* 26(4), 697-712.

Cangià, F., Zittoun, T., 2020. Exploring the interplay between (im)mobility and imagination. *Culture and Psychology* 26(4), 641-653.

Cassar, L. 2020. *Jung's Technique of Active Imagination and Desoille's Directed Waking Dream Method: Bridging the Divide*. Routledge.

Chakrabarti, R., 2010, Therapeutic networks of pregnancy care: Bengali immigrant women in New York Ci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71(2), 362-369.

Chodorow, J. 1991. Dance Therapy & Depth Psychology, (박선영(역), 2016, 춤동작치료와 심층심리학. 서울: DMT미디어)

Cohen, J., 1988, The effect size.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Abingdon: Routledge, 77-83.

Conradson, D., 2005, Landscape, care and the relational self: Therapeutic encounters in rural England. *Health and Place* 11(4), 337-348.

Cresswell, T., 2006, *On the move: Mobility in the modern western world*, Taylor & Francis.

Cresswell, T., 2010. Towards a politics of mobi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8(1), 17-31.

Cresswell, T., 2012. Mobilities II: Still.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6(5), 645-653.

Crooks, V. A., Andrews, G. J., Pearce, J., Snyder, M., 2018. Introducing the Routledge handbook of health geography. In *Routledge Handbook of Health Geography* (pp. 1-8). Routledge.

Curtis, S., Gesler, W., Fabian, K., Francis, S., Priebe, S. 2007. Therapeutic landscapes in hospital design: a qualitative assessment by staff and service users of the design of a new mental health inpatient unit.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25(4), 591-610.

Cuzzocrea, V., Mandich, G. 2016. Students' narratives of the future: Imagined mobilities as forms of youth agency?. *Journal of Youth Studies* 19(4), 552-567.

Dawney, L., 2011, Social imaginaries and therapeutic self-work: The ethics of the embodied imagin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59(3), 535-552.

Doughty, K., 2013, Walking together: The embodied and mobile production of a therapeutic landscape. *Health and Place* 24, 140-146.

Dryden, W. 2018. *Single-session therapy (SST): 100 key points and techniques*. Routledge.

Duff, C., 2011, Networks, resources and agencies: On the character and production of enabling places. *Health and Place* 17(1), 149-156.

Dunkley, C. M., 2009, A therapeutic taskscape: Theorizing place-making, discipline and care at a camp for troubled youth. *Health and Place* 15(1), 88-96.

Foley, R., 2011, Performing health in place: The holy well as a therapeutic assemblage. *Health and Place* 17(2), 470-479.

Foley, R., 2014, The Roman–Irish Bath: Medical/health history as therapeutic assemblag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06, 10-19.

Franchina, L., Sarradon-Eck, A., Arnault, Y., Le Corroller, A. G., Zunic, P., Marino, P, 2022. Lived experience of state-sponsored intra-national overseas therapeutic mobility for stem cell transplantat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01, 114957.

Gastaldo, D., Andrews, G. J., Khanlou, N. 2004. Therapeutic landscapes of the mind: Theorizing some intersections between health geography, health promotion and immigration studies. *Critical Public Health* 14(2), 157-176.

Gatrell, A. C., 2013, Therapeutic mobilities: Walking and 'steps' to wellbeing and health. *Health and Place* 22, 98-106.

Gesler, W. M., 1992, Therapeutic landscapes: Medical issues in light of the new cultural geograph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4(7), 735-746.

Gesler, W. M., 2000. Hans Castorp's journey-to-knowledge of disease and health in Thomas Mann's The Magic Mountain. *Health and Place* 6(2), 125-134.

Gesler, W. M., Kearns, R. A., 2002, *Culture/Place/Health*. London: Routledge.

Gesler, W. M., 2003, *Healing places*. Rowman & Littlefield.

Hartmann, S., 2019, Mobilising patients towards transnational healthcare markets-insights into the mobilising work of medical travel facilitators in Delhi. *Mobilities* 14(1), 71-86.

Heaslip, V., Vahdaninia, M., Hind, M., Darvill, T., Staelens, Y., O'Donoghue, D., et al., 2020. Locating oneself in the past to influence the present: Impacts of Neolithic landscapes on mental health well-being. *Health and Place* 62, 102273.

Humbert, É. G., Thibaudier, V., 1993, *Écrits sur Jung: Jung et l'inconscient*. FeniXX. (김성민(역), 2018, C.G.융과 정신치료, 달을긷는우물.)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16,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2015*

Ireland, A. V., Finnegan-John, J., Hubbard, G., Scanlon, K., Kyle, R. G., 2019, Walking groups for women with breast cancer: Mobilising therapeutic assemblages of walk, talk and plac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31, 38-46.

Johnson, R. A., 1986, *Inner work: Using dreams and active imagination for personal growth.* HarperOne: New York. (고혜경 · 이정규(역), 2011, 내면작업: 꿈과 적극적 명상을 통한 자기 탐색, 동연.)

Jonasson, H. I. and Ingason, H. T. 2018. Project Creativity: Using Active Imagination for Project Innovation. International Project Management Association Research Conference 2017, UTS ePRESS, Sydney: NSW, 1-12.

Jung, C. G., Chodorow, J., 1997. *Jung on active imagination*. Routledge, London.

Jung, C. G., Kerényi, C., 1949. *Essays on a science of mythology*. Pantheon Books.

Kakoudakis, K. I., McCabe, S., Story, V., 2017. Social tourism and self-efficacy: Exploring links between tourism participation, job-seeking and unemploy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65, 108-121.

Kanthack, T. F. D., Bigliassi, M., Vieira, L. F., Altimari, L. R., 2014. Acute effect of motor imagery on basketball players' free throw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Revista Brasileira de Cineantropometria and Desempenho Humano* 16, 47-57.

Kaspar, H., Walton-Roberts, M., Bochaton, A., 2019. Therapeutic mobilities. *Mobilities* 14(1), 1-19.

Kearns, R., Collins, D. 2010. Health geography, *A companion to health and medical geography.* 15-32.

Korstjens, I., Moser, A. 2018. Series: Practical guidance to qualitative research. Part 4: Trustworthiness and publishing. *Europe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24(1), 120-124.

Kvaal, S. A., Patodia, S. 2000. Relations among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somatic symptoms in a medically ill patient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87(1), 227-233.

Loss, J., Lindacher, V., Curbach, J., 2014, Online social networking sites—a novel setting for health promotion?. *Health and Place* 26, 161-170.

Maddrell, A., 2013, Moving and being moved: More-than-walking and talking on pilgrimage walks in the Manx landscape. *Culture and Religion* 14(1), 63-77.

McNair, D. M., Lorr, M., Droppleman, L. 1981. Profile of mood states questionnaire. *EDITS, San Diego, CA.*

Merriman, P., Pearce, L., 2017, Mobility and the Humanities. *Mobilities* 12(4), 493-508.

Mertens, L., Compernolle, S., Deforche, B., Mackenbach, J. D., Lakerveld, J., Brug, J. et al., 2017, Built environmental correlates of cycling for transport across Europe. *Health and Place* 44, 35-42.

Mertens, L., Van Dyck, D., Deforche, B., De Bourdeaudhuij, I., Brondeel, R., & Van Cauwenberg, J., 2019, Individual,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 to changes in walking and cycling for transport among older adults: A longitudinal study. *Health and Place* 55, 120-127.

Milligan, C., Gatrell, A., and Bingley, A., 2004, 'Cultivating health': Therapeutic landscapes and older people in northern England.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8(9), 1781-1793.

Monroe, K. V., 2016, *The insecure city: Space, power, and mobility in Beirut*. Rutgers University Press.

Ohrnberger, J., Fichera, E., Sutton, M.,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 mediation analysi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5, 42-49.

Olvera, N., Smith, D. W., Lee, C., Liu, J., Lee, J., Kellam, S., et al., 2012. Hispanic maternal and children's perceptions of neighborhood safety related to walking and cycling. *Health and Place* 18(1), 71-75.

Paddon, L. I., 2020. Therapeutic or detrimental mobilities? Walking groups for older adults. *Health and Place* 63, 102346.

Perriam, G., 2015, Sacred spaces, healing places: Therapeutic landscapes of spiritual significance. *Journal of Medical Humanities* 36(1), 19-33.

Pitt, H., 2014, Therapeutic experiences of community gardens: Putting flow in its place. *Health and Place* 27, 84-91.

Pollard, T. M., Guell, C., Morris, S., 2020. Communal therapeutic mobility in group walking: A meta-ethnograph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62, 113241.

Pooley, C. G., 2009, Mobility, History of Everyday, in Thrift, Nigel and Kitchin, Rob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vol. 7, London: Elsevier, 144-149.

Pultz, S., Hviid, P., 2018. Imagining a better future: Young unemployed people and the polyphonic choir. *Culture and Psychology* 24(1), 3-25.

Rose, E., 2012. Encountering place: A psychoanalytic approach for understanding how therapeutic landscapes benefit health and wellbeing. *Health and Place* 18(6), 1381-1387.

Rose, E., Lonsdale, S., 2016. Painting place: Re-imagining landscapes for older people's subjective wellbeing. *Health and Place* 40, 58-65.

Said, E.,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94.

Sampson, R., Gifford, S. M., 2010, Place-making, settlement and well-being: The therapeutic landscapes of recently arrived youth with refugee backgrounds. *Health and Place* 16(1), 116-131.

Schaberg, C., 2012, *The textual life of airports: Reading the culture of flight*. A&C Black. (이경남(역), 2015, 인문학, 공항을 읽다, 책읽는귀족.)

Serbulea, M., Payyappallimana, U., 2012, Onsen (hot springs) in Japan—Transforming terrain into healing landscapes, *Health and Place* 18(6), 1366-1373.

Smyth, F., 2005, Medical geography: Therapeutic places, spaces, and network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4), 488-495.

Talmon, M. 1990. *Single-session therapy: Maximizing the effect of the first (and often only) therapeutic encounter*. Jossey-Bass.

Thompson, M., 2019, Everything changes to stay the same: Persistent global health inequalities amidst new therapeutic opportunities and mobilities for Filipino nurses. *Mobilities* 14(1), 38-53.

Thompson, M., 2021, The geographies of digital health–Digital therapeutic landscapes and mobilities. *Health and Place* 70, 102610.

Trnka, S., 2021. Multi-sited therapeutic assemblages: Virtual and real-life emplacement of youth mental health suppor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78, 113960.

Troccoli, G., Moreh, C., McGhee, D., Vlachantoni, A., 2022. Diagnostic testing: Therapeutic mobilities, social fields, and medical encounters in the transnational healthcare practices of Polish migrants in the UK. *Journal of Migration and Health* 5, 100100.

Ulanov, A., Ulanov, B., 1999, *The healing imagination: The meeting of psyche and soul.* Daimon.

Urry, J., 2007, *Mobilities*. Polity. (강현수 · 이희상(역), 2014, 모빌리티, 아카넷.)

Wakefield, S. McMullan, C., 2005, Healing in places of decline: (Re) imagining everyday landscapes in Hamilton, Ontario. *Health and Place* 11(4), 299-312.

Walton-Roberts, M., 2019, Asymmetrical therapeutic mobilities: Masculine advantage in nurse migration from India. *Mobilities* 14(1), 20-37.

Watson, D., Clark, L. A.,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

Williams, A., 1998, Therapeutic landscapes in holistic medicin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6(9), 1993-1203.

Williams, A., 2010, Spiritual therapeutic landscapes and healing: A case study of St. Anne de Beaupre, Quebec, Canada. *Social Science and Medicine* 70(10), 1633-1640.

Willis, A., 2009, Restorying the self, restoring place: Healing through grief in everyday places. *Emotion, Space and Society* 2(2), 86-91.

Wood, V. J., Gesler, W., Curtis, S. E., Spencer, I. H., Close, H. J., Mason, J., Reilly, J. G., 2015, 'Therapeutic landscapes' and the importance of nostalgia, solastalgia, salvage and abandonment for psychiatric hospital design. *Health and Place* 33, 83-89.

Yeun, E. J., Shin‐Park, K. K. 2006. Verification of the profile of mood states‐brief: Cross‐cultural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9), 1173-1180.

Zhang, L., 2018. Cultivating the therapeutic self in China. *Medical Anthropology* 37(1), 45-58.

Zittoun, T., Gillespie, A. 2015. *Imagination in human and cultural development*. Routledge.

3.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청년,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2.do
(최종접속일: 2022.03.11.)
교육통계서비스(KESS), 2021,「OECD 교육지표 2021」결과 발표,
https://kess.kedi.re.kr/post/6734441?itemCode=04&menuId=m_02_04_02
(최종접속일: 2022.03.1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최종접속일: 2022.03.11.)
독취사, http://cafe.naver.com/dokchi
(최종접속일: 2020.06.16.)
두산백과, n.d., 청년실업률, https://www.doopedia.co.kr/
(최종접속일: 2022.03.11.)
브리태니커 비주얼사전, 펠루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5419&cid=49069&categoryId=49069
(최종접속일: 2022.03.21.)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https://www.kfhi.or.kr/story/view/77316
(최종접속일: 2022.03.12.)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http://irb.snu.ac.kr/
(최종접속일: 2022.03.12.)
“서울시, 노량진에 청년일자리센터 2호점 개소”, 뉴스핌, 2019.4.23.,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423000510
(최종검색일: 2019.10.23.)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http://youthzone.kr/
(최종접속일: 2019.10.19.)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http://sygc.kr
(최종접속일: 2019.10.19.)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최종접속일: 2022.03.11.)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http://youthzonegr.com/
(최종접속일: 2019.10.19.)

시공사, 펠루카, http://sigongsa.com/
(최종접속일: 2022.03.21.)
청년허브, https://www.youthhub.kr/
(최종접속일: 2019.10.19.)
아웃캠퍼스, https://cafe.naver.com/outcampus
(최종접속일: 2020.06.16.)
옥스퍼드 영한사전, n.d., illness,
https://en.dict.naver.com/#/entry/enko/0b0d01fb935a4bd3a3f28b06f6d7ed9c
(최종접속일: 2022.03.10.)
올콘, https://www.all-con.co.kr/
(최종접속일: 2020.06.16.)
취업의 달인, https://cafe.naver.com/jobtong
(최종접속일: 2020.06.16.)
취업뽀개기, http://cafe.daum.net/breakjo
(최종접속일: 2020.06.16.)
통계청 홈페이지-일반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494&board_cd=INDX_001
(최종접속일: 2022.03.14.).
통계청 홈페이지-통계용어 및 지표,
http://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index.action?bmode=language&keyWord=0
(최종접속일: 2022.03.14.)
표준국어대사전, n.d., 여행, 청년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최종접속일: 2022.12.21.)
한국경제연구원(KERI), 2021, 청년실업률 1%p 상승시 잠재성장률 0.21%p↓,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6259
(최종접속일: 2022.03.12.)

Cambridge Dictionary, 2022, travel,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travel
(최종접속일: 2022.12.21.)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6th Edition © HarperCollins Publishers, 2009, therapy
https://english.dict.naver.com/english-dictionary/#/entry/enen/003d895b820540bc88daea225527950c
(최종접속일: 2022.12.21.)
DETIZEN, http://www.detizen.com/
(최종접속일: 2020.06.16.)
e-나라지표, 청년고용동향,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최종접속일: 2022.03.12.)
Linkareer, https://linkareer.com/
(최종접속일: 2020.06.16.)
Merriam-Webster's Learner's Dictionary, 2022, travel,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travel
(최종접속일: 2022.12.21.)
pmg 지식엔진연구소, n.d., 청년실업률,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583&cid=43667&categoryId=43667 (최종접속일: 2022.03.10.)
WHO, 1948, Constitu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https://www.who.int/governance/eb/who_constitution_en.pdf
(최종접속일: 2022.03.10.)

부록

<부록 1> 연구윤리 승인 문서

심의결과 통보서

수신

연구책임자	**이름:** 박항기	**소속:**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직위:** 박사과정
지원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정보

승인번호	IRB No. 2006/002-014		
연구과제명	상상 여행을 통한 치유: 서울시 취업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구종류	학술연구 , 학위 논문 연구 , 설문조사 , 행동실험연구 , 면담(FGI 포함)		
심의종류	신규		
심의일자	2020-06-05		
심의대상	설명문 및 동의서 또는 서면동의 면제사유서 , 연구결과정리양식 , 생명윤리준수서약서 , 모집문건 , 설문지(면담 질문지) , 연구비 수주용 연구계획서 , 연구책임자 경력사항		
심의결과	승인		
승인일자	2020-06-05	**승인유효기간**	2021-06-04
정기보고주기	12개월		
심의의견	1. 심의결과 제출하신 연구계획에 대해 승인합니다. 2. 연구자께서는 승인된 문서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연구진행 과정에서 계획상에 변경사항(연구자 변경, 연구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3. 유효기간 내 연구가 끝났을 경우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유효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2021-05-04까지 지속심의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	**계획서 검토의견**		
	동의서 검토의견		
	기타 검토의견		

2020년 06월 05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긍정·부정 감정(PANA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 아래에 적혀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귀하께서 느끼시고 행동하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흥미진진한	1	2	3	4	5
2. 과민한	1	2	3	4	5
3. 괴로운	1	2	3	4	5
4. 기민한(날쌔고 재빠른)	1	2	3	4	5
5. 흥분된	1	2	3	4	5
6. 부끄러운	1	2	3	4	5
7. 마음이 상한	1	2	3	4	5
8. 원기왕성한	1	2	3	4	5
9. 강한	1	2	3	4	5
10 신경질적인	1	2	3	4	5
11. 죄책감드는	1	2	3	4	5
12. 단호한	1	2	3	4	5
13. 겁에 질린	1	2	3	4	5
14. 주의깊은	1	2	3	4	5
15. 적대적인	1	2	3	4	5
16. 초조심나는	1	2	3	4	5
17. 열정적인	1	2	3	4	5
18. 활기찬	1	2	3	4	5
19. 자랑스러운	1	2	3	4	5
20. 두려운	1	2	3	4	5

기분상태척도(POMS-B: Profile of Mood States-Brief)

■ 다음 표에서 지난 **일주일간** 나의 기분 상태에 해당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V표시 하세요.

내용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긴장하다.	0	1	2	3	4
2. 화가 나다.	0	1	2	3	4
3. 기진맥진하다.	0	1	2	3	4
4. 생기 있다.	0	1	2	3	4
5. 혼란스럽다.	0	1	2	3	4
6. 불안정하다.	0	1	2	3	4
7. 슬프다.	0	1	2	3	4
8. 의욕적이다.	0	1	2	3	4
9. 시무룩하다.	0	1	2	3	4
10 생동감 있다.	0	1	2	3	4
11. 하찮다.	0	1	2	3	4
12. 불편하다.	0	1	2	3	4
13. 피로하다.	0	1	2	3	4
14. 성가시다.	0	1	2	3	4
15. 낙담하다.	0	1	2	3	4
16. 신경과민이다.	0	1	2	3	4
17. 외롭다.	0	1	2	3	4
18. 머리가 명하다.	0	1	2	3	4
19. 달진되다.	0	1	2	3	4
20. 불안하다.	0	1	2	3	4
21. 침울하다	0	1	2	3	4
22. 나태하다.	0	1	2	3	4
23. 고달프다.	0	1	2	3	4
24. 당혹스럽다.	0	1	2	3	4
25. 분노하다.	0	1	2	3	4
26. 능률적이다.	0	1	2	3	4
27. 원기왕성하다.	0	1	2	3	4
28. 기분이 언짢다.	0	1	2	3	4
29. 쉽게 깜빡 잊는다.	0	1	2	3	4
30. 힘이 솟는다.	0	1	2	3	4

Version 1.1(2020.6.5.)

통합적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 아래에 적혀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귀하께서 느끼시고 행동하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1주 동안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0	1	2	3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0	1	2	3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 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Version 1.1(2020.6.5.)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Korean Mental Health Continuum Sort Form: K-MHC-SF)

■ 다음 질문은 <u>지난 한 달 동안</u> 귀하께서 <u>얼마나 그렇게 느꼈는지</u>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문항에 대해서 귀하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거나 느꼈는지 0~5 사이의 숫자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없음	한번 혹은 두번	대략 1주에 한번	대략 1주에 2,3번	거의 매일	매일
1. 행복감을 느꼈다.	0	1	2	3	4	5
2. 삶에 흥미를 느꼈다.	0	1	2	3	4	5
3. 만족감을 느꼈다.	0	1	2	3	4	5
4. 나는 사회에 공헌할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5. 공동체(사회 집단이나 이웃 같은)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6. 우리 사회에 나와 가른 사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7.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느꼈다.	0	1	2	3	4	5
8.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이해할만하다고 느꼈다.	0	1	2	3	4	5
9.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0.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1.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2.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을 주는 경험들을 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3. 나만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생각하거나 표현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4. 내 삶이 방향감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Version 1.1(2020.6.5.)

Beck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숫자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0	1	2	3
2.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0	1	2	3
3.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0	1	2	3
4.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0	1	2	3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6.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0	1	2	3
7.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0	1	2	3
8. 침착하지 못한다.	0	1	2	3
9.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0	1	2	3
10. 신경이 과민 되어 있다.	0	1	2	3
11.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0	1	2	3
12. 자주 손이 떨린다.	0	1	2	3
13. 안절부절 못해 한다.	0	1	2	3
14.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15. 가끔씩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0	1	2	3
16.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17. 불안한 상태에 있다.	0	1	2	3
18.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0	1	2	3
19.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0	1	2	3
20.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0	1	2	3
21. 땀을 많이 흘린다(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0	1	2	3

Version 1.1(2020.6.5.)

IRB No. 2006/002-014 유효기간: 2021년 6월 4일

행복의 삼각형 척도

■ 다음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경험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숫자에 V표 해주십시오. 최근 **일주일** 동안의 경험에 근거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생활은 대체로 즐겁다	0	1	2	3	4
2. 요즘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이 잘 된다	0	1	2	3	4
3.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지니고 살아간다	0	1	2	3	4
4. 나의 삶은 전반적으로 편안하다	0	1	2	3	4
5. 내가 하는 활동에 의욕과 열정을 느끼고 있다	0	1	2	3	4
6. 나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0	1	2	3	4
7. 나의 일상생활에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	0	1	2	3	4
8. 나는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임하는 편이다	0	1	2	3	4
9. 요즘 내가 하는 일들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0	1	2	3	4
10.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대체로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0	1	2	3	4
11. 일에 몰두하여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0	1	2	3	4
12.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	0	1	2	3	4
13. 나는 요즘 대체로 기분이 좋은 편이다	0	1	2	3	4
14. 하는 일에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질 때가 종종 있다	0	1	2	3	4
1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0	1	2	3	4
16. 나는 요즘 괴로운 일이 별로 없다	0	1	2	3	4
17.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좋은 성과를 얻는다	0	1	2	3	4
18. 나는 훗날 가족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0	1	2	3	4
19.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0	1	2	3	4
20.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다	0	1	2	3	4
21. 주의 사람들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	0	1	2	3	4

Version 1.1(2020.6.5.)

IRB No. 2006/002-014 유효기간: 2021년 6월 4일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상상 여행*을 통한 치유: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구 책임자명

박향기(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사수료)

*상상 여행이란, 10분 정도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한 달 동안 돈 걱정 없이, 시간 걱정 없이 상상 속에서 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행을 말합니다. 이렇게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은 상상 속에서 여행을 한 이후에 그리기, 글쓰기 등으로 기록을 하고 심리측정 및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상상 속에서 여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느낄 수 있는지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모집대상

- 만 19-34세,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졸업 후, 미취업상태이며 취업 준비 중인 청년층
  실험군 및 대조군 60명

3. 참여 내용

- 실험군

1차조사(사전 · 사후검사 및 인터뷰+상상여행 참여)(2시간 정도 소요)(대면*)
2차조사(2주 후 검사 및 인터뷰)(30분소요)(비대면)
3차조사(2개월 후 검사 및 인터뷰)(30분소요) (비대면)

- 대조군

1차조사(사전 · 사후검사 및 인터뷰)(2시간 정도 소요) (대면*)
2차조사(2주 후 검사 및 인터뷰)(30분 소요) (비대면)
3차조사(2개월 후 검사 및 인터뷰)(30분 소요) (비대면)

(* covid-19의 장기화로 1차 조사는 zoom을 통한 비대면 면담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간

- 모집기간: 2020년 6월-9월 중순(일정 참가자 모집 시 순차적으로 연구 시작)
- 참여시기: 2020년 6월-12월 중 총 3회 참여

5. 참여 시 사례

- **총 사례비는 5만원입니다**(본 연구의 사례비는 참여에 비례합니다. 혹여나 연구를 참여하시다가 중단하실 경우, 부분적으로나마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1차조사에 참여시 2만원, 2차조사에 참여시 1만5천원, 3차조사에 참여시 1만5천원입니다).

6. 참여방법

구글시트 작성(https://forms.gle/5SZ5Uc3wqNV2Z34a7)(*작성해주신 신청서 검토 후 개인연락 예정)

7. 문의

자세한 사항은 박향기 연구원(phgl0520@snu.ac.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내용은 철저히 익명이 보장되며, 결과물은 연구책임자의 박사논문 및 학술지 논문 작성 시 활용됩니다.
- 귀하는 참여 도중에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중단하고 싶으시면, 어떠한 불이익 없이 그만 둘 수 있습니다.

Version 1.1(2020.6.5.)

반구조화 인터뷰 질문지(실험군)

1) 1차 조사: 사전 인터뷰

①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 2주 정도를 돌아보면,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 2주를 돌아봤을 때 행동, 이동 패턴은 어떤가요? 요새 2주를 돌아봤을 때, 기분이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②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을 한 가지씩 얘기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③ 경제적 상태는 어떠세요?

④ 가정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현재의 가족과 미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⑤ 우리 주변의 사회, 정치, 문화 등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세요.

⑥ 지금껏 말씀하신 것들 중 나를 둘러싼 가장 걱정될 만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2) 1차 조사: 사후 인터뷰

①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당신의 상상 여행기를 서술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행지의 경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때 느낌은 어떠했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② 위에서 말했던 상상 여행을 그림으로 그려주신 것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③ 기억에 남는 인물이나 행동, 대화가 있으신가요?

④ 상상 여행을 한 이후에 그동안 몰랐던 것을 깨달은 것들이 있나요?

⑤ 상상 여행을 하고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전의 느낌과 하고나서의 느낌이 다른가요?

⑥ 지금 이야기하신 것 이외에도 상상 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3) 2차 조사: 2주 후 인터뷰

① 상상 여행 이후, 일상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자신의 2주를 돌아보면서 하루패턴을 말씀해주세요.

② 상상 여행 때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된 부분이 간간이 생각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③ 상상 여행 이후, 상상 여행 이전과는 다르게 지냈던 생각이나 태도, 마음가짐이 있었나요?
④ 상상 여행 이후, 상상 여행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⑤ 그렇게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정말로 상상 여행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이유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⑥ 상상 여행을 하고나서 이후 힐링에 영향을 주는 것 같나요? 아님 그저 그렇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나요? 아님, 오히려 힐링에 악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4) 3차 조사: 2개월 후 인터뷰

① 상상 여행 이후, 일상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2개월동안 돌아보면서 하루패턴을 말씀해주세요.
② 2개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사소하거나 큰 변화나 사건들이 있었나요?
③ 상상 여행 이후, 상상 여행 이전과는 다르게 지냈던 생각이나 태도, 마음가짐이 있었나요?
④ 상상 여행 이후, 상상 여행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⑤ 그렇게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정말로 상상 여행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이유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⑥ 상상 여행을 하고나서 이후 힐링에 영향을 주는 것 같나요? 아님 그저 그렇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나요? 아님, 오히려 힐링에 악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반구조화 인터뷰 질문지(대조군)

1) 1차 조사: 사전 인터뷰

①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 2주 정도를 돌아보면,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 2주를 돌아봤을 때 행동, 이동 패턴은 어떤가요? 요새 2주를 돌아봤을 때, 기분이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②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을 한 가지씩 얘기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③ 경제적 상태는 어떠세요?
④ 가정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현재의 가족과 미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⑤ 우리 주변의 사회, 정치, 문화 등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세요.
⑥ 지금껏 말씀하신 것들 중 나를 둘러싼 가장 걱정될 만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2) 1차 조사: 사후 인터뷰

① 10여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② 10여분 동안 쉬고서 최종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전의 느낌과 하고 나서의 느낌이 다른가요?
③ 지금 이야기하신 것 이외에도 또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3) 2차 조사: 2주 후 인터뷰

① 1차 조사 이후, 일상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자신의 2주를 돌아보면서 하루 패턴을 말씀해주세요.
② 1차 조사 이후, 간간이 생각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③ 1차 조사 이후, 이전과는 다르게 지냈던 생각이나 태도, 마음가짐이 있었나요?
④ 1차 조사 이후,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⑤ 그렇게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정말로 1차 조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이유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⑥ 1차 조사를 하고나서 이후 힐링에 영향을 주는 것 같나요? 아님 그저 그렇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나요? 아님, 오히려 힐링에 악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4) 3차 조사: 2개월 후 인터뷰

① 1, 2차 조사 이후, 일상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2개월동안 돌아보면서 하루 패턴을 말씀해주세요.

② 2개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사소하거나 큰 변화나 사건들이 있었나요?

③ 1, 2차 조사 이후, 이전과는 다르게 지냈던 생각이나 태도, 마음가짐이 있었나요?

④ 1, 2차 이후,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⑤ 그렇게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정말로 1, 2차 조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이유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⑥ 1, 2차조사를 하고나서 이후 힐링에 영향을 주는 것 같나요? 아님 그저 그렇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나요? 아님, 오히려 힐링에 악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부록 2> 실험군 연구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

번호	가명	연령	성별	1차 조사(상상 여행)	2차 조사(2주 후)	3차 조사(8주 후)
1	민영	20대후반	여성	2020.6.19.	2020.7.6.	2020.8.18.
3	준서	20대후반	남성	2020.6.23.	2020.7.7.	2020.8.18.
7	지혜	20대후반	여성	2020.6.26.	2020.7.13.	2020.8.24.
8	효진	20대중반	여성	2020.6.29.	2020.7.13.	2020.8.24.
13	민희	20대중반	여성	2020.7.1.	2020.7.15.	2020.8.26.
15	효영	20대후반	여성	2020.7.2.	2020.7.16.	2020.8.27.
18	혜련	20대후반	여성	2020.7.3.	2020.7.17.	2020.8.31.
19	라희	30대초반	여성	2020.7.3.	2020.7.17.	2020.8.28.
20	소리	30대초반	여성	2020.7.6.	2020.7.20.	2020.9.5.
22	희은	30대중반	여성	2020.7.7.	2020.7.21.	2020.9.1.
23	하음	20대중반	여성	2020.7.8.	2020.7.22.	2020.9.2.
25	소민	20대후반	여성	2020.7.9.	2020.7.23.	2020.9.4.
26	도영	20대후반	여성	2020.7.10.	2020.7.24.	2020.9.7.
29	진주	20대초반	여성	2020.7.13.	2020.7.28.	2020.9.7.
30	채원	30대초반	여성	2020.7.15.	2020.7.28.	2020.9.9.
32	혜림	30대초반	여성	2020.7.20.	2020.8.3.	2020.9.14.
33	은서	20대후반	여성	2020.7.22.	2020.8.6.	2020.9.16.
38	은혜	20대후반	여성	2020.7.27.	2020.8.10.	2020.9.21.
40	가희	30대중반	여성	2020.8.6.	2020.8.20.	2020.10.5.
42	혜리	30대중반	여성	2020.8.10.	2020.8.24.	2020.10.6.
45	보영	20대후반	여성	2020.8.11.	2020.8.25.	2020.10.6.
49	소연	20대후반	여성	2020.8.14.	2020.8.28.	2020.10.9.
50	명수	30대초반	남성	2020.8.14.	2020.8.28.	2020.10.9.
53	엄지	30대중반	여성	2020.8.26.	2020.9.9.	2020.10.21.
56	유라	30대초반	여성	2020.9.3.	2020.9.17.	2020.10.29.

1) 인터뷰로 인한 실험결과 차이가 없게 하기 위해 1, 2, 3차 조사에서 인터뷰를 실험군, 대조군 연구참여자 전체에 동일하게 실시함.
2) 연구참여자 번호에서 대조군 참여자 명단은 빠져있음.
3) 제 5 장, 제 6 장 질적 분석은 25명의 실험군 내러티브가 모두 활용됨.
4) 제 7 장 질적 분석은 2주 후와 8주 후 지속적 치유감 형성 효과가 있었던 8명의 실험군 내러티브만 활용함(음영 표시된 참여자).

<부록 3> 실험군 사전인터뷰: 현실의 제한된 환경으로 인한 아픔(illness)

상상 여행을 떠나기 직전,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긍정, 부정, 기분상태, 우울, 웰빙, 불안, 행복에 관한 심리척도를 측정하는 설문을 답변하게 한 이후, 현재 연구참여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현재와 과거의 상황, 일상, 가족, 경제적 상황,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과 감정에 대해 사전 인터뷰를 30분가량 진행하였다.

이렇게 상상 여행 직전 인터뷰를 시행한 까닭은, 상상 여행을 하고 나서의 변화를 양적 분석 수치뿐 아니라, 질적 분석을 통해 사전-사후의 변화 양상을 자세히 비교 관찰하여, 상상 여행이 어떻게 치유감 형성에 작용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양상과 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사전 인터뷰에서 다소 취업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가족, 경제적 상황, 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느낌과 생각들을 물어본 이유는 연구참여자의 상상 여행 속에서 나오는 행위자나 내용들이 결국 참여자의 치유감 형성에 긴밀하게 상호연결되어 상상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며, 이를 건강지리학적으로 더욱 잘 해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사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상상 여행 이전 청년들의 상태는 현실의 제한된 환경과 지리에 둘러싸여 심리적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에게 심리적 아픔을 주고 있는 현실의 제한적 요소들은 취업의 높은 장벽, 실질적 재정 부족, 이들을 둘러싼 가족 상황 등이었다. 이러한 제한적 요소들은 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불안감, 무기력증, 초조함, 상처, 답답함 등의 아픔을 느끼도록 했으며, 이들이 영위하고 있는 공간, 장소, 이동, 네트워크와 같은 지리까지도 제한하여 또다시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현실 속 제한들과 그로 인해 느끼는 아픔을 차례대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 무기력증

> “잠시만요, 방금 떨어졌다는 소식이 또 문자로 왔네요...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뭐 어쨌든 이런 것도 익숙해져가고...”(지혜)

지혜는 사전인터뷰를 하는 도중, 아르바이트 불합격 문자를 통보받았다. 지혜는 2019년 12월 새롭게 자취방을 구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2020년 4월 즈음에는 회사에 다니고 있을 줄 알았고, 이렇게까지 탈락이 많이 될지 몰랐다. 인터뷰 당시인 2020년 6월이 되었을 때도 취업이 되지 못했던 지혜는 독립의 시기가 너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가 터질 줄 몰랐고, 취업은 물론 심지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월세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태라 ‘이제 대출을 받을 걸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혜의 사례와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에서 가장 큰 제한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취업, 즉 노동시장 진입 장벽의 높은 턱을 넘는 일이었다. “요새 2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라는 연구자의 첫 질문에서 전혀 취업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 불확실함이 생겼다고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각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졸업 이후 취업 기간이 길어졌거나(준서, 하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급함이 생기거나(지혜, 가희, 혜리, 소연, 유라), 전공-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은혜, 보영, 소연),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더욱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지혜, 효진, 채원, 유라), 그리고 이전 취업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쉽사리 취직되지 않는 환경(효진, 소리, 하음, 소민, 은서, 가희, 명수, 엄지) 등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취업 전선에 서 있는 그들에게 현실에서의 취업 장벽과 제한들이 일상 속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했다.

먼저, 취업준비청년층들은 심리적인 불안감과 더불어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불안”(효진, 소리, 혜림, 희은), “걱정됨, 불확실함”(민영), “긴장감”(도영)과 같은 감정들은 나아가, “자존감이 매우 떨어진 상태”(지혜), “자책감”(진주, 효진), “가장 큰 걱정은 그냥 저 자체”(소리)라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자신을 다그치는 모습(은서)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취업준비생이라면 연상되는 취업공고를 알아보고, 스터디를 하는 등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으며, “에너지가 없어서”(진주), “무기력해서”(명수), “공포”(소민)를 느껴서 무엇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보였다. 심지어 이러한 무기력증은 취업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회도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취업에 관련된 행동들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감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자 실제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는 청년들도 볼 수 있었다(지혜, 효영, 희은, 하음, 소민, 은서). 아래의 하음의 경우,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압박을 받은 상태,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 숨 쉬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볼 수 있었다. “먹고 있던 약을 먹다가, 그 비용도 부담이 되는”(은서) 상황이어서 약을 먹지 못한다거나, “병원은 아닌데, 그냥 청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담 같은 거”(희은)와 같이, 서울시 또는 청년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대안적으로 시도하는 모습들이 모이기도 했다. 본 연구 역시,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마음건강] 부분에 공지되었으며, 아래의 유라와 같이 심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청년들이 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

2) 재정적 부족으로 인한 초조함

서울시 취업 준비층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인 제한들이 이들을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로 또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로 작용했다.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이들을 힘들게 했던 요소들은 다양한 부분에 얽혀있었다. 먼저, 정부로부터 받는 청년 지원금의 수급이 끝나가면서 초조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 취업 준비 청년들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소민, 진주, 혜림, 소연, 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의 구직 청년층에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영)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지원금의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는 조금 여유롭고, 한숨 돌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지원 기간이 끝나가면서 재정적인 상황을 걱정하고 조급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취업준비청년층에게 경제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은 '부모님'이라는 존재였다. 이들에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경우, 반면 독립을 하지 않는 경우 모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먼저, 독립한 경우, "집값", "생활비", "통신비", "식비"(지혜, 준서, 은서) 등 고정적 지출은 계속되지만, 이에 관한 실질적 재정 수입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이 절실하게 걱정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기대고 싶어도 도움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청년들도 있었다.

반면,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들 역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하음, 가희, 명수, 혜림). 청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청년수당"(소민, 진주, 혜림, 소연, 은서), "구직 활동 지원금"(도영, 은혜)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찾아보려는 노력 이외에도, "아르바이트"(준서, 지혜, 은서, 소민, 도영, 소연, 혜리), "시간제", "임시직" "인턴"(준서), 또는, "모아놓은 돈"(하음), "비상금"(채원)을 쓰는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노력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지혜, 은혜, 명수, 혜리)나 "물가"(채원)의 상승과 같은 사회의 외부적인 상황들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악화시키기도 하였으며,

수입이 보장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제한들은 청년들의 심리적 초조함과 급박함을 고조시켰다. “이제 바닥이 드러날 것 같아서 긴장이 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급해졌구나.. 같은 것들이 좀 엄습”(민영)하는 감정을 느끼거나, 지출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은혜)와 같이 경제적 제한은 이들에게 급박함을 느끼게 했다. 나아가 이러한 급박함과 초조함은 자신이 “무능력”(지혜)하다거나 “무기력”(은서)하다고 느끼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부모님 및 가족과 연결되어, 이들에게 깊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사전 인터뷰에서 경제적 상태에 대한 질문에, 좋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으며,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은 가족, 부모님이라는 존재와 결합 되어 이들은 가족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부담이 배가 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심지어, 유라의 경우 부모님께서 돈을 벌라고 크게 부담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님, 또는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압박을 가하는 존재, 죄책감을 느끼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실질적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에 차라리, 경제적 도움을 안 받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혜림의 경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돈은 해결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주시니까...”라며 실질적 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3) 가족으로 인한 깊은 상처

위의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부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것은 가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더욱 심리적 부담과 초조함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살면서 좋았던 기억 한 가지와 좋지 않았던 기억 한 가지”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꼭 취업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좋지 않았던 기억의 대부분이 가족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족이 한 개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명제는 모든 인간사회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받은 상처가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심리적으로 왜곡되어 나타나게 되며, 그다음 부분에서 다룰 그들의 제한된 행동과 지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가족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가진 가족과 관련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는데, 가족 중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진 경우이다. 민영의 경우, “어머니께서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계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겪고 있었고, 라희의 경우, 5년 전 어머니가 암이셔서 직장을 다니면서 먼 곳을 오가며 병간호를 하느라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으며,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였다. 한편, 엄지의 경우, 조금은 먼 친척일 수도 있는 이모부가 “질환을 크게 2번 알고 나서, 지금은 장애를 입게 되신 상태” 가 되면서, 이모가 2주에 한 번 정도 친한 조카인 엄지에게 하소연을 하는 등 가족의 아픔에 조금은 간접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부모님이 이혼(준서, 진주, 은혜)을 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게 된 경우가 있었다. 진주의 경우,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화도 내지 않고, 갑자기 짐을 싸서 집에 나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때 되게 무서워서, 아빠가 엄마를 되게 직접 끌고 나갔던 기억이 그때 좀 그게 좀 안 좋은 기억이...

(중략)...부모님이 1, 2년 전에 이혼을 하셨거든요.” 하며 어린 시절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부모님과 본인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은서의 경우, “뭐 가족이랑 트러블이 많아서 나온 경우라서, 부모님이랑 갈등이 제일 크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것들 때문에...(중략)...엄마 아빠 각각이 트러블이 좀 심했어 가지고, 저와 동생이 그런 게 좀 힘들었었고”라고 밝히며, 원래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밝혔고, 혜리의 경우, “엄마가 너무 좀 엄해가지고, 때리기도 많이 때리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무서웠거든요. 오늘 또 뭐라고 하실까 이런 걱정도 항상 많이 있었고, 엄마가 집에 있는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처럼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무섭게 다가오는 청년도 있었다. 한편, 지혜는 일방적인 아버지의 화에 이해가 가지 않고, 상처가 된 경우다. 그녀는 가까운 존재일수록 그 상처가 오래간다고 언급하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언급하였다.

더불어, 부모님이 바라는 성과와 기대에 자식들이 부응하지 못했을 때 오는 부모님의 실망이 청년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경제적 부문을 넘어서 자식들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보이는 부모님들의 행동들이 청년들, 또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었다.

이러한 가족으로부터 얻은 갈등, 어려움은 청년들은 깊은 상처가 되었으며, 이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그들의 일상적 삶의 행태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민영, 라희와 같이 부모님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아프신 경우에는, 이들은 ‘어려움’, ‘불완전함’, ‘걱정’, 힘들었던‘ 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했다.

더불어, 부모님에 대해 무서운 감정,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이는, 진주와 같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혜리와 같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엄한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무서운 감정이 아직까지도 일생의 안 좋은 기억으로 꼽고 있었다.

나아가, 부모님 간 이혼, 갈등, 또는 가족과 그들의 관계들은,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인으로서 홀로 일어서기가 준비가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책임져야 해 부모님 자체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다가오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볼 수 있었다. 진주의 경우,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상황과 부양의 의무가 끝나 상태여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심지어 자신에 대한 어머님의 의지가 부담이 되는 상태에 처해있었다. 은혜의 경우도 부모님의 이혼으로 도움을 청하기가 난감한 상황이 되었고, 생활비를 부탁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부모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가 이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기 위해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은서의 경우, “부모님이랑 갈등”이 심해 “독기성”으로 외국 대학원을 도전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기도 했으며, 한국에 돌아와서도 부모님이 계신 강원도가 아닌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연의 경우, 현재에도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아버지-어머니-남동생, 그리고 소연이 여동생 2명을 데리고 있는 형태로 가족이 따로 살고 있으며, 미래의 가족 형태도 꼭 혈연으로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가족을 꾸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준서의 경우, 부모님의 이혼이 ‘비혼주의’로 살거나,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는 등의 사고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 제한된 지리로 인한 답답함

연구참여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취업의 어려움, 경제적 부족, 가족으로 인한 상처 등 여러 제한적 요소들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실 속 제한들은 이들이 영위하고 있는 공간, 장소, 이동, 네트워크와 같은 지리 또한 제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제한된 지리는 또다시 이들에게 아픔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실 속 청년들은 다양한 지리적 영역에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취업과 관련된 카페, 도서관, 그리고 이들이 보통 머무는 장소는 집과 아르바이트 장소 등 있었다.

특히, 이들은 “자소서”, “구직활동”, “취업 준비”, “시험”, “공부” 등을 위한 공간은 카페나 도서관으로 제한 되어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민영, 지혜, 채원. 보영, 혜리, 도영). 여기서, 특히, 카페라는 공간은 “생활비도 아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페에서 가서 자소서를 쓰거나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민영) 하는 경제적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취업준비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드러났다. 카페는 “24시간 카페”(지혜), “30분 내외로 걸리는 동네 카페”(채원), “동네 스터티 카페”(보영) 등 비교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네나 근린 거리에서 가까운 곳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커피 한잔의 비용을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 역시, 이들이 머무는 대표적인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희은, 효영, 은서, 혜리, 소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장소는 마트, 카페, 방문과외, 미술 학원, 영어 학원 등 다양한 장소가 있었으며,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청년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스케줄 중심이 아닌, 아르바이트 업무 시간을 맞추어 생활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이들 하루의 대부분을 머무는 장소는 집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리, 진주, 채원, 은혜, 혜림, 유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집이라는 장소는 다소 반강제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었다. 이들이 집에 있게 하는 외부적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었다(소리, 진주, 희은, 은혜). 더군다나 “학원을 다닌다 해도 온라인 수강”(진주)이고, “공부도 온라인으로 할 때는 하루종일 집에 있을 때도 있고”(희은), “온라인 배달”(은혜)도 되기 때문에 이들은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다.

또한, 경제적 요건이 이들의 이동의 멈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나가면 마스크 써야되고, 마스크도 비싸고 한데, 여러모로”(은혜) 마스크를 낼 비용조차 부담이 되어 잠깐의 외출도 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가족과 함께 사는 채원의 경우, 독립에 대한 열망이 크지만, 아직 스스로 자신이 살아갈 장소를 구축해나갈 경제적 역량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자구요, 언니랑 같은 방을 써요. 그래서 한 아침 여덟 시쯤 한번 시끄러워서 항상 매일 잠을 깨고, 그다음에 11시까지 자는 거 같아요...(중략)...제가 아직 독립을 안 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독립에 대한 열망도 커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채원)를 받고 있으나, 장기적 주거 이동을 할 경제적 역량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이들이 받고 있었던 이동의 제한은 단순히 집 밖을 나서는 것이 제한되는 것을 넘어 이들의 휴가나 여행과 같은 이동 역시 제한되고 있었다(은서, 유라). 은서의 경우, “지난주에 휴가철이라서 갔다 오려고도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마음을 접었으며, “그냥 잘 안 나가고 요즘 들어서 그냥 집에서 쉬고 뭐 영화 보거나 필요한 것만” 하는 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라의 경우,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이제 제가 언제 다시 미국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가기도 힘들 거고, 일단 집에 있으니까 되게 답답하고, 사람이 우울해지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오래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여행의 욕구가 있으나 어디에든 가지 못하는 현실의 제한을 토로하였다.

한편, 이들의 작은 움직임들, 운동, 이동패턴들은 동네 근린 범위에서 이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혜림, 명수, 희은). “운동을 거창한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집근처 공원 나가서 산책하거나”(혜림), “조깅하러

가기도 하는데, 앞에 있는 공원이랑 한 십분을 걸어서 가요.”(희은), “헬스장 갈 때 도보로 25분, 20분 정도 왕복은 40분 정도 되겠네요. 40분에서 45분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말고는 특별히 없어요”(명수)와 같이, 최대한 가깝고 동네 근린 범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머무름에 벗어나 장소의 변화를 주고, 이동을 시도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소리, 효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집과 가까운 근린 범위에서 움직이기는 하나, 변화를 주기 위해 조금은 먼 곳으로, 또는 가까운 곳으로 움직이더라도 평소 이동패턴에 변형을 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영위하고 있는 지리적 영역의 특수한 점은 이들이 청년 또는 취업과 관련한 네트워크에 상당수 많은 부분이 엉켜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평소 일상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관계가 아닌 청년 또는 취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젊은이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이 시기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특수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이들에게 또 다른 지리적 영역을 선사하고 있었다. “청년 프로그램 모임”(라희), “청년 수당 프로그램”(혜림, 유라) “동네 소모임”(혜림), “온라인 모임”(은서), “팀플레이”(엄지), “청년 의회”(혜련), “청년 모임”(준서) 등 국가, 서울시, 구청 등의 단체에서 지원하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이나 “29세 모임”(지혜), “스터디”(효진) 등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자발적인 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소속이 없는 취업준비청년층에게 이와 같은 비슷한 또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이들에게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관계보다 더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취업 준비 청년층이 영위하고 있는 공간, 장소, 이동, 네트워크 등의 지리는 다소 제한되어있어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었다.

취업 준비 청년층에게 카페 또는 집이라는 이들의 일상적 공간과 장소는 이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생활패턴과 연관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밤낮이 뒤바뀐 생활패턴을 많이 하는 청년들을 볼 수 있었다(지혜, 진주, 은혜). 지혜의 경우, “24시간 카페를 많이 가요. 그래서 잠은 거의 빠르면 새벽 세시? 늦으면 아침 여섯 시, 완전 바뀐거죠. 건강 때문에

패턴을 다시 바꿀까도 했는데, 잘 안 바뀌어져서 그냥 이렇게 자요"라고 밝히며, 건강하지 않은 패턴인 줄 앎에도 불구하고, 밤낮이 바뀌어버린 생활을 반복하며 '24시간 카페'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은혜 역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깨어있는 새벽 시간조차도 무엇인가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취업 준비 청년층에게 집이라는 장소는 다소 무의미한 감정과도 연관되어있었다.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라에게 집이라는 장소는 "그냥 일어나서 아침, 점심을 먹고 그냥 되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장소였으며, 희은 역시, 아르바이트, 또는 다른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닐 때는 좀 무의미하게 TV나 뭐 넷플릭스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다.

한편, 아예 마음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건강에 따라 장소선택이 이루어지거나, 취업 준비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 머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하음과 같은 경우, 취업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으로 비롯된 소화불량 증세로 인해 '시장', '슈퍼'와 같은 공간에 머물러 직접 요리를 만드는 데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소민은 '졸린 약'을 먹고, 늦게 일어나며 보통 자신의 '집'에서 핸드폰, 게임, 책을 읽는 활동을 하였으며, 또는 함께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는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취업 준비 청년층의 이동은 과거 글로벌하고 화려했던 폭넓은 이동과 반대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이동의 대비는 취업 준비 청년층에게 답답함과 우울한 상태를 느끼게 하거나 다른 사람도 아닌 과거의 자신 스스로가 비교 대상이 되었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지게 만들었다. 효진에 의하면, 과거 '미국', '캐나다', '북유럽' 등 스케일이 넓은 여행 및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며, 이렇게 좋았던 이동의 기억이 현재 '서울'이라는 공간 내 취업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하기 위해 타는 지하철 '2호선'을 통해 '강남역이나 신도림역'으로의 이동과 매우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과거의 자신에게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라 역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은 코로나로 쉽게 어딜 가지 못하며 집안에만 있는 현실에 답답하고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해법으로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 실린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취업 준비 청년층이 머무는 '집'과 같은 공간과 장소, 또는 현재의 이동과 과거의 화려한 이동과의 대비와 같은 지리들은 이들의 부정적 감정들과 연계되었다. 한편, 취업 준비 청년층에게 취업 및 청년과 관련된 느슨한 관계(weak ties)(Granovetter, 1973)의 네트워크들은 이들에게 위로, 공감, 칭찬 등 긍정적 감정을 떠올리게 했으나(라희, 지혜, 혜림, 효진), 가족, 친구같은 긴밀한 사이의 관계(strong ties)(Granovetter, 1973)는 다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했다(채원, 지혜, 은서, 소연).

라희는 "청년프로그램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게 발표 잘 한다고 칭찬해주셔서"라고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잠시 몸 담고 있는 청년프로그램 모임이 활력을 부어주는 존재임이 드러났다. 지혜의 경우, '혼란'스러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29세 모임'에 참여하여 '일부로라도 자꾸 이런 시간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PD를 준비하고 있는 효진의 경우, 자신의 비슷한 처지를 공유하는 '스터디'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었으며, 노숙인 분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에너지를 얻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청년 프로그램 모임', '29세모임', '스터디', '봉사' 활동 등의 느슨한 네트워크에 속하는 일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활기를 부여하는 일이며, 이들에게는 이전까지 익숙했던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새로운 관계성의 장소가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동안 이들이 익숙했던 강한 연결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지혜의 경우, 그동안 만나오던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즈음 친구들이랑 약속 많이 자제하거든요. 이제 마음도 불안하니까, 지금은 뭔가 놀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되다 보니까"라고

언급하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의 그동안 만나오던 친구들과의 만남은 일종의 “놀이”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므로 만남을 자제하고 있었다. 이는 위에서 내일 “29세 모임”에 나간다는 지혜의 모습과 상반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소연의 경우에는 오히려 밀접한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연결의 관계인 친구를 더욱 중요시했다. “가족이라는 게 꼭 이렇게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딸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친구끼리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그런 것까지도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닌 친구들과의 공동체를 이루는 형태로 미래의 가족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냐면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저희 가족이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혈연 가족이 아닌, 그게 더 가족으로 느끼면 더 끈끈하게 느끼게 되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더 해지된다는 얘기가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라고 말하며 원래부터도 가족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가족보다는 더욱 느슨한 형태인 친구들과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더욱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원의 경우 역시, 가족과의 관계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채원은 “보통 새벽 세 시에서 네 시 사이에 자구요, 언니랑 같은 방을 써요. 그래서 한 아침 여덟 시쯤 한번 시끄러워서 항상 매일 잠을 깨고, 그다음에 11시까지 자는 거 같아요.”라고 밝히며 언니와 하나의 방을 쓰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제가 아직 독립을 안 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독립에 대한 열망도 커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제가 이렇게 많이 쉬면은 제 커리어에 안 좋을 거 같아서 그런 불안감이 조금씩 생겼고”라고 얘기하며, 가족과의 네트워크가 있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Abstract

Forming a sense of healing by imaginary mobilities: A case study on imaginary travels of young unemployed people in Seoul

Hyanggi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s key question is whether and how imaginary mobilities can be conducive to forming a sense of healing.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mobility and health in health geography, there has been less attention to mobility in the non-physical imaginary realm and its effects on health. This study conceptualised imaginary mobilities to answer the key question and bridge the gap in research. Imaginary mobilities refer to mobilities moving from A to B in imagination intentionally accessed by active imagination. It can be categorised into three types of mobilities, namely, into, in, and from imagination. To verify the question, 'Imaginary Travels' as a type of imaginary mobility was designed and 50 young unemployed people living in Seoul, were examined (experimental group: n = 25; control group: n = 25). The research design aimed to demonstrate the immediate and long-term therapeutic effects of Imaginary Travels as imaginary mobility using three psychological questionnaires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Furthermore, the qualitative analysis was applied to map the immediate and long-term therapeutic effects of Imaginary Travels as imaginary mobility using data derived from

interviews and diary entries. The qualitative analysis figured out how each of the three types of mobilities (i.e. mobilities into imagination, in imagination, and from imagination) entailed in imaginary mobilities acts on forming a sense of heal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quantitative statistical analysis found that imaginary mobilities are conducive to forming a sense of healing.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eff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contrast to the control group. In the short term (i.e. immediately after the experiment), Imaginary Travels among the experimental group revealed significant results in all three questionnaires as opposed to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s long term (i.e. two weeks after the experiment) effects showed significant decreases in the PANAS-negative score.

Second, the qualitative analysis examined that imaginary mobilities were conducive to forming a sense of healing by immersing, exploring, and practising inner geographies. The inner geographies had a spatial structure where elements of mobilities (i.e. the forms of mobility, social relationship, and stillness) were planted in which participants' desires were represented.

Mobilities into imagination as the first stage of imaginary mobilities allowed participants to move from the real to the inner geographies. The mobilities formed a sense of healing by temporarily disconnecting from the worries and constraints in reality and leading them to immerse themselves in the inner geographies without limitations. The mobilities into imagination created a sense of freedom and relief because participants could pull themselves out of reality. Also, the mobilities have become the basis for the subsequent imaginary mobilities stages.

Moreover, mobilities in imagination helped participants draw the trajectory of mobilities on the inner geographies and explore the elements of

mobilities (i.e. forms of mobility, social relationship, and stillness) planted in them. These elements of mobilities were interconnected to each other and realised the participants' desires that they had not known so far, which acted on creating a sense of healing. The space of inner geographies could not work alone to form a sense of healing, but the mobilities in imagination could act on forming a sense of healing by exploring the inner geographical space.

Lastly, mobilities from imagination acted therapeutically when practising the trajectory of mobilities drawn in the unrestricted inner geographies feasibly even in the constrained real geographies. Eight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ho continued to have a sense of healing two weeks and eight weeks after the end of the Imaginary Travels transformed their existing perspective through the Imaginary Travels, which led to practising mobilities differently in real life. Even in the limited reality, they reconstructed and practised in a way as feasible as possible, which obtained a continuous sense of healing even after the Imaginary Travels.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mobilities and their associated sense of healing in the imaginary realm beyond the physical realm. This conclusion is expected to form a fundamental strength facilitating individuals and society to endure challenging times, when physical mobility is extremely restricted such as pandemics, wars, and natural disasters, through geography using basic imagination given to humans.

keywords: imaginary mobilities, imaginary travels, sense of healing, mobilities, active imagination, young unemployed people

***Student Number*: 2017-33085**